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박종서

이지혜·정희선·이소영·장인수·최선영·이혜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해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4-45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62-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45>

발|간|사

한 사회의 거시적인 인구 변동은 미시적인 개인의 행위 선택의 결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인구 변동은 국가 수준의 집계된 통계로 표현되지만 그 기본은 개인의 행위 선택의 결과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스스로 결혼할 것인지,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지 선택하여 행동하면, 그 결과가 집계된 인구 통계로 국가 수준에서 확인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시적인 인구 변동이 개인의 행위 선택의 결과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위 선택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인구 변동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였고, 고령화 수준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오래된 현상이지만, 한동안 완화되는가 싶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의 양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개인의 인구 행동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에서 인구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대표적인 조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 출연금으로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1982년에 처음으로 통계청이 국가지정통계로 승인하였다. 그 역사적 뿌리는 무려 1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사의 목적과 내용 등 많은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700개 표본 조사구에서 10,500

가구를 대상으로 19~49세 성인 남녀와 그의 배우자를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동거와 결혼에 관한 사항, 임신과 출산에 관한 사항, 산전후 관리 등의 건강에 관한 사항,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부모와의 관계, 독립과정과 지역이동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가치와 인식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다.

수집된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인구 변동의 미시적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조사 자료는 결혼, 출산, 지역 이동,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행위 선택의 과정을 이해하고, 어떤 선택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비롯하여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일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 사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종서 연구위원과 6명의 원내 연구자가 참여한 공동의 연구 성과이다. 연구 진행 과정에 자문 해준 원내 김문길 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김근태 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현장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데이터조사관리팀이 주관하였고, 총 90여명의 조사원이 실사에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린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수행해준 조사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 결과는 연구진이 기획한 조사표에 따라 수집 분석된 결과이며 기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혜규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3절 2024년도 조사의 특징	19
제2장 표본 설계와 가중치	23
제1절 표본 설계	25
제2절 가중치	39
제3장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 특성	41
제1절 응답자의 일반 특성	43
제2절 응답 가구의 경제 상황	45
제3절 응답 가구의 주거 상황	53
제4장 동거와 결혼	67
제1절 배우자 또는 교제상대 유무와 만남의 방식	70
제2절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77
제3절 결혼 의향에 따른 특성 분석	94
제4절 이혼 특성	120

제5장 임신과 출산 건강	127
제1절 생식 건강	129
제2절 임신·출산 이력과 자녀 계획	153
제3절 산전·산후 관리와 분만	173
제4절 수유	191
제6장 자녀 양육	199
제1절 자녀 돌봄과 양육 관련 감정	201
제2절 부부의 육아 분담	216
제3절 자녀 양육 비용과 정부 지원	221
제4절 부부의 가사 분담	240
제7장 일과 일·생활 균형	245
제1절 응답자 경제활동 특성	247
제2절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254
제3절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 경험	256
제8장 부모와의 관계	265
제1절 부모와의 친밀도	267
제2절 부모와 경제적 교환 관계	271



제9장 독립과 지역 이동	279
제1절 독립의 특성	281
제2절 지역 이동	298
제10장 가치와 인식	305
제1절 행복	307
제2절 가족 가치	309
제3절 성 역할 가치	321
제4절 사회적 가치	327
제11장 결론	337
제1절 요약	33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48
참고문헌	351
부록	353
[부록 1]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조사표	353
[부록 2]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조사원 명단	388
Abstract	391

표 목차

〈표 1-1〉 출생 주요 지표, 2000~2022년	10
〈표 1-2〉 여자 초혼 연령 및 누적혼인율(만 39세까지), 2000~2022년	11
〈표 1-3〉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 내용	15
〈표 1-4〉 2024년 조사와 2021년도 조사 문항의 주요 차이점	21
〈표 2-1〉 2024년 조사 표본 조사구 결과	26
〈표 2-2〉 2021년과 2024년 조사의 RSE값	27
〈표 2-3〉 2021년 조사와 2024년 조사 가구소득 RSE	28
〈표 2-4〉 지역별 가구 분포	30
〈표 2-5〉 지역별 조사구 분포	31
〈표 2-6〉 지역별 19~49세 인구가 포함된 가구 분포	32
〈표 2-7〉 2022년 인구총조사의 지역별 19~49세 인구 분포	33
〈표 2-8〉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17개 시도별 조사구 배분방법별 RSE 목표 정도 비교 ·	35
〈표 2-9〉 2024년 조사 예정 목표 정도- 월평균 가구소득의 RSE 비교	36
〈표 2-10〉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 최종 시도별 층별 표본 배정 결과	37
〈표 3-1〉 응답자(19~49세)의 일반 특성	44
〈표 3-2〉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소득	46
〈표 3-3〉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지출	48
〈표 3-4〉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자산	50
〈표 3-5〉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가구부채	52
〈표 3-6〉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 유형	54
〈표 3-7〉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56
〈표 3-8〉 대표응답자 특성별 타 주택 소유 여부	57
〈표 3-9〉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임대주택 여부	58
〈표 3-10〉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시가: 자가의 경우	60
〈표 3-11〉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임대보증금	62
〈표 3-12〉 대표응답자 특성별 월세 또는 사글세 금액	64
〈표 3-13〉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대출 여부	65



〈표 4-1〉 현재 배우자 또는 교제상대 유무	71
〈표 4-2〉 교제상대 있는 경우의 교제 계기	74
〈표 4-3〉 교제상대 없는 경우의 교제 의향	76
〈표 4-4〉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인신고 여부	78
〈표 4-5〉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	79
〈표 4-6〉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 계획 의향	80
〈표 4-7〉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하지 않아서 겪는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81
〈표 4-8〉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이 있는 경우, 결혼식 여부	82
〈표 4-9〉 현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에 대한 의견	84
〈표 4-10〉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종합): 많이 고려+매우 많이 고려	85
〈표 4-11〉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 사랑(연애)의 실현 또는 완성	86
〈표 4-12〉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	88
〈표 4-13〉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 인생의 동반자관계 구축	89
〈표 4-14〉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 가족·사회의 기대 충족, 지위의 인정	91
〈표 4-15〉 배우자와 결혼생활 만족도	93
〈표 4-16〉 교제상대와의 결혼 의향	95
〈표 4-17〉 교제상대와의 3년 내 결혼 의향	97
〈표 4-18〉 교제상대와의 3년 내 결혼의향 없는 이유	99
〈표 4-19〉 향후 결혼의향	101
〈표 4-20〉 결혼(재혼) 의사가 있는 조사 대상자의 결혼 희망 연령	102
〈표 4-21〉 결혼생각이 없는 이유	104
〈표 4-22〉 비혼자의 비혼동거 의향	105
〈표 4-23〉 동거의향 있는 경우 동거에 대한 가치관	107
〈표 4-24〉 (결혼의향 있는 비혼자)결혼가치 항목에 대한 예상 고려정도: 사랑(연애)의 실현 또는 완성	110
〈표 4-25〉 (결혼의향 있는 비혼자)결혼가치 항목에 대한 예상 고려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	111

〈표 4-26〉 (결혼의향 있는 비혼자)결혼가치 항목에 대한 예상 고려정도: 인생의 동반자관계 구축	112
〈표 4-27〉 (결혼의향 있는 비혼자)결혼가치 항목에 대한 예상 고려정도: 가족·사회의 기대 충족, 지위의 인정	113
〈표 4-28〉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정부지원 혜택에서의 제외	115
〈표 4-29〉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금융·일상생활 서비스 혜택 제한	116
〈표 4-30〉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가족 및 친족 관계에서의 위축	117
〈표 4-31〉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지역, 직장, 사고 모임에서의 부정적 시선 ..	118
〈표 4-32〉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자녀를 갖기 위한 의학적 시술이나 지원 등에서의 차별	119
〈표 4-33〉 첫 번째 결혼 종료 형태	120
〈표 4-34〉 이혼의 주된 이유(첫번째 이혼)	121
〈표 4-35〉 이혼 당시 해당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 유무(첫번째 이혼)	123
〈표 4-36〉 첫 번째 이혼 당시 본인이 양육한 미성년 자녀의 수	124
〈표 5-1〉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 경험 유무	131
〈표 5-2〉 최근 1년간 경험한 생식계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중복응답)	133
〈표 5-3〉 피임에 대한 지식	135
〈표 5-4〉 피임 지식 획득 경로(중복응답)	136
〈표 5-5〉 현재의 피임 실천	138
〈표 5-6〉 피임방법(중복응답)	140
〈표 5-7〉 피임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	142
〈표 5-8〉 최근 경험에서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 결정 주체	144
〈표 5-9〉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의 난임 경험 비율	146
〈표 5-10〉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검사 경험 여부	148
〈표 5-11〉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의 난임시술 경험	149
〈표 5-12〉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의 경험한 난임시술(복수응답)	151
〈표 5-13〉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의 난임시술 경험자의 난임시술 시 가장 힘들었던 점 ..	151



〈표 5-14〉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가장 최근의 난임 시술 결과	152
〈표 5-15〉 임신 횟수(19~49세 여성)	153
〈표 5-16〉 임신 방법(19~49세 여성)	154
〈표 5-17〉 임신 당시 합병증 유무(19~49세 여성)	154
〈표 5-18〉 임신 결과(19~49세 여성)	156
〈표 5-19〉 출생아 수(19~49세 여성)	158
〈표 5-20〉 과거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계획 자녀수	161
〈표 5-21〉 과거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출산 결정에 있어서 의견 반영	163
〈표 5-22〉 과거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출산 시기 결정에 있어서 의견 반영	164
〈표 5-23〉 과거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 수 결정에 있어서 의견 반영	165
〈표 5-24〉 현재 유배우자의 향후 출산 계획과 자녀수	167
〈표 5-25〉 현재 무배우자의 향후 출산 계획과 자녀수	168
〈표 5-26〉 출산계획이 있는 사람이 향후 임신을 위하여 난자(정자)를 냉동할 의향	170
〈표 5-27〉 출산계획이 있는 사람이 제3자의 생식세포(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을 의향 ..	171
〈표 5-28〉 향후 입양 의향	172
〈표 5-29〉 기혼여성(19~49세)의 산전관리 장소(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74
〈표 5-30〉 기혼여성(19~49세)의 초진시기(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76
〈표 5-31〉 기혼여성(19~49세)의 산전진찰 횟수(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78
〈표 5-32〉 기혼여성(19~49세)의 분만장소(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79
〈표 5-33〉 기혼여성(19~49세)의 분만방법(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81
〈표 5-34〉 기혼여성(19~49세)의 산후 수진 경험(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83
〈표 5-35〉 기혼여성(19~49세)의 산후 수진 시기(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84
〈표 5-36〉 기혼여성(19~49세)의 산후조리 장소(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중복응답) ..	186
〈표 5-37〉 기혼여성(19~49세)의 분만 이후 1년 내 산후우울감 경험 여부 (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88
〈표 5-38〉 기혼여성(19~49세)의 산후우울감 경험 후 진단 검사나 상담을 받아본 경험 (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89

〈표 5-39〉 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을 받은 기혼여성(19~49세)의 진단 혹은 상담 장소 (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91
〈표 5-40〉 기혼여성(19~49세)의 모유수유 경험 여부(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92
〈표 5-41〉 기혼여성(19~49세)의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 경험 여부 (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193
〈표 5-42〉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의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및 실제 중단 시기	195
〈표 5-43〉 기혼여성(19~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 (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중복응답)	197
〈표 6-1〉 미취학 막내자녀 연령별 희망 돌봄(1순위)	203
〈표 6-2〉 가구 특성별 미취학 막내자녀 희망 돌봄(1순위)	204
〈표 6-3〉 미취학 막내자녀 연령별 실제 돌봄(1순위)	205
〈표 6-4〉 가구 특성별 미취학 막내자녀 실제 돌봄(1순위)	207
〈표 6-5〉 초등학교 막내자녀 학년별 방과후 희망 돌봄(1순위)	209
〈표 6-6〉 가구 특성별 초등학교 막내자녀 방과후 희망 돌봄(1순위)	210
〈표 6-7〉 초등학교 막내자녀 학년별 방과후 실제 돌봄(1순위)	212
〈표 6-8〉 가구 특성별 초등학교 막내자녀 방과후 실제 돌봄(1순위)	213
〈표 6-9〉 자녀 양육 관련 감정(척도의 평균 점수)	215
〈표 6-10〉 평일 및 주말 육아 시간	218
〈표 6-11〉 육아 분담 비율(개인의 범주별 분담 비율 평균)	219
〈표 6-12〉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 만족도	220
〈표 6-13〉 자녀 부양 책임져야 하는 시기	223
〈표 6-14〉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	225
〈표 6-15〉 항목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226
〈표 6-16〉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	227
〈표 6-17〉 미취학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229
〈표 6-18〉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미취학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 (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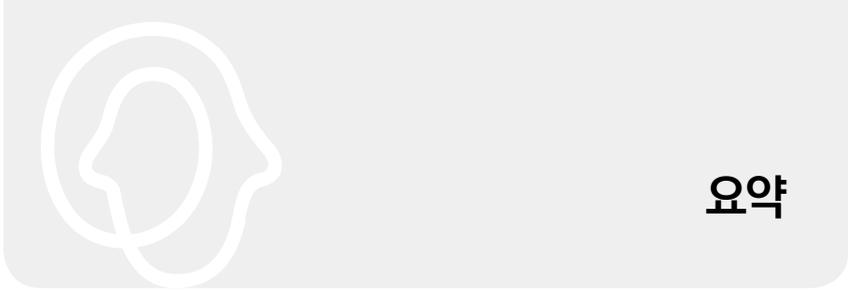
〈표 6-19〉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231
〈표 6-20〉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 (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232
〈표 6-21〉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233
〈표 6-22〉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 (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234
〈표 6-23〉 성인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236
〈표 6-24〉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성인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 (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237
〈표 6-25〉 자녀 1인당 월평균 정부 지원 금액	239
〈표 6-26〉 평일 및 주말 가사 시간	241
〈표 6-27〉 가사분담비율(개인의 범주별 분담비율 평균)	242
〈표 6-28〉 배우자와의 가사 분담 만족도	243
〈표 7-1〉 응답자(19~49세)의 취업여부(전체)	248
〈표 7-2〉 응답자(19~49세)의 취업여부(미혼, 기혼)	249
〈표 7-3〉 응답자(19~49세)의 주당근로시간	250
〈표 7-4〉 응답자(19~49세)의 직장유형	251
〈표 7-5〉 응답자(19~49세)의 종사상 지위	252
〈표 7-6〉 응답자(19~49세)의 정규직 여부	253
〈표 7-7〉 응답자(19~49세)의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	255
〈표 7-8〉 어머니(19~49세) 특성별 출산전후휴가 이용 비율	257
〈표 7-9〉 어머니(19~49세) 특성별 육아휴직 이용 비율	259
〈표 7-10〉 어머니(19~49세) 특성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연속 이용 비율	261
〈표 7-11〉 어머니(19~49세) 특성별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비율 및 기간	263
〈표 8-1〉 부모와의 동거여부	268
〈표 8-2〉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연락 빈도	270
〈표 8-3〉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드리는지의 여부와 월평균 금액	272

〈표 8-4〉 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드리는지의 여부와 월평균 (환산)금액	274
〈표 8-5〉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월평균 금액	276
〈표 8-6〉 부모로부터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월평균 (환산)금액	277
〈표 9-1〉 만 15세 무렵 부모와의 동거 여부	283
〈표 9-2〉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부모와의 분거 경험과 처음 분거한 연령	284
〈표 9-3〉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한 이유	286
〈표 9-4〉 부모로부터 독립한 정도	288
〈표 9-5〉 부모로부터 독립한 시기	290
〈표 9-6〉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 시 주거 비용	292
〈표 9-7〉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 시 주거비 부담 비율	294
〈표 9-8〉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 시 생활비 부담 비율	295
〈표 9-9〉 신혼집 주거 비용	296
〈표 9-10〉 신혼집 주거비 부담 비율	297
〈표 9-11〉 주요 생애주기 사건의 지역 이동	298
〈표 9-12〉 대학(교) 입학 시기의 지역 이동	300
〈표 9-13〉 첫 번째 취업(주된 일자리) 시기의 지역 이동	301
〈표 9-14〉 첫 결혼 시기의 지역 이동	303
〈표 10-1〉 현재와 5년 후의 본인 행복도 인식	308
〈표 10-2〉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310
〈표 10-3〉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	312
〈표 10-4〉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314
〈표 10-5〉 출산 결정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316
〈표 10-6〉 이상자녀수(19~49세)	318
〈표 10-7〉 자녀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	320
〈표 10-8〉 성역할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	322
〈표 10-9〉 부부 역할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	324
〈표 10-10〉 이상적인 부부 간의 역할 부담	326



〈표 10-11〉 사회 신뢰와 안전에 대한 인식	328
〈표 10-12〉 현재와 5년 후의 국민 행복 수준에 대한 인식	330
〈표 10-13〉 성평등 수준 인식	332
〈표 10-14〉 10년 후 자신의 미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334
〈표 10-15〉 우리 사회에 대한 미래 전망 인식 동의 비율	336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전국 700개 표본 조사구에서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10,500가구를 방문 조사하였다. 최종 조사 완료된 10,387가구에서 15~49세 응답자는 14,372명이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가구 일반사항, 동거와 결혼, 임신·출산·건강, 산전·산후 관리, 자녀 양육, 일, 부모와의 관계, 독립과 지역 이동, 가치와 인식의 아홉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형성 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비해 결혼의향이 있는 비혼자의 비율은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그런데 미래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는 사람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과 달리 사랑보다는 동반자 관계의 형성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결혼연령은 30대 초반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결혼의향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결혼시기가 30대에 고착된다면 실제 결혼율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1년과 비교하여 사실혼이나 비혼동거가 늘어난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사회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유연한 파트너십으로서 비혼 동거를 고려할 수 있는 허용성은 넓어졌지만, 실제로 그러한 파트너십을 실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응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출산 영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혼 및 사실혼인 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16.8%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35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 난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49세 여성의 임신 결과는 2021년에 비하여 출생의 평균 횟수 0.03회, 총임신 횟수 평균 0.14회 감소한 반면, 평균 임신 유지율은 약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60% 미만 집단의 평균임신유지율이 유일하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인공임신중지 평균 횟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19~49세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21년의 1.03명에 비하여 0.18명 감소하였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 중위소득 60-80% 미만인 저소득 계층의 평균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9~49세 응답자의 향후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하여 출산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계획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 관리와 관련하여, 초진 시기는 평균 임신 5.6주로, 대부분(95.7%)이 임신 8주 이전에 초진을 받았다. 평균 산전 관리 횟수는 13.2회이고, 98.9%의 출산모가 6회 이상 받아 대체로 산전 관리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산후 수진율은 96.9%로 높은 수준이나, 산전 진찰의 수진율이 100%인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산후우울감의 경험률은 28.4%로 높지 않았으나, 출산 시 연령이 19~24세인 산모의 58.0%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산후우울 관련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실시한 비율은 4.4%로 매우 낮다는 점,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6개월에 4.6%로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더 적극적인 모유수유 향상을 위한 인식 제고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 영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의 돌봄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 선호가 높게 나타나며 정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방과후 돌봄으로 사설 학원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방과 후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순수하게 돌봄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부양 책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라는 응답은 12.1%에 불과하며 대학 졸업이나 혼인 등 성인 이후까지 계속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과도한 부양책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79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미취학 자녀의 양육비가 가장 적었고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로 갈수록 양육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다.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는 양육비 중 사교육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 양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미취학 자녀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교육비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99.9%의 지원률을 보였으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자녀는 45~46% 정도, 성인 자녀는 21.7%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일 영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6점으로 일·생활균형의 정도가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남성보다는 여성,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기혼 집단에서 일·생활균형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 이용 경험에서, 첫째 자녀 때 제도적으로 이용 가능한 취업자의 88.1%, 둘째 자녀 때는 89.4%가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아휴직 제도 이용 경험에서, 첫째 자녀 때 제도적으로 이용 가능한 취업자의

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44.4%, 둘째 자녀는 35.5%가 이용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첫째 자녀 때 48.9%, 둘째 자녀 때 46.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 영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응답자의 부모동거율은 극히 낮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의 부모동거율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미혼 범주 내에 연령의 다양성이 크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을 축적하여 부모로부터 주거를 분리할 개연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미혼 성인 자녀가 계속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성인 자녀의 규범적인 주거 형태는 부모와의 비동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비동거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정서적 교류 정도와 경제적 교류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서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의 비율도 결코 미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독립과 지역 이동 영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49세 개인 응답자는 18세 무렵 이후 대체로 부모로부터의 독립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독립은 대학 진학, 입직, 결혼과 같은 청년층이 경험하는 생애 주기 주된 사건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다. 독립과정에 필요한 주택 비용은 대체로 젊은 청년일수록 주변 가족의 도움 정도가 크게 나타났고, 결혼과 함께 독립한 경우 주택 마련 비용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주택 마련 비용의 주변 가족 부담은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이동은 타 시도 간 이동에 비하여 동일 시도, 내지는 동일 시군구 내 이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 및 첫번째 입직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높은 특성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가치와 인식 영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현재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5년 후에도 행복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족 가치에서 '결혼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0.5%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4.5%포인트 증가하였다. '자녀 필요성'은 전체 긍정적 응답 비율이 68.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조사보다 0.3%p 높은 수치이다.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중요한 지표로 관찰하고 있는 이상자녀수 평균은 1.83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021년 1.94명보다 0.11명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기혼자의 이상자녀수 평균은 1.95명, 미혼자의 이상자녀수 평균은 1.71명으로 0.24명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기혼자와 비교해 미혼자가 자녀 가치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성역할 가치 측면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전체 수준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성 평등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전체 수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면, 성 역할 인식이 과거보다 더 평등하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성평등 인식에서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22.8%포인트 낮았다.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예측 가능성에 긍정적 태도로 응답한 비율은 낮은 수준(36.0%)이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임신과 출산 지표는 2021년보다 악화하였다. 평균 임신 횟수, 임신 결과로써의 평균 출생 횟수, 실제 평균 출생아수, 가치의 측면인 이상자녀수 모두 2021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인식의 수준에서 결혼 필요성에 긍정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지만 자녀 필요성에 긍정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다. 성 역할 인식이 과거보다 더 평등하게 개선되었지만,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22.8%포인트나 적었다. 자녀의 부양 책임은 대학 졸업이나 혼인 등 성인 이후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부모들은 대부분 과도한 부양책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주변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식의 차원이나 현실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모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성인으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인구학적으로 출산 결정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어떤 정책이 출산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매우 먼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주로 출산가구에 집중해왔다. 그 이유는 더 빠른 정책 성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시계를 더 넓게 보고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성인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가족과 출산 조사, 결혼, 임신과 출산, 저출산, 가족 형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2024년도 조사의 특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인구행동 심층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1964년 ‘전국 가족계획 실태조사’를 모태로 삼고 있으며, 1979년 조사부터 매 3년 주기로 정례화 되었다. 1985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 조사’로, 2003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 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1년에 다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1982년 4월 15일 통계청의 지정통계¹⁾ (승인번호 331001)로 지정되었다. 지정통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로, 통상 승인통계 중에서 통계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통계를 말하며, 그 외 승인통계는 일반통계로 분류된다.²⁾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통계적 자료 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오랜 동안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사 당시의 사회 변화 상황과 함께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해 왔다. 특히 가족과 출산 조사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2003년부터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대응

1) 지정 당시 통계의 명칭은 ‘전국 가족보건 실태조사’였다.

2)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국가 승인통계 중에서 지정통계는 93종이고 일반 통계는 1,265종이다. 93종의 지정통계 중에서 연구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는 가족과 출산 조사와 한국 교육개발원이 작성하는 교육기본통계 2종 뿐이다. 상세 현황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KOSIS)의 국내통계 작성현황 참조
(<https://kosis.kr/serviceInfo/statisWriteStatus.do>)

의 관점을 반영해 왔다. 가족 형성과 관련된 인구학적 행동의 양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 임신, 출산 행동의 개인별 이력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 인구학적 행동의 실제와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조사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인구 변동 요인으로 출산 행동과 출산의 선행 요인인 결혼 행동의 지연과 미이행 추세가 지속 또는 강화되면서, 본 조사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명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2~2016년 40만명대, 2017~2019년 30만명대, 2020년 이후 20만명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0.98명) 이후부터는 1명 미만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23, p. 24).

〈표 1-1〉 출생 주요 지표, 2000~2022년

(단위: 만명, 가임여자 1명당, 세)

구분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생아	64	47	47	48	44	44	44	41	36	33	30	27	26	25
합계출산율	1.48	1.23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평균출산연령	29.0	31.3	31.4	31.6	31.8	32.0	32.2	32.4	32.6	32.8	33.0	33.1	33.4	33.5

출처: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결혼 행태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여자의 초혼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매년 0.1~0.2세씩 상승하여 2022년에 31.3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만 39세까지의 여자의 누적혼인율은 증가하였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2〉 여자 초혼 연령 및 누적혼인율(만 39세까지), 2000~2022년

(단위: 세, 여자 1명당 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초혼연령	26.5	27.7	28.9	29.1	29.4	29.6	29.8	30.0	30.1	30.2	30.4	30.6	30.8	31.1	31.3
누적혼인율 (만 39세)	0.75	0.71	0.78	0.81	0.82	0.83	0.79	0.80	0.75	0.70	0.68	0.63	0.56	0.50	0.50

출처: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197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미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호트 완결출산율에서 1945년생은 3.57명에서 1950년생 2.92명, 1960년생 2.09명, 1970년생 1.81명으로 낮아지고 있다(통계청, 2023). 40세 기준 여성 미혼율을 추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44년 출생 코호트는 약 1.24%이고, 1954년 출생 코호트는 2.59%였으나, 1974년 출생 코호트는 12.07%로 크게 증가한다(우해봉 외, 2019).

이렇게 출생 코호트에 따른 인구 행동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 행동의 이행 과정의 다양성과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더욱 정교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세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구축된 조사 자료의 필요성이 학술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추진 중이지만 출산율과 혼인율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책 목표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3개로 제시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있다. 청년 지원을 통한 가족형성 지원, 임신과 출산 비용지원, 자녀돌봄 및 양육 지

원, 일가정양립정책이 핵심 정책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목표를 출산율 추세 전환에서 개인의 삶의 질로 전환한 것으로, 세부 정책과제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 개발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혼 및 출산,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파악과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이 또한 중요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자료 구축을 통하여 결혼 및 출산,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조사 사업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경제활동과 같은 생애사건(과정)을 중심으로 이행-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 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생산 행동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피임, 건강, 산전후 관리, 수유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인구행동과 가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를 관찰하여 행동변화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연구 내용은 가구 면접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총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여기에 서론과 표본 설계 및 결론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결론은 연구 결과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표본 설계 부분은 표본추출 과정을 설명하고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조사표는 9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지만, 본 보고서는 ‘임산·출산 건강’ 영역과 ‘산전·산후 관리’ 영역을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총 8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3장은 응답자의 일반 특성과 가구의 특성을 설명한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미혼과 기혼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지역, 성, 연령, 교육, 취업여부, 가구소득의 분포를 제시한다. 응답자 특성을 통하여 본 조사 표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 특성은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전반적인 주거 특성을 설명한다.

제4장은 동거와 결혼에 관한 내용으로, 배우자 또는 교제 상대의 유무, 현재의 배우자 또는 교제 상대를 만난 계기 등을 설명한다. 혼인 상태에서 주목하는 점 중 하나는 사실혼의 특징이며, 여기서는 사실혼의 실태와 차별 경험 등을 살펴본다. 결혼식과 결혼 시점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고, 비혼자의 경우 교제 상태와 향후 결혼 의향과 동거 가치관을 분석한다. 그리고 혼인관계의 종료 특성으로 이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제5장은 임신과 출산 건강 그리고 산전, 산후 관리와 수유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여기서 연구진은 임신과 출산 전후 과정의 건강에 관한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생식건강에 관한 사항, 피임 지식과 실천, 난임 경험과 진단 및 시술 등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19-49세 모든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 생애의 임신과 출산 이력을

상세히 파악한다. 임신 과정에서 임신 방법과 합병증 유무, 그리고 임신 결과로서 출생과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지 경험을 중요하게 분석한다. 산전, 산후 관리는 병의원에서 진찰 받은 실태, 분만 장소와 방법, 산후 우울감과 수유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다.

제6장은 자녀 양육 실태를 분석한다. 우선 자녀의 돌봄 형태는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로 구분하여, 희망 돌봄 형태와 실제 돌봄 형태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초점을 둔다. 자녀양육 비용과 정부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자녀 양육비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 양육 가구의 육아분담과 유배우부부의 가사분담 실태를 설명한다. 제7장은 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를 상세히 파악한다. 근로시간, 직장 유형 및 종사상 지위,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 경험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제8장은 부모와의 관계를 다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파악하고 비동거 부모와의 친밀도를 살펴보고, 경제적 교환 관계로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현금과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현금 및 현물의 정도를 파악한다. 제9장은 지역 이동과 독립을 다룬다. 만 18세 이후 분거 경험과 분거시 연령, 처음 분거한 이유를 파악하여 독립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분거시 주거 비용 마련 방법과 부모의 지원 정도를 중요하게 다룬다. 지역 이동은 주요 생애 시점(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시기, 취업 준비 또는 첫 취업 시기, 결혼 및 출산 시기 등)을 중심으로 지역 이동 실태를 파악한다.

제10장은 가치와 인식을 다룬다. 행복, 가족가치 및 결혼 필요성,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자녀 필요성, 출산 결정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이상 자녀수, 자녀가치관, 성역할 인식, 부부역할 인식을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로 신뢰와 안전에 대한 인식, 국민 행복도(현재와 5년 후) 인식, 성평등인식, 미래예측 가능성과 미래 사회 전망을 다룬다.

(표 1-3)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 내용

구 분	조사 내용
가구원 사항과 가구 일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실제 출생 연월일, 만연령, 교육정도, 교육상태,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국적 ○ 주택 유형, 점유 형태, 공공임대주택 여부, 대출 여부와 금액, 타 주택 소유 여부, 월 평균 가구 소득, 월 평균 가구지출, 총 자산, 총 부채
동거와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또는 사귀는 사람 유무, (신규)연애 시작 시점, (신규)만남 계기, (신규)연애 의향 ○ 혼인 및 부부관계 판단, 동거 여부, 혼인신고 여부, 하지 않는 이유, 신고 계획, 혼인상태에 따른 차별 경험 ○ 이혼에 관한 사항: 시기, 형태, 이유, 자녀 사항 ■ 법률혼, 사실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식 여부와 시기, 동거 시작 시기, 결혼 시점에 대한 생각, 결혼 당시 고려 사항, (신규)결혼생활 만족도 ■ 동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 (신규)동거 알린 범위와 동거 계기, (신규)동거파트너 연령, 성, 교육, 경제활동 상태 ○ (신규)현재 사귀는 사람과 결혼 의향, 3년 이내 결혼하지 않는 이유 ■ 미혼, 기혼싱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할 의향, (신규)동거 형태 인식, 결혼(재혼) 의향, 예정 연령, 결혼 고려 사항, (신규)결혼하지 않는 이유, 결혼하지 않을 경우 동거인
임신출산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식계 증상 경험 여부, 대처방법, 병의원보건의(지)소에 가지 않은 이유 ○ (신규)피임 인식 정도, 지식 습득 경로, 현재 피임 여부, 피임방법, 피임하지 않은 이유, 피임 결정 주체 ■ 임신·출산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임신횟수, 원했던 임신 여부, (신규)계획임신 여부, 임신시기, 임신 시기의 적절성, 임신방법, 임신 종결 형태, 종결 시기, 태아수, 분만시기와 출생시 체중 ○ (신규)임신 당시 합병증 유무, 출생아 성별, 생존여부 ■ 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검사 여부, 시술 경험, (신규)시술 종류와 횟수, 결과, 힘들었던 점 ■ 과거와 미래의 자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당시 출산 계획과 수, 출산 결정 주체, (추가)출산 계획과 수, 의향 강도 ○ 난자 또는 정자 냉동보관 의향, (신규)제3자 생식세포 수증 의향, (신규)입양 자녀 유무, 명수, (신규)입양 의향 유무
산전산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 관리와 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 기관, 초진 시기, 진찰 횟수, 분만장소, 분만방법 ■ 산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진찰 경험여부와 횟수, 산후우울감 경험 여부, 진단·상담 경험 유무, 진단·상담 기관, (신규)산후조리 장소 ■ 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수유 여부, 출생 1시간 내 모유수유 여부, 현재 모유수유 여부와 모유수유 기간(계획/중단), 월령별 수유형태, (신규)출산 전 수유 계획

16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분	조사 내용
자녀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초등 자녀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내자녀 희망 돌봄유형(방과후 돌봄), 실제 돌봄유형(방과후 돌봄) ■ 부부의 육아 분담 및 가사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시간, 분담 정도, 육아분담 만족도, (신규)양육 관련 감점 ○ 가사 시간, 분담 정도, 가사분담 만족도 ■ 자녀양육비 및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부양(경제적) 시기, 항목별 양육비, (신규)양육 관련 정부 지원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여부,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직종, 업종, 직장 유형,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현직장(사업) 취업(사업사직) 시기, 일-가정-여가생활 어려움 정도, 지난주 한 일 ■ 일자리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취업 상태, 시작 및 종료 시기,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직장유형, 입사 시, 퇴사 시 월 임금(수입), (신규)최종학교 졸업 시기 ■ 일가정양립 휴가 휴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와 기간, 육아휴직 이용 여부와 기간, 분할이용 여부, 최초 이용 기간과 총 이용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연속 이용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여부와 기간 ○ (신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이용 여부, (신규)배우자 육아휴직 이용 여부와 기간, (신규) 배우자 육아휴직 이용 전후 변화
부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동거 여부,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부모 생존 여부, 동거 여부, 부모 출생연월, 교육, 취업, 직업, (신규)형제·자매 수 ○ 부모에게 정기적 현금 지급 여부, 금액, 비정기 현금과 현물 지급 여부, 횟수와 금액, 부모로부터 정기적 현금 지원 여부, 금액, 비정기 현금과 현물 지원 여부, 횟수와 금액 ○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주관적 계층 의식, 순자산 수준
지역 이동과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 거주지, 부모와 동거 여부, 주관적 계층 의식, 분거 경험 여부, 시점 ○ (신규)성인 이후 분거한 주거의 비용과 분담비율, (신규)신혼집 여부, (신규)생활비용 분담 비율, (신규)신혼집 주거의 비용과 분담 비율 ○ 분거 이후 1년 이상 함께 산 경험 및 이유 ○ (신규) 부모로부터의 독립 정도, 시기와 시점 ○ (신규) 지역 이동 시기, 이동 전후 거주지역
가치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와 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신규)현재(5년후) 행복도 ■ 가족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및 가족 가치관 ○ 본인 자녀 필요성,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 이상자녀수, 자녀 가치 ■ 성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부부 역할 인식, 이상적인 부부간 역할 분담 ■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안전 인식, (신규)현재(5년후) 국민 행복 수준 인식, (신규)남녀평등 수준, (신규)본인 미래 예측가능성, 우리 사회 미래 전망 인식

주: (신규)는 2024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문항.

출처: 저자 작성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 방법은 가구 방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자료 수집을 위하여 표본 설계와 표본 추출의 과정을 거치고, 추출된 표본 가구에 대하여 가구 방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진과 데이터조사관리팀 주관으로 직접 수행하였다. 표본 설계와 표본 추출, 조사표 설계, 조사원 교육, 자료 처리 및 자료 분석 등의 일련의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데이터조사관리팀이 조사원을 모집하여 조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전체 조사과정을 관리하였다.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700개 표본 조사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본 조사구에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표본 조사구 내에 있는 일반가구 10,500가구를 목표 표본 규모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 PC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응답을 입력하였다. 조사원은 총 18개팀으로 구성하였고, 전문조사원 4인을 포함하여 총 92명이 참여하였다.

조사표 초안을 완성한 이후, 2024년 7월 15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 총 8명의 조사원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하여 조사표 문항 및 응답 범주 등을 수정하여 최종 조사표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조사설명회는 2024년 8월 6일부터 2024년 8월 8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는 2024년 8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 진행하였다. 자료 오류 점검 및 가중치 작업을 진행하여 분석 가능한 자료를 완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공통 변수를 중심으로, 영역별로 각 연구자가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공통 특성 변수에 따른 영역별 문항의 분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일부 문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평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조사의 응답자는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분석 자료는 49세 이상 남녀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49세까지의 응답 표본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5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를 쌍으로 분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령 제한 없이 조사한 것이며, 이 보고서는 49세까지의 개인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교차표 분석과 평균 분석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교차표 분석에서 표의 셀에 0.0%와 ‘-’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 때 0.0%는 관측 빈도가 있는 경우이며, ‘-’는 관측 빈도가 없는(0 인) 경우를 의미한다.

가중치는 개인 단위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 기준시점 대한민국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이므로, 가구 분석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응답자의 가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절 2024년도 조사의 특징

가족과 출산 조사의 전 회차 조사가 2021년도에 진행되었는데, 당시 연구진은 가족과 출산 조사를 크게 개편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을 기혼여성 중심에서 남성 배우자와 미혼 남녀를 포함하도록 조정하였다. 성별 그리고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19~49세 성인 모두를 한 표본에 통합하였다. 이는 기존 조사가 기혼여성의 임신 출산 행위의 결과에 중심을 둔 반면, 2021년 이후부터는 개인의 독립과 가족 구성 등에서 발생하는 인구학적 행동의 이행과정을 관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도 조사 개편이 단기간에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기본적으로 2021년도 조사의 체계와 내용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사 대상이 변경되면서 표본 특성이 달라졌고, 이런 변화가 조사의 질과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2021년 자료를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2021년도 조사 대상의 변화와 표본 특성의 변화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기초로 향후에도 현재의 기본 체계와 방향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조사 내용적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였다. 우선 파트너십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점검하였다. 특히 2021년도 조사에서 동거 실태를 최대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응답 과정이 자연스럽게 못하였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 2024년 조사는 동거 과정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배치와 응답 보기 등을 수정하였다.

임신과 출산 영역에서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선 임신과 출산 관련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항을 세분화하였다. 계획 임신 여부, 임신 시기의 계획 대비 정확성, 태아수, 체중 등을 세분화하였다.

특히 최근 보조 생식술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기존에 난자 냉동 의향에 더해, 제3자 생식세포 수증 의향과 입양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건강 측면에서 임신 중 합병증 유무에 대한 문항도 추가하였다.

자녀 양육 영역에서 주요한 변화는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 항목 조사에 집중하였다. 특히 자녀 별로 공적 지원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정책적으로 정부 현금 지원 규모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독립과 지역이동 영역에서 청년 세대의 독립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하였다. 독립의 시기와 계기, 독립의 정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독립 시의 주거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독립의 제반 환경이 이후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에 더해 생애 주요 단계별로 지역이동 상황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가족 형성이 어떤 독립 과정의 특성과 연관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독립 과정에서 어떻게 주거 여건을 준비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지역이동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와 인식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의 다양성을 확장하였다. 인구학적 행동이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고려하였다. 그동안 가치와 인식에 관한 내용은 주로 가족가치와 자녀가치, 성역할 가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회적 가치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2024년 조사에서 주요하게 고려한 사회적 가치는 행복, 미래 예측 가성과 미래 전망, 사회의 안전과 신뢰, 사회의 미래 전망 등이다. 이 내용은 분석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지속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표 1-4) 2024년 조사와 2021년도 조사 문항의 주요 차이점

구 분	2024년 조사 내용	2021년과 주요 차이점
가구 사항	○가구원 정보와 가구의 주택 및 소득 지출 등	
동거와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법률혼, 사실혼 ■ 동거 ■ 미혼, 기혼싱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간 논리적 관계 정리를 위해 일부 삭제 및 추가 ○ 3년 내 결혼 의향과 비혼 이유 추가 ○ 동거의 특성 세분화하여 추가
임신출산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피임 ■ 임신·출산 경험 ■ 난임 ■ 과거와 미래의 자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당시 합병증 유무 추가 ○ 제3자 생식세포 수증 의향과 입양 관련 문항 추가
산전·산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 관리와 분만 ■ 산후 관리 ■ 수유 	
자녀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초등 자녀 돌봄 ■ 부모의 육아 분담 및 가사분담 ■ 자녀양육비 및 생활 지원 	○ 조사 부담 경감 위해 문항 대체로 축소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일자리 이력 ■ 일가정양립 휴가 휴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부담 경감 위해 문항 축소 ○ 일가정양립제도 실태 문항 세분화하여 추가
부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의 관계 	○ 조사 부담 경감 위해 문항 축소
지역 이동과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이동과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과정의 특성과 주거 여건 파악을 위한 문항 추가 ○ 주요 생애과정의 지역 이동 문항 추가
가치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와 행복 ■ 가족 가치 ■ 성역할 ■ 사회적 가치 	○ 행복, 미래 예측 가능성, 사회 전망 인식 등 미래 인식 문항 추가

출처: 저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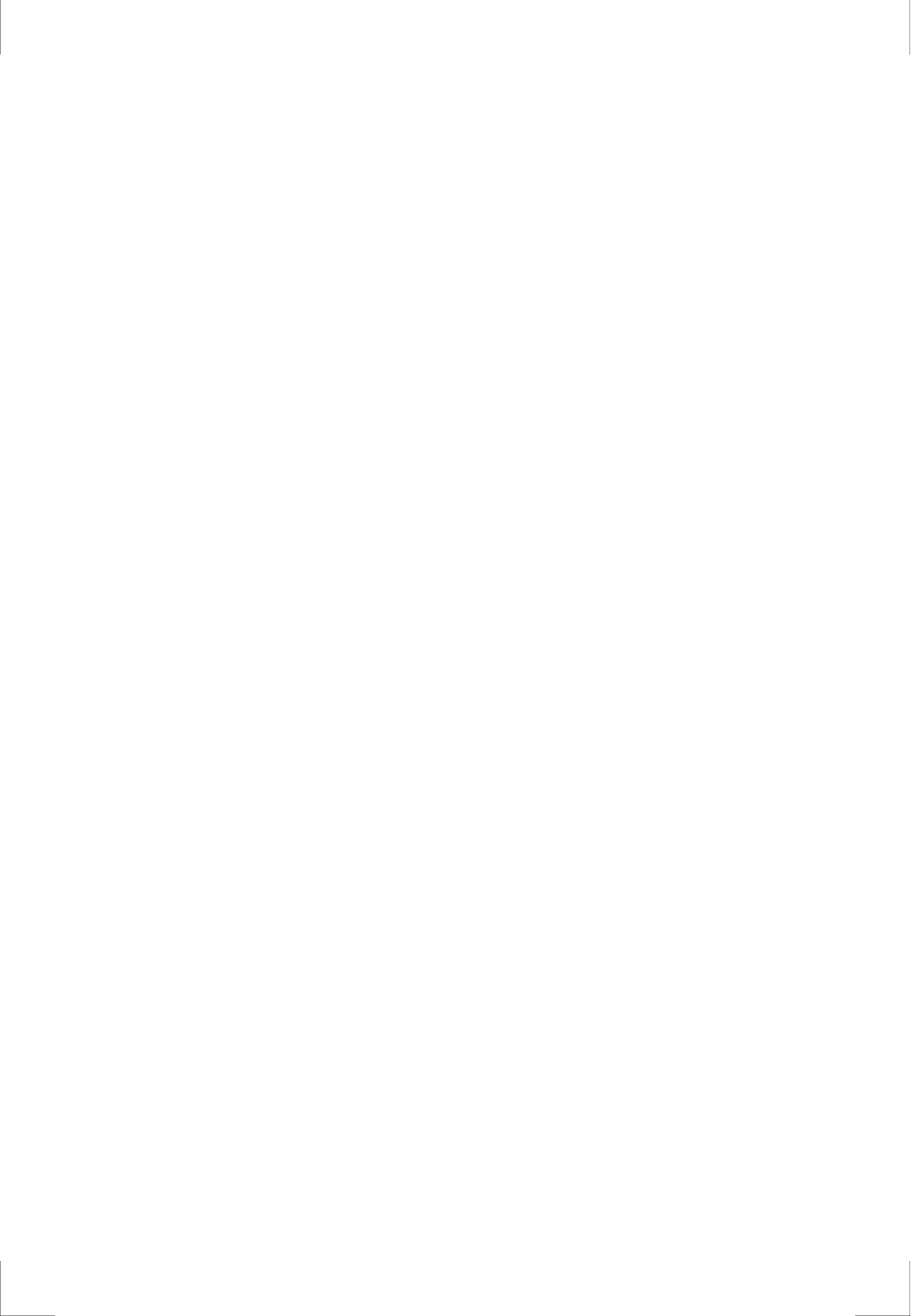


제2장

표본 설계와 가중치

제1절 표본 설계

제2절 가중치



제 2 장 표본 설계와 가중치

제1절 표본 설계

1. 표본 설계 개요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 과정과 가족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조사 내용은 변화된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가족구성 과정,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가족구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배우자 관계(동거형태)를 파악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조사대상은 17개 시도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및 19~49세 가구원이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였다.

층화 기준은 17개 시·도, 동부/읍·면부별로 층화하였으며, 추출 방법은 2단계 층화집락추출방법이다. 1단계는 조사구 추출로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조사구 유형, 19~49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수, 가구원수)를 정렬한 다음에, 조사구 내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2단계는 가구추출로 표본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에서 계통추출하였다.

이 조사의 목표 표본 규모는 표본 조사구 700개, 10,000가구로 조사구별 14~15가구를 조사 완료 목표로 하였다. 본 조사의 지역별 표본 조

26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사구 분포는 <표 2-1>과 같으며, 전체 표본 조사구수는 700개로 동은 590개이고 읍·면부 110개이다.

<표 2-1> 2024년 조사 표본 조사구 결과

(단위: 개)

지역	계	동부	읍·면부
전국	700	590	110
서울	87	87	-
부산	47	47	-
대구	40	40	-
인천	46	46	-
광주	33	33	-
대전	33	33	-
울산	27	27	-
세종	17	17	-
경기	98	84	14
강원	31	21	10
충북	33	21	12
충남	38	21	17
전북	33	26	7
전남	31	16	15
경북	40	24	16
경남	45	31	14
제주	21	16	5

주: 저자 작성

2. 표본 규모 결정

2024년 조사에서 표본 가구를 10,000가구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021년 분석 결과와 표본 규모를 다르게 한 경우의 RSE 값을 비교해 보았다.

2021년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완료수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2021년과 2024년 조사의 RSE값

(단위: 가구, %)

항목	2021년		2024년	
	표본	RSE	표본	목표 RSE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9,999	1.30	12,000	1.19
			10,000	1.30
			8,000	1.45
월평균 가구지출(만 원)	9,999	1.22	12,000	1.11
			10,000	1.22
			8,000	1.3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n_2 RSE_2^2 = n_1 RSE_1^2$$

n_1 : 2021년 조사 표본규모(완료수 기준)

RSE_1^2 : 2021년 조사 결과 상대표준오차

n_2 : 2024년 조사 산출된 표본규모(완료수 기준)

RSE_2^2 : 2024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

표본 규모에 따른 목표 RSE값을 보면, 8,000가구 이상(완료 기준)이면 2%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 및 조사 일정을 고려하여 2024년 적정 표본 규모(완료 기준)는 10,000가구로 결정하였다.

2024년 조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17개 시·도별로 산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2021년 조사와 2024년 조사 가구소득 RSE

(단위: 개, 가구, %)

지역	2021년 조사			2024년 조사		
	조사구	가구	RSE (가구소득)	조사구	가구	RSE (가구소득)
전국	700	9,999	1.30	700	10,500	1.27
서울	73	1,058	5.66	87	1,305	5.10
부산	55	767	3.93	47	705	4.10
대구	42	591	5.36	40	600	5.32
인천	50	706	4.95	46	690	5.01
광주	25	362	9.12	33	495	7.80
대전	32	452	6.82	33	495	6.52
울산	24	342	4.44	27	405	4.08
세종	13	186	9.14	17	255	7.81
경기	116	1,649	2.83	98	1,470	3.00
강원	44	644	4.34	31	465	5.10
충북	46	650	4.49	33	495	5.15
충남	32	463	4.20	38	570	3.79
전북	33	464	5.79	33	495	5.60
전남	20	290	5.64	31	465	4.45
경북	39	568	5.05	40	600	4.91
경남	36	512	3.83	45	675	3.34
제주	20	295	6.15	21	315	5.9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표본설계 세부 내용

가. 모집단

목표모집단은 조사대상 전체 집합적 개념으로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모집단은 2024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조사모집단은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조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모집단이다. 조사모집단은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특성번호 '아파트'와 '보통'에 해당하는 조사구의 가구를 표본틀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모집단인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 등은 제외하였다.

표본추출틀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자료이므로 2024년의 상황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모집단에서는 조사의 현실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가 있다.

지역별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가구수 모집단 분포는 17개 시·도별로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서울은 전체의 1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4.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1.26%)와 세종(0.71%)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

〈표 2-4〉 지역별 가구 분포

지역	계		동부		읍·면부	
	가구	%	가구	%	가구	%
전국	21,685,677	100.00	17,951,646	82.78	3,734,031	17.22
서울	4,090,439	18.86	4,090,439	18.86	-	-
부산	1,444,537	6.66	1,444,537	6.66	-	-
대구	1,009,202	4.65	1,009,202	4.65	-	-
인천	1,203,622	5.55	1,203,622	5.55	-	-
광주	622,283	2.87	622,283	2.87	-	-
대전	645,425	2.98	645,425	2.98	-	-
울산	453,265	2.09	453,265	2.09	-	-
세종	153,580	0.71	153,580	0.71	-	-
경기	5,391,813	24.86	4,529,910	20.89	861,903	3.97
강원	682,882	3.15	411,123	1.90	271,759	1.25
충북	702,884	3.24	403,785	1.86	299,099	1.38
충남	927,171	4.28	429,664	1.98	497,507	2.29
전북	775,051	3.57	546,871	2.52	228,180	1.05
전남	761,456	3.51	329,359	1.52	432,097	1.99
경북	1,162,357	5.36	601,081	2.77	561,276	2.59
경남	1,385,950	6.39	880,111	4.06	505,839	2.33
제주	273,760	1.26	197,389	0.91	76,371	0.35

주: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및 울산의 읍·면부의 조사구수는 각각의 동부에 포함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2022). 2022년 인구총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17개 시도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을 보면 〈표 2-5〉와 같다. 경기(24.39%)와 서울(18.52%)이 가장 많은 편이고, 세종(0.70%)과 제주(1.39%)가 작은 편에 속하였다.

〈표 2-5〉 지역별 조사구 분포

지역	계		동부		읍·면부	
	개	%	개	%	개	%
전국	395,566	100.00	322,150	81.44	73,416	18.56
서울	73,277	18.52	73,277	18.52	-	-
부산	27,017	6.83	27,017	6.83	-	-
대구	17,503	4.42	17,503	4.42	-	-
인천	21,585	5.46	21,585	5.46	-	-
광주	10,902	2.76	10,902	2.76	-	-
대전	11,089	2.80	11,089	2.80	-	-
울산	8,398	2.12	8,398	2.12	-	-
세종	2,750	0.70	2,750	0.70	-	-
경기	96,483	24.39	80,383	20.32	16,100	4.07
강원	13,092	3.31	7,391	1.87	5,701	1.44
충북	12,991	3.28	7,147	1.81	5,844	1.48
충남	17,390	4.40	7,649	1.93	9,741	2.46
전북	14,502	3.67	9,880	2.50	4,622	1.17
전남	14,888	3.76	6,151	1.55	8,737	2.21
경북	22,209	5.61	11,027	2.79	11,182	2.83
경남	25,999	6.57	16,082	4.07	9,917	2.51
제주	5,491	1.39	3,919	0.99	1,572	0.40

주: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및 울산의 읍·면부의 조사구수는 각각의 동부에 포함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2022). 2022년 인구총조사 원자료 분석.

나. 모집단 층화 기준

2022년 인구총조사에서 지역별 19~49세 인구가 포함된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경기(27.08%)와 서울(20.8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6.17%), 인천(5.84%), 경남(5.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0.81%), 제주(1.25%), 울산(2.07%), 강원(2.59%)이 낮은 편이었다.

32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표 2-6〉 지역별 19~49세 인구가 포함된 가구 분포

지역	계		동부		읍·면부	
	가구	%	가구	%	가구	%
전국	14,210,933	100.00	12,325,733	86.73	1,885,200	13.27
서울	2,967,986	20.89	2,967,986	20.89	-	-
부산	876,683	6.17	876,683	6.17	-	-
대구	634,792	4.47	634,792	4.47	-	-
인천	830,126	5.84	830,126	5.84	-	-
광주	419,509	2.95	419,509	2.95	-	-
대전	437,317	3.08	437,317	3.08	-	-
울산	294,372	2.07	294,372	2.07	-	-
세종	115,687	0.81	115,687	0.81	-	-
경기	3,848,224	27.08	3,306,061	23.26	542,163	3.82
강원	367,932	2.59	245,899	1.73	122,033	0.86
충북	422,007	2.97	264,907	1.86	157,100	1.11
충남	563,681	3.97	310,161	2.18	253,520	1.78
전북	433,122	3.05	345,669	2.43	87,453	0.62
전남	389,260	2.74	202,371	1.42	186,889	1.32
경북	621,868	4.38	375,569	2.64	246,299	1.73
경남	810,670	5.70	564,508	3.97	246,162	1.73
제주	177,697	1.25	134,116	0.94	43,581	0.31

주: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및 울산의 읍·면부의 가구수는 각각의 동부에 포함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2022). 2022년 인구총조사 원자료 분석.

2022년 인구총조사에서의 지역별 19~49세 인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2-7〉 참조). 경기(28.10%)와 서울(20.1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6.04%), 인천(6.00%), 경남(5.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0.83%), 제주(1.26%), 울산(2.10%), 강원(2.51%)이 낮은 편이었다.

〈표 2-7〉 2022년 인구총조사의 지역별 19~49세 인구 분포

지역	계		동부		읍·면부	
	명	%	명	%	명	%
전국	21,002,021	100.00	18,208,797	86.70	2,793,224	13.30
서울	4,236,164	20.17	4,236,164	20.17	-	-
부산	1,268,308	6.04	1,268,308	6.04	-	-
대구	934,243	4.45	934,243	4.45	-	-
인천	1,259,932	6.00	1,259,932	6.00	-	-
광주	618,365	2.94	618,365	2.94	-	-
대전	625,053	2.98	625,053	2.98	-	-
울산	441,253	2.10	441,253	2.10	-	-
세종	175,166	0.83	175,166	0.83	-	-
경기	5,901,553	28.10	5,067,459	24.13	834,094	3.97
강원	527,575	2.51	352,593	1.68	174,982	0.83
충북	617,338	2.94	387,870	1.85	229,468	1.09
충남	833,452	3.97	460,354	2.19	373,098	1.78
전북	627,216	2.99	503,829	2.40	123,387	0.59
전남	569,144	2.71	297,978	1.42	271,166	1.29
경북	893,305	4.25	541,829	2.58	351,476	1.67
경남	1,209,012	5.76	838,831	3.99	370,181	1.76
제주	264,942	1.26	199,570	0.95	65,372	0.31

주: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및 울산의 읍·면부의 인구수는 각각의 동부에 포함된 결과임
 자료: 통계청, (2022). 2022년 인구총조사 원자료 분석.

다. 시도별 표본 규모

2021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지역별 RSE 목표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2-3〉 참조). 본 조사에서는 가구수에 따라 표본을 비례배분할 경우 읍·면지역의 표본 규모가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조사의 주요 목적에 적합한 19~49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수에 따라 표본조사구를 배분하고자 한다. 2021년 조사의 경우 표본조사구를 1차 층화에서 17개 시도별로 제곱근비례배분 및 설계효과³⁾로

표본을 배분(기존 방법)하였는데, 제곱근비례배분과 20개 조사구 선배분 후 비례배분 방법도 함께 검토하였다.

〈표 2-8〉을 보면 제곱근비례배분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지역별 표본조사구수가 안정적으로 배분되어, 기존과 20개 조사구 선배분 후 비례배분 방법에 비해 균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은 제주와 세종의 표본조사구수가 각각 9개, 15개로 적게 배분된 반면에, 경기도는 102개로 지역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 20개 조사구 선배분 후 비례배분은 가구와 인구 비중이 큰 지역인 경기(117개), 서울(95개)에 표본조사구가 많이 배분된 편이었다.

3) 설계효과는 출생아수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음.

(표 2-8)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17개 시도별 조사구 배분방법별 RSE 목표 정도 비교

지역	2021년 조사결과						2024년 조사 예정					
	기본 방법			제곱근비례배분방법			기본 방법			제곱근비례배분방법		
	조사구 개	가구 가구	RSE %	조사구 개	가구 가구	RSE %	조사구 개	가구 가구	RSE %	조사구 개	가구 가구	RSE %
	전국	700	9,999	1.30	700	10,500	1.27	700	10,500	1.27	700	10,500
서울	73	1,058	5.66	87	1,305	5.10	87	1,305	5.10	95	1,425	4.88
부산	55	767	3.93	47	705	4.10	47	705	4.10	42	630	4.34
대구	42	591	5.36	57	855	4.46	40	600	5.32	36	540	5.61
인천	50	706	4.95	54	810	4.62	46	690	5.01	41	615	5.30
광주	25	362	9.12	31	465	8.05	33	495	7.80	31	465	8.05
대전	32	452	6.82	41	615	5.85	33	495	6.52	31	465	6.73
울산	24	342	4.44	20	300	4.74	27	405	4.08	27	405	4.08
세종	13	186	9.14	15	225	8.31	17	255	7.81	23	345	6.71
경기	116	1,649	2.83	102	1,530	2.94	98	1,470	3.00	117	1,755	2.74
강원	44	644	4.34	32	480	5.02	31	465	5.10	29	435	5.28
충북	46	650	4.49	21	315	6.45	33	495	5.15	31	465	5.31
충남	32	463	4.20	34	510	4.00	38	570	3.79	34	510	4.00
전북	33	464	5.79	39	585	5.15	33	495	5.60	31	465	5.78
전남	20	290	5.64	31	465	4.45	31	465	4.45	30	450	4.52
경북	39	568	5.05	43	645	4.74	40	600	4.91	36	540	5.18
경남	36	512	3.83	37	555	3.68	45	675	3.34	41	615	3.50
제주	20	295	6.15	9	135	9.10	21	315	5.96	25	375	5.46

주: RSE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RSE를 의미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또한 2021년 조사 결과와 각 방법별 2024년 조사 예정 목표 정도를 월평균 가구소득의 RSE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곱근비례배분의 평균이 5.12%이고 범위도 4.81%로 다른 방법에 비해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기존 방법의 경우 2024년 목표 정도 RSE의 평균은 5.34%이고 범위는 6.16%이었다. 20개 조사구 선배분 후 비례배분은 2024년 목표 정도 RSE의 평균은 5.16%이고 범위는 5.31%이었다.

〈표 2-9〉 2024년 조사 예정 목표 정도- 월평균 가구소득의 RSE 비교

	2021년 조사결과	2024년 조사 예정		
		기존 방법	제곱근비례배분방법	20개 조사구 선배분 후 비례배분 방법
	%	%	%	%
평균	5.40	5.34	5.12	5.16
최소값	2.83	2.94	3.00	2.74
최대값	9.14	9.10	7.81	8.05
범위	6.31	6.16	4.81	5.31

주: RSE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RSE를 의미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앞선 결과에 따라 17개 시도의 배분방법은 최종 제곱근비례방법을 활용하였다. 2022년 인구총조사 추출틀에서 19~49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를 기준으로 1차 층화는 17개 시도별로 제곱근비례배분을 적용한 다음에, 2차 층화인 동부/읍면부로 나눌 때 비례배분하여 산출하였다.

라. 층별 표본 배정

2024년 조사에서는 17개 시도별로 제곱근비례배분을 고려하여 1차 층화한 다음, 동부/읍·면부로 나누어 비례배분으로 2차 층화하고, 최종 확정된 표본 규모를 조사구별로 15가구 배정하였다(〈표 2-10〉 참조). 추

출 단위와 조사 단위로는 1차 추출단위는 표본 조사구이며, 2차 추출단위는 조사구 내의 가구, 최종 조사 단위는 가구 내 거주하는 19~49세 가구원 전원 및 19~49세 가구원의 배우자(연령 제한 없음)이다.

〈표 2-10〉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 최종 시도별 층별 표본 배정 결과

(단위: 가구)

지역	표본 가구수		
	계	동부	읍·면부
전국	10,500	8,850	1,650
서울	1,305	1,305	-
부산	705	705	-
대구	600	600	-
인천	690	690	-
광주	495	495	-
대전	495	495	-
울산	405	405	-
세종	255	255	-
경기	1,470	1,260	210
강원	465	315	150
충북	495	315	180
충남	570	315	255
전북	495	390	105
전남	465	240	225
경북	600	360	240
경남	675	465	210
제주	315	240	75

주: 필자 작성

층별 할당 결과는 목표 표본 규모로 작성하였으며, 표본 조사구당 14~15가구를 조사 완료하는 것으로 표본 가구수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대한 최종 표본 가구수는 조사구 내 목표 가구수를 15가구 기준으로 한 경우, 전체 표본 가구수는 10,500가구(동 8,850가구, 읍·면부 1,650가구)이다.

마. 표본 조사구 추출

표본 조사구 선정을 위하여 2022년 인구총조사의 항목 중 활용 가능한 변수인 조사구 유형(일반, 아파트), 19~49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수, 가구원수를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로 선정하였다.

층별 17개 시도, 동부/읍·면부, 조사구 유형, 19~49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수, 가구원수 순으로 정렬한 후, 조사구 내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바. 표본 가구 선정

본 조사를 위해 추출된 700개의 표본 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표본 조사구의 요도와 가구 명부에서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가구를 선택하고 방문하여 적격 조사 대상가구를 조사한다. 조사구 당 14~15가구를 조사완료 목표로 하였다. 가구 명부에는 가구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으므로, 가구 명부 순서에 따라 계통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 가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 대체

2022년 인구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가구수가 적은 조사구는 인접 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표본 가구 선정은 표본 조사구의 요도와 가구 명부에서 계통추출법으로 선택하고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때 재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가 조사 불가능인 경우, 동일 층 내에서 예비조사구(표본 조사구의 20%)로 대체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제2절 가중치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 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가중치는 가중표본 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평균, 구성비 등의 통계치를 산출하도록 한다.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 층화(Post Stratification)를 하여 가중치 조정을 실시한다. 가중치 부여는 조사구 추출이 1단계, 추출된 조사구에서 가구 추출이 2단계이다. 각 조사구 내 가구들은 동일한 가중값(설계 가중치)을 가지며, 조사 완료 후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가중값을 부여한다.

L : 층의 수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총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m_{hi}}$$

무응답 조정은 최초 표본 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 크기로 나누어 조정한다. 최초 표본 단위를 대체 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계산한 다음에, 17개 시도, 성별, 연령대, 혼인 여부 정보⁴⁾를 이용하여 사후층화 보정을 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2015년과 2020년 주민등록 상 인구집계자료(17개 시도별, 연령별(5세 단위), 혼인 여부)를 기반으로 조정외삽법(adjusted extrapol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2024년 19~49세 남녀의 기혼율과 미혼율을 추정하여 모집단 분포를 구하였다. 한편, 19~49세 응답자의 50세 이상 배우자 가중치는 19~49세 응답자(해당 배우자)의 개인가중치로 부여하였다. 즉, 50세 이상 응답자의 가중치는 19~49세 응답자 유배우자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가중치}$$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집단은 2024년 조사 기준 시점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내 19~49세 가구원으로, 19~49세 응답자(14,372명)에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19~49세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부부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50세 이상 응답자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

4) 17개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고, 성별은 남자, 여자이고, 연령대는 19-34세, 35-49세이고, 혼인 여부는 미혼, 기혼임.



제3장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 특성

제1절 응답자의 일반 특성

제2절 응답 가구의 경제 상황

제3절 응답 가구의 주거 상황



제 3 장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 특성

본 조사는 19세부터 49세까지의 미혼 남녀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혼자는 대표응답자와 그의 배우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표응답자의 배우자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원자료는 50세 이상의 응답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50세 이상 응답자를 제외한 49세까지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개인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할 때는 개인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가구를 분석 단위로 하는 가구의 일반 특성을 분석할 때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연구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료를 구축할 때부터 가구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제1절 응답자의 일반 특성

조사 완료된 19~49세 응답자는 14,372명으로 미혼은 7,497명(52.2%), 기혼은 6,875명(47.8%)이다. 19~49세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이 동부인 경우는 82.6%, 읍면부인 경우는 17.4%이며, 성별은 남자 51.8%, 여자 48.2%이다. 연령별로는 19~24세는 17.7%, 25~29세는 15.7%, 30~34세는 14.4%, 35세~39세는 16.4%, 40세~44세는 18.6%, 45~49세는 17.2%이었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7.7%, 대학교 졸업이 58.2%, 대학원 졸업이 4.1%이고, 취업자는 68.7%, 비취업자는 31.3%이다.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여, 지역을 살펴보면 미혼은 동부가 85.3%, 읍

면부가 14.7%이고 기혼은 동부 79.6%, 읍면부 20.4%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미혼남성은 58.1%, 미혼여성은 41.9%이었으며, 기혼남성은 44.9%, 기혼여성은 55.1%로 미혼은 남성의 비중이 높고, 기혼은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연령을 살펴보면 미혼은 19~34세의 비중이 높으며, 기혼은 35~49세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미혼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5.4%, 대학교 졸업이 52.2%이었으나, 기혼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9.3%, 대학교 졸업이 64.7%이다.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은 62.9%가 취업한 상태이며, 기혼은 75.2%가 취업한 상태로 나타났다.

〈표 3-1〉 응답자(19~49세)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미혼		기혼		전체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7,497	100.0	6,875	100.0	14,372
지역						
동부	85.3	6,397	79.6	5,472	82.6	11,869
읍면부	14.7	1,100	20.4	1,403	17.4	2,503
성별						
남자	58.1	4,359	44.9	3,086	51.8	7,445
여자	41.9	3,138	55.1	3,789	48.2	6,927
연령						
19~24세	33.5	2,512	0.4	29	17.7	2,542
25~29세	27.1	2,033	3.3	223	15.7	2,257
30~34세	17.0	1,277	11.5	789	14.4	2,065
35~39세	10.2	767	23.1	1,590	16.4	2,357
40~44세	7.0	521	31.4	2,158	18.6	2,679
45~49세	5.2	386	30.3	2,086	17.2	2,472
교육						
고졸이하	45.4	3,404	29.3	2,014	37.7	5,418
대졸	52.2	3,914	64.7	4,451	58.2	8,365
대학원졸	2.4	179	6.0	410	4.1	589
취업여부						
취업	62.9	4,713	75.2	5,168	68.7	9,881
비취업	37.1	2,784	24.8	1,708	31.3	4,491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응답 가구의 경제 상황

본 절에서는 응답 가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 완료된 가구는 10,387가구이며, 가구 특성에 대한 분석은 조사된 가구의 대표응답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응답자는 각 가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응답자로 선정하였다. 기혼자는 임신 및 출산의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우선적으로 대표응답자로 선정하였으며, 기혼 여성이 대표응답자가 될 수 없을 때에는 남성을 대표응답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대표응답자를 기준으로 가구 상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표응답자 개인의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50세 이상 대표응답자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가구를 대표하는 응답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는 가구 가중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가구 상황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1. 가구소득

응답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이 15.8%, 300~500만원 미만이 24.7%, 500~700만원 미만이 26.6%, 700~900만원 미만이 17.5%, 900만원 이상이 15.4%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경우 동부와 읍면부 모두 500~700만원 미만의 비중이 각각 26.4%, 2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500만원이 미만이 각각 24.3%, 26.5%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은 300~500만원 미만이 31.3%, 300만원 미만이 28.7%이었으나 여성은 500~700만원 미만이 28.7%, 300~500만원 미만이 22.8%로 분석되었다. 특히 900만원 이상이 남성은 9.4%, 여성은 17.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표응답자를 가

급적 기혼 여성으로 선정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 이하의 연령은 300만원 미만의 비중이 높았으며, 30~39세 이하는 300만원~700만원 미만, 40~49세 이하는 500만원~700만원 미만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3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3.9%인 반면 대학원 졸업은 900만원 이상의 비율이 35.4%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혼인상태로는 미혼의 60% 정도가 500만원 미만이었으며, 기혼은 70%는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3-2〉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소득

(단위: %, 가구)

구분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계	(가구)
전체	15.8	24.7	26.6	17.5	15.4	100.0	10,387
지역($\chi^2=26.6^{***}$)							
동부	15.6	24.3	26.4	17.5	16.3	100.0	8,497
읍면부	16.5	26.5	27.9	17.5	11.6	100.0	1,890
성별($\chi^2=563.8^{***}$)							
남자	28.7	31.3	19.4	11.2	9.4	100.0	2,316
여자	12.1	22.8	28.7	19.3	17.1	100.0	8,071
연령($\chi^2=984.2^{***}$)							
19~24세	42.5	15.9	17.9	12.7	10.9	100.0	1,060
25~29세	26.3	25.5	22.0	13.8	12.4	100.0	1,539
30~34세	11.9	29.3	27.2	17.5	14.2	100.0	1,770
35~39세	8.6	28.9	28.6	18.9	15.0	100.0	1,766
40~44세	9.7	24.6	29.4	20.0	16.3	100.0	2,123
45~49세	10.1	21.1	29.7	18.8	20.3	100.0	2,107
50세 이상	9.1	22.7	18.2	31.8	18.2	100.0	22
교육($\chi^2=578.7^{***}$)							
고졸이하	23.9	27.2	27.4	12.7	8.8	100.0	3,580
대졸	11.9	23.5	26.7	20.1	17.8	100.0	6,378
대학원졸	5.4	20.3	18.9	20.0	35.4	100.0	429
혼인상태($\chi^2=1684.7^{***}$)							
미혼	32.3	28.1	17.6	11.3	10.8	100.0	4,129
기혼	4.8	22.4	32.6	21.6	18.5	100.0	6,258
취업여부($\chi^2=316.8^{***}$)							
취업	13.4	22.3	25.1	20.2	19.0	100.0	6,341
비취업	19.5	28.4	29.1	13.2	9.8	100.0	4,046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가구지출

응답가구의 지출을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은 26.1%, 300~400만원 미만은 17.5%, 400~500만원 미만은 19.9%, 500~600만원 미만은 15.6%, 600만원 이상은 20.9%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은 3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25.8%, 600만원 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22.0%로 나타났으나, 읍면부 지역은 300만원 미만이 27.7%, 400~500만원이 22.4%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약 50%로 압도적이었으나, 여성은 600만원 이상이 23.8%, 400~500만원 미만이 22.0%로 분석되었다. 성별의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표응답자 선정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인 경우는 약 절반 수준이 3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출 금액도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3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33.4%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졸업은 6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37.3%로 소득과 동일하게 지출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혼인상태로는 미혼은 지출이 적고, 기혼은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서는 취업자는 지출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6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비취업은 고루 분포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는 지출도 적고, 소득이 높은 경우는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지출

(단위: %, 가구)

구분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계	(가구)
전체	26.1	17.5	19.9	15.6	20.9	100.0	10,387
지역($\chi^2=45.9^{***}$)							
동부	25.8	17.0	19.3	15.8	22.0	100.0	8,497
읍면부	27.7	19.5	22.4	14.9	15.6	100.0	1,890
성별($\chi^2=1007.1^{***}$)							
남자	51.0	15.9	12.7	9.8	10.5	100.0	2,316
여자	19.0	17.9	22.0	17.3	23.8	100.0	8,071
연령($\chi^2=1042.1^{***}$)							
19~24세	50.6	9.0	10.7	11.8	18.0	100.0	1,060
25~29세	42.2	16.7	17.0	11.2	12.9	100.0	1,539
30~34세	28.5	22.2	21.2	14.1	14.0	100.0	1,770
35~39세	19.4	22.6	22.8	16.4	18.8	100.0	1,766
40~44세	16.5	16.0	23.4	18.6	25.6	100.0	2,123
45~49세	15.5	15.6	19.8	18.4	30.7	100.0	2,107
50세 이상	13.6	18.2	9.1	27.3	31.8	100.0	22
교육($\chi^2=281.1^{***}$)							
고졸이하	33.4	19.0	18.5	14.0	15.1	100.0	3,580
대졸	23.0	16.6	20.9	16.5	23.0	100.0	6,378
대학원졸	12.8	17.2	15.6	17.0	37.3	100.0	429
혼인상태($\chi^2=2404.9^{***}$)							
미혼	51.8	14.8	11.7	9.5	12.2	100.0	4,129
기혼	9.2	19.2	25.3	19.7	26.6	100.0	6,258
취업여부($\chi^2=103.6^{***}$)							
취업	27.0	15.3	18.5	16.2	23.0	100.0	6,341
비취업	24.8	20.9	22.0	14.8	17.5	100.0	4,046
가구소득($\chi^2=13053.7^{***1}$)							
60% 미만	97.4	2.0	0.6	0.1	-	100.0	1,631
60~80% 미만	59.9	37.5	2.1	0.5	-	100.0	1,226
80~100% 미만	17.6	46.4	34.4	1.1	0.5	100.0	1,323
100~120% 미만	5.7	26.5	44.7	22.3	0.9	100.0	1,459
120~140% 미만	3.7	12.5	33.4	38.0	12.3	100.0	1,291
140~160% 미만	1.5	7.5	23.8	33.4	33.8	100.0	1,029
160% 이상	0.5	3.5	10.3	18.2	67.5	100.0	2,42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가구자산

응답가구의 자산을 살펴보면, 1억 미만은 25.6%, 1~3억 미만은 28.1%, 3~5억 미만은 20.0%, 5~7억 미만은 11.8%, 7억 이상은 14.5%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은 1~3억 미만이 26.3%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부는 1~3억 미만이 36.1%으로 가장 높았다. 7억 이상인 경우는 동부는 15.9%로 나타난 반면, 읍면부는 8.5%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은 1억 미만인 경우가 41.9%로 분석되었으며, 여성은 1~3억 미만이 28.7%, 3~5억 미만이 21.6%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응답자 선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인 경우의 자산 1억 미만 비중이 높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자산 금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억 미만이 38.0%, 1~3억 미만이 30.2%이었으나, 대학원 졸업은 7억 이상이 35.2%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의 42.3%가 1억 미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은 1~3억 미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5억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로 살펴보면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자산의 비중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경우 자산 수준도 낮게 분포되어 있으며, 소득이 높은 경우 자산 수준이 높게 분포하고 있다.

〈표 3-4〉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자산

(단위: %, 가구)

구분	1억 미만	1~3억 미만	3~5억 미만	5~7억 미만	7억 이상	계	(가구)
전체	25.6	28.1	20.0	11.8	14.5	100.0	10,387
지역($\chi^2=138.7^{***}$)							
동부	25.2	26.3	20.1	12.6	15.9	100.0	8,497
읍면부	27.5	36.1	19.8	8.1	8.5	100.0	1,890
성별($\chi^2=439.7^{***}$)							
남자	41.9	25.7	14.5	8.1	9.8	100.0	2,316
여자	20.9	28.7	21.6	12.9	15.9	100.0	8,071
연령($\chi^2=986.0^{***}$)							
19~24세	52.0	15.1	12.3	8.7	12.0	100.0	1,060
25~29세	42.1	25.1	14.7	8.8	9.3	100.0	1,539
30~34세	26.3	32.8	20.2	10.1	10.6	100.0	1,770
35~39세	19.1	30.4	23.5	13.0	13.9	100.0	1,766
40~44세	15.0	29.7	23.0	14.9	17.3	100.0	2,123
45~49세	15.8	29.1	21.8	12.8	20.5	100.0	2,107
50세 이상	27.3	31.8	4.5	13.6	22.7	100.0	22
교육($\chi^2=723.5^{***}$)							
고졸이하	38.0	30.2	15.8	8.1	7.9	100.0	3,580
대졸	19.6	27.4	22.4	13.8	16.8	100.0	6,378
대학원졸	11.7	20.3	19.8	13.1	35.2	100.0	429
혼인상태($\chi^2=1014.9^{**}$)							
미혼	42.3	23.8	14.6	8.6	10.8	100.0	4,129
기혼	14.6	30.9	23.6	13.9	17.0	100.0	6,258
취업여부($\chi^2=12.2^*$)							
취업	26.0	28.9	19.9	11.2	14.0	100.0	6,341
비취업	25.0	26.8	20.2	12.7	15.3	100.0	4,046
가구소득($\chi^2=5734.5^{***1}$)							
60% 미만	77.4	17.3	3.2	1.0	1.1	100.0	1,631
60~80% 미만	47.3	36.2	11.2	2.9	2.4	100.0	1,226
80~100% 미만	25.7	42.2	20.1	7.8	4.2	100.0	1,323
100~120% 미만	14.7	38.7	25.6	12.8	8.2	100.0	1,459
120~140% 미만	10.2	34.8	29.0	14.4	11.6	100.0	1,291
140~160% 미만	6.9	27.9	31.5	19.0	14.7	100.0	1,029
160% 이상	2.4	13.6	22.7	20.6	40.6	100.0	2,42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가구부채

응답가구의 가구부채를 살펴보면 가구부채가 없는 경우가 51.9%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천 만원 미만은 12.8%, 5천만~1억원 미만은 10.3%, 1억원 이상은 25.0%로 분석되었다.

대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은 1억 이상의 부채가 있는 경우가 26.6%이었으며, 읍면부 지역은 18.1%로 동부 지역의 가구부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5천 만원 미만이 13.3%, 1억 이상이 10.8%인 반면 여성은 1억원 이상이 29.1%로 나타났다. 가구부채에서도 성별의 차이는 대표응답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인 경우 가구부채가 없는 경우가 60%를 초과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 부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5천만원 미만과 1억 이상의 비율이 각각 15.3%, 15.8%로 분석되었으나,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경우가 각각 29.2%, 39.9%로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약 70%는 부채가 없었으나 기혼은 1억원 이상이 34.5%로 나타났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과 비취업 모두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는 부채가 없거나 5천 만원 미만의 부채인 경우가 많았으나,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의 부채 보유 비율이 높았다.

〈표 3-5〉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가구부채

(단위: %, 가구)

구분	없음	5천 만원 미만	5천만~1억 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가구)
전체	51.9	12.8	10.3	25.0	100.0	10,387
지역($\chi^2=61.1^{***}$)						
동부	50.7	12.4	10.3	26.6	100.0	8,497
읍면부	57.1	14.3	10.4	18.1	100.0	1,890
성별($\chi^2=432.2^{***}$)						
남자	68.7	13.3	7.2	10.8	100.0	2,316
여자	47.0	12.6	11.2	29.1	100.0	8,071
연령($\chi^2=704.0^{***}$)						
19-24세	79.6	8.2	3.5	8.7	100.0	1,060
25-29세	65.4	13.6	7.3	13.7	100.0	1,539
30-34세	50.1	11.6	9.9	28.4	100.0	1,770
35-39세	41.4	12.5	12.3	33.7	100.0	1,766
40-44세	42.3	13.4	12.6	31.6	100.0	2,123
45-49세	48.2	14.9	12.3	24.6	100.0	2,107
50세 이상	31.8	27.3	9.1	31.8	100.0	22
교육($\chi^2=302.5^{***}$)						
고졸이하	59.4	15.3	9.5	15.8	3,580	3,580
대졸	48.3	11.6	10.9	29.2	6,378	6,378
대학원졸	42.0	8.9	9.3	39.9	429	429
혼인상태($\chi^2=1154.1^{***}$)						
미혼	70.9	12.1	6.4	10.6	100.0	4,129
기혼	39.3	13.2	12.9	34.5	100.0	6,258
취업여부($\chi^2=4.3^{**}$)						
취업	51.7	13.0	10.7	24.6	100.0	6,341
비취업	52.1	12.5	9.7	25.7	100.0	4,046
가구소득($\chi^2=1153.1^{***}$) ¹⁾						
60% 미만	77.9	13.4	4.9	3.8	100.0	1,631
60-80% 미만	61.7	15.4	10.3	12.6	100.0	1,226
80-100% 미만	52.7	15.6	11.6	20.1	100.0	1,323
100-120% 미만	47.4	14.5	12.7	25.5	100.0	1,459
120-140% 미만	42.1	13.9	13.0	30.9	100.0	1,291
140-160% 미만	42.6	12.0	12.1	33.3	100.0	1,029
160% 이상	40.9	8.2	9.7	41.3	100.0	2,42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응답 가구의 주거 상황

본 절에서는 응답 가구의 주거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완료된 10,387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표응답자를 기준으로 응답자 특성별 주거 상황을 살펴본다. 본 절에서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대표응답자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가구 상황의 분포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 주택 유형

응답가구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5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독주택 21.5%, 다세대 주택 15.7%, 연립주택 3.1%, 오피스텔 1.8%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는 아파트의 비중이 59.4%로 가장 높았으나, 읍면부는 아파트 46.2%, 단독주택 35.8%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의 비중이 더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아파트의 비중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아파트가 46.5%, 단독주택이 28.2%, 다세대주택이 19.6%의 분포를 보였으나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은 아파트가 각각 61.9%, 71.8%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혼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비율이 더 높았고, 비취업자는 아파트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3-6〉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 유형

(단위: %, 가구)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 텔	기타	계	(가구)
전체	21.5	57.0	3.1	15.7	0.7	1.8	0.1	100.0	10,387
지역($\chi^2=391.8^{***}$)									
동부	18.4	59.4	2.5	16.8	0.6	2.2	0.1	100.0	8,497
읍면부	35.8	46.2	5.8	11.0	1.1	0.2	-	100.0	1,890
성별($\chi^2=358.0^{***}$)									
남자	33.3	41.6	2.5	18.6	0.9	2.9	0.2	100.0	2,316
여자	18.2	61.4	3.2	14.9	0.7	1.5	0.0	100.0	8,071
연령									
19-24세	35.4	41.6	1.8	16.1	1.0	3.3	0.8	100.0	1,060
25-29세	28.3	45.7	2.6	19.2	0.4	3.8	0.1	100.0	1,539
30-34세	20.2	56.2	3.8	16.2	0.8	2.8	-	100.0	1,770
35-39세	16.0	63.8	3.5	14.6	0.8	1.4	-	100.0	1,766
40-44세	17.7	63.6	2.8	14.7	0.7	0.5	-	100.0	2,123
45-49세	19.4	61.4	3.3	14.6	0.7	0.7	-	100.0	2,107
50세 이상	22.7	63.6	-	13.6	-	-	-	100.0	22
교육									
고졸이하	28.2	46.5	3.0	19.6	0.9	1.6	0.2	100.0	3,580
대졸	18.4	61.9	3.0	14.0	0.6	2.0	0.0	100.0	6,378
대학원졸	13.1	71.8	4.2	9.1	0.2	1.6	-	100.0	429
혼인상태($\chi^2=691.2^{***}$)									
미혼	31.5	43.3	2.5	18.0	0.9	3.5	0.2	100.0	4,129
기혼	15.0	66.1	3.4	14.2	0.6	0.8	-	100.0	6,258
취업여부($\chi^2=78.1^{***}$)									
취업	23.1	54.3	2.9	16.4	0.9	2.3	0.0	100.0	6,341
비취업	19.1	61.3	3.3	14.7	0.5	1.1	0.2	100.0	4,046
가구소득 ¹⁾									
60% 미만	42.2	30.3	2.5	18.8	1.0	4.9	0.4	100.0	1,631
60-80% 미만	30.6	43.8	2.6	18.9	0.8	3.0	0.2	100.0	1,226
80-100% 미만	20.9	54.3	3.7	19.0	0.8	1.3	-	100.0	1,323
100-120% 미만	15.9	62.4	2.7	17.2	0.6	1.2	-	100.0	1,459
120-140% 미만	16.4	62.4	3.2	16.5	0.5	0.9	-	100.0	1,291
140-160% 미만	14.9	66.0	3.2	14.2	0.7	1.1	-	100.0	1,029
160% 이상	12.4	73.1	3.5	9.6	0.7	0.7	-	100.0	2,42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주택 점유 형태

응답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가 25.6%, 월세 없는 전세가 16.5%, 무상(관사, 사택, 부모님댁 등)이 4.4%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와 읍면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자가 52.0%, 54.9%로 가장 높고,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각각 26.2%, 22.8%, 전세(월세 없음)이 각각 17.6%, 11.5%로 나타났다. 여자는 남자보다 자가와 전세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인 경우는 자가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각각 약 40% 내외로 나타났으나, 40세 이상은 자가 60%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자가 42.2%, 보증금 있는 월세 37.6%인 반면 기혼은 자가 59.3%, 전세(월세 없음)가 18.6%, 보증금 있는 월세 17.7%로 분석되었다.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점유형태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7〉 참조).

한편, 타 주택 소유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가구의 88.2%는 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타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8〉 참조).

다음으로 응답가구의 임대주택 여부를 살펴보면 15.6%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교육수준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하에서, 가구소득별로는 80~120%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표 3-9〉 참조).

〈표 3-7〉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가구)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부모님 댁 등)	계	(가구)
전체	52.5	16.5	25.6	0.7	0.4	4.4	100.0	10,387
지역($\chi^2=176.4^{***}$)								
동부	52.0	17.6	26.2	0.6	0.2	3.4	100.0	8,497
읍면부	54.9	11.5	22.8	1.0	1.0	8.8	100.0	1,890
성별($\chi^2=304.6^{***}$)								
남자	41.5	12.8	38.3	1.0	0.7	5.6	100.0	2,316
여자	55.6	17.5	22.0	0.6	0.3	4.1	100.0	8,071
연령								
19-24세	40.3	8.8	41.6	1.9	2.8	4.6	100.0	1,060
25-29세	40.0	15.3	38.3	0.7	0.3	5.4	100.0	1,539
30-34세	43.3	22.8	27.8	0.6	-	5.5	100.0	1,770
35-39세	54.0	19.4	20.6	0.5	0.1	5.4	100.0	1,766
40-44세	60.8	16.6	18.7	0.5	0.0	3.4	100.0	2,123
45-49세	65.8	13.3	17.6	0.4	0.0	2.8	100.0	2,107
50세 이상	63.6	4.5	22.7	-	-	9.1	100.0	22
교육($\chi^2=291.3^{***}$)								
고졸이하	47.1	12.8	33.9	1.1	0.9	4.1	100.0	3,580
대졸	55.3	18.1	21.5	0.4	0.1	4.5	100.0	6,378
대학원졸	55.5	22.1	16.8	0.2	-	5.4	100.0	429
혼인상태($\chi^2=637.5^{***}$)								
미혼	42.2	13.2	37.6	1.0	0.9	5.1	100.0	4,129
기혼	59.3	18.6	17.7	0.4	0.0	4.0	100.0	6,258
취업여부($\chi^2=48.5^{***}$)								
취업	50.9	16.8	27.0	0.6	0.1	4.4	100.0	6,341
비취업	55.0	15.9	23.3	0.7	0.7	4.3	100.0	4,046
가구소득($\chi^2=2568.8^{***}$) ¹⁾								
60% 미만	13.9	13.0	61.0	2.2	2.1	7.7	100.0	1,631
60-80% 미만	32.5	18.0	42.7	0.7	0.2	5.9	100.0	1,226
80-100% 미만	49.7	19.4	25.3	0.5	-	5.0	100.0	1,323
100-120% 미만	60.3	16.9	19.1	0.2	-	3.6	100.0	1,459
120-140% 미만	63.1	17.2	16.3	0.4	0.1	2.9	100.0	1,291
140-160% 미만	66.7	17.2	13.1	0.2	-	2.8	100.0	1,029
160% 이상	73.7	15.4	7.5	0.3	-	3.1	100.0	2,42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6)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3-8〉 대표응답자 특성별 타 주택 소유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예	아니오	계	(가구)
전체	11.8	88.2	100.0	10,387
지역($\chi^2=1.4$)				
동부	11.6	88.4	100.0	8,497
읍면부	12.5	87.5	100.0	1,890
성별($\chi^2=58.2^{***}$)				
남자	7.3	92.7	100.0	2,316
여자	13.0	87.0	100.0	8,071
연령($\chi^2=186.5^{***}$)				
19-24세	6.4	93.6	100.0	1,060
25-29세	5.8	94.2	100.0	1,539
30-34세	8.3	91.7	100.0	1,770
35-39세	12.9	87.1	100.0	1,766
40-44세	15.6	84.4	100.0	2,123
45-49세	16.8	83.2	100.0	2,107
50세 이상	9.1	90.9	100.0	22
교육($\chi^2=143.3^{***}$)				
고졸이하	7.5	92.5	100.0	3,580
대졸	13.3	86.7	100.0	6,378
대학원졸	24.5	75.5	100.0	429
혼인상태($\chi^2=116.5^{***}$)				
미혼	7.6	92.4	100.0	4,129
기혼	14.5	85.5	100.0	6,258
취업여부($\chi^2=0.4$)				
취업	11.9	88.1	100.0	6,341
비취업	11.5	88.5	100.0	4,046
가구소득($\chi^2=529.8^{***}$) ¹⁾				
60% 미만	2.9	97.1	100.0	1,631
60-80% 미만	4.4	95.6	100.0	1,226
80-100% 미만	8.5	91.5	100.0	1,323
100-120% 미만	10.5	89.5	100.0	1,459
120-140% 미만	10.9	89.1	100.0	1,291
140-160% 미만	13.7	86.3	100.0	1,029
160% 이상	23.5	76.5	100.0	2,42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3-9〉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임대주택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예	아니오	계 (가구)
전체	15.6	84.4	100.0 4,934
지역($\chi^2=0.3$)			
동부	15.5	84.5	100.0 4,081
읍면부	16.2	83.8	100.0 853
성별($\chi^2=30.7^{***}$)			
남자	10.9	89.1	100.0 1,354
여자	17.3	82.7	100.0 3,580
연령($\chi^2=50.2^{***}$)			
19-24세	11.2	88.8	100.0 633
25-29세	11.6	88.4	100.0 924
30-34세	15.3	84.7	100.0 1,004
35-39세	14.5	85.5	100.0 813
40-44세	19.8	80.2	100.0 832
45-49세	21.3	78.8	100.0 720
50세 이상	12.5	87.5	100.0 8
교육($\chi^2=31.5^{***}$)			
고졸이하	19.1	80.9	100.0 1,893
대졸	13.7	86.3	100.0 2,850
대학원졸	8.9	91.1	100.0 191
혼인상태($\chi^2=37.6^{***}$)			
미혼	12.3	87.7	100.0 2,387
기혼	18.6	81.4	100.0 2,547
취업여부($\chi^2=15.4^{***}$)			
취업	14.0	86.0	100.0 3,113
비취업	18.2	81.8	100.0 1,821
가구소득($\chi^2=56.5^{***}$) ¹⁾			
60% 미만	15.5	84.5	100.0 1,404
60-80% 미만	16.2	83.8	100.0 828
80-100% 미만	20.5	79.5	100.0 665
100-120% 미만	19.3	80.7	100.0 579
120-140% 미만	15.3	84.7	100.0 476
140-160% 미만	15.5	84.5	100.0 343
160% 이상	6.7	93.3	100.0 639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주택 시가 및 보증금

앞서 살펴본 응답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별 주택시가 및 보증금, 월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주택시가는 조사기준시점의 시가로 조사하였다.

먼저 자가인 경우의 주택시가를 살펴보면 3~5억원 미만인 경우가 28.9%로 가장 높았으며, 5억원 이상인 경우가 22.6%, 1~2억원 미만인 경우가 23.1%, 2~3억원 미만인 경우가 17.7%, 1억원 미만인 경우가 7.7%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은 3~5억원 미만인 경우가 30.6%, 읍면부는 1~2억원 미만인 경우가 36.1%로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1~2억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3~5억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주택시가 분포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1~2억원 미만인 경우가 3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5억원이 22.9%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대졸은 3~5억원 미만이 32.3%, 대학원 졸업은 5억원 이상이 49.6%로 주택의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과 기혼자 모두 주택시가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취업여부 별로도 취업과 비취업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택시가는 1~2억원 미만의 비중이 높았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3억원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0〉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주택시가: 자가의 경우

(단위: %, 가구)

구분	1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2~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계 (가구)
전체	7.7	23.1	17.7	28.9	22.6	100.0 5,453
지역($\chi^2=464.1^{***}$)						
동부	5.1	20.1	17.8	30.6	26.4	100.0 4,416
읍면부	18.7	36.1	17.1	21.6	6.6	100.0 1,037
성별($\chi^2=29.2^{***}$)						
남자	9.1	28.4	18.2	24.8	19.4	100.0 962
여자	7.4	22.0	17.6	29.8	23.3	100.0 4,491
연령($\chi^2=25.4$)						
19~24세	8.4	21.1	16.4	30.4	23.7	100.0 427
25~29세	6.3	25.9	17.7	28.3	21.8	100.0 615
30~34세	7.4	22.5	18.3	30.9	20.9	100.0 766
35~39세	6.9	21.8	17.7	30.6	22.9	100.0 953
40~44세	7.7	21.8	17.4	29.8	23.2	100.0 1,291
45~49세	8.8	24.8	18.2	25.5	22.7	100.0 1,387
50세 이상	7.1	35.7	-	28.6	28.6	100.0 14
교육($\chi^2=345.4^{***}$)						
고졸이하	13.3	30.1	19.7	22.9	14.0	100.0 1,687
대졸	5.4	20.3	17.1	32.3	24.9	100.0 3,528
대학원졸	2.5	14.7	12.2	21.0	49.6	100.0 238
혼인상태($\chi^2=10.1^*$)						
미혼	8.2	25.2	18.0	27.6	21.0	100.0 1,742
기혼	7.5	22.1	17.6	29.5	23.3	100.0 3,711
취업여부($\chi^2=8.8$)						
취업	8.0	24.1	17.9	28.0	21.9	100.0 3,228
비취업	7.2	21.6	17.3	30.2	23.6	100.0 2,225
가구소득($\chi^2=832.8^{***}$) ¹⁾						
60% 미만	22.5	42.7	15.0	13.7	6.2	100.0 227
60~80% 미만	15.8	40.2	18.3	19.1	6.5	100.0 398
80~100% 미만	13.4	32.2	19.0	26.1	9.3	100.0 658
100~120% 미만	9.2	25.3	21.3	28.5	15.7	100.0 880
120~140% 미만	6.5	24.4	19.4	32.0	17.7	100.0 815
140~160% 미만	5.7	20.3	19.2	33.5	21.3	100.0 686
160% 이상	2.5	12.9	14.3	31.0	39.3	100.0 1,789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는 응답가구의 점유 형태가 전세(보증금 없음)이거나 보증부 월세인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살펴보면 1천만~5천만원 미만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천만원 미만이 27.1%, 2억원 이상이 18.5%, 1억~2억원 미만이 13.6%, 5천만~1억원 미만이 13.3% 순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은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높지만, 2억원 이상인 경우의 분포도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읍면부 지역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46.7%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1천만원~5천만원 미만이 27.8%, 2억원 이상이 22.8%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대보증금이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1천~5천만원 미만 혹은 2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대보증금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대보증금도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도 미혼은 임대보증금이 적고, 기혼은 미혼보다는 높게 분석되었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과 미취업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임대보증금이 더 높았다. 현 주택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세는 2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는 1천만원 미만이 43.4%, 1천만~5천만원 미만이 41.0%로 나타났다.

〈표 3-11〉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임대보증금

(단위: %, 가구)

구분	1천만원 미만	1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계 (가구)
전체	27.1	27.5	13.3	13.6	18.5	100.0 4,369
지역($\chi^2=112.8^{***}$)						
동부	25.5	27.0	12.6	14.3	20.7	100.0 3,721
읍면부	36.6	30.4	17.7	9.3	6.0	100.0 648
성별($\chi^2=395.2^{***}$)						
남자	46.7	26.7	12.4	7.3	6.9	100.0 1,184
여자	19.9	27.8	13.7	15.9	22.8	100.0 3,185
연령						
19-24세	55.4	24.5	8.4	4.9	6.7	100.0 534
25-29세	37.1	30.7	11.8	10.4	10.1	100.0 825
30-34세	21.0	26.3	15.5	16.9	20.3	100.0 896
35-39세	19.1	23.6	14.6	17.8	24.9	100.0 707
40-44세	18.7	27.5	12.8	15.5	25.5	100.0 749
45-49세	18.4	31.3	15.6	13.3	21.3	100.0 652
50세 이상	16.7	66.7	-	-	16.7	100.0 6
교육($\chi^2=351.0^{***}$)						
고졸이하	37.6	30.9	13.7	9.1	8.7	100.0 1,674
대졸	21.2	25.8	13.1	16.6	23.3	100.0 2,528
대학원졸	11.4	18.6	13.8	12.0	44.3	100.0 167
혼인상태($\chi^2=701.6^{***}$)						
미혼	42.0	29.9	12.8	7.6	7.6	100.0 2,099
기혼	13.4	25.2	13.8	19.0	28.5	100.0 2,270
취업여부($\chi^2=13.9^{**}$)						
취업	27.5	28.9	13.3	13.2	17.1	100.0 2,783
비취업	26.6	25.0	13.4	14.1	20.9	100.0 1,586
가구소득($\chi^2=1457.8^{***1}$)						
60% 미만	50.7	32.0	11.0	4.3	2.0	100.0 1,207
60-80% 미만	35.8	29.9	15.2	12.1	7.0	100.0 745
80-100% 미만	20.6	29.2	18.6	18.4	13.2	100.0 592
100-120% 미만	15.3	27.1	15.3	22.3	20.0	100.0 524
120-140% 미만	10.4	28.2	11.5	23.1	26.8	100.0 433
140-160% 미만	8.7	22.1	14.4	16.7	38.1	100.0 312
160% 이상	5.9	15.5	9.2	12.9	56.5	100.0 556
현 주택 점유 형태						
전세	1.9	6.4	20.6	26.3	44.7	100.0 1,710
보증부 월세	43.4	41.0	8.6	5.3	1.7	100.0 2,659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응답가구의 점유형태가 월세 혹은 사글세인 경우의 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약 39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액 구간별은 50만원 이상이 25.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30~40만원 미만이 22.5%, 20만원 미만이 18.9%, 40~50만원 미만이 17.6%, 20~30만원 미만이 16.0%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은 50만원 이상이, 읍면부 지역은 20만원 미만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30~40만원 미만 수준의 월세 또는 사글세 비중이 가장 높지만, 여성은 50만원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30~4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20만원 미만 혹은 50만원 이상으로 양극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50만원 이상 월세 혹은 사글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30~40만원 미만이 28.8%, 40~50만원 미만이 21.5%로 나타났으며, 기혼은 50만원 이상이 34.2%, 20만원 미만이 25.2%로 나타났다. 비취업자는 취업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월세 또는 사글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세 또는 사글세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

마지막으로 살고있는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약 34.3%는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이,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보다 기혼 가구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가 주택 또는 월세 없는 전세 주택에 대출이 있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3-13〉 참조).

〈표 3-12〉 대표응답자 특성별 월세 또는 사글세 금액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가구)	평균
전체	18.9	16.0	22.5	17.6	25.0	100.0	2,766	39.0
지역($\chi^2=24.9^{***}$)								
동부	17.9	15.6	22.2	17.5	26.7	100.0	2,298	39.8
읍면부	23.9	17.9	23.5	17.9	16.7	100.0	468	34.8
성별($\chi^2=121.5^{***}$)								
남자	12.9	16.7	30.3	22.9	17.2	100.0	927	36.1
여자	21.9	15.7	18.5	15.0	29.0	100.0	1,839	40.4
연령								
19~24세	10.6	16.9	30.8	24.2	17.5	100.0	491	36.5
25~29세	14.7	15.2	25.1	21.8	23.1	100.0	605	37.1
30~34세	19.7	15.5	22.7	14.9	27.1	100.0	502	39.5
35~39세	22.2	15.8	19.0	14.7	28.3	100.0	374	41.3
40~44세	25.7	15.9	15.9	12.5	29.9	100.0	408	42.0
45~49세	24.7	17.3	17.8	13.6	26.5	100.0	381	38.8
50세 이상	20.0	-	-	60.0	20.0	100.0	5	40.2
교육($\chi^2=54.3^{***}$)								
고졸이하	18.3	17.5	25.1	19.5	19.7	100.0	1,287	35.8
대졸	19.6	15.1	20.3	16.1	28.9	100.0	1,406	40.6
대학원졸	16.4	8.2	16.4	13.7	45.2	100.0	73	64.7
혼인상태($\chi^2=212.1^{***}$)								
미혼	14.5	16.6	28.8	21.5	18.6	100.0	1,630	35.9
기혼	25.2	15.2	13.3	12.1	34.2	100.0	1,136	43.4
취업여부($\chi^2=15.1^{**}$)								
취업	17.4	14.9	23.3	18.5	26.0	100.0	1,763	39.0
비취업	21.5	18.0	21.0	16.1	23.3	100.0	1,003	39.0
가구소득($\chi^2=362.9^{***1)$)								
60% 미만	16.4	19.1	29.9	21.1	13.4	100.0	1,066	33.2
60~80% 미만	18.9	16.3	23.2	22.8	18.9	100.0	535	35.0
80~100% 미만	21.3	18.1	18.4	12.0	30.1	100.0	342	36.5
100~120% 미만	23.8	12.5	13.9	15.7	34.2	100.0	281	41.7
120~140% 미만	22.1	11.1	20.3	12.4	34.1	100.0	217	40.9
140~160% 미만	26.3	9.5	15.3	10.9	38.0	100.0	137	42.9
160% 이상	12.2	9.6	5.9	6.9	65.4	100.0	188	78.7
가구원수($\chi^2=329.0^{***}$)								
1인	11.1	16.1	31.2	24.3	17.3	100.0	1,381	36.2
2인	25.5	15.4	15.1	13.8	30.3	100.0	538	37.3
3인	27.4	17.1	13.7	9.3	32.6	100.0	387	42.1
4인 이상	27.6	15.7	12.2	8.9	35.7	100.0	460	46.6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3〉 대표응답자 특성별 응답가구의 대출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있음	없음	모르겠다	계	(가구)
전체	34.3	64.9	0.8	100.0	10,387
지역($\chi^2=55.0^{***}$)					
동부	35.9	63.3	0.8	100.0	8,497
읍면부	27.0	72.3	0.7	100.0	1,890
성별($\chi^2=397.2^{***}$)					
남자	17.3	81.1	1.6	100.0	2,316
여자	39.2	60.3	0.5	100.0	8,071
연령					
19-24세	11.2	85.1	3.7	100.0	1,060
25-29세	22.5	76.3	1.2	100.0	1,539
30-34세	38.4	60.9	0.7	100.0	1,770
35-39세	44.8	54.8	0.3	100.0	1,766
40-44세	42.0	58.0	0.0	100.0	2,123
45-49세	34.2	65.6	0.2	100.0	2,107
50세 이상	50.0	50.0	-	100.0	22
교육($\chi^2=143.8^{***}$)					
고졸이하	26.7	72.2	1.1	100.0	3,580
대출	38.1	61.3	0.6	100.0	6,378
대학원졸	40.8	58.5	0.7	100.0	429
혼인상태($\chi^2=1001.6^{***}$)					
미혼	16.8	81.4	1.9	100.0	4,129
기혼	45.8	54.1	0.1	100.0	6,258
취업여부($\chi^2=12.0^{**}$)					
취업	33.6	65.8	0.6	100.0	6,341
비취업	35.3	63.6	1.1	100.0	4,046
가구소득($\chi^2=571.4^{***}$) ¹⁾					
60% 미만	12.1	87.0	0.9	100.0	1,631
60-80% 미만	25.4	74.0	0.7	100.0	1,226
80-100% 미만	34.2	65.2	0.6	100.0	1,323
100-120% 미만	40.0	59.1	1.0	100.0	1,459
120-140% 미만	43.9	55.6	0.5	100.0	1,291
140-160% 미만	43.7	55.6	0.7	100.0	1,029
160% 이상	41.1	57.9	0.9	100.0	2,428
현 주택 점유형태					
자가	46.5	52.7	0.8	100.0	5,453
전세(월세 없음)	46.0	53.5	0.6	100.0	1,710
보증금 있는 월세	9.0	90.5	0.5	100.0	2,659
보증금 없는 월세	1.4	98.6	-	100.0	69
사글세	-	97.4	2.6	100.0	38
무상(관사, 사택, 부모님 댁 등)	-	97.2	2.8	100.0	45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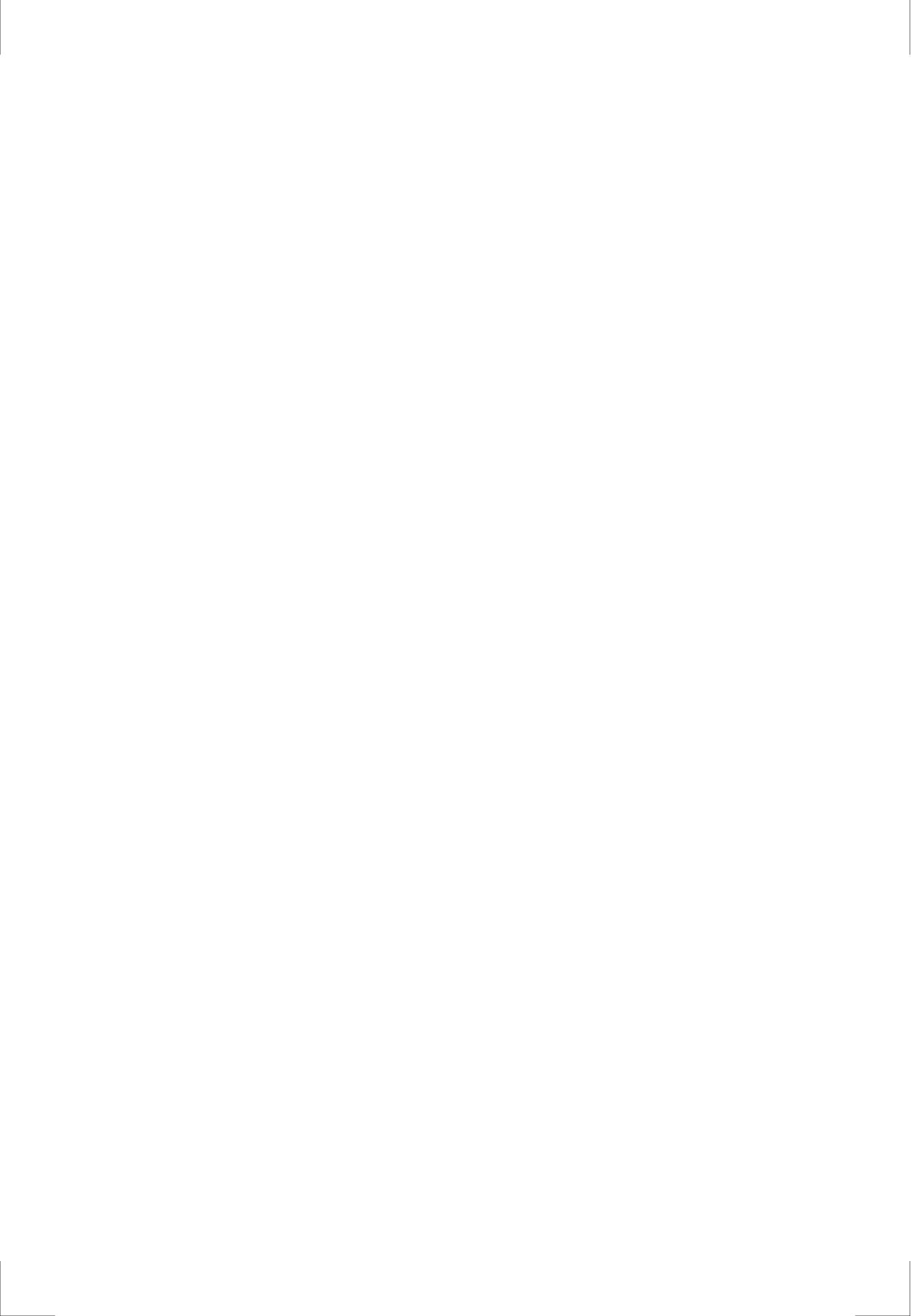
동거와 결혼

제1절 배우자 또는 교제상대 유무와 만남의 방식

제2절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제3절 결혼 의향에 따른 특성 분석

제4절 이혼 특성



제4장 동거와 결혼

이 장은 결혼, 동거, 교제 등과 같은 개인의 친밀성 및 가족생활에 관한 조사내용을 다루며, 특히 결혼에 대한 기대와 가치, 전망을 다루도록 한다.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는 주로 혼인여부와 배우자유무를 중심으로 응답자의 가족생활을 파악한다. 이 조사는 이와 같은 혼인상태 파악이라는 목표를 포함하면서도 비혼 교제나 비혼 동거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응답자의 실태 파악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비혼 인구의 교제나 동거 실태를 포함하는 것은 개인들의 친밀한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현대적 결혼의 대부분이 비혼 상태에서의 교제에서 시작하는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혼연령이나 혼인율 등 인구학적 변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결혼 사건 전후의 과정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조사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교제관계를 조사에 포함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단순한 교제관계를 넘어 사실상의 배우자 관계를 형성하는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경험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법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제도적, 비제도적 차별 경험도 조사하였다. 본인의 비혼 동거 의향도 조사하여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정도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법적 혼인 관계 외부의 ‘가족 다양성’ 사례는 수적으로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덜 가시화되어 있지만, 친밀성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조사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에 맞춰져 있다. 결혼의 가치를 사랑, 동반자관계, 경제적 안정, 가족/사회로부터의 인정이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현재 결혼한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과 향후 결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가치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는 향후 결혼의향과 3년 이내 결혼의향, 그리고 각 응답의 이유 등을 조사하여, 개인의 결혼행동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얻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결혼의 형식적 구성요소로서 결혼식, 혼인신고, 부부간 동거 등의 실태에도 주목한다. 결혼이라는 한 범주에 속하더라도 혼인신고나 결혼식, 동거시점 등에서 형태상의 다양성과 유연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력을 파악하였고 이혼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룬다.

제1절 배우자 또는 교제상대 유무와 만남의 방식

1. 배우자 또는 교제상대 유무

19~49세 전체 응답자의 사적 친밀성 관계는 다양하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혼인상태와 배우자 유무의 교차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45.3%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54.7%는 비혼자로 나타났다. 비혼자들은 현재 배우자가 없다는 공통성이 있지만, 결혼경험 여부, 교제상대 여부, 동거자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표 4-1>은 우선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배우자나 교제상대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교제상대까지 포함했을 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9.4%

로 나타나 앞의 유배우자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배우자도 없고 교제상대도 없는 사람의 비율은 40.6%로 조사되었다.

〈표 4-1〉 현재 배우자 또는 교제상대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59.4	40.6	100.0	14,372
거주지($x^2=63.5^{***}$)				
동부	57.9	42.1	100.0	11,869
읍면부	66.5	33.5	100.0	2,503
성($x^2=125.7^{***}$)				
남자	55.0	45.0	100.0	7,445
여자	64.2	35.8	100.0	6,927
연령($x^2=2,905.0^{***}$)				
19~24세	21.1	78.9	100.0	2,542
25~29세	41.7	58.3	100.0	2,257
30~34세	59.6	40.4	100.0	2,065
35~39세	73.7	26.3	100.0	2,357
40~44세	79.6	20.4	100.0	2,679
45~49세	79.3	20.7	100.0	2,472
교육수준($x^2=560.5^{***}$)				
고졸이하	47.3	52.7	100.0	5,418
대졸	66.0	34.0	100.0	8,365
대학원졸	77.7	22.3	100.0	589
혼인여부($x^2=7,053.1^{***}$)				
미혼	26.5	73.5	100.0	7,497
기혼	95.3	4.7	100.0	6,875
취업여부($x^2=315.9^{***}$)				
취업	64.3	35.7	100.0	9,881
비취업	48.6	51.4	100.0	4,491
가구소득($x^2=946.2^{***}$) ¹⁾				
60%미만	31.8	68.2	100.0	1,990
60~80%미만	47.3	52.7	100.0	1,571
80~100%미만	63.4	36.6	100.0	1,758
100~120%미만	66.1	33.9	100.0	1,963
120~140%미만	66.9	33.1	100.0	1,837
140~160%미만	69.0	31.0	100.0	1,509
160%이상	66.2	33.8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나 교제상대가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24세와 25~29세, 즉 20대 집단이 배우자 뿐만 아니라 교제상대도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결혼한 경험이 없는 미혼의 경우, 현재 교제상대가 있는 비율은 26.5%로 확인되었다.

2. 만남의 방식

현재의 배우자 또는 교제상대를 만난 계기는 주로 ‘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56.3%는 현재 배우자 또는 교제상대를 친구, 동료, 지인 등의 소개로 만났다고 응답했다. 가족의 소개로 만난 비율은 3.7%, 결혼정보회사는 1.1%에 불과했다. 교제 당사자를 연결해주는 ‘소개’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주요한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누가 소개해주는 가도 중요하다. 당사자들과 수평적 관계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을 통한 비공식적인 소개가 대부분이고, 부모 등이 포함된 가족의 소개는 드문 편이며,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소개의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개 이외의 방식은 학교, 직장, 우연한 만남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경우가 11.0%, 같은 학교에서 만난 경우가 10.8%로 나타났으며, 사교적 모임에서 만난 경우가 14.4%를 차지했다. 데이트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만남은 2.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4세는 같은 학교에서 만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개를 통한 만남 비율이 낮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같은 학교에서 만난 비율은 감소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비율이 늘어났다. 비혼자의 교제와 비교하여, 기혼자의 배우자나 교제상대 만남에서는 소개로 만난 비율이 높았고, 같은 학교나 직장에서 직접 만난 비율이 낮았다.

대부분의 결혼이 30세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배우자를 만나는 방식도 학교나 직장과 같은 근접 생활권에서의 직접 만남보다 소개를 통한 만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SNS와 데이트 앱 등 IT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 교제상대를 탐색하는 것은 아직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앞으로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제상대(또는 배우자) 만남 방식의 변화가 특정한 방향의 결혼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 교제상대 있는 경우의 교제 계기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명
전체	11.0	10.8	14.4	2.5	56.3	3.7	1.1	0.1	100.0	8,538
거주지($\chi^2=52.0^{***}$)										
동부	11.1	11.3	14.6	2.6	55.8	3.8	0.7	0.1	100.0	6,874
읍면부	10.6	9.0	13.5	2.3	58.6	3.3	2.6	0.1	100.0	1,665
성($\chi^2=7.7$)										
남자	10.8	11.1	14.2	2.6	56.9	3.3	1.1	0.0	100.0	4,093
여자	11.2	10.5	14.7	2.5	55.9	4.1	1.1	0.1	100.0	4,445
연령($\chi^2=751.2^{***}$)										
19~24세	6.2	41.6	12.9	2.9	35.7	0.2	0.5	-	100.0	535
25~29세	14.6	17.1	13.9	2.3	50.6	1.2	0.4	-	100.0	940
30~34세	11.8	8.8	15.0	2.9	58.4	2.0	0.8	0.2	100.0	1,230
35~39세	11.5	8.5	16.1	2.2	56.4	3.7	1.5	0.1	100.0	1,737
40~44세	10.3	6.9	13.6	2.5	60.5	4.9	1.2	0.1	100.0	2,133
45~49세	10.3	7.0	14.1	2.8	58.8	5.7	1.3	0.1	100.0	1,962
교육수준($\chi^2=104.4^{***}$)										
고졸이하	10.8	10.6	14.0	3.2	55.6	3.5	2.3	0.1	100.0	2,563
대졸	11.4	10.3	14.6	2.2	57.2	3.6	0.5	0.1	100.0	5,518
대학원졸	6.6	18.2	14.3	3.0	50.1	6.2	1.6	-	100.0	458
혼인여부($\chi^2=253.2^{***}$)										
미혼	12.4	19.0	14.6	2.3	50.4	0.7	0.5	0.0	100.0	1,984
기혼	10.5	8.3	14.4	2.6	58.1	4.6	1.3	0.1	100.0	6,554
취업여부($\chi^2=105.1^{***}$)										
취업	12.1	9.1	14.4	2.4	57.3	3.5	1.1	0.1	100.0	6,355
비취업	7.7	15.7	14.4	3.1	53.5	4.3	1.2	0.1	100.0	2,183
가구소득($\chi^2=246.8^{***}$) ¹⁾										
60%미만	12.0	21.5	16.5	4.0	42.1	1.1	2.9	-	100.0	633
60~80%미만	11.9	7.5	12.2	4.9	58.9	2.8	1.5	0.3	100.0	742
80~100%미만	8.4	6.7	15.7	2.3	61.5	3.6	1.7	0.1	100.0	1,114
100~120%미만	11.8	10.3	13.1	2.9	56.4	4.5	1.1	0.0	100.0	1,297
120~140%미만	11.4	8.3	16.6	1.8	57.7	3.3	0.8	0.1	100.0	1,230
140~160%미만	10.0	11.7	13.9	2.8	56.8	4.6	0.2	0.1	100.0	1,042
160%이상	11.3	12.1	13.9	1.7	56.0	4.1	0.8	0.1	100.0	2,48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4) ①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②같은 학교에 다니다가, ③종교·취미 모임이나 우연한 기회 등 대면 만남을 통해, ④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나 온라인 소개 서비스(데이팅 앱) 등을 통해, ⑤친구, 동료, 지인 등의 소개로, ⑥가족의 소개로, ⑦배우자/애인 소개 기관(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⑧기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19~49세 전체 응답자 중에서 배우자나 교제상대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제의향을 질문한 결과, 60.7%는 교제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39.3%는 교제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표 4-3〉 참조).

도시 거주자의 교제의향이 농촌 거주자와 비교하여 더 낮았다. 성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제자 남성은 68.4%가 교제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비교제자 여성 중 교제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0.5%에 불과했다. 남녀의 격차가 17.9%p로 매우 컸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다. 19~24세, 25~29세, 30~34세의 교제의향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35~39세의 교제의향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40~44세와 45~49세는 교제의향 수준이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고졸이하와 대졸은 유사한 수준이나, 대학원졸 이상은 교제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경험이 없는 미혼 비교제자들은 63.3%가 교제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결혼경험이 있는 비교제자들 중 교제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교제의향이 결혼의향이나 동거의향, 또는 출산의향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향후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교제상대가 없는 사람들의 향후 교제의향도 절반을 넘기기는 하지만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닌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3〉 교제상대 없는 경우의 교제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리함	매우 그리함	계	명
전체	11.8	27.5	48.8	11.9	100.0	5,834
거주지($x^2=14.8^{**}$)						
동부	12.3	27.9	48.1	11.7	100.0	4,995
읍면부	8.7	25.0	53.1	13.2	100.0	838
성($x^2=224.1^{***}$)						
남자	8.2	23.4	53.5	14.9	100.0	3,352
여자	16.6	33.0	42.5	8.0	100.0	2,482
연령($x^2=308.5^{***}$)						
19~24세	8.3	25.0	55.1	11.6	100.0	2,006
25~29세	8.8	24.8	53.5	12.9	100.0	1,316
30~34세	12.9	23.1	47.2	16.8	100.0	835
35~39세	11.0	28.6	48.4	12.0	100.0	620
40~44세	19.9	35.1	34.8	10.2	100.0	546
45~49세	23.6	41.4	30.4	4.5	100.0	511
교육수준($x^2=14.4^{**}$)						
고졸이하	11.3	27.5	49.6	11.6	100.0	2,855
대졸	11.9	27.4	48.6	12.1	100.0	2,847
대학원졸	19.7	29.2	35.8	15.2	100.0	131
혼인여부($x^2=311.8^{***}$)						
미혼	10.5	26.2	50.8	12.5	100.0	5,513
기혼	34.3	49.1	14.6	2.0	100.0	321
취업여부($x^2=32.1^{***}$)						
취업	12.3	26.2	47.9	13.7	100.0	3,526
비취업	11.0	29.5	50.3	9.3	100.0	2,308
가구소득($x^2=60.0^{***}$) ¹⁾						
60%미만	13.4	29.1	46.0	11.5	100.0	1,357
60~80%미만	14.6	26.9	46.1	12.4	100.0	828
80~100%미만	13.7	30.4	43.8	12.1	100.0	643
100~120%미만	11.2	29.3	49.2	10.2	100.0	666
120~140%미만	11.7	23.1	53.1	12.0	100.0	607
140~160%미만	5.6	29.3	51.0	14.1	100.0	467
160%이상	9.9	25.0	53.1	12.0	100.0	1,26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1. 사실혼 실태와 차별경험

이 조사에서 결혼여부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파악하며, 다만 혼인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한다.

현재 결혼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사례(N=6,511명) 중에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은 95.9%를 차지하며, 나머지 4.1%는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결혼 중 사실혼 비중은 이처럼 낮지만,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서 19~24세의 사실혼 비중은 52.3%, 25~29세는 27.7%, 30~34세는 10.2%로 나타나, 30대 초반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결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60% 미만과 60~80% 미만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4)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인신고 여부

(단위: %, 명)

구분	하였음	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95.9	4.1	100.0	6,511
거주지($\chi^2=1.7$)				
동부	95.8	4.2	100.0	5,171
읍면부	96.6	3.4	100.0	1,340
성($\chi^2=3.9^*$)				
남자	95.4	4.6	100.0	3,017
여자	96.4	3.6	100.0	3,494
연령($\chi^2=630.1^{***}$)				
19~24세	47.7	52.3	100.0	29
25~29세	72.3	27.7	100.0	219
30~34세	89.8	10.2	100.0	774
35~39세	96.3	3.7	100.0	1,553
40~44세	98.5	1.5	100.0	2,046
45~49세	98.8	1.2	100.0	1,890
교육수준($\chi^2=5.9$)				
고졸이하	95.0	5.0	100.0	1,798
대졸	96.3	3.7	100.0	4,311
대학원졸	95.6	4.4	100.0	402
취업여부($\chi^2=12.2^{***}$)				
취업	95.4	4.6	100.0	4,886
비취업	97.4	2.6	100.0	1,625
가구소득($\chi^2=36.8^{***})^1)$				
60%미만	88.0	12.0	100.0	114
60~80%미만	92.4	7.6	100.0	408
80~100%미만	96.3	3.7	100.0	887
100~120%미만	96.5	3.5	100.0	1,110
120~140%미만	95.5	4.5	100.0	1,080
140~160%미만	96.4	3.6	100.0	900
160%이상	96.6	3.4	100.0	2,0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배우자관계를 형성하였지만 혼인신고(와 결혼식) 등과 같이 관계를 확정짓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의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 제도적인 유연성 크기 때문에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사실혼 이유 조사 결과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표 4-5〉는 사실혼 상태에 있는 266명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이다. 주택청약, 은행대출, 세금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31.1%를 차지하였고, 함께 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응답도 31.0%로 나타났다. 결혼제도를 벗어나 자유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라는 응답도 1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금부족이나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는 응답도 11.0%를 차지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사실혼 비중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사실혼관계로 집계된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혼인신고를 미룸으로써 제도적 편의성을 추구하거나 확신을 얻을 시간을 벌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4-5〉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체	100.0(266)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를 원해서	18.3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	31.0
주택청약, 은행대출, 세금 등에서 혼인신고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31.1
자금부족,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	11.0
아이의 친권이나 재산상속권 등 법적 문제 때문에	2.1
결혼상대에 대한 가족의 반대나 법적 제약 때문	2.1
기타	4.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러한 사실은 향후 혼인신고 의향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사실 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향후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91.7%로 나타났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0%, 모르겠음은 5.2%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는 응답 중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전체의 67.4%),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실혼 상태에서 법률혼 상태로 곧 이행할 커플들이 이 사례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6〉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 계획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체	100.0(266)
전혀 할 계획 없음	0.1
아마 하지 않을 것임	2.9
아마 할 것임	24.3
확실히 할 것임	67.4
모르겠음	5.2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 표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결혼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15.6%가 정부지원 혜택에서의 제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보호자로서 역할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경험한 비율은 10.1%로 나타났다. 은행이나 기업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5.6%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위축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6.1%로 낮은 수준이었다.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시선을 경험한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자녀를 갖기 위한 의학적 시술이나 지원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1.9%로 나타나 경험

를 자체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 중 사실혼 상태의 사람들은 법적 혼인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정책, 민간 기업 서비스, 민법적인 권리와 의무 등의 영역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가족관계나 비가족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사실혼에 대한 부정적인 대우나 차별적 시선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4-7〉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하지 않아서 겪는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음	없었음	있었음	자주 있었음	계	명
정부지원 혜택에서의 제외	51.3	33.1	14.7	0.9	100	266
서로 법적 보호자로서 역할 제약	57.1	32.8	9.7	0.4	100	266
금융·일상생활 서비스 혜택 제한 정도	51.9	32.5	14.9	0.7	100	266
가족 및 친족 관계에서의 위축	60.3	33.7	5.3	0.8	100	266
지역, 직장, 사고 모임 등에서의 부정적 시선 정도	67.6	27.9	4.2	0.2	100	266
자녀를 갖기 위한 의학적 시술이나 지원 등에서의 차별 정도	78.8	19.3	1.9	-	100	266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결혼식 여부와 실제 결혼시점에 대한 인식

결혼한 사람 중 94.6%가 결혼식을 했고 5.4%는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연령층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5세 이상에서는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4%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수준 등 계층적 위계에서 하위에 있을 때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등 부정적 요인이 결혼식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8〉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이 있는 경우, 결혼식 여부

(단위: %, 명)

구분	하였음	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94.6	5.4	100.0	6,511
거주지($\chi^2=0.1$)				
동부	94.5	5.5	100.0	5,171
읍면부	94.7	5.3	100.0	1,340
성($\chi^2=4.1^*$)				
남자	93.9	6.1	100.0	3,017
여자	95.1	4.9	100.0	3,494
연령($\chi^2=673.3^{***}$)				
19~24세	27.1	72.9	100.0	29
25~29세	65.5	34.5	100.0	219
30~34세	91.1	8.9	100.0	774
35~39세	96.2	3.8	100.0	1,553
40~44세	96.4	3.6	100.0	2,046
45~49세	97.1	2.9	100.0	1,890
교육수준($\chi^2=115.5^{***}$)				
고졸이하	89.7	10.3	100.0	1,798
대졸	96.4	3.6	100.0	4,311
대학원졸	97.1	2.9	100.0	402
취업여부($\chi^2=1.1$)				
취업	94.4	5.6	100.0	4,886
비취업	95.1	4.9	100.0	1,625
가구소득($\chi^2=102.9^{***}$) ¹⁾				
60%미만	82.6	17.4	100.0	114
60~80%미만	89.7	10.3	100.0	408
80~100%미만	91.4	8.6	100.0	887
100~120%미만	94.0	6.0	100.0	1,110
120~140%미만	94.3	5.7	100.0	1,080
140~160%미만	97.0	3.0	100.0	900
160%이상	97.0	3.0	100.0	2,0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혼인신고나 결혼식 없이 결혼한 사례는 여전히 소수이지만, 함께 살기, 결혼식, 혼인신고, 가족과의 상견례 등 결혼을 이루는 의례 또는 법적 조치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사건들 사이의 시간적 순서도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결혼식 의례와 법적인 혼인신고, 부부공동생활 등이 모두 이루어지고 이 세 요소가 결혼을 완성한다고 이해한다면, 시간적 순서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 <표 4-9>가 보여주듯이, 결혼생활의 시작 시점에 대한 개인들의 생각은 어느 하나로 확실하게 수렴하지는 않고 있다. 70.1%는 결혼식을 한 시점이 결혼생활의 시작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그 외 20.3%는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이 결혼의 시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 결혼의 시작이라는 응답도 9.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지만, 연령집단 간의 차이는 뚜렷하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식 시점을 결혼생활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이나 혼인신고 시점을 결혼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저연령층에 사실혼이 과대표집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표 4-9〉 현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	결혼식을 한 시점	혼인신고를 한 시점	계	명
전체	20.3	70.1	9.6	100.0	6,506
거주지($\chi^2=6.9^*$)					
동부	19.7	70.4	9.9	100.0	5,169
읍면부	22.5	69.3	8.3	100.0	1,337
성($\chi^2=1.3$)					
남자	20.7	69.5	9.8	100.0	3,016
여자	19.9	70.7	9.3	100.0	3,491
연령($\chi^2=247.8^{***}$)					
19~24세	80.0	17.8	2.2	100.0	29
25~29세	42.0	38.8	19.2	100.0	219
30~34세	26.1	60.3	13.6	100.0	772
35~39세	19.4	69.9	10.7	100.0	1,551
40~44세	19.2	72.1	8.7	100.0	2,045
45~49세	16.4	76.6	7.0	100.0	1,889
교육수준($\chi^2=110.8^{***}$)					
고졸이하	27.8	60.8	11.4	100.0	1,796
대졸	17.6	73.4	9.0	100.0	4,308
대학원졸	15.5	76.6	7.9	100.0	402
취업여부($\chi^2=0.5$)					
취업	20.4	70.2	9.4	100.0	4,883
비취업	19.9	70.1	10.0	100.0	1,624
가구소득($\chi^2=84.7^{***}$) ¹⁾					
60%미만	27.9	64.7	7.3	100.0	114
60~80%미만	32.4	57.4	10.2	100.0	408
80~100%미만	23.0	63.9	13.1	100.0	887
100~120%미만	20.7	69.0	10.2	100.0	1,108
120~140%미만	18.5	72.0	9.5	100.0	1,078
140~160%미만	17.5	74.3	8.2	100.0	900
160%이상	18.1	73.6	8.3	100.0	2,01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결혼 당시 결혼 가치관과 결혼생활 만족도

혼인신고나 결혼식여부와 상관없이 결혼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결혼 당시 다음 네 가지 항목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4-10>은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응답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사랑(81.9%)과 동반자 관계(81.8%)를 구축하는 것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53.2%)과 가족 또는 사회적 기대 충족(45.1%)은 그보다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4-10>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종합): 많이 고려+매우 많이 고려

(단위: %, 명)

구분	사랑	경제적안정	동반자관계	가족/사회적 기대 충족	명
전체	81.9	53.2	81.8	45.1	6,511
거주지					
동부	82.1	52.4	81.6	44.5	5,171
읍면부	81.4	56.3	82.3	47.5	1,340
성					
남자	84.6	47.0	83.3	42.0	3,017
여자	79.6	58.5	80.5	47.8	3,494
연령					
19~24세	83.0	46.6	68.5	25.4	29
25~29세	85.3	56.6	88.0	45.8	219
30~34세	85.9	60.1	85.9	46.3	774
35~39세	84.3	55.7	83.9	45.9	1,553
40~44세	79.5	49.3	80.2	45.1	2,046
45~49세	80.6	52.2	79.5	44.1	1,890
교육수준					
고졸이하	76.4	50.0	75.8	40.7	1,798
대졸	84.0	54.5	84.1	46.2	4,311
대학원졸	84.7	53.6	83.8	53.0	402
취업여부					
취업	83.3	51.7	82.4	45.0	4,886
비취업	77.8	57.7	79.9	45.4	1,625

구분	사랑	경제적안정	동반자관계	가족/사회적 기대 충족	명
가구소득 ¹⁾					
60%미만	71.9	36.9	75.9	29.3	114
60~80%미만	77.4	46.1	77.8	36.4	408
80~100%미만	79.1	49.5	77.0	42.0	887
100~120%미만	81.3	54.2	80.5	43.5	1,110
120~140%미만	82.1	57.5	82.7	46.5	1,080
140~160%미만	82.6	53.7	84.8	46.5	900
160%이상	84.7	54.0	83.9	48.6	2,0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현대적 결혼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대의 결혼과 구분될 수 있다. 사랑은 해당 결혼이 충분히 자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조사에서 사랑의 가치는 결혼 당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이었으며, 매우 많이 고려했다는 응답은 33.4%, 많이 고려했다는 응답은 48.6%이고, 보통이거나(9.8%) 조금(5.0%), 매우 조금(3.2%) 고려했다는 응답 비중도 작지 않게 나타났다. 사랑은 여전히 결혼의 중요한 동기이고 결혼의 가치이지만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이라고까지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4-11〉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 사랑(연애)의 실현 또는 완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함	조금 고려함	보통	많이 고려함	매우 많이 고려함	계	명
전체	3.2	5.0	9.8	48.6	33.4	100.0	6,511
거주지($\chi^2=14.4^{**}$)							
동부	3.3	5.1	9.5	47.8	34.3	100.0	5,171
읍면부	2.6	4.8	11.1	51.7	29.8	100.0	1,340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함	조금 고려함	보통	많이 고려함	매우 많이 고려함	계	명
성($x^2=39.2^{***}$)							
남자	2.9	4.7	7.8	51.7	32.9	100.0	3,017
여자	3.4	5.3	11.7	45.9	33.8	100.0	3,494
연령							
19~24세	1.3	3.1	12.7	48.0	35.0	100.0	29
25~29세	1.8	4.9	8.0	43.7	41.5	100.0	219
30~34세	3.2	2.8	8.1	46.1	39.8	100.0	774
35~39세	3.5	4.1	8.0	48.3	36.0	100.0	1,553
40~44세	3.1	6.0	11.3	49.4	30.1	100.0	2,046
45~49세	3.1	5.7	10.6	49.5	31.1	100.0	1,890
교육수준($x^2=74.6^{***}$)							
고졸이하	3.0	6.6	14.0	46.1	30.3	100.0	1,798
대졸	3.2	4.6	8.2	49.9	34.1	100.0	4,311
대학원졸	4.1	2.4	8.8	45.9	38.9	100.0	402
취업여부($x^2=34.0^{***}$)							
취업	2.7	5.0	8.9	49.9	33.5	100.0	4,886
비취업	4.5	5.2	12.6	44.7	33.1	100.0	1,625
가구소득($x^2=56.0^{***}$) ¹⁾							
60%미만	3.4	8.9	15.7	39.8	32.1	100.0	114
60~80%미만	3.6	7.8	11.2	49.3	28.1	100.0	408
80~100%미만	2.6	5.3	13.0	45.1	34.0	100.0	887
100~120%미만	3.2	6.2	9.3	49.7	31.7	100.0	1,110
120~140%미만	3.3	5.3	9.3	49.2	32.9	100.0	1,080
140~160%미만	2.6	5.0	9.7	48.4	34.2	100.0	900
160%이상	3.4	3.4	8.5	49.6	35.1	100.0	2,0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앞의 사랑에 비해 낮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인 것을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경제적인 것을 더 많이 고려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2〉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

(단위: %, 명)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함	조금 고려함	보통	많이 고려함	매우 많이 고려함	계	명
전체	3.7	12.6	30.5	39.0	14.1	100.0	6,511
거주지($\chi^2=10.4^*$)							
동부	3.8	13.0	30.8	38.1	14.2	100.0	5,171
읍면부	3.2	11.0	29.6	42.5	13.8	100.0	1,340
성($\chi^2=94.6^{***}$)							
남자	3.8	13.8	35.4	35.5	11.5	100.0	3,017
여자	3.6	11.6	26.4	42.1	16.4	100.0	3,494
연령($\chi^2=57.2^{***}$)							
19~24세	6.9	15.9	30.6	38.8	7.9	100.0	29
25~29세	5.4	12.9	25.0	41.0	15.6	100.0	219
30~34세	3.3	9.6	27.1	41.4	18.7	100.0	774
35~39세	3.7	10.2	30.4	41.0	14.7	100.0	1,553
40~44세	4.2	14.7	31.8	36.9	12.4	100.0	2,046
45~49세	3.1	13.4	31.3	38.6	13.6	100.0	1,890
교육수준($\chi^2=25.6^{***}$)							
고졸이하	3.9	14.9	31.2	35.6	14.4	100.0	1,798
대졸	3.4	11.8	30.3	40.6	13.9	100.0	4,311
대학원졸	5.4	10.3	30.6	37.9	15.7	100.0	402
취업여부($\chi^2=27.9^{***}$)							
취업	3.6	12.6	32.1	38.3	13.4	100.0	4,886
비취업	4.0	12.4	25.8	41.2	16.5	100.0	1,625
가구소득($\chi^2=62.6^{***1}$)							
60%미만	5.6	19.7	37.8	25.6	11.3	100.0	114
60~80%미만	6.6	15.6	31.7	34.6	11.5	100.0	408
80~100%미만	3.3	14.3	32.9	37.2	12.3	100.0	887
100~120%미만	4.0	11.8	30.0	40.6	13.5	100.0	1,110
120~140%미만	2.9	11.4	28.1	42.1	15.4	100.0	1,080
140~160%미만	3.2	14.7	28.4	40.7	13.0	100.0	900
160%이상	3.7	11.0	31.3	38.3	15.8	100.0	2,0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결혼을 통해 인생의 동반자를 얻는다는 인식은 사랑의 실현과 더불어 결혼의 가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응답자들의 81.8%가 동반자관계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고졸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이 이 가치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며, 가구소득수준이 중간 이상인 집단이 이 가치를 많이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표 4-13〉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 인생의 동반자관계 구축

(단위: %, 명)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함	조금 고려함	보통	많이 고려함	매우 많이 고려함	계	명
전체	3.0	4.5	10.8	48.3	33.5	100.0	6,511
거주지($\chi^2=33.6^{***}$)							
동부	3.1	4.6	10.7	46.6	35.0	100.0	5,171
읍면부	2.4	4.3	11.0	54.7	27.6	100.0	1,340
성($\chi^2=13.0^*$)							
남자	2.8	4.4	9.5	50.2	33.1	100.0	3,017
여자	3.1	4.6	11.8	46.6	33.9	100.0	3,494
연령							
19~24세	-	7.4	24.1	42.4	26.0	100.0	29
25~29세	1.8	2.9	7.3	44.2	43.8	100.0	219
30~34세	2.4	2.3	9.5	47.9	37.9	100.0	774
35~39세	3.2	3.8	9.2	48.5	35.3	100.0	1,553
40~44세	3.3	5.2	11.2	47.7	32.6	100.0	2,046
45~49세	2.8	5.4	12.3	49.4	30.1	100.0	1,890
교육수준($\chi^2=95.3^{***}$)							
고졸이하	2.6	5.4	16.2	47.3	28.5	100.0	1,798
대졸	3.1	4.1	8.7	48.9	35.2	100.0	4,311
대학원졸	3.0	4.4	8.8	46.3	37.5	100.0	402
취업여부($\chi^2=5.8$)							
취업	2.8	4.4	10.5	48.8	33.6	100.0	4,886
비취업	3.6	4.8	11.7	46.7	33.2	100.0	1,625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함	조금 고려함	보통	많이 고려함	매우 많이 고려함	계	명
가구소득($\chi^2=84.9^{***}$) ¹⁾							
60%미만	2.7	6.7	14.7	38.1	37.8	100.0	114
60~80%미만	2.3	6.8	13.1	49.3	28.5	100.0	408
80~100%미만	2.2	4.6	16.2	46.7	30.3	100.0	887
100~120%미만	3.7	4.9	10.9	46.9	33.6	100.0	1,110
120~140%미만	2.6	4.5	10.2	50.5	32.2	100.0	1,080
140~160%미만	2.8	4.0	8.3	53.9	30.9	100.0	900
160%이상	3.3	3.8	9.0	46.4	37.5	100.0	2,0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결혼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데 대해서도 높은 비율(45.1%)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랑이나 동반자 관계처럼 개인적 측면의 가치가 월등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기대나 인정에 대한 고려와 같은 집단적(사회적) 가치는 덜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약 40% 이상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고려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 가치를 더 많이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24세를 제외하면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소득수준에서도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대를 더 많이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표 4-14〉 배우자와 결혼 당시 고려정도: 가족사회의 기대 충족, 자위의 인정

(단위: %, 명)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함	조금 고려함	보통	많이 고려함	매우 많이 고려함	계	명
전체	6.2	12.2	36.5	32.4	12.7	100.0	6,511
거주지($x^2=15.2^{**}$)							
동부	6.5	12.6	36.4	31.5	13.0	100.0	5,171
읍면부	5.0	10.6	36.9	35.9	11.6	100.0	1,340
성($x^2=21.8^{***}$)							
남자	6.5	12.8	38.7	30.3	11.7	100.0	3,017
여자	6.0	11.6	34.7	34.2	13.6	100.0	3,494
연령($x^2=22.1$)							
19~24세	6.3	16.1	52.2	21.3	4.1	100.0	29
25~29세	9.0	12.9	32.3	32.4	13.4	100.0	219
30~34세	7.7	12.5	33.5	32.3	14.0	100.0	774
35~39세	5.9	11.4	36.8	32.6	13.3	100.0	1,553
40~44세	6.4	12.1	36.4	33.1	12.1	100.0	2,046
45~49세	5.4	12.7	37.9	31.8	12.3	100.0	1,890
교육수준($x^2=32.6^{***}$)							
고졸이하	6.3	13.1	39.9	29.5	11.2	100.0	1,798
대졸	6.1	12.2	35.6	33.1	13.1	100.0	4,311
대학원졸	7.4	7.9	31.7	37.7	15.3	100.0	402
취업여부($x^2=4.5$)							
취업	6.2	12.5	36.3	32.7	12.3	100.0	4,886
비취업	6.4	11.2	37.1	31.6	13.8	100.0	1,625
가구소득($x^2=72.8^{***}$) ¹⁾							
60%미만	10.6	15.5	44.6	18.7	10.5	100.0	114
60~80%미만	9.4	14.1	40.1	27.3	9.1	100.0	408
80~100%미만	5.4	11.5	41.1	29.4	12.6	100.0	887
100~120%미만	4.7	14.1	37.7	32.2	11.3	100.0	1,110
120~140%미만	6.3	11.9	35.4	35.2	11.3	100.0	1,080
140~160%미만	5.7	11.9	35.9	33.9	12.6	100.0	900
160%이상	6.8	11.1	33.6	33.5	15.1	100.0	2,0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7.92점(1~10점 척도 측정)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40대 초반과 40대 후반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집단은 25~29세이며, 만족도는 8.62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등 사회계층 변수도 결혼생활 만족도와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대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표 4-15〉 배우자와 결혼생활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명
전체	7.92	6,511
거주지(t=0.0)		
동부	7.96	5,171
읍면부	7.76	1,340
성(t=63.2***)		
남자	8.15	3,017
여자	7.71	3,494
연령(F=49.3***)		
19~24세	8.21	29
25~29세	8.62	219
30~34세	8.33	774
35~39세	8.18	1,553
40~44세	7.82	2,046
45~49세	7.55	1,890
교육수준(F=39.2***)		
고졸이하	7.65	1,798
대졸	7.99	4,311
대학원졸	8.28	402
취업여부(t=14.3***)		
취업	7.98	4,886
비취업	7.72	1,625
가구소득(F=14.7***) ¹⁾		
60%미만	7.55	114
60~80%미만	7.59	408
80~100%미만	7.74	887
100~120%미만	7.80	1,110
120~140%미만	7.85	1,080
140~160%미만	7.97	900
160%이상	8.16	2,0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결혼 의향에 따른 특성 분석

1. 교제 중인 비혼자의 결혼의향

이 절에서는 현재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의향과 결혼에 대한 기대 등을 살펴본다. 먼저 현재 교제상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제상대와의 결혼의향과 3년 이내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 교제상대 유무와 상관없이 비혼자들의 일반적인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본다.

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19~49세 비혼 응답자(미혼, 이혼, 별거, 사별) 7,861명 중에서 25.8%가 현재 교제상대가 있었다. 교제상대가 있는 비혼남녀의 51.4%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4.6%는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14.0%에 불과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현 교제상대와 결혼의향이 있다는 응답율이 더 높았고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은 낮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재 교제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확신을 좀 더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연령도 현 교제상대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9~24세는 결혼의향이 28.4%로 매우 낮았지만, 25~29세는 55.9%, 30~34세는 66.2%, 35~39세는 66.6%가 현재 교제하는 사람과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19~24세부터 35~39세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 교제상대와의 결혼의향 비율도 높게 나타나지만, 40~44세와 45~49세의 결혼의향은 각각 39.2%와 49.2%에 불과했다.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자의 교제상대 결혼의향은 51.8%이지만 결혼한 경험이 있는(기혼) 비혼자의 교제상대 결혼의향은 20.0%p가 낮은 31.8%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 평균 초혼연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교제상대와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현재 연령이 지금을 결혼에 적절한 시기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적정 혼인시기에 대한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적정 혼인시기가 30대 초반과 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6〉 교제상대와의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모르겠음	계	명
전체	51.4	14.0	34.6	100.0	2,027
거주지($\chi^2=29.4^{***}$)					
동부	50.1	12.9	37.0	100.0	1,702
읍면부	57.8	19.9	22.4	100.0	325
성($\chi^2=27.8^{***}$)					
남자	56.8	11.8	31.5	100.0	1,076
여자	45.2	16.6	38.2	100.0	951
연령($\chi^2=201.0^{***}$)					
19~24세	28.4	22.8	48.8	100.0	506
25~29세	55.9	10.3	33.8	100.0	722
30~34세	66.2	8.3	25.5	100.0	456
35~39세	66.6	7.7	25.7	100.0	185
40~44세	39.2	29.8	31.0	100.0	87
45~49세	49.2	23.0	27.8	100.0	71
교육수준($\chi^2=109.5^{***}$)					
고졸이하	38.0	22.0	40.1	100.0	765
대졸	59.2	9.2	31.7	100.0	1,207
대학원졸	65.3	10.4	24.2	100.0	55
혼인여부($\chi^2=24.0^{***}$)					
미혼	51.8	13.5	34.8	100.0	1,984
기혼	31.8	40.4	27.8	100.0	43
취업여부($\chi^2=68.9^{***}$)					
취업	57.0	12.8	30.2	100.0	1,469
비취업	36.5	17.4	46.2	100.0	559
가구소득($\chi^2=43.3^{***}$) ¹⁾					
60%미만	44.3	18.1	37.6	100.0	519
60~80%미만	55.2	12.5	32.3	100.0	334
80~100%미만	62.2	9.4	28.4	100.0	228
100~120%미만	53.4	14.8	31.8	100.0	187
120~140%미만	49.9	7.6	42.6	100.0	150
140~160%미만	41.3	13.9	44.8	100.0	142
160%이상	53.8	14.6	31.5	100.0	467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교제상대와 결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59.5%가 3년 이내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22.3%는 (결혼의향은 있지만) 3년 이후에 결혼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8.1%는 3년 이내 결혼의향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여, 결혼시기를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은 3년 이내 결혼의향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1.6%이고 아니라는 응답이 20.0%인 반면, 여성은 56.5%가 3년 이내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25.6%가 3년 이내 결혼의향은 없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있더라도 3년 이내에 빨리 결혼할 의향이 좀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 결혼의향에서도 연령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0~34세의 3년 이내 결혼의향이 82.2%로 가장 높았고 35~39세가 그 다음으로 높은 81.9%로 나타났다. 반대로 19~24세는 결혼의향이 있더라도 3년 이내에 결혼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7.1%에 불과했고 75.0%는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19~24세 응답자들은 3년 이내에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응답자들은 아직 교육을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25~29세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3년 이내 결혼의향 비율은 52.8%로 비교적 낮았고, 3년 이후이거나 언제일지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24.6%와 22.6%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제상대와 3년 이내 결혼의향 비율이 높고, 3년 이후라는 응답비율은 낮아졌다. 취업여부도 마찬가지로인데, 취업한 사람이 비취업자에 비해 교제상대와 3년 이내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7〉 교제상대와의 3년 내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59.5	22.3	18.1	100.0	1,041
거주지($\chi^2=1.9$)					
동부	59.4	23.1	17.6	100.0	853
읍면부	60.2	19.1	20.7	100.0	188
성($\chi^2=4.7$)					
남자	61.6	20.0	18.3	100.0	611
여자	56.5	25.6	17.9	100.0	430
연령($\chi^2=373.0^{***}$)					
19~24세	7.1	75.0	17.9	100.0	144
25~29세	52.8	24.6	22.6	100.0	403
30~34세	82.2	6.3	11.5	100.0	302
35~39세	81.9	2.0	16.2	100.0	123
40~44세	79.6	7.6	12.8	100.0	34
45~49세	58.2	4.6	37.2	100.0	35
교육수준($\chi^2=77.2^{***}$)					
고졸이하	46.3	39.4	14.3	100.0	290
대졸	63.4	16.3	20.3	100.0	714
대학원졸	89.3	5.0	5.6	100.0	36
혼인여부					
미혼	59.6	22.2	18.2	100.0	1,027
기혼	57.0	33.4	9.7	100.0	14
취업여부($\chi^2=61.5^{***}$)					
취업	63.4	17.4	19.3	100.0	837
비취업	43.7	42.9	13.4	100.0	204
가구소득($\chi^2=39.5^{***}$) ¹⁾					
60%미만	59.4	29.0	11.6	100.0	230
60~80%미만	60.8	19.2	20.0	100.0	184
80~100%미만	66.6	8.5	24.9	100.0	142
100~120%미만	54.2	18.9	26.9	100.0	100
120~140%미만	53.5	31.7	14.8	100.0	75
140~160%미만	62.0	25.8	12.2	100.0	59
160%이상	58.1	24.2	17.8	100.0	25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교제상대와의 결혼의향이 있지만 3년 이내 결혼의향은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즉 결혼을 지연하는 동기를 질문한 것이다. 결혼에 필요한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좀 더 늦게 결혼하고 싶어서(20.1%), 나이 때문에(14.5%), 미래 불확실(13.4%) 등도 결혼을 미루는 주요한 동기로 나타났다. 그 외 일자리 없음(4.3%), 일자리 불만족(5.7%), 일에 집중하기 위해(5.0%), 가족의 반대(2.6%) 등의 의견이 있었다.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라는 경제적 이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결혼을 미루는 가장 일반적인 동기로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성은 39.5%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은 반면, 여성은 28.1%만이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고, 26.3%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에 응답했다.

사례수가 충분히 많지는 않지만, 연령에 따른 결혼지연 동기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0~34세를 보면, 60.8%가 결혼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지 못해서 결혼을 3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표 4-18〉 교제상대와의 3년 내 결혼의향 없는 이유

구분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명
전체	14.5	20.1	4.3	5.7	34.5	5.0	2.6	13.4	100.0	421
거주지										
동부	15.5	20.2	4.3	5.0	34.3	6.1	1.9	12.7	100.0	347
읍면부	9.8	19.4	4.4	8.9	35.2	-	6.0	16.3	100.0	75
성($\chi^2=20.9^{**}$)										
남자	13.8	15.0	6.7	6.0	39.5	5.4	2.5	11.0	100.0	234
여자	15.4	26.3	1.3	5.2	28.1	4.6	2.7	16.3	100.0	187
연령										
19~24세	21.5	21.7	6.9	4.3	21.4	5.9	1.0	17.3	100.0	133
25~29세	12.3	23.5	3.0	7.9	38.6	5.7	1.3	7.7	100.0	190
30~34세	-	11.5	6.1	4.1	60.8	2.5	2.4	12.5	100.0	54
35~39세	-	18.0	-	-	46.0	-	-	36.0	100.0	22
40~44세	31.3	-	-	12.8	5.3	-	19.1	31.5	100.0	7
45~49세	47.2	3.7	-	-	-	7.3	30.7	11.1	100.0	15
교육수준										
고졸이하	24.8	20.0	6.9	7.1	20.5	6.8	0.9	13.1	100.0	156
대졸	8.6	20.4	2.8	4.9	42.4	4.1	3.7	13.1	100.0	262
대학원졸	-	-	-	-	61.8	-	-	38.2	100.0	4
혼인여부										
미혼	14.7	20.2	4.4	5.7	34.8	4.9	2.3	13.0	100.0	415
기혼	-	9.2	-	-	14.2	18.1	22.4	36.1	100.0	6
취업여부($\chi^2=87.3^{***}$)										
취업	10.0	20.6	-	4.3	40.7	5.5	3.6	15.4	100.0	307
비취업	26.4	18.5	15.9	9.4	18.0	3.9	-	7.9	100.0	115
가구소득 ¹⁾										
60%미만	14.5	9.9	7.9	9.1	31.5	5.8	4.0	17.3	100.0	93
60~80%미만	10.2	18.1	0.9	5.3	49.0	2.0	-	14.5	100.0	72
80~100%미만	9.4	33.5	-	-	29.1	10.7	2.7	14.6	100.0	47
100~120%미만	33.7	27.1	7.2	3.2	10.1	2.3	3.0	13.4	100.0	46
120~140%미만	13.0	30.5	5.6	6.5	18.0	-	13.0	13.5	100.0	35
140~160%미만	28.0	3.1	5.5	18.2	41.9	-	-	3.3	100.0	22
160%이상	9.0	21.5	3.6	3.5	44.0	7.8	-	10.6	100.0	10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6) ①나이 때문에, ②늦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③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④현재 일자리가 좋지 못해서, ⑤돈을 아직 모으지 못해서, ⑥일에 집중해야 해서, ⑦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어려워서, ⑧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어서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비혼자의 향후 결혼의향

본인의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은 62.2%로 조사되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19.4%)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4.5%)는 응답과 같이 결혼에 대해 비확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 비율도 23.9%를 차지한다. 결혼의향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14.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7.3%는 과거에는 의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고 응답했고, 6.7%는 계속해서 결혼할 의향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이 68.1%로, 여성의 결혼의향 비율 54.5%보다 13.6%p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결혼의향이 높았고, 40대는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경험이 있는 기혼 비혼자들은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동일 질문으로 조사한 2021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비혼응답자의 결혼의향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1년 결혼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0.8%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4년 조사에서는 62.2%로 11.4%p가 증가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2021년 조사에서는 23.9%였지만 2024년에는 19.4%로 4.5%p가 낮아졌으며, 일관된 비혼선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응답도 3년 전 조사에서는 11.9%로 비교적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7%로 크게 낮아졌다.

〈표 4-19〉 향후 결혼의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아직 결정하지 못 함	계	명
전체(2021)	50.8	8.3	11.9	5.1	23.9	100.0	6,491
전체(2024)	62.2	7.3	6.7	4.5	19.4	100.0	7,861
거주지($\chi^2=3.4$)							
동부	62.2	7.1	6.8	4.4	19.5	100.0	6,697
읍면부	62.2	8.5	6.1	4.6	18.7	100.0	1,163
성($\chi^2=210.0^{***}$)							
남자	68.1	7.3	4.6	2.8	17.1	100.0	4,428
여자	54.5	7.3	9.3	6.6	22.4	100.0	3,433
연령($\chi^2=1,101.1^{***}$)							
19~24세	66.6	1.5	3.8	4.3	23.9	100.0	2,513
25~29세	69.3	4.0	5.1	2.7	18.8	100.0	2,038
30~34세	69.3	6.9	6.8	2.3	14.7	100.0	1,291
35~39세	60.7	12.2	6.9	3.3	17.0	100.0	804
40~44세	37.8	20.2	13.3	8.8	20.0	100.0	633
45~49세	31.0	24.1	16.8	13.0	15.1	100.0	582
교육수준($\chi^2=47.9^{***}$)							
고졸이하	61.1	6.3	6.0	5.5	21.1	100.0	3,620
대졸	63.2	8.0	7.3	3.5	18.0	100.0	4,055
대학원졸	61.5	11.8	5.4	5.1	16.2	100.0	187
혼인여부($\chi^2=983.3^{***}$)							
미혼	64.6	6.8	6.0	3.1	19.5	100.0	7,497
기혼	12.2	18.3	20.3	32.1	17.1	100.0	364
취업여부($\chi^2=87.5^{***}$)							
취업	64.0	8.1	7.2	4.2	16.5	100.0	4,994
비취업	59.0	5.9	5.8	4.9	24.5	100.0	2,867
가구소득($\chi^2=95.9^{***1}$)							
60%미만	60.2	9.8	6.6	4.5	18.9	100.0	1,876
60~80%미만	62.0	8.5	7.1	5.4	17.0	100.0	1,163
80~100%미만	59.2	7.3	8.3	6.4	18.8	100.0	871
100~120%미만	58.6	7.3	6.9	4.6	22.6	100.0	853
120~140%미만	60.1	5.4	6.9	5.6	22.1	100.0	757
140~160%미만	64.6	7.4	6.2	3.3	18.5	100.0	609
160%이상	67.7	4.7	5.5	2.7	19.4	100.0	1,73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1)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116.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별도로 표를 제시하지 않지만, 결혼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57.5%는 결혼을 희망하는 나이가 있다고 응답했고, 42.5%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표 4-20〉은 결혼희망 나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대상으로 결혼희망 연령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결혼 희망 연령은 평균 33.52세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결혼 희망 연령은 34.3세, 여성의 결혼 희망 연령은 32.3세로 2세의 격차가 확인된다. 19~24세 연령집단의 결혼 희망 연령은 30.74세, 25~29세 연령집단의 결혼 희망 연령은 31.93세로 나타났다.

〈표 4-20〉 결혼(재혼) 의사가 있는 조사 대상자의 결혼 희망 연령

(단위: 세, 명)

구분	평균 연령	명
전체	33.52	2,809
거주지		
동부	33.58	2,395
읍면부	33.23	414
성		
남자	34.31	1,716
여자	32.29	1,094
연령		
19~24세	30.74	943
25~29세	31.93	924
30~34세	34.54	544
35~39세	39.65	238
40~44세	45.10	98
45~49세	48.83	62
교육수준		
고졸이하	32.96	1,261
대졸	33.93	1,476
대학원졸	35.07	72
취업여부		
취업	34.15	1,902
비취업	32.21	907

구분	평균 연령	명
가구소득 ¹⁾		
60%미만	33.42	672
60~80%미만	34.80	397
80~100%미만	34.95	278
100~120%미만	34.23	279
120~140%미만	32.70	263
140~160%미만	32.86	220
160%이상	32.57	70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결혼의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결혼생각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본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현재 삶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58.4%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돈이 없거나(11.4%),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10.2%)도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로 확인되었다.

여성은 현재 삶에 만족해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63.4%로 나타나, 남성보다 9.5%p가 높았다. 남성은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7.0%로 나타나 여성의 응답을 6.1%보다 10.9%p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제도가 남녀에게 불평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2.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차이가 큰 것은 청년세대의 젠더인식과 결혼태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5~29세와 30~34세 응답자들은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해서라는 노동시장 요인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각각 11.4%, 11.6%), 30~34세는 결혼제도의 성별 불평등성을 꼽은 비율(14.2%)이 특히 높았다.

〈표 4-21〉 결혼생각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명
전체	58.4	8.6	0.8	7.1	11.4	2.3	10.2	1.1	100.0	1,099
거주지($\chi^2=5.0$)										
동부	58.7	8.9	0.8	7.0	11.1	2.6	9.9	1.0	100.0	930
읍면부	56.9	7.2	1.0	7.9	12.7	0.6	11.9	1.9	100.0	169
성($\chi^2=84.6^{***}$)										
남자	52.9	4.3	0.6	10.9	17.0	3.6	9.5	1.1	100.0	530
여자	63.4	12.7	1.1	3.6	6.1	1.2	10.8	1.1	100.0	569
연령										
19~24세	54.6	13.7	2.2	8.7	7.5	3.3	10.1	-	100.0	132
25~29세	54.1	8.9	1.9	11.4	10.2	5.3	7.7	0.6	100.0	186
30~34세	53.8	14.2	-	11.6	9.6	0.6	8.9	1.3	100.0	177
35~39세	62.2	5.6	1.4	4.1	12.3	1.4	10.8	2.3	100.0	154
40~44세	62.9	7.3	-	4.8	9.8	3.3	11.5	0.5	100.0	212
45~49세	60.7	4.7	0.4	3.7	16.6	0.5	11.5	2.0	100.0	238
교육수준										
고졸이하	51.3	8.4	0.6	9.5	16.5	2.6	9.5	1.5	100.0	445
대졸	62.5	8.5	0.8	5.8	8.3	2.2	11.0	1.0	100.0	622
대학원졸	77.8	14.6	3.8	-	-	-	3.8	-	100.0	32
혼인여부($\chi^2=16.1^*$)										
미혼	57.6	8.1	0.9	8.0	11.7	2.7	10.0	1.0	100.0	958
기혼	63.5	12.0	0.6	1.2	9.3	-	11.6	1.8	100.0	141
취업여부($\chi^2=80.7^{***}$)										
취업	64.3	8.3	1.1	3.4	9.8	2.4	10.1	0.6	100.0	765
비취업	44.7	9.4	0.3	15.8	14.8	2.1	10.3	2.5	100.0	334
가구소득 ¹⁾										
60%미만	52.4	9.7	0.4	9.2	17.8	0.8	7.9	1.8	100.0	308
60~80%미만	59.2	8.4	0.5	7.1	8.9	4.7	9.3	1.9	100.0	182
80~100%미만	57.5	6.2	1.3	5.2	15.4	1.2	12.6	0.7	100.0	136
100~120%미만	63.2	8.5	0.9	8.7	5.7	1.6	9.8	1.6	100.0	121
120~140%미만	66.2	3.0	0.5	9.7	6.0	3.8	10.7	-	100.0	93
140~160%미만	53.4	11.6	0.6	8.6	4.9	4.6	16.3	-	100.0	83
160%이상	63.6	10.6	1.9	1.8	9.3	2.1	10.2	0.4	100.0	177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6) ①혼자 사는 현재에 만족, ②결혼 제도가 남녀에게 불평등, ③현재 일에 부정적, ④일자리 불안정, ⑤돈이 없어서, ⑥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⑦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⑧기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비혼자의 비혼동거 의향과 동거 가치관

다음으로 비혼동거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이 문항은 비혼 동거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 응답자 자신의 의향을 질문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 중 41.1%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8.4%는 비혼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비혼동거 의향에서도 남녀 격차가 나타난다. 남성은 47.3%가 비혼동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성은 그보다 14.0%p가 낮은 33.3%만이 비혼동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상대적으로 비혼동거 의향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2〉 비혼자의 비혼동거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려함	매우 그려함	동거중	계	명
전체	24.9	33.5	32.0	9.1	0.4	100.0	7861
거주지($\chi^2=10.4^*$)							
동부	25.4	33.3	31.8	9.0	0.5	100.0	6,697
읍면부	22.0	35.0	33.1	9.8	0.1	100.0	1,163
성($\chi^2=194.6^{***}$)							
남자	20.2	32.2	36.2	11.1	0.4	100.0	4,428
여자	31.0	35.2	26.7	6.6	0.5	100.0	3,433
연령($\chi^2=173.6^{***}$)							
19~24세	23.5	37.5	32.1	6.8	0.1	100.0	2,513
25~29세	21.2	32.0	36.0	9.9	0.9	100.0	2,038
30~34세	23.6	30.7	33.0	11.9	0.8	100.0	1,291
35~39세	25.6	32.5	30.8	11.1	-	100.0	804
40~44세	32.8	32.4	25.1	9.5	0.2	100.0	633
45~49세	37.4	30.6	25.1	6.8	0.1	100.0	582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려함	매우 그려함	동거중	계	명
교육수준							
고졸이하	23.6	33.9	33.4	8.7	0.3	100.0	3,620
대졸	25.8	33.3	31.0	9.3	0.6	100.0	4,055
대학원졸	30.9	30.4	27.5	11.2	-	100.0	187
혼인여부($\chi^2=126.5^{***}$)							
미혼	23.9	33.3	32.9	9.4	0.4	100.0	7,497
기혼	45.3	38.6	13.8	2.3	-	100.0	364
취업여부($\chi^2=7.9$)							
취업	25.0	32.9	32.0	9.7	0.5	100.0	4,994
비취업	24.9	34.6	32.1	8.1	0.3	100.0	2,867
가구소득($\chi^2=99.8^{***}$) ¹⁾							
60%미만	23.4	31.7	32.7	12.0	0.2	100.0	1,876
60~80%미만	25.0	30.6	34.1	10.0	0.3	100.0	1,163
80~100%미만	27.1	35.0	32.2	5.5	0.2	100.0	871
100~120%미만	24.8	33.6	28.7	12.2	0.8	100.0	853
120~140%미만	24.8	34.2	33.1	6.5	1.4	100.0	757
140~160%미만	23.3	36.2	33.7	6.5	0.3	100.0	609
160%이상	26.1	35.4	30.4	7.7	0.3	100.0	1,73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비혼응답자들의 비혼동거 의향은 50%를 넘지는 못하지만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비혼동거 사례의 비율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비혼동거의향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실제 비혼동거를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비혼동거를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비혼동거의 형태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결혼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항목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의 동거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응답자들의 62.7%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동

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전제하는 동거를 선호하는 경우는 32.8%에 불과했다.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를 원한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동거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결혼 비전제 동거를 가장 선호하는 집단은 19~24세였으며, 35~39세 이상의 연령집단도 상대적으로 결혼 비전제 동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5~29세, 30~34세 연령집단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45~49세 고연령 집단과 이혼/사별/별거 등 기혼 비혼자들이 결혼을 대체하는 비혼동거를 선호하는 비율이 뚜렷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표 4-23〉 동거의향 있는 경우 동거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구분	일단 동거하며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혼하기로 결정한 후에 동거한다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동거만 한다	계	명
전체	62.7	32.8	4.4	100.0	3,267
거주지($\chi^2=1.0$)					
동부	62.7	33.0	4.3	100.0	2,766
읍면부	63.0	31.8	5.3	100.0	501
성($\chi^2=21.4^{***}$)					
남자	65.6	30.2	4.3	100.0	2,108
여자	57.5	37.7	4.8	100.0	1,159
연령($\chi^2=114.0^{***}$)					
19~24세	65.4	31.7	2.9	100.0	981
25~29세	60.3	36.4	3.2	100.0	953
30~34세	59.7	36.5	3.8	100.0	589
35~39세	65.1	31.8	3.1	100.0	337
40~44세	63.6	26.9	9.5	100.0	220
45~49세	64.8	18.2	17.0	100.0	186
교육수준($\chi^2=19.9^{**}$)					
고졸이하	65.8	29.2	5.0	100.0	1,537
대졸	60.2	36.0	3.8	100.0	1,658
대학원졸	55.6	37.7	6.8	100.0	72

구분	일단 동거하며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혼하기로 결정한 후에 동거한다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동거만 한다	계	명
혼인여부($\chi^2=45.5^{***}$)					
미혼	62.9	33.0	4.1	100.0	3,208
기혼	55.0	22.8	22.2	100.0	59
취업여부($\chi^2=11.5^{**}$)					
취업	60.8	34.2	5.0	100.0	2,105
비취업	66.2	30.4	3.4	100.0	1,161
가구소득($\chi^2=42.2^{***})^1)$					
60%미만	67.3	28.9	3.8	100.0	842
60~80%미만	61.8	31.0	7.1	100.0	517
80~100%미만	60.9	33.6	5.5	100.0	330
100~120%미만	60.0	35.0	5.0	100.0	355
120~140%미만	68.0	27.1	4.9	100.0	310
140~160%미만	55.7	40.2	4.1	100.0	247
160%이상	60.1	37.7	2.2	100.0	66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결혼의향 있는 비혼자의 결혼가치관

다음으로, 결혼의향이 있는 비혼자들의 결혼가치관을 살펴본다. 앞서 <표 4-10>에서 유배우자의 결혼당시 결혼가치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도 이와 동일한 항목을 통해, 즉 사랑, 경제적 안정, 동반자 관계, 가족/사회적 기대 등 네 가지 항목 각각에 대한 동의정도를 통해 결혼가치관을 측정하였다.

먼저 종합적인 관찰 결과를 보면, 사랑의 실현과 완성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은 78.5%, 경제적 안정과 윤택한 삶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은 69.8%, 동반자 관계의 구축은 82.4%,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은 44.2%로 나타났다.

현재 결혼의향이 있는 비혼응답자들은 배우자와의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며, 그 다음으로 사랑의 실현과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꼽으며,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인정받는 것을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비율은 가장 낮았다. 근소한 차이이지만, 사랑의 실현과 완성보다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점, 경제적 안정과 윤택한 삶이라는 실리적 측면을 강조한 점은 미래의 결혼이 현재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더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배우자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러한 특성이 드러난다. 결혼의향이 있는 비혼자의 결혼가치관과 유배우자의 결혼당시 결혼가치관을 비교하면 (<표 4-10>~<표 4-15> 참고)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의향이 있는 비혼자들은 현재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당시 가졌던 결혼가치관과 비교하여, 사랑을 우선시하는 정도는 낮고 경제적 안정과 윤택함을 고려하는 정도는 높아졌다.

〈표 4-24〉 (결혼의향 있는 비혼자)결혼가치 항목에 대한 예상 고려정도: 사랑(연애)의 실현 또는 완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할 것임	조금 고려할 것임	보통	많이 고려할 것임	매우 많이 고려할 것임	계	명
전체	2.9	5.9	12.7	50.3	28.2	100.0	4,888
거주지($\chi^2=15.6^{**}$)							
동부	3.2	6.2	12.6	49.8	28.2	100.0	4,164
읍면부	1.0	4.4	13.1	53.0	28.5	100.0	724
성($\chi^2=42.4^{***}$)							
남자	2.8	6.6	14.7	49.7	26.2	100.0	3,017
여자	3.1	4.8	9.5	51.1	31.5	100.0	1,871
연령($\chi^2=234.2^{***}$)							
19~24세	2.0	4.7	9.3	52.4	31.5	100.0	1,674
25~29세	3.1	4.6	10.0	51.5	30.9	100.0	1,412
30~34세	4.4	5.9	14.9	46.5	28.3	100.0	895
35~39세	2.9	10.4	15.5	46.2	24.9	100.0	488
40~44세	4.4	12.0	22.7	49.1	11.9	100.0	239
45~49세	-	7.5	32.9	52.1	7.6	100.0	180
교육수준($\chi^2=13.5$)							
고졸이하	2.5	6.3	13.0	51.4	26.7	100.0	2,210
대졸	3.1	5.6	12.5	49.6	29.2	100.0	2,563
대학원졸	5.1	5.8	9.1	43.6	36.4	100.0	115
혼인여부							
미혼	2.9	5.8	12.6	50.3	28.4	100.0	4,843
기혼	2.6	17.2	21.7	46.5	12.0	100.0	44
취업여부($\chi^2=1.6$)							
취업	3.1	6.0	12.7	50.5	27.8	100.0	3,196
비취업	2.6	5.8	12.7	49.9	29.1	100.0	1,691
가구소득($\chi^2=38.5^{*1}$)							
60%미만	2.6	5.1	13.5	52.1	26.8	100.0	1,130
60~80%미만	2.6	6.1	14.8	50.1	26.4	100.0	721
80~100%미만	3.4	5.4	13.2	50.4	27.7	100.0	516
100~120%미만	4.0	5.9	14.4	47.9	27.9	100.0	500
120~140%미만	1.1	6.1	13.4	54.1	25.3	100.0	455
140~160%미만	3.2	5.1	10.1	47.7	34.0	100.0	393
160%이상	3.3	7.0	10.3	49.0	30.3	100.0	1,17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25〉 (결혼의향 있는 비혼자)결혼가치 항목에 대한 예상 고려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

(단위: %, 명)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할 것임	조금 고려할 것임	보통	많이 고려할 것임	매우 많이 고려할 것임	계	명
전체	3.0	8.1	19.1	49.3	20.5	100.0	4,888
거주지($x^2=7.4$)							
동부	3.2	8.2	19.0	49.5	20.1	100.0	4,164
읍면부	1.8	7.6	19.5	48.0	23.1	100.0	724
성($x^2=154.5^{***}$)							
남자	2.9	9.6	23.4	47.3	16.9	100.0	3,017
여자	3.2	5.7	12.2	52.5	26.4	100.0	1,871
연령($x^2=203.0^{***}$)							
19~24세	2.6	5.8	14.6	53.2	23.8	100.0	1,674
25~29세	2.6	5.7	16.7	52.5	22.5	100.0	1,412
30~34세	3.8	10.5	23.2	45.3	17.2	100.0	895
35~39세	2.9	13.4	23.1	43.4	17.2	100.0	488
40~44세	3.9	16.7	30.6	38.3	10.5	100.0	239
45~49세	4.6	11.4	33.0	37.8	13.2	100.0	180
교육수준($x^2=14.1$)							
고졸이하	3.2	7.3	18.9	50.4	20.2	100.0	2,210
대졸	2.7	9.0	19.3	48.2	20.8	100.0	2,563
대학원졸	5.7	3.6	17.4	53.4	19.9	100.0	115
혼인여부							
미혼	2.9	8.1	19.0	49.4	20.5	100.0	4,843
기혼	8.3	9.8	27.8	35.5	18.6	100.0	44
취업여부($x^2=20.6^{***}$)							
취업	3.1	9.0	20.3	47.8	19.9	100.0	3,196
비취업	2.9	6.5	16.8	52.1	21.6	100.0	1,691
가구소득($x^2=48.7^{**1}$)							
60%미만	2.7	7.1	22.1	47.8	20.2	100.0	1,130
60~80%미만	3.1	10.4	22.3	46.0	18.2	100.0	721
80~100%미만	2.6	6.0	21.4	50.3	19.6	100.0	516
100~120%미만	3.1	9.8	19.0	47.4	20.7	100.0	500
120~140%미만	1.8	8.6	14.7	53.7	21.2	100.0	455
140~160%미만	4.2	8.0	15.9	51.8	20.1	100.0	393
160%이상	3.3	7.7	16.1	50.5	22.4	100.0	1,17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26〉 (결혼의향 있는 비혼자)결혼가치 항목에 대한 예상 고려정도: 인생의 동반자
관계 구축

(단위: %, 명)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할 것임	조금 고려할 것임	보통	많이 고려할 것임	매우 많이 고려할 것임	계	명
전체	3.6	3.7	10.4	49.4	33.0	100.0	4,888
거주지($x^2=12.8^{**}$)							
동부	3.9	3.8	10.5	49.3	32.4	100.0	4,164
읍면부	2.0	2.6	9.4	49.8	36.2	100.0	724
성($x^2=60.3^{***}$)							
남자	3.3	4.2	12.6	49.2	30.6	100.0	3,017
여자	4.2	2.8	6.8	49.5	36.8	100.0	1,871
연령($x^2=154.1^{***}$)							
19~24세	2.9	3.5	8.7	51.9	33.1	100.0	1,674
25~29세	2.9	2.2	8.0	49.6	37.3	100.0	1,412
30~34세	5.4	3.4	11.3	46.2	33.7	100.0	895
35~39세	6.2	5.4	11.7	46.8	29.8	100.0	488
40~44세	3.5	7.9	22.7	46.3	19.6	100.0	239
45~49세	0.9	7.1	20.2	50.7	21.0	100.0	180
교육수준($x^2=54.5^{***}$)							
고졸이하	3.5	4.5	11.9	50.8	29.1	100.0	2,210
대졸	3.6	3.0	9.4	48.4	35.5	100.0	2,563
대학원졸	5.7	2.0	1.7	40.9	49.7	100.0	115
혼인여부							
미혼	3.6	3.7	10.3	49.4	33.0	100.0	4,843
기혼	5.0	2.6	20.4	45.2	26.6	100.0	44
취업여부($x^2=4.1$)							
취업	3.9	3.7	9.9	49.0	33.6	100.0	3,196
비취업	3.3	3.6	11.2	50.0	31.9	100.0	1,691
가구소득($x^2=52.8^{**}$) ¹⁾							
60%미만	3.6	2.9	11.8	49.2	32.6	100.0	1,130
60~80%미만	3.7	5.2	12.9	47.0	31.3	100.0	721
80~100%미만	2.8	2.3	12.3	54.1	28.5	100.0	516
100~120%미만	4.4	4.1	12.9	43.2	35.4	100.0	500
120~140%미만	3.5	3.9	8.0	49.4	35.3	100.0	455
140~160%미만	3.2	3.9	6.9	50.9	35.1	100.0	393
160%이상	4.0	3.6	7.7	51.0	33.7	100.0	1,17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27〉 〈결혼의향 있는 비혼자〉결혼가치 항목에 대한 예상 고려정도: 가족·사회 의 기
대 충족, 지위의 인정

(단위: %, 명)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할 것임	조금 고려할 것임	보통	많이 고려할 것임	매우 많이 고려할 것임	계	명
전체	7.0	13.4	35.5	33.3	10.9	100.0	4,888
거주지($\chi^2=4.5$)							
동부	7.2	13.3	35.6	32.8	11.1	100.0	4,164
읍면부	5.9	13.8	34.8	35.9	9.7	100.0	724
성($\chi^2=46.4^{***}$)							
남자	7.4	14.2	37.9	31.0	9.5	100.0	3,017
여자	6.3	12.0	31.6	37.0	13.1	100.0	1,871
연령($\chi^2=54.0^{***}$)							
19~24세	6.0	11.2	36.2	34.6	12.1	100.0	1,674
25~29세	7.3	14.6	33.5	32.2	12.4	100.0	1,412
30~34세	7.9	12.8	35.2	34.5	9.5	100.0	895
35~39세	6.2	14.6	37.6	32.7	8.9	100.0	488
40~44세	7.9	19.0	41.9	24.8	6.5	100.0	239
45~49세	10.2	15.4	32.5	37.0	4.9	100.0	180
교육수준($\chi^2=17.0^{***}$)							
고졸이하	7.2	12.5	37.2	33.0	10.2	100.0	2,210
대졸	7.0	14.2	34.5	33.1	11.3	100.0	2,563
대학원졸	3.3	11.6	26.1	43.9	15.1	100.0	115
혼인여부							
미혼	7.0	13.4	35.4	33.4	10.9	100.0	4,843
기혼	9.0	15.2	41.9	26.0	8.0	100.0	44
취업여부($\chi^2=4.9$)							
취업	7.5	13.5	34.9	33.4	10.7	100.0	3,196
비취업	6.0	13.1	36.7	33.1	11.1	100.0	1,691
가구소득($\chi^2=64.8^{***}$) ¹⁾							
60%미만	7.0	12.7	40.2	29.7	10.4	100.0	1,130
60~80%미만	7.8	13.7	34.9	33.7	9.8	100.0	721
80~100%미만	2.5	13.6	36.7	37.5	9.7	100.0	516
100~120%미만	10.8	14.4	36.2	28.1	10.5	100.0	500
120~140%미만	4.4	14.1	33.6	36.7	11.3	100.0	455
140~160%미만	6.7	14.9	32.5	34.4	11.5	100.0	393
160%이상	7.9	12.4	32.2	35.2	12.2	100.0	1,17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5. 비혼의 불이익 또는 차별 경험

다음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들은 비혼상태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는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정부지원 혜택의 제외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9.3%, 민간 기업의 서비스에서의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은 그보다 낮은 7.2%이었지만, 가족관계에서의 위축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0.1%, 비가족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 비율은 6.1%로 가장 낮았다.

먼저 정부지원 혜택에서의 제외 경험은 9.3% 수준이었지만, 연령집단과 교육수준,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들은 비혼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서비스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경험에 대한 응답도 이와 유사하다. 전반적인 불이익 경험률은 높지 않지만, 30대와 40대이거나 취업자인 경우, 그리고 이혼/사별 등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불이익 경험률을 높게 보고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사실혼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과는 달리, 비혼의 경우에는 정부 혜택이나 민간 서비스 등 제도적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보다 가족 및 친족 관계에서의 위축 정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10.1%가 가족관계에서의 위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30대 후반은 23.3%, 40대 초반은 30.9%, 40대 후반은 33.3%가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보고하였다. 정도는 약하지만 비가족적 관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표 4-31>에서 보듯이, 비혼으로 인해 직장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위축감을 느낀 비율은 전체 6.1%로 낮았지만, 35~39세는 11.1%, 40~44세는 18.9%, 45~49세는 2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8〉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정부지원 혜택에서의 제외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음	없었음	있었음	자주 있었음	계	명
전체	67.2	23.5	7.4	1.9	100.0	7,861
거주지($\chi^2=13.2^{**}$)						
동부	67.7	22.8	7.6	1.9	100.0	6,697
읍면부	64.6	27.5	6.2	1.8	100.0	1,163
성($\chi^2=1.6$)						
남자	67.8	23.2	7.3	1.8	100.0	4,428
여자	66.5	24.0	7.5	2.0	100.0	3,433
연령($\chi^2=712.4^{***}$)						
19~24세	83.4	14.9	1.5	0.3	100.0	2,513
25~29세	69.1	23.8	6.0	1.1	100.0	2,038
30~34세	58.6	28.1	10.9	2.5	100.0	1,291
35~39세	54.8	28.8	13.0	3.4	100.0	804
40~44세	47.2	33.2	14.6	5.0	100.0	633
45~49세	49.3	31.7	14.1	4.9	100.0	582
교육수준($\chi^2=217.4^{***}$)						
고졸이하	73.9	20.4	4.6	1.0	100.0	3,620
대졸	62.3	26.0	9.1	2.5	100.0	4,055
대학원졸	43.7	29.9	21.9	4.4	100.0	187
혼인여부($\chi^2=88.5^{***}$)						
미혼	68.3	22.7	7.1	1.9	100.0	7,497
기혼	44.8	40.6	12.2	2.4	100.0	364
취업여부($\chi^2=194.5^{***}$)						
취업	62.2	25.7	9.5	2.5	100.0	4,994
비취업	75.9	19.8	3.6	0.8	100.0	2,867
가구소득($\chi^2=106.1^{***}$) ¹⁾						
60%미만	64.1	27.4	6.6	1.9	100.0	1,876
60~80%미만	62.9	25.7	9.6	1.8	100.0	1,163
80~100%미만	61.1	27.1	8.5	3.3	100.0	871
100~120%미만	71.5	19.8	5.9	2.8	100.0	853
120~140%미만	68.3	22.6	8.1	1.0	100.0	757
140~160%미만	69.2	22.6	7.8	0.4	100.0	609
160%이상	73.3	18.7	6.3	1.7	100.0	1,73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29〉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금융·일상생활 서비스 혜택 제한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음	없었음	있었음	자주 있었음	계	명
전체	68.3	24.5	5.9	1.3	100.0	7,861
거주지($\chi^2=31.3^{***}$)						
동부	68.9	23.5	6.3	1.3	100.0	6,697
읍면부	64.8	30.3	4.0	0.9	100.0	1,163
성($\chi^2=3.3$)						
남자	68.9	24.0	5.9	1.2	100.0	4,428
여자	67.4	25.2	5.9	1.5	100.0	3,433
연령($\chi^2=588.9^{***}$)						
19~24세	82.8	16.0	1.1	0.1	100.0	2,513
25~29세	70.3	24.1	4.8	0.8	100.0	2,038
30~34세	59.3	29.6	8.8	2.3	100.0	1,291
35~39세	57.0	30.7	10.1	2.2	100.0	804
40~44세	51.4	33.7	11.6	3.3	100.0	633
45~49세	52.2	33.4	12.2	2.3	100.0	582
교육수준($\chi^2=195.0^{***}$)						
고졸이하	74.7	20.7	4.1	0.5	100.0	3,620
대졸	63.3	27.8	7.0	1.9	100.0	4,055
대학원졸	50.6	29.2	18.6	1.7	100.0	187
혼인여부($\chi^2=107.9^{***}$)						
미혼	69.4	23.7	5.6	1.3	100.0	7,497
기혼	44.0	41.5	12.7	1.8	100.0	364
취업여부($\chi^2=156.5^{***}$)						
취업	63.7	27.0	7.5	1.8	100.0	4,994
비취업	76.1	20.2	3.2	0.4	100.0	2,867
가구소득($\chi^2=117.7^{***}$) ¹⁾						
60%미만	64.1	27.9	7.2	0.8	100.0	1,876
60~80%미만	64.5	25.8	7.8	1.9	100.0	1,163
80~100%미만	62.0	29.3	7.2	1.5	100.0	871
100~120%미만	73.0	21.0	3.6	2.4	100.0	853
120~140%미만	70.1	23.5	6.0	0.3	100.0	757
140~160%미만	72.1	22.5	5.1	0.4	100.0	609
160%이상	73.9	20.5	4.0	1.5	100.0	1,73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30〉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가족 및 친족 관계에서의 위축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음	없었음	있었음	자주 있었음	계	명
전체	70.3	19.6	8.9	1.2	100.0	7,861
거주지($x^2=11.8^{**}$)						
동부	71.0	19.1	8.7	1.2	100.0	6,697
읍면부	66.1	22.1	10.3	1.4	100.0	1,163
성($x^2=4.2$)						
남자	70.2	19.2	9.3	1.4	100.0	4,428
여자	70.4	20.1	8.5	1.0	100.0	3,433
연령($x^2=1560.1^{***}$)						
19~24세	88.5	10.8	0.7	0.0	100.0	2,513
25~29세	77.5	19.3	2.7	0.4	100.0	2,038
30~34세	60.7	28.8	9.9	0.6	100.0	1,291
35~39세	50.0	26.7	21.2	2.1	100.0	804
40~44세	43.4	25.8	26.4	4.5	100.0	633
45~49세	45.2	21.4	28.0	5.3	100.0	582
교육수준($x^2=155.0^{***}$)						
고졸이하	76.4	16.1	6.3	1.2	100.0	3,620
대졸	65.8	22.3	10.8	1.1	100.0	4,055
대학원졸	49.9	29.6	18.0	2.6	100.0	187
혼인여부($x^2=317.1^{***}$)						
미혼	72.0	19.1	7.9	1.1	100.0	7,497
기혼	35.4	29.8	30.5	4.3	100.0	364
취업여부($x^2=117.6^{***}$)						
취업	66.1	22.1	10.3	1.5	100.0	4,994
비취업	77.6	15.3	6.5	0.6	100.0	2,867
가구소득($x^2=197.9^{***}$) ¹⁾						
60%미만	64.7	22.5	11.5	1.4	100.0	1,876
60~80%미만	64.3	22.3	11.3	2.1	100.0	1,163
80~100%미만	61.2	25.6	12.3	0.8	100.0	871
100~120%미만	74.5	17.5	6.5	1.5	100.0	853
120~140%미만	75.4	14.6	9.4	0.6	100.0	757
140~160%미만	77.1	16.3	6.4	0.2	100.0	609
160%이상	78.3	15.9	4.7	1.0	100.0	1,73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31〉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지역, 직장, 사교 모임에서의 부정적 시선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음	없었음	있었음	자주 있었음	계	명
전체	73.8	20.1	5.3	0.8	100.0	7,861
거주지($\chi^2=15.9^{**}$)						
동부	74.6	19.6	5.1	0.8	100.0	6,697
읍면부	69.2	23.3	6.7	0.8	100.0	1,163
성($\chi^2=5.9$)						
남자	74.7	19.7	4.9	0.7	100.0	4,428
여자	72.6	20.7	5.8	0.9	100.0	3,433
연령($\chi^2=1362.2^{***}$)						
19~24세	90.0	9.6	0.3	0.0	100.0	2,513
25~29세	80.3	17.5	1.8	0.4	100.0	2,038
30~34세	67.7	27.7	4.0	0.6	100.0	1,291
35~39세	59.1	29.8	9.6	1.5	100.0	804
40~44세	46.8	34.2	16.6	2.3	100.0	633
45~49세	44.4	29.2	23.7	2.7	100.0	582
교육수준($\chi^2=104.7^{***}$)						
고졸이하	78.7	16.5	4.1	0.7	100.0	3,620
대졸	70.1	23.1	6.0	0.8	100.0	4,055
대학원졸	59.7	27.2	12.7	0.4	100.0	187
혼인여부($\chi^2=497.1^{***}$)						
미혼	75.7	19.3	4.3	0.6	100.0	7,497
기혼	33.8	36.1	26.6	3.4	100.0	364
취업여부($\chi^2=88.5^{***}$)						
취업	70.3	22.8	6.0	0.9	100.0	4,994
비취업	79.9	15.5	4.1	0.5	100.0	2,867
가구소득($\chi^2=177.6^{***}$) ¹⁾						
60%미만	68.4	23.6	7.0	1.0	100.0	1,876
60~80%미만	67.5	24.0	6.8	1.6	100.0	1,163
80~100%미만	66.8	25.1	7.4	0.7	100.0	871
100~120%미만	76.5	17.5	5.4	0.6	100.0	853
120~140%미만	78.7	16.2	4.6	0.5	100.0	757
140~160%미만	80.2	17.0	2.4	0.4	100.0	609
160%이상	81.7	15.3	2.7	0.4	100.0	1,73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4-32〉 비혼의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자녀를 갖기 위한 의학적 시술이나 지원 등에서
서의 차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음	없었음	있었음	자주 있었음	계	명
전체	86.1	13.3	0.5	0.1	100.0	7,861
거주지($\chi^2=7.8$)						
동부	86.4	13.0	0.5	0.1	100.0	6,697
읍면부	84.7	15.1	0.1	-	100.0	1,163
성($\chi^2=14.8^{**}$)						
남자	86.4	13.3	0.3	-	100.0	4,428
여자	85.8	13.3	0.6	0.3	100.0	3,433
연령						
19~24세	92.1	7.6	0.2	0.0	100.0	2,513
25~29세	86.8	12.6	0.4	0.2	100.0	2,038
30~34세	81.0	17.9	1.0	0.1	100.0	1,291
35~39세	83.0	16.5	0.1	0.5	100.0	804
40~44세	78.6	21.3	0.1	-	100.0	633
45~49세	81.9	16.8	1.3	-	100.0	582
교육수준						
고졸이하	88.9	10.7	0.4	0.0	100.0	3,620
대졸	84.1	15.3	0.4	0.2	100.0	4,055
대학원졸	76.4	21.4	2.2	-	100.0	187
혼인여부						
미혼	86.4	13.1	0.4	0.1	100.0	7,497
기혼	80.5	17.8	1.7	-	100.0	364
취업여부($\chi^2=43.5^{***}$)						
취업	84.2	15.1	0.6	0.1	100.0	4,994
비취업	89.5	10.2	0.2	0.1	100.0	2,867
가구소득 ¹⁾						
60%미만	85.5	13.9	0.6	-	100.0	1,876
60~80%미만	84.5	15.1	0.4	-	100.0	1,163
80~100%미만	81.8	17.7	0.4	-	100.0	871
100~120%미만	87.3	12.0	0.1	0.7	100.0	853
120~140%미만	87.5	11.5	0.9	0.1	100.0	757
140~160%미만	87.0	11.9	0.9	0.2	100.0	609
160%이상	88.6	11.1	0.2	0.1	100.0	1,73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이혼 특성

이 절에서는 이혼을 중심으로 혼인해소의 특징을 살펴본다. 조사참여 자 중 혼인해소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혼인횟수를 조사한 결과, 혼인횟수가 1회인 사람이 98.9%를 차지하고 2회 이상인 경우는 1.1%에 불과하였다. 2회 이상의 혼인해소 경험을 가진 사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혼인해소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의 종료 형태는 이혼 85.9%, 헤어짐 3.3%, 사별 10.7%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별의 비율이 높지만 가장 연령이 높은 45~49세의 사별 비율도 12.5%로 평균(10.7%)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표 4-33〉 첫 번째 결혼 종료 형태

(단위: %, 명)

구분	이혼 (별거포함)	헤어짐 (사실혼)	사별	계	명
전체	85.9	3.3	10.7	100.0	433
거주지($\chi^2=0.8$)					
동부	86.6	2.9	10.5	100.0	346
읍면부	83.3	5.1	11.5	100.0	86
성($\chi^2=7.1^*$)					
남자	87.7	7.1	5.2	100.0	90
여자	85.5	2.4	12.2	100.0	343
연령					
19~29세	95.3	4.7	-	100.0	7
30~34세	91.4	3.5	5.1	100.0	23
35~39세	77.6	10.0	12.4	100.0	52
40~44세	89.4	1.9	8.7	100.0	135
45~49세	84.9	2.6	12.5	100.0	217
교육수준					
고졸이하	86.5	3.0	10.5	100.0	255
대졸	84.2	4.0	11.8	100.0	167
대학원졸	100.0	-	-	100.0	10
취업여부($\chi^2=3.5$)					
취업	87.7	3.0	9.3	100.0	331
비취업	80.3	4.4	15.3	100.0	102

구분	이혼 (별거포함)	헤어짐 (사실혼)	사별	계	명
가구소득 ¹⁾					
60%미만	86.7	2.9	10.4	100.0	135
60~80%미만	80.5	2.4	17.1	100.0	80
80~100%미만	90.0	-	10.0	100.0	84
100~120%미만	90.7	2.1	7.2	100.0	47
120~140%미만	79.7	12.8	7.5	100.0	32
140~160%미만	87.8	6.7	5.5	100.0	29
160%이상	82.4	6.2	11.4	100.0	2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이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첫 이혼 이유이다. 성격적 이유가 42.9%, 외도가 18.0%, 음주, 폭력이 15.6%, 경제적 이유가 15.3%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이혼사유로 (상대방의) 음주, 폭력이나 경제적 이유를 더 많이 꼽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4-34〉 이혼의 주된 이유(첫번째 이혼)

(단위: %, 명)

구분	경제적 이유	성격적 이유	음주, 폭력	외도	자녀 관련 갈등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관련 갈등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기타	계	명
전체	15.3	42.9	15.6	18.0	0.9	4.7	0.9	1.8	100.0	386
거주지										
동부	14.8	42.8	16.5	18.1	0.7	4.9	0.8	1.5	100.0	310
읍면부	17.2	43.0	12.0	17.9	1.6	3.8	1.4	3.1	100.0	76
성										
남자	12.1	57.4	2.5	18.9	1.4	2.9	0.0	4.8	100.0	85
여자	16.2	38.7	19.3	17.8	0.7	5.2	1.2	0.9	100.0	301

구분	경제적 이유	성격적 이유	음주, 폭력	외도	자녀 관련 갈등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관련 갈등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기타	계	명
연령										
19~29세	11.0	35.3	34.8	7.7	5.9	5.3	-	-	100.0	7
30~34세	16.3	45.3	26.5	7.0	-	-	4.8	-	100.0	22
35~39세	7.7	46.0	17.1	17.2	-	6.8	-	5.2	100.0	45
40~44세	18.1	45.0	13.5	15.6	0.7	4.9	-	2.1	100.0	123
45~49세	15.3	40.7	14.7	21.4	1.1	4.5	1.3	1.0	100.0	190
교육수준										
고졸이하	15.2	40.7	17.1	19.3	1.3	4.5	0.9	1.0	100.0	228
대졸	13.7	47.9	13.3	15.5	0.3	5.2	1.0	3.1	100.0	148
대학원졸	39.1	17.8	16.4	26.7	-	-	-	-	100.0	10
취업여부										
취업	14.7	46.1	14.0	16.3	0.7	5.1	1.0	2.2	100.0	300
비취업	17.4	31.6	21.3	24.0	1.4	3.1	0.7	0.4	100.0	86
가구소득 ¹⁾										
60%미만	19.9	31.4	19.5	18.6	2.4	4.4	1.6	2.2	100.0	121
60~80%미만	11.1	44.4	20.4	18.8	0.6	2.7	0.9	1.2	100.0	67
80~100%미만	16.4	45.2	11.8	16.4	-	7.6	0.5	1.9	100.0	76
100~120%미만	16.5	42.8	10.6	23.0	-	2.2	1.3	3.6	100.0	43
120~140%미만	13.1	56.3	7.0	17.7	-	5.8	-	-	100.0	30
140~160%미만	7.8	71.1	10.8	2.2	-	6.9	-	1.3	100.0	28
160%이상	8.5	39.6	20.1	29.1	-	2.7	-	-	100.0	2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의 존재는 이혼을 꺼리도록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 이혼 이후 자녀를 홀로 떠맡게 되었을 때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쉽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로 첫 이혼 당시 자녀가 있었던 비율은 82.1%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이혼에 자녀의 존재가 수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간의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유무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표 4-35〉 이혼 당시 해당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 유무(첫번째 이혼)

(단위: %, 명)

구분	없었음	있었음	계	명
전체	17.9	82.1	100.0	433
거주지($\chi^2=0.7$)				
동부	17.0	83.0	100.0	346
읍면부	21.5	78.5	100.0	86
성($\chi^2=1.0$)				
남자	21.7	78.3	100.0	90
여자	16.9	83.1	100.0	343
연령				
19~29세	18.3	81.7	100.0	7
30~34세	28.1	71.9	100.0	23
35~39세	17.3	82.7	100.0	52
40~44세	17.9	82.1	100.0	135
45~49세	16.9	83.1	100.0	217
교육수준($\chi^2=1.2$)				
고졸이하	16.9	83.1	100.0	255
대졸	18.8	81.2	100.0	167
대학원졸	28.5	71.5	100.0	10
취업여부($\chi^2=0.9$)				
취업	18.9	81.1	100.0	331
비취업	14.7	85.3	100.0	102
가구소득($\chi^2=11.1$) ¹⁾				
60%미만	23.3	76.7	100.0	135
60~80%미만	8.2	91.8	100.0	80
80~100%미만	15.3	84.7	100.0	84
100~120%미만	13.6	86.4	100.0	47
120~140%미만	29.0	71.0	100.0	32
140~160%미만	19.8	80.2	100.0	29
160%이상	19.9	80.1	100.0	2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혼 이후 본인이 양육하는 자녀수의 분포는 1명인 경우가 48.7%, 2명이 31.0%, 0명이 13.8%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자녀수가 0명인 비율이 9.1%로 매우 낮고, 51.6%는 1명, 31.6%는 2명의 자녀를 양육한다고 응답했다. 3명 이상인 비율도 7.7%이다. 반면 남성은 양육하는 자녀가 없는 비율이 32.6%로 매우 높았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여성이 자녀의 양육을 주로 맡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6〉 첫 번째 이혼 당시 본인이 양육한 미성년 자녀의 수

(단위: %, 명)

구분	0	1	2	3	4	5	계	명
전체	13.8	48.7	31.0	5.7	0.6	0.3	100.0	355
거주지								
동부	13.2	49.7	30.4	5.9	0.7	-	100.0	288
읍면부	15.9	44.4	33.7	4.7	-	1.4	100.0	68
성								
남자	32.6	36.6	28.8	2.0	-	-	100.0	70
여자	9.1	51.6	31.6	6.6	0.8	0.3	100.0	285
연령								
19~29세	-	83.4	16.6	-	-	-	100.0	5
30~34세	14.1	56.3	27.6	2.0	-	-	100.0	16
35~39세	16.5	53.3	28.4	1.8	-	-	100.0	43
40~44세	10.9	45.7	33.1	7.8	1.6	0.9	100.0	111
45~49세	15.2	47.6	31.1	5.8	0.2	-	100.0	180
교육수준								
고졸이하	14.6	48.5	30.4	5.4	0.8	0.3	100.0	212
대졸	13.2	48.6	31.5	6.5	0.3	-	100.0	136
대학원졸	-	54.4	40.4	-	-	5.2	100.0	7
취업여부								
취업	12.0	50.3	31.0	5.7	0.8	0.2	100.0	269
비취업	19.2	43.8	31.1	5.5	-	0.4	100.0	87

구분	0	1	2	3	4	5	계	명
가구소득 ¹⁾								
60%미만	25.4	51.6	20.9	2.1	-	-	100.0	104
60~80%미만	7.0	49.7	35.3	7.1	0.5	0.5	100.0	74
80~100%미만	5.7	44.8	42.3	6.4	-	0.8	100.0	71
100~120%미만	10.0	44.4	34.1	7.1	4.5	-	100.0	40
120~140%미만	30.0	38.7	22.1	9.1	-	-	100.0	23
140~160%미만	5.0	62.1	21.1	11.8	-	-	100.0	24
160%이상	6.4	47.6	43.3	2.8	-	-	100.0	2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임신과 출산 건강

제1절 생식 건강

제2절 임신 · 출산 이력과 자녀 계획

제3절 산전 · 산후 관리와 분만

제4절 수유



제 5 장 임신과 출산 건강

제1절 생식 건강

1. 생식계 증상 경험

본 항에서는 생식 건강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 경험과 생식계 증상 경험이 있었던 경우의 대처방법을 살펴본다. 생식 건강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성과 재생산 관련 사항이라는 점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여러 정책 대응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실정에 있다(박중서 외, 2021).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보다 긴요한 정책 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절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건강 측면의 관련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항의 생식계 증상 경험 관련 사항은 본 2024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19-49세 연령의 모든 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 경험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때의 생식계 증상은 보고서 부록의 조사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생리통, 질 분비물 이상 등 생식계 증상을, 남성의 경우 성기능장애, 요도염,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 등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 19-49세 성인 전체 응답자의 13.0%가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21년 19-49세 성인 남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17.4%에 비하여 약 4.4%포인트 감소한 것이며(박중서 외, 2021), 관련 의학기술의 발달,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혜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요 공변량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범주는 성 범주로서, 구체적으로 남성(1.5%)에 비하여 여성(25.3%)의 경우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 경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에 비하여 비취업자의 경우,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과 가구소득 범주는 뚜렷한 정적(+) 내지는 부적(-) 연관성이 관측되지 않았다. 다만, 연령 범주의 경우 19-24세, 25-29세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 범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 범주의 경우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식계 증상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5-1〉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13.0	87.0	100.0	14,372
거주지($\chi^2=33.4^{***}$)				
동부	13.7	86.3	100.0	11,869
읍면부	9.5	90.5	100.0	2,503
성($\chi^2=1799.8^{***}$)				
남자	1.5	98.5	100.0	7,445
여자	25.3	74.7	100.0	6,927
연령($\chi^2=32.4^{***}$)				
19~24세	14.6	85.5	100.0	2,542
25~29세	15.3	84.7	100.0	2,257
30~34세	12.1	87.9	100.0	2,065
35~39세	11.1	88.9	100.0	2,357
40~44세	11.4	88.6	100.0	2,679
45~49세	13.6	86.4	100.0	2,472
교육수준($\chi^2=1.3$)				
고졸이하	12.7	87.3	100.0	5,418
대졸	13.1	86.9	100.0	8,365
대학원졸	14.3	85.7	100.0	589
혼인상태($\chi^2=0.2$)				
미혼	13.0	87.0	100.0	7,497
기혼	13.0	87.0	100.0	6,875
취업여부($\chi^2=61.2^{***}$)				
취업	11.5	88.5	100.0	9,881
비취업	16.2	83.8	100.0	4,491
가구소득($\chi^2=18.9^{**}$) ¹⁾				
60%미만	14.8	85.2	100.0	1,990
60~80%미만	12.0	88.0	100.0	1,571
80~100%미만	12.1	87.9	100.0	1,758
100~120%미만	13.3	86.7	100.0	1,963
120~140%미만	10.7	89.3	100.0	1,837
140~160%미만	13.0	87.0	100.0	1,509
160%이상	13.8	86.2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처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 경험이 있는 이들의 약 53.8%는 병의원·보건(지)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약 37.3%의 응답자가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도 전체 조사자 10명 중 1명 이상(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범주인 한의원·한방병원을 방문하는 비중(1.6%)과 민간요법(1.7%)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별 대처 방법은 남성의 87.7%가 병의원·보건(지)소에, 12.0%가 약국에 방문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병의원·보건(지)소와 약국 방문 비중이 각각 51.6%, 39.6%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남성은 약 3.7%의 응답자만이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약 13.3%가 아무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미대처 비율도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향후 대응 정책 수립과 개선 방향 도출 측면에서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처하지 않은 이들은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연령 범주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병의원·보건(지)소 방문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반대로 약국 방문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혼인 여부에 따른 미혼과 기혼의 경우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혼에 비하여 기혼의 경우 병의원·보건(지)소 방문 경험이 크게 높은 반면(42.9% < 65.7%), 약국 방문 경험 비중은 크게 낮은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50.4% > 24.5%). 상대적으로 높은 병의원·보건(지)소 방문 경험 비중은 취업 범주(비취업자에 비하여 취업자), 가구소득 범주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나타났다.

〈표 5-2〉 최근 1년간 경험한 생식계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병의원보 건(지)소 방문	한의원·한 방병원 방문	약국 방문	민간 요법	기타	아무 대처 하지 않음	명
전체	53.8	1.6	37.3	1.7	0.0	12.7	1,867
거주지							
동부	53.3	2.1	39.2	1.8	-	12.5	1,631
읍면부	57.5	1.1	29.2	0.9	0.3	14.0	237
성							
남자	87.7	-	12.0	0.7	-	3.7	113
여자	51.6	2.1	39.6	1.8	0.0	13.3	1,755
연령							
19~24세	30.5	3.6	57.5	2.3	0.2	15.9	370
25~29세	47.7	1.3	49.1	1.1	-	9.8	345
30~34세	51.7	2.1	41.1	2.4	-	11.2	250
35~39세	57.2	2.3	33.8	1.0	-	12.6	261
40~44세	70.8	0.8	24.8	1.1	-	8.1	304
45~49세	69.1	1.6	18.0	2.1	-	17.5	337
교육수준							
고졸이하	49.0	2.1	39.2	1.7	0.1	15.3	688
대졸	57.4	2.0	36.8	1.4	-	11.1	1,094
대학원졸	46.8	1.5	43.9	5.6	-	11.6	84
혼인상태							
미혼	42.9	1.9	50.4	1.9	0.1	12.7	971
기혼	65.7	2.0	24.5	1.4	-	12.7	896
취업여부							
취업	56.2	1.5	37.2	1.6	-	12.4	1,138
비취업	50.0	2.8	39.2	1.8	0.1	13.1	730
가구소득 ¹⁾							
60%미만	46.6	2.1	44.5	3.4	0.2	14.8	294
60~80%미만	56.9	3.8	37.2	1.8	-	7.3	189
80~100%미만	52.7	0.6	39.6	0.8	-	11.8	213
100~120%미만	58.4	2.5	31.7	0.7	-	11.1	261
120~140%미만	56.8	1.1	33.2	2.0	-	12.4	197
140~160%미만	60.8	2.2	35.5	1.8	-	10.3	196
160%이상	51.1	1.8	39.9	1.3	-	15.7	51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중복응답 분석으로 합이 10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피임 지식과 실천

피임은 인구 행동에서 출산의 선행 행동으로 반드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현대 들어 피임 실천이 일반화되면서 임신 및 출산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현대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일반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피임 행동에 대하여 세밀히 관찰하는 것은 인구학적 문제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번 조사에서 피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0%로 나타났다. 19세부터 49세까지 성인들의 절대 대수는 피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자(61.7%)보다 여자(64.0%)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고연령 집단일 경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고학력 집단의 경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혼 집단보다는 기혼 집단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에서 60% 미만 집단의 경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그 외 가구소득 집단에서는 대체로 큰 차이는 없었다.

피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경로를 전체적 수준에서 확인해 보면(중복 응답으로), 인터넷(6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 교육(55.7%),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27.9%), 병의원이나 산부인과 등의 의료시설(2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피임에 대한 지식

(단위: %, 명)

구분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모른다	계	명
전체	62.8	37.0	0.2	100.0	14,372
거주지($\chi^2=0.7$)					
동부	62.8	37.1	0.2	100.0	11,869
읍면부	63.1	36.6	0.2	100.0	2,503
성($\chi^2=8.0^*$)					
남자	61.7	38.1	0.2	100.0	7,445
여자	64.0	35.8	0.2	100.0	6,927
연령					
19~24세	34.4	65.1	0.4	100.0	2,542
25~29세	55.0	44.8	0.2	100.0	2,257
30~34세	65.8	34.1	0.2	100.0	2,065
35~39세	72.4	27.5	0.1	100.0	2,357
40~44세	75.2	24.7	0.1	100.0	2,679
45~49세	74.2	25.7	0.1	100.0	2,472
교육수준($\chi^2=317.8^{***}$)					
고졸이하	53.9	45.7	0.4	100.0	5,418
대졸	67.8	32.1	0.1	100.0	8,365
대학원졸	74.0	25.9	0.1	100.0	589
혼인상태($\chi^2=1575.8^{***}$)					
미혼	47.5	52.2	0.3	100.0	7,497
기혼	79.5	20.4	0.0	100.0	6,875
취업여부($\chi^2=199.7^{***}$)					
취업	66.6	33.2	0.1	100.0	9,881
비취업	54.5	45.2	0.3	100.0	4,491
가구소득 ¹⁾					
60%미만	51.1	48.3	0.6	100.0	1,990
60~80%미만	61.1	38.8	0.1	100.0	1,571
80~100%미만	63.0	36.8	0.2	100.0	1,758
100~120%미만	66.0	33.9	0.1	100.0	1,963
120~140%미만	66.5	33.4	0.1	100.0	1,837
140~160%미만	65.7	34.2	0.1	100.0	1,509
160%이상	65.2	34.8	0.1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4〉 피임 지식 획득 경로(중복응답)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례수
전체	23.2	2.6	14.3	69.8	55.7	15.0	3.7	27.9	0.0	14,346
거주지										
동부	23.9	2.5	14.4	69.9	56.2	14.3	4.0	27.7	0.0	11,849
읍면부	19.7	3.2	14.1	69.6	52.9	18.6	2.3	29.1	0.1	2,497
성										
남자	12.0	2.9	17.0	77.8	54.3	11.9	2.3	34.5	0.0	7,432
여자	35.1	2.3	11.4	61.3	57.1	18.4	5.2	20.8	0.0	6,914
연령										
19~24세	6.8	2.4	13.3	69.1	78.1	4.2	6.7	22.9	-	2,531
25~29세	12.7	3.2	12.8	75.3	68.9	10.8	5.0	27.4	0.1	2,252
30~34세	21.6	2.9	13.2	74.5	62.1	15.6	2.6	28.4	-	2,062
35~39세	28.5	2.1	14.3	71.0	51.7	18.5	1.8	28.8	-	2,354
40~44세	33.0	2.7	14.3	67.9	41.1	18.8	2.5	29.1	-	2,677
45~49세	35.3	2.4	17.7	62.6	34.8	22.1	3.3	31.1	0.0	2,470
교육수준										
고졸이하	18.5	2.4	13.5	68.0	56.6	12.6	4.7	29.6	0.0	5,398
대졸	25.7	2.7	14.6	71.0	55.3	16.6	3.0	27.1	0.0	8,360
대학원졸	30.4	3.3	18.2	69.2	52.4	15.0	3.3	24.0	-	588
혼인상태										
미혼	11.2	2.8	14.4	74.2	66.5	6.9	4.5	27.8	0.0	7,473
기혼	36.2	2.4	14.2	65.0	43.9	23.9	2.8	28.1	0.0	6,873
취업여부										
취업	22.7	2.9	14.9	72.1	52.7	15.1	3.0	30.2	0.0	9,868
비취업	24.3	2.0	13.0	64.7	62.3	14.8	5.3	22.9	0.0	4,478
가구소득 ¹⁾										
60%미만	14.8	3.8	12.1	71.6	57.5	8.6	4.6	26.1	-	1,978
60~80%미만	21.4	2.5	13.0	72.9	52.4	12.3	2.3	27.9	0.0	1,569
80~100%미만	26.7	2.4	14.4	67.6	53.6	16.0	3.2	28.7	-	1,754
100~120%미만	23.4	2.0	14.5	69.6	53.8	16.5	3.1	29.6	-	1,960
120~140%미만	24.2	2.0	15.6	69.5	57.5	16.9	3.5	29.1	-	1,836
140~160%미만	24.0	2.6	14.7	69.2	52.9	17.0	4.0	28.2	0.0	1,507
160%이상	25.8	2.9	15.1	69.1	58.2	16.6	4.3	26.9	0.0	3,742

주: 1) ① 병의원 산부인과 등의 의료시설 ② 보건(지)소,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③ 잡지, 책 ④ 인터넷(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유튜브 등) ⑤ 학교(교육) ⑥ 배우자·애인 등 상대방 ⑦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친척 ⑧ 친구, 선후배 등 지인 ⑨ 기타

2)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중복응답 분석으로 합이 10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현재의 피임 실천 경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때의 피임은 콘돔, 피임약, 피임장치, 정관절제수술, 난관절제수술, 질외사정, 월경주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피임은 건강한 성생활과 안전한 임신, 출산을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서(이소영 외, 2021), 관련 정책 수요의 특성을 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19-49세 응답자 모든 개인은 현재 피임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9.2% > 11.7%). 또한 임신 중,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2.3%, 26.9%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거주지가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인 경우(58.3% < 63.0%),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54.7% < 64.3%), 혼인상태가 미혼인 경우에 비하여 기혼이(42.7% < 71.5%), 비취업자에 비하여 취업자의 경우(56.0% < 60.3%) 각각 피임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연령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도 모두 현재 피임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과 정적(+) 연관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현재의 피임 실천

(단위: %, 명)

구분	한다	하지 않는다	임신 중이다	상대 없음	계	명
전체	59.2	11.7	2.3	26.9	100.0	12,024
거주지($\chi^2=59.6^{***}$)						
동부	58.3	11.2	2.2	28.3	100.0	9,863
읍면부	63.0	13.9	2.7	20.5	100.0	2,161
성($\chi^2=253.6^{***}$)						
남자	54.7	10.2	2.3	32.9	100.0	6,403
여자	64.3	13.4	2.2	20.1	100.0	5,622
연령($\chi^2=1,323.9^{***}$)						
19~24세	46.5	0.9	0.7	52.0	100.0	1,041
25~29세	52.2	3.3	1.6	42.9	100.0	1,772
30~34세	53.2	9.7	5.6	31.4	100.0	1,887
35~39세	62.3	13.4	4.4	19.8	100.0	2,250
40~44세	68.2	14.2	1.0	16.6	100.0	2,631
45~49세	61.6	19.6	0.1	18.8	100.0	2,444
교육수준($\chi^2=235.6^{***}$)						
고졸이하	52.7	11.7	1.1	34.5	100.0	3,982
대졸	62.0	11.5	2.7	23.8	100.0	7,486
대학원졸	67.8	13.6	4.6	14.0	100.0	556
혼인상태($\chi^2=4538.9^{***}$)						
미혼	42.7	0.6	-	56.7	100.0	5,149
기혼	71.5	20.0	3.9	4.6	100.0	6,875
취업여부($\chi^2=31.9^{***}$)						
취업	60.3	11.9	2.3	25.5	100.0	8,870
비취업	56.0	11.2	2.1	30.7	100.0	3,154
가구소득($\chi^2=1140.5^{***}$) ¹⁾						
60%미만	40.9	4.1	0.2	54.9	100.0	1,563
60~80%미만	47.6	8.1	1.8	42.5	100.0	1,378
80~100%미만	57.6	13.0	4.0	25.4	100.0	1,533
100~120%미만	62.9	14.5	2.8	19.8	100.0	1,678
120~140%미만	67.2	13.7	2.3	16.8	100.0	1,524
140~160%미만	64.1	15.5	2.7	17.7	100.0	1,274
160%이상	66.3	12.4	2.2	19.1	100.0	3,074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피임방법은 피임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현재의 피임 실천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관련 정책 수요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임방법은 총 14가지로, ① 콘돔(남성용), ② 페미돔(여성), ③ 질내삽입기구(폐서리, 스펀지), ④ 살정제(질좌제 형태의 약제), ⑤ 경구 피임약, ⑥ 주사피임제(사야나 등), ⑦ 피하이식 호르몬제(임플라논 등), ⑧ 자궁 내 피임장치(IUD) [구리 루프, 호르몬 루프(미레나, 제이디스)], ⑨ 응급피임약(사후), ⑩ 여성 반영구 피임술(난관절제수술 또는 난관결찰수술), ⑪ 남성 반영구 피임술(정관절제수술 또는 정관결찰수술), ⑫ 월경주기 이용, ⑬ 질외사정, ⑭ 기타 방법으로 구분되며, 피임의 목적과 대상 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피임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방법은 콘돔(남성용)으로 약 6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외사정 28.2%, 월경주기 이용 22.4%, 남성 반영구 피임술(정관절제수술 또는 정관결찰수술)이 14.2%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주요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콘돔(남성용)을 활용한 피임방법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기혼에 비하여 미혼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체적으로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질외사정의 경우 미혼에 비하여 기혼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피임방법이 피임 목적과 주체별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피임과 관련된 정책 추진 시 이러한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여 보다 유기적인 정책 대응 및 정책 우선순위를 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140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표 5-6〉 피임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명
전체	64.3	0.4	0.5	0.3	5.4	0.1	0.4	5.1	1.1	3.2	14.2	22.4	28.2	0.0	7,114
거주지															
동부	65.2	0.5	0.5	0.3	5.7	0.1	0.3	4.9	1.1	3.0	13.4	24.0	29.6	0.1	5,754
읍면부	60.6	0.1	0.2	0.1	4.2	0.0	0.5	5.8	0.8	4.0	17.3	15.5	21.9	-	1,361
성															
남자	68.1	0.3	0.5	0.2	4.4	0.1	0.4	4.6	0.7	2.7	12.9	18.0	27.3	0.0	3,502
여자	60.6	0.6	0.4	0.3	6.4	0.0	0.4	5.5	1.5	3.7	15.3	26.5	28.9	0.1	3,612
연령															
19~24세	96.7	2.3	-	0.5	9.9	-	0.1	0.2	1.3	-	-	13.9	16.8	-	484
25~29세	92.4	0.4	0.5	0.2	9.7	0.1	0.3	0.7	1.7	0.3	0.6	19.2	22.8	0.3	925
30~34세	81.7	0.1	0.3	1.1	6.1	-	0.4	2.0	1.6	0.2	5.0	23.8	30.6	-	1,005
35~39세	65.3	0.3	0.2	0.2	6.6	-	0.3	5.5	0.5	2.3	13.0	26.9	34.3	-	1,402
40~44세	49.1	0.4	0.5	0.1	3.5	0.2	0.5	7.2	1.0	4.4	21.2	23.6	29.3	0.0	1,794
45~49세	42.1	0.3	0.9	0.0	2.1	0.0	0.4	8.4	0.9	7.6	25.8	20.4	26.4	0.0	1,505
교육수준															
고졸이하	60.4	0.3	0.5	0.2	6.5	0.1	0.4	6.8	0.7	4.4	16.2	19.1	25.3	0.0	2,100
대졸	66.0	0.5	0.5	0.4	5.2	0.1	0.4	4.3	1.2	2.8	13.1	23.7	29.5	0.1	4,638
대학원졸	65.2	0.2	-	-	2.1	-	0.5	5.3	1.2	1.9	15.4	23.7	28.0	-	377
혼인상태															
미혼	95.4	1.0	0.5	0.6	9.4	-	0.1	0.6	1.5	-	0.0	16.4	21.0	0.1	2,198
기혼	50.4	0.2	0.4	0.1	3.7	0.1	0.5	7.0	0.9	4.7	20.5	25.0	31.3	0.0	4,916
취업여부															
취업	64.7	0.4	0.6	0.3	5.2	0.1	0.4	5.2	0.9	3.1	14.1	21.4	28.7	0.1	5,348
비취업	63.2	0.6	0.1	0.3	6.1	0.0	0.4	4.6	1.5	3.5	14.3	25.2	26.6	-	1,767
가구소득															
60%미만	88.4	0.5	0.4	0.3	11.3	0.2	0.2	2.0	1.6	0.3	1.5	16.9	21.3	0.4	639
60~80%미만	76.0	0.5	-	0.8	5.8	0.1	0.4	4.9	0.9	2.9	6.2	19.5	22.5	-	656
80~100%미만	64.2	0.3	0.1	0.2	5.1	-	0.4	5.1	0.9	2.9	11.8	24.1	27.1	-	882
100~120%미만	61.7	0.7	0.7	0.1	5.7	0.1	0.8	6.4	1.2	3.7	16.2	22.7	29.5	-	1,056
120~140%미만	55.8	0.1	0.6	0.2	3.8	-	0.4	5.7	0.6	4.8	20.1	22.0	28.2	-	1,024
140~160%미만	58.0	0.8	1.1	0.7	5.2	-	0.4	5.7	1.1	3.7	17.9	22.8	28.4	-	817
160%이상	61.1	0.4	0.3	0.2	4.3	0.0	0.2	4.8	1.3	3.1	16.2	24.1	31.8	0.0	2,04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중복응답 분석으로 합이 100.0%를 초과할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피임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건강한 성생활 및 안전한 임신, 출산 관련 정책 수요의 또 다른 단면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유기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의 10개 범주로 구분된 피임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① 임신하기를 원해서, ② 건강에 좋지 않아서. ③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난임, 환경(폐경) 등의 상태이므로), ④ 피임 도구(콘돔 등) 사용이 불편해서, ⑤ 피임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⑥ 피임 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⑦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⑧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⑨ 상대방이 피임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⑩ 기타)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분포는 임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전체의 약 40.0%였으며, 피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난임, 환경(폐경) 등의 상태이므로)이 24.6%,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7%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와 관련하여 임신하기 원하기 때문에 피임하지 않는 응답은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더 높았으며, 25세 이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자에 비하여 취업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수준의 경우 일정한 경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피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대한 분포는 연령 40대 이전과 이후 간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25-29세 연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피임 도구(콘돔 등) 사용이 불편해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3%), 이는 피임 도구의 올바른 활용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5-7〉 피임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명
전체	40.0	2.5	24.6	2.1	-	0.2	0.8	21.7	0.9	7.1	100.0	1,404
거주지												
동부	39.6	2.8	25.2	2.7	-	0.1	0.9	20.9	0.9	7.0	100.0	1,105
읍면부	41.8	1.3	22.4	0.3	-	0.5	0.5	24.7	0.8	7.7	100.0	300
성($\chi^2=30.5^{***}$)												
남자	46.0	2.2	20.0	2.9	-	0.3	1.0	19.8	1.2	6.7	100.0	651
여자	34.8	2.8	28.6	1.5	-	0.1	0.6	23.4	0.7	7.6	100.0	753
연령												
19~24세	45.2	-	12.7	-	-	-	-	27.3	-	14.8	100.0	9
25~29세	73.9	-	11.3	9.3	-	-	-	0.4	-	5.1	100.0	58
30~34세	68.8	-	10.1	0.5	-	-	0.2	15.4	0.2	4.8	100.0	182
35~39세	64.9	2.2	11.0	1.0	-	0.9	0.1	13.7	0.7	5.5	100.0	303
40~44세	36.7	4.0	16.9	2.1	-	-	1.7	27.4	1.3	9.8	100.0	374
45~49세	11.7	2.8	46.6	2.7	-	-	0.8	27.2	1.1	7.1	100.0	478
교육수준												
고졸이하	35.4	2.1	30.7	2.7	-	0.3	1.2	20.6	0.7	6.3	100.0	466
대졸	42.8	2.9	21.8	1.5	-	0.1	0.3	22.0	1.1	7.5	100.0	863
대학원졸	37.3	0.7	18.2	6.3	-	-	4.1	25.7	-	7.8	100.0	76
혼인상태												
미혼	28.4	2.7	2.2	19.5	-	-	-	25.0	3.3	18.9	100.0	31
기혼	40.3	2.5	25.1	1.8	-	0.2	0.8	21.6	0.8	6.9	100.0	1,374
취업여부												
취업	41.3	2.1	24.9	2.3	-	0.2	0.8	20.5	0.9	7.0	100.0	1,052
비취업	36.4	3.6	23.8	1.7	-	0.1	0.8	25.3	0.8	7.6	100.0	352
가구소득 ¹⁾												
60%미만	53.2	2.9	4.4	-	-	-	-	29.9	1.6	8.1	100.0	63
60~80%미만	53.5	2.7	17.4	1.0	-	-	-	17.1	0.5	7.7	100.0	112
80~100%미만	38.0	4.0	21.6	3.4	-	0.8	0.2	20.7	1.3	10.0	100.0	199
100~120%미만	41.9	2.7	21.1	3.3	-	-	1.8	22.0	1.6	5.6	100.0	244
120~140%미만	42.1	4.2	23.8	1.4	-	-	0.3	22.1	0.4	5.8	100.0	209
140~160%미만	46.8	0.2	23.3	-	-	-	0.5	23.8	1.0	4.3	100.0	197
160%이상	29.1	1.7	35.1	3.0	-	0.3	1.2	20.7	0.4	8.5	100.0	38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최근 경험에서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 결정 주체는 대체로 나와 상대방이 함께 한다는 응답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61.2%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 본인이 주된 피임 결정 주체라는 응답 비율이 24.5%로 주로 상대방이라는 응답 비율(14.3%)이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범주는 성, 혼인상태 범주로서 특히 성별 차이와 관련하여 남성의 경우 주로 내가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이 34.7%인 반면, 여성의 경우 13.0%로, 주로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은 남성 6.9%, 여성 22.7%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인 경우에는 주로 내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32.2%인 반면 기혼은 18.8%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응답자 본인이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나와 상대방이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과 주로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연령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로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른 세부 응답 범주의 경우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의 경우 나와 상대방이 함께 피임을 결정한다는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최근 경험에서 성관계 상대와의 피임 결정 주체

(단위: %, 명)

구분	주로 내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주로 상대방이	계	명
전체	24.5	61.2	14.3	100.0	12,024
거주지($x^2=7.2^*$)					
동부	24.0	61.6	14.4	100.0	9,863
읍면부	26.8	59.5	13.8	100.0	2,161
성($x^2=1118.7^{***}$)					
남자	34.7	58.4	6.9	100.0	6,403
여자	13.0	64.3	22.7	100.0	5,622
연령($x^2=57.2^{***}$)					
19~24세	26.4	61.7	11.9	100.0	1,041
25~29세	29.1	59.1	11.8	100.0	1,772
30~34세	24.9	62.7	12.4	100.0	1,887
35~39세	23.8	61.9	14.3	100.0	2,250
40~44세	23.0	61.0	15.9	100.0	2,631
45~49세	22.4	60.8	16.7	100.0	2,444
교육수준($x^2=25.3^{***}$)					
고졸이하	27.2	58.5	14.3	100.0	3,982
대졸	23.3	62.4	14.3	100.0	7,486
대학원졸	21.7	63.8	14.5	100.0	556
혼인상태($x^2=324.8^{***}$)					
미혼	32.2	57.2	10.6	100.0	5,149
기혼	18.8	64.1	17.1	100.0	6,875
취업여부($x^2=37.4^{***}$)					
취업	25.8	60.7	13.5	100.0	8,870
비취업	21.0	62.6	16.4	100.0	3,154
가구소득($x^2=71.5^{***}$) ¹⁾					
60%미만	31.0	56.5	12.4	100.0	1,563
60~80%미만	27.1	58.4	14.5	100.0	1,378
80~100%미만	25.7	60.3	14.0	100.0	1,533
100~120%미만	24.8	60.8	14.4	100.0	1,678
120~140%미만	23.4	61.2	15.5	100.0	1,524
140~160%미만	20.9	64.0	15.1	100.0	1,274
160%이상	21.3	64.3	14.3	100.0	3,074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난임 경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난임(infertility)을 남성 또는 여성이 12개월 이상 어떤 피임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성교(sexual intercourse)를 했으나 임신에 실패한 상태라고 정의한다(WHO, 2023).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3,494명을 대상으로 현재 배우자와 난임을 경험했는지 질문한 결과 결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등 난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여성(122명)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3,372명)의 16.8%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17.2%)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난임 경험률에 있어서 연령, 교육 수준,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0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 난임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40~44세 기혼 여성의 경우 약 19%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대학원 졸업 기혼 여성의 20.2%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의 혼인 연령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 60% 미만 기혼 여성의 30.0%가 난임을 경험하여 가구소득 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9〉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의 난임 경험 비율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2021)	17.2	82.8	100.0	3,429
전체(2024)	16.8	83.2	100.0	3,372
거주지($\chi^2=3.1$)				
동부	17.4	82.6	100.0	2,697
읍면부	14.6	85.4	100.0	676
연령($\chi^2=15.6^{**}$)				
19~24세	4.4	95.6	100.0	14
25~29세	5.1	94.9	100.0	95
30~34세	14.1	85.9	100.0	421
35~39세	16.6	83.4	100.0	774
40~44세	18.9	81.1	100.0	1,054
45~49세	17.1	82.9	100.0	1,015
교육수준($\chi^2=9.8^{**}$)				
고졸이하	13.8	86.2	100.0	979
대졸	17.8	82.2	100.0	2,208
대학원졸	20.2	79.8	100.0	186
취업여부($\chi^2=2.0$)				
취업	16.0	84.0	100.0	1,831
비취업	17.8	82.2	100.0	1,541
가구소득($\chi^2=14.4^{*1}$)				
60%미만	30.0	70.0	100.0	49
60~80%미만	18.5	81.5	100.0	213
80~100%미만	13.5	86.5	100.0	449
100~120%미만	16.9	83.1	100.0	575
120~140%미만	14.8	85.2	100.0	556
140~160%미만	19.6	80.4	100.0	445
160%이상	17.0	83.0	100.0	1,087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1)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196.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3,494명 중 12개월 이상 어떤 피임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성교(sexual intercourse)를 했으나 임신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66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현재 배우자가 병원에서 난임 검사를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난임 검사를 받은 경우는 56.0%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 본인만 받은 경우는 8.1%, 배우자(남성)만 받은 경우는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난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난임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난임을 경험한 경우의 65.2%가 난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도입되고 점차 확대된 것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교육수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난임검사를 받은 비율과 본인가 배우자 모두 검사를 받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10〉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난임 검사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나만 받았다	배우자만 받았다	모두 받았다	모두 받지 않았다	전체	
전체	8.1	1.1	56.0	34.8	100.0	566
거주지						
동부	7.4	1.0	57.5	34.1	100.0	468
읍면부	11.2	1.3	49.1	38.5	100.0	98
연령						
19~24세	-	-	100.0	-	100.0	1
25~29세	-	-	42.9	57.1	100.0	5
30~34세	4.1	0.7	63.1	32.1	100.0	59
35~39세	8.0	1.1	62.9	28.1	100.0	129
40~44세	8.8	0.6	58.9	31.7	100.0	199
45~49세	9.0	1.7	45.5	43.8	100.0	174
교육수준						
고졸이하	6.2	0.8	48.5	44.6	100.0	135
대졸	9.4	0.9	57.3	32.4	100.0	394
대학원졸	1.2	3.3	70.2	25.3	100.0	38
취업여부						
취업	7.2	1.0	55.3	36.4	100.0	292
비취업	9.0	1.1	56.8	33.2	100.0	274
가구소득 ¹⁾						
60%미만	4.0	-	29.6	66.4	100.0	15
60~80%미만	6.4	-	41.7	51.9	100.0	39
80~100%미만	9.1	0.8	42.3	47.8	100.0	61
100~120%미만	7.9	1.3	59.1	31.6	100.0	97
120~140%미만	7.9	1.8	58.4	31.9	100.0	82
140~160%미만	10.5	0.4	59.2	29.9	100.0	87
160% 이상	7.4	1.3	61.6	29.7	100.0	18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중 난임을 경험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난임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369명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 경험에 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난임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 75.6%가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2021년(65.7%)과 비교했을 때 9.9%p 증가한 수준이다. 난임 시술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5-11〉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의 난임시술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2021)	65.7	34.3	100.0	360
전체(2024)	75.6	24.4	100.0	369
거주지($\chi^2=0.2$)				
동부	76.2	23.8	100.0	309
읍면부	73.0	27.0	100.0	61
연령				
19~24세	100.0	-	100.0	1
25~29세	35.5	64.5	100.0	2
30~34세	69.9	30.1	100.0	40
35~39세	76.4	23.6	100.0	93
40~44세	78.3	21.7	100.0	136
45~49세	74.3	25.7	100.0	98
교육수준($\chi^2=0.7$)				
고졸이하	79.1	20.9	100.0	75
대졸	74.3	25.7	100.0	266
대학원졸	79.3	20.7	100.0	28
취업여부($\chi^2=0.3$)				
취업	76.9	23.1	100.0	186
비취업	74.4	25.6	100.0	183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가구소득 ¹⁾				
60%미만	54.3	45.7	100.0	5
60~80%미만	73.5	26.5	100.0	19
80~100%미만	69.7	30.3	100.0	32
100~120%미만	68.1	31.9	100.0	66
120~140%미만	73.1	26.9	100.0	56
140~160%미만	78.8	21.2	100.0	61
160%이상	81.7	18.3	100.0	13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1)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198.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중 난임을 경험하고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279명을 대상으로 시술받은 난임 시술의 종류에 관해 복수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경험한 난임 시술은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으로 전체의 39.0%가 경험하였다. 이어 자궁 내 인공수정(30.6%), 배란 유도 및 과배란 유도(27.6%)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의 경험한 난임시술(복수응답)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대상자 중 비율
계	433	100.0	155.2
(과)배란유도	120	27.6	42.8
자궁 내 인공수정	133	30.6	47.5
시험관 아기 시술(체외수정)	169	39.0	60.6
난자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	12	2.8	4.3

주: 1) 해당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는 279명이며, 각 시술을 경험한 사람의 총합은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433명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279명을 대상으로 시술 과정에서의 가장 힘들었던 점에 관해 질문한 결과, 신체적 불편감 또는 고통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신적 고통(31.9%), 경제적 부담(1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3〉 기혼 유배우 여성(19~49세)의 난임시술 경험자의 난임시술 시 가장 힘들었던 점

(단위: 명, %)

구 분	명	비율
계	279	100.0
경제적 부담	50	18.0
정신적 고통	89	31.9
배우자의 비협조와 무시	5	1.6
가족 갈등	2	0.8
사회적 편견	3	0.9
신체적 불편감 또는 고통	94	33.5
시간 부족	16	5.6
직장 문제	22	7.7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중, 난임을 경험한 여성 중 난임 시술을 경험한 여성 279명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받은 시술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신 후 출산한 경우가 대부분(63.3%)이다. 반면, 전체의 24.7%는 임신이 안 되었고, 3.3%는 유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유배우 여성(19~49세)과 배우자의 가장 최근의 난임 시술 결과

(단위: %, 명)

구 분	명	비율
합계	279	100.0
임신 후 출산하였다	177	63.3
현재 임신 중이다	15	5.3
유산되었다	9	3.3
사산되었다	0*	0.2
임신이 안 되었다	69	24.7
현재 시술 중이다	9	3.1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답자는 1명으로 가중치 적용 후 0.5 미만으로 산출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임신·출산 이력과 자녀 계획

1. 임신 경험

이 절의 내용은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전 생애 이력을 분석한 내용이다. 우선 19에서 49세 여성의 전 생애 임신 횟수를 살펴보면, 절반정도(50.6%)는 임신 경험이 없으며, 지금까지 1회 임신 경험자는 16.2%, 2회 경험자는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0.98회이며, 2021년 1.3회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표 5-15〉 임신 횟수(19~49세 여성)

(단위: %, 명, 회)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명	평균
전체(2021)	40.4	17.5	25.9	11.1	3.6	1.6	100.0	7,032	1.3
전체(2024)	50.6	16.2	22.2	8.2	2.1	0.8	100.0	6,927	0.98
연령($\chi^2=3,555.7^{***}$)									
19-29세	96.1	2.7	1.0	0.2	0.1	0.0	100.0	2,300	0.06
30-34세	60.2	19.2	16.1	3.5	0.7	0.2	100.0	944	0.66
35-39세	30.4	25.7	31.6	9.4	2.0	0.9	100.0	1,076	1.30
40-44세	17.0	22.5	38.7	15.6	4.8	1.4	100.0	1,319	1.74
45-49세	13.4	23.9	39.7	17.3	3.9	1.7	100.0	1,288	1.80
출생아수($\chi^2=13,487.8^{***}$)									
0명	96.4	2.9	0.4	0.3	0.0	0.0	100.0	3,635	0.05
1명	-	80.3	15.2	3.7	0.6	0.1	100.0	1,211	1.25
2명	-	2.6	80.1	13.3	2.9	1.1	100.0	1,645	2.21
3명 이상	-	0.3	5.4	67.0	20.2	7.1	100.0	437	3.31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3) 연령 19-24세 범주의 임신 횟수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출처: 1) 박중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142.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임신 방법은 다섯 번째 이상을 제외하고 자연임신이 95% 이상을 차지하며, 인공수정 임신은 첫 번째 임신 회차에서 1.9%로 나타났고, 두 번째 임신 회차에서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외수정 임신은 첫 번째 임신 회차에서 2.5%, 두 번째 회차에서 1.6%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16〉 임신 방법(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자연임신	95.3	96.9	97.2	95.4	91.9
인공수정	1.9	1.2	0.9	2.0	5.0
체외수정	2.5	1.6	1.9	1.9	3.1
기타 난임시술	0.3	0.2	0.1	0.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425	2,302	764	196	53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임신 회차별로 합병증 경험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병증 경험 비율이 첫 번째 임신 회차에서는 3.5%로 나타났고, 두 번째 임신 회차에서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17〉 임신 당시 합병증 유무(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첫 번째 임신	두 번째 임신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임신	다섯 번째 임신
있었다	3.5	3.3	3.7	3.2	3.7
없었다	96.5	96.7	96.3	96.8	9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425	2,302	764	196	53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19-49세 여성 중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임신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항목은 각 임신 결과와 관련된 각 세부 범주를 출생,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지, 현재 임신 중으로 구분하고, 응답자의 총임신히트수 평균과 평균 임신유지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평균 임신유지율은 각 표본별 현재 임신을 제외한 총임신히트수에서 출생 이외의 임신결과를 제외한 임신 결과의 비율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임신결과 중 현재 임신을 제외한 출생 결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4년 조사 결과 19-49세 여성의 평균 출생 횟수는 1.68회, 총 임신 횟수는 1.97회, 평균 임신유지율은 90.6%로, 지난 2021년 조사 결과의 동 항목과 비교하여 볼 때 평균 출생 횟수와 총임신히트수 평균은 각각 감소한 반면(1.71회→1.68회, 2.11회→1.97회), 평균 임신유지율은 87.4%에서 9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평균임신유지율의 증가는 관련 의료기술의 증대와 더불어 정책 수혜의 결과와도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신 결과 중 출생 평균 횟수와 관련하여, 각 공변량별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출생 횟수는 동부 거주자보다는 읍면부 거주자의 경우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혼에 비하여 기혼이, 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하여, 임신유지율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임신 결과 중 출생 평균 횟수의 경향과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지만, 일부 범주는 상이하다. 가령,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 평균 횟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평균 임신유지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56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표 5-18〉 임신 결과(19~49세 여성)

(단위: 회, %, 명)

구분	임신 결과 평균 횟수					현임신	총임신 평균 횟수	평균 임신 유치율	명
	출생	사산	출생과 사산 동시	자연 유산	인공 중지				
전체(2021)	1.71	0.01	0.00	0.25	0.11	0.04	2.11	87.4	4,194
전체(2024)	1.68	0.01	0.00	0.20	0.05	0.04	1.97	90.6	3,425
지역									
동부	1.65	0.01	0.00	0.21	0.05	0.04	1.96	90.0	2,759
읍면부	1.81	0.00	-	0.16	0.03	0.04	2.04	93.0	666
연령									
19~29세	1.02	0.01	-	0.07	0.06	0.25	1.42	87.4	89
30~34세	1.37	0.00	0.00	0.12	0.03	0.15	1.66	92.3	375
35~39세	1.61	0.00	0.00	0.17	0.03	0.05	1.86	92.2	749
40~44세	1.79	0.00	-	0.23	0.06	0.01	2.10	89.8	1,096
45~49세	1.79	0.01	0.00	0.22	0.05	-	2.08	90.1	1,116
교육									
고졸이하	1.79	0.01	0.00	0.19	0.07	0.02	2.08	89.8	1,086
대졸	1.64	0.01	0.00	0.21	0.03	0.05	1.93	91.0	2,154
대학원졸	1.56	0.00	-	0.17	0.03	0.04	1.81	91.4	185
혼인상태									
미혼	0.35	0.04	-	0.07	0.53	-	1.00	35.4	20
기혼	1.69	0.01	0.00	0.20	0.04	0.04	1.98	90.9	3,405
취업여부									
취업	1.67	0.01	0.00	0.18	0.05	0.03	1.94	90.7	1,888
비취업	1.70	0.01	0.00	0.22	0.04	0.04	2.01	90.5	1,537
출생아수									
0명	-	0.03	-	0.55	0.21	0.52	1.31	-	132
1명	1.00	0.01	0.00	0.18	0.03	0.04	1.25	91.1	1,211
2명	1.97	0.00	0.00	0.18	0.04	0.01	2.21	93.4	1,645
3명 이상	3.02	0.01	-	0.21	0.07	0.01	3.31	93.6	437
가구소득 ¹⁾									
60% 미만	1.24	0.02	-	0.24	0.13	0.01	1.65	77.3	156
60~80% 미만	1.52	0.01	-	0.19	0.05	0.06	1.83	89.4	250
80~100% 미만	1.62	0.00	-	0.20	0.05	0.06	1.94	90.7	477
100~120% 미만	1.72	0.01	0.00	0.20	0.03	0.04	1.99	91.5	556
120~140% 미만	1.72	0.01	0.00	0.18	0.04	0.03	1.98	92.1	512
140~160% 미만	1.77	0.00	-	0.25	0.05	0.04	2.11	89.7	424
160% 이상	1.75	0.00	-	0.18	0.04	0.03	2.00	92.0	1,05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연령 19~24세 범주의 임신 횟수가 작아서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5) 평균임신유치율은 각 표본별 현재 임신을 제외한 총임신허수에서 출생 이외의 임신결과를 제외한 임신 결과의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출처: 1)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146.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평균임신유지율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범주는 가구소득 범주인데 대체적으로 두 변인은 정적(+) 연관성이 나타나지만,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 범주의 평균임신유지율은 약 77.3%로 다른 범주가 89~92%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미혼과 연령 19-29세 범주를 제외하면, 임신유지율이 가장 낮은 세부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총임신횟수에 비하여 출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인공임신중지의 비율이 다른 범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2. 출산 경험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19-49세 여성의 출생아 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생아 수 0명 범주가 전체의 5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명 23.7%, 1명 17.5%, 3명 이상 6.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계산한 결과 응답자 19-49세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5명으로 도출되었다. 평균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조사에서 도출된 1.03명에 비하여 약 0.18명 감소한 것이며, 이는 각 범주별 비중과 관련하여, 1명, 2명, 3명 이상 범주가 각각 감소(19.9%→17.5%, 30.3%→23.7%, 7.3%→6.3%)한 반면, 0명 범주의 경우 가장 크게 증가한 것(42.6%→52.5%)과 무관하지 않다.

5) 추가적으로, 가구소득 범주를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의 40% 미만, 40-60%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임신유지율 평균은 각각 74.1%, 78.6%로 가구소득이 보다 낮은 집단의 경우 임신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9〉 출생아 수(19~49세 여성)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명	평균
전체(2021)	42.6	19.9	30.3	7.3	100.0	7,032	1.03
전체(2024)	52.5	17.5	23.7	6.3	100.0	6,927	0.85
지역($\chi^2=96.6^{***}$)							
동부	54.5	17.1	23.1	5.3	100.0	5,820	0.80
읍면부	41.8	19.5	27.2	11.6	100.0	1,107	1.10
연령($\chi^2=3487.0^{***}$)							
19-29세	97.2	2.0	0.7	0.2	100.0	2,300	0.04
30-34세	64.7	18.2	14.6	2.5	100.0	944	0.55
35-39세	32.9	28.0	32.2	6.9	100.0	1,076	1.14
40-44세	18.6	25.8	42.6	13.0	100.0	1,319	1.51
45-49세	14.8	27.4	45.2	12.7	100.0	1,288	1.57
교육($\chi^2=82.6^{***}$)							
고졸이하	56.4	14.5	20.7	8.3	100.0	2,395	0.82
대졸	51.0	18.6	25.0	5.4	100.0	4,226	0.85
대학원졸	41.3	25.1	30.1	3.4	100.0	306	0.96
혼인상태($\chi^2=5147.9^{***}$)							
미혼	99.8	0.2	-	-	100.0	3,138	0.00
기혼	13.3	31.8	43.4	11.5	100.0	3,789	1.54
취업여부($\chi^2=39.3^{***}$)							
취업	55.6	16.1	22.6	5.7	100.0	4,067	0.79
비취업	48.1	19.4	25.3	7.2	100.0	2,860	0.92
가구소득($\chi^2=667.3^{***}$) ¹⁾							
60% 미만	86.4	8.1	4.4	1.1	100.0	963	0.20
60-80% 미만	64.5	17.3	14.3	4.0	100.0	658	0.58
80-100% 미만	44.7	23.7	25.0	6.6	100.0	829	0.94
100-120% 미만	42.5	20.3	29.4	7.8	100.0	936	1.03
120-140% 미만	44.9	20.5	26.1	8.4	100.0	903	0.99
140-160% 미만	44.4	16.6	30.0	9.0	100.0	736	1.04
160% 이상	46.1	17.1	29.9	6.8	100.0	1,902	0.9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4) 연령 19-24세 범주는 출생아가 거의 없어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출처: 1) 박중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152.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구체적으로, 각 공변량별 세부 출생아수 범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과 관련하여 읍면부는 동부에 비하여 0명 범주가 작은 반면, 1명 이상의 범주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0명 범주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1명, 2명 범주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비취업자의 경우 취업자에 비하여 1명 이상의 각 범주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가구소득은 출생아 수 1명 이상의 범주의 경우 특히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범주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해당 범주에서의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상충 관계(quality and quantity, Becker GS, Lewis H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 Polit. Econ. 81, S279-S288.)에 대한 사항이 특히 보다 치밀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상충 관계는 가구소득 범주의 평균 출생아 수의 변화가 일정 수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 증가 경향이 나타나는 특성 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과거와 미래의 자녀 계획

다음으로,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생활 경험이 있는 19-49세의 첫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때의 0명 범주는 해당 시점에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 당시 자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조사 결과는 2명 범주가 전체의 63.6%로 가장 높고, 1명 22.3%, 3명 6.7%, 0명 6.1%, 4명 이상 1.2%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 자녀 수의 평균은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획 자녀 수의 평균은 지난 2021년 조사에서의 1.93명(박종서 외, 2021)에 비하여 약 0.18명 감소한 것이다. 세부 범주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계획 자녀수의 평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 가구소득 범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종서 외(202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획 자녀 수가 계획 행동 이론(Ajzen, 1987; Ajzen, 1991) 등과 같이 출산 계획이 출산 이행의 동인으로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 교육수준, 가구소득, 연령에서의 계획 자녀수 평균의 변화 양상은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양상에 대한 집단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연령 범주와 가구소득 범주의 계획 자녀 수 패턴은 기본적으로 코호트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세부 특성이 지니는 함의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20〉 과거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계획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6.1	22.3	63.6	6.7	1.2	100.0	6,229	1.75
거주지($\chi^2=7.9$)								
동부	6.1	22.9	63.4	6.4	1.2	100.0	4,972	1.74
읍면부	5.8	20.2	64.6	8.1	1.3	100.0	1,257	1.79
성($\chi^2=12.4^*$)								
남자	6.0	20.4	65.6	6.7	1.3	100.0	2,867	1.77
여자	6.1	24.0	61.9	6.7	1.2	100.0	3,363	1.73
연령($\chi^2=34.1^{**}$)								
19~29세	10.7	22.1	61.5	5.4	0.3	100.0	219	1.63
30~34세	8.9	23.4	60.1	6.6	1.0	100.0	720	1.68
35~39세	5.5	23.6	62.9	6.9	1.1	100.0	1,445	1.75
40~44세	6.1	22.1	62.9	7.5	1.4	100.0	1,974	1.77
45~49세	4.9	21.2	66.4	6.0	1.4	100.0	1,871	1.78
교육수준($\chi^2=22.1^{**}$)								
고졸이하	7.4	21.3	62.2	7.3	1.7	100.0	1,764	1.75
대졸	5.7	22.6	64.4	6.2	1.1	100.0	4,087	1.75
대학원졸	4.2	23.7	61.4	9.5	1.2	100.0	378	1.80
취업여부($\chi^2=3.9$)								
취업	6.2	22.3	63.9	6.4	1.2	100.0	4,720	1.74
비취업	5.8	22.4	62.6	7.7	1.5	100.0	1,509	1.77
가구소득($\chi^2=99.2^{***}$) ¹⁾								
60%미만	12.8	34.2	47.9	5.0	-	100.0	191	1.45
60~80%미만	7.4	27.4	56.4	8.4	0.4	100.0	420	1.67
80~100%미만	5.8	25.0	61.6	6.4	1.2	100.0	858	1.72
100~120%미만	6.7	19.2	65.5	7.5	1.2	100.0	1,049	1.77
120~140%미만	5.6	25.0	62.4	6.4	0.5	100.0	993	1.71
140~160%미만	6.7	22.0	64.5	5.7	1.0	100.0	854	1.73
160%이상	4.9	19.2	66.9	6.9	2.1	100.0	1,865	1.8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생활 경험이 있는 19-49세의 자녀 출산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의견 반영과 관련된 조사는 기본적으로 출산 결정이 부부 구성원 간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데 기인하고 있다. 자녀 출산 여부, 자녀 출산 시기, 자녀 수는 자녀 출산과 관련된 부부 구성원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출산 이후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견 반영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전적으로 내가, 대체로 내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대체로 상대방이, 전적으로 상대방이”의 다섯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세부 범주에서 나와 상대방이 함께 결정한다는 비중이 대체적으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나와 상대방이 함께 결정한다는 범주를 제외하면, 응답자 본인보다는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남성의 경우에만 내가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 분포와 관련하여, 자녀 출산 시기는 자녀 출산 여부, 자녀 수에 비하여 나와 상대방이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1〉 과거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출산 결정에 있어서 의견 반영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내가	대체로 내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대체로 상대방이	전적으로 상대방이	계	명
전체	1.2	3.2	93.2	2.1	0.4	100.0	6,875
거주지($\chi^2=5.5$)							
동부	1.2	3.4	93.0	2.0	0.4	100.0	5,472
읍면부	1.1	2.3	93.9	2.3	0.4	100.0	1,403
성($\chi^2=122.8^{***}$)							
남자	0.2	1.8	94.3	3.0	0.7	100.0	3,086
여자	2.0	4.3	92.3	1.3	0.1	100.0	3,789
연령							
19~29세	0.9	3.0	94.4	1.3	0.3	100.0	253
30~34세	1.1	3.3	92.8	2.7	0.2	100.0	789
35~39세	1.4	2.4	94.0	1.9	0.4	100.0	1,590
40~44세	1.1	3.1	93.6	2.1	0.2	100.0	2,158
45~49세	1.2	4.0	92.2	2.0	0.6	100.0	2,086
교육수준($\chi^2=38.1^{***}$)							
고졸이하	1.4	4.0	90.9	3.2	0.5	100.0	2,014
대졸	1.1	2.7	94.2	1.7	0.3	100.0	4,451
대학원졸	0.8	5.0	93.6	0.6	-	100.0	41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22〉 과거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출산 시기 결정에 있어서 의견 반영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내가	대체로 내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대체로 상대방이	전적으로 상대방이	계	명
전체	1.4	4.5	90.4	3.2	0.5	100.0	6,875
거주지($x^2=7.2$)							
동부	1.5	4.8	90.2	3.2	0.4	100.0	5,472
읍면부	1.0	3.5	91.4	3.4	0.7	100.0	1,403
성($x^2=253.9^{***}$)							
남자	0.1	1.8	91.8	5.3	0.9	100.0	3,086
여자	2.4	6.7	89.2	1.6	0.1	100.0	3,789
연령($x^2=19.5$)							
19~29세	1.1	3.7	92.4	2.5	0.3	100.0	253
30~34세	1.5	4.8	90.0	3.2	0.5	100.0	789
35~39세	1.4	3.7	91.3	3.2	0.4	100.0	1,590
40~44세	1.1	4.2	91.4	3.1	0.2	100.0	2,158
45~49세	1.7	5.5	88.6	3.5	0.7	100.0	2,086
교육수준($x^2=37.1^{***}$)							
고졸이하	1.8	5.6	87.4	4.4	0.8	100.0	2,014
대졸	1.2	4.1	91.5	2.8	0.4	100.0	4,451
대학원졸	0.8	4.1	93.4	1.7	-	100.0	41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4)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23〉 과거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 수 결정에 있어서 의견 반영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내가	대체로 내가	나와 상대방이 함께	대체로 상대방이	전적으로 상대방이	계	명
전체	1.4	4.1	91.6	2.5	0.4	100.0	6,875
거주지($x^2=14.0^{**}$)							
동부	1.4	4.5	91.0	2.7	0.4	100.0	5,472
읍면부	1.3	2.6	93.8	1.8	0.4	100.0	1,403
성($x^2=125.9^{***}$)							
남자	0.4	2.4	92.7	3.8	0.7	100.0	3,086
여자	2.2	5.5	90.6	1.5	0.2	100.0	3,789
연령($x^2=12.3$)							
19~29세	1.2	4.3	92.9	1.6	0.1	100.0	253
30~34세	1.4	3.5	92.7	2.1	0.3	100.0	789
35~39세	1.4	3.5	92.5	2.1	0.6	100.0	1,590
40~44세	1.2	4.3	91.3	2.8	0.3	100.0	2,158
45~49세	1.6	4.6	90.5	2.8	0.5	100.0	2,086
교육수준($x^2=27.1^{***}$)							
고졸이하	1.8	5.4	89.2	3.0	0.6	100.0	2,014
대졸	1.3	3.5	92.4	2.4	0.4	100.0	4,451
대학원졸	0.7	4.1	94.0	1.2	-	100.0	41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19-49세 남녀를 현재 배우자 유무별로 구분하여 향후 출산 계획과 자녀 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유배우자의 출산 계획은 응답자의 약 18.0%만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출산 계획 자녀 수의 평균은 약 1.25명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현재 유배우자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 자녀 수의 평균 역시 유사한 양상으로 도출되었다.

현재 무배우자의 경우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앞서 살펴본 유배우자와 비교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출산 계획 자녀 수의 평균 역시 유배우자의 경우 1.25명인데 비하여 1.54명으로 약 0.29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유배우자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유사하지만, 가구소득의 경우 일관된 패턴이 도출되지 않았다. 즉, 가구소득이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80%를 기준으로 미만 집단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과 향후 출산 계획 비중 간에는 부적(-) 연관성이 관측되었으나, 이상 집단의 경우 정적(+) 연관성이 도출된 점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출산 계획 자녀 수 평균의 경우 가구소득의 증가 따라 감소, 증가 패턴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자녀 출산 계획, 이행, 자녀 양육에 이르는 여러 생애 과정과 이를 둘러싼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데 기인하여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4〉 현재 유배우자의 향후 출산 계획과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비율	평균			
전체	18.0	1.25	82.0	100.0	6,511
거주지($\chi^2=0.0$)					
동부	18.0	1.27	82.0	100.0	5,171
읍면부	18.1	1.18	81.9	100.0	1,340
성($\chi^2=29.2^{***}$)					
남자	20.8	1.26	79.2	100.0	3,017
여자	15.6	1.24	84.4	100.0	3,494
연령($\chi^2=1280.3^{***}$)					
19~29세	67.4	1.51	32.6	100.0	248
30~34세	47.7	1.27	52.3	100.0	774
35~39세	24.3	1.19	75.7	100.0	1,553
40~44세	9.6	1.15	90.4	100.0	2,046
45~49세	3.4	1.12	96.6	100.0	1,890
교육수준($\chi^2=7.8^*$)					
고졸이하	16.5	1.27	83.5	100.0	1,798
대졸	19.0	1.24	81.0	100.0	4,311
대학원졸	14.8	1.27	85.2	100.0	402
취업여부($\chi^2=10.7^{**}$)					
취업	18.9	1.26	81.1	100.0	4,886
비취업	15.3	1.21	84.7	100.0	1,625
가구소득($\chi^2=101.1^{***}$) ¹⁾					
60%미만	40.4	1.47	59.6	100.0	114
60~80%미만	27.5	1.29	72.5	100.0	408
80~100%미만	19.0	1.18	81.0	100.0	887
100~120%미만	19.0	1.21	81.0	100.0	1,110
120~140%미만	18.4	1.31	81.6	100.0	1,080
140~160%미만	19.8	1.27	80.2	100.0	900
160%이상	13.0	1.21	87.0	100.0	2,013

주: 1) 가구소득은 2024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00%로 하여 분석.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연령 19~24세 범주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 세부 범주에 비하여 작아 19~29세 범주로 통합하였음.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25〉 현재 무배우자의 향후 출산 계획과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비율	평균			
전체	63.2	1.54	36.8	100.0	7,861
거주지($\chi^2=0.1$)					
동부	63.2	1.54	36.8	100.0	6,697
읍면부	62.9	1.55	37.1	100.0	1,163
성($\chi^2=205.8^{***}$)					
남자	70.0	1.57	30.0	100.0	4,428
여자	54.3	1.48	45.7	100.0	3,433
연령($\chi^2=977.7^{***}$)					
19~24세	74.0	1.59	26.0	100.0	2,513
25~29세	70.7	1.57	29.3	100.0	2,038
30~34세	69.4	1.54	30.6	100.0	1,291
35~39세	56.3	1.40	43.7	100.0	804
40~44세	35.1	1.24	64.9	100.0	633
45~49세	16.3	1.32	83.7	100.0	582
교육수준($\chi^2=1.7$)					
고졸이하	63.7	1.57	36.3	100.0	3,620
대졸	62.8	1.51	37.2	100.0	4,055
대학원졸	59.7	1.52	40.3	100.0	187
혼인상태($\chi^2=584.1^{***}$)					
미혼	66.1	1.54	33.9	100.0	7,497
기혼	3.5	1.27	96.5	100.0	364
취업여부($\chi^2=5.3^*$)					
취업	62.2	1.52	37.8	100.0	4,994
비취업	64.8	1.56	35.2	100.0	2,867
가구소득($\chi^2=75.8^{***}$) ¹⁾					
60%미만	60.5	1.58	39.5	100.0	1,876
60~80%미만	57.6	1.50	42.4	100.0	1,163
80~100%미만	58.8	1.42	41.2	100.0	871
100~120%미만	62.3	1.49	37.7	100.0	853
120~140%미만	64.1	1.61	35.9	100.0	757
140~160%미만	66.2	1.58	33.8	100.0	609
160%이상	70.9	1.54	29.1	100.0	1,73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19-49세 중 향후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 경우, 향후 임신을 위하여 난자(정자) 냉동을 할 의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조사항목은 지난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처음 도입한 문항으로서, 자녀 출산 계획 및 자녀 출산 시기에 대한 자기 결정권 실현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이 최근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문항은 시기를 조정하여 개인의 출산 의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박종서 외, 2021).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16.2%가 난자(정자) 냉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향이 있다는 응답 결과와 관련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졸이하보다는 대졸자가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경우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감소를 반복하여 명확하게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구소득이 가장 큰 범주(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의 160% 이상)의 의향 비율은 다른 범주와 비교해 볼 때 큰 특징이 나타났다(19.7%).

본인의 난자(정자)가 아니라 향후 자녀를 갖기 위해 제 3자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을 의향은 19-49세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1.1%). 또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어리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기혼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생식세포를 기증받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26〉 출산계획이 있는 사람이 향후 임신을 위하여 난자(정자)를 냉동할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미 하였음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	명
전체	0.9	16.2	82.9	100.0	6,139
거주지($x^2=15.9^{***}$)					
동부	0.9	17.0	82.1	100.0	5,165
읍면부	1.1	11.9	86.9	100.0	974
성($x^2=9.4^{**}$)					
남자	0.9	15.0	84.1	100.0	3,729
여자	1.0	18.0	81.0	100.0	2,410
연령($x^2=95.6^{***}$)					
19~24세	0.5	13.0	86.5	100.0	1,882
25~29세	0.2	16.8	83.0	100.0	1,585
30~34세	0.8	16.3	82.9	100.0	1,264
35~39세	1.8	20.9	77.2	100.0	830
40~44세	3.4	16.4	80.2	100.0	418
45~49세	3.7	21.9	74.4	100.0	159
교육수준($x^2=13.6^{**}$)					
고졸이하	0.8	14.4	84.9	100.0	2,604
대졸	1.1	17.6	81.3	100.0	3,364
대학원졸	0.6	17.0	82.4	100.0	171
혼인상태($x^2=93.9^{***}$)					
미혼	0.4	16.9	82.7	100.0	4,952
기혼	3.2	13.2	83.6	100.0	1,187
취업여부($x^2=8.6^*$)					
취업	0.9	17.2	81.9	100.0	4,032
비취업	1.0	14.3	84.8	100.0	2,107
가구소득($x^2=31.1^{**}$) ¹⁾					
60%미만	0.6	15.8	83.6	100.0	1,182
60~80%미만	0.8	13.3	85.9	100.0	781
80~100%미만	1.2	15.2	83.6	100.0	680
100~120%미만	0.9	13.6	85.5	100.0	742
120~140%미만	0.9	16.6	82.5	100.0	683
140~160%미만	0.4	15.8	83.8	100.0	582
160%이상	1.4	19.7	78.9	100.0	1,48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27〉 출산계획이 있는 사람이 제3자의 생식세포(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을 의향

(단위: %, 명)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모르겠음	계	명
전체	1.5	91.1	7.4	100.0	6,139
거주지($x^2=3.9$)					
동부	1.7	90.8	7.5	100.0	5,165
읍면부	1.0	92.3	6.7	100.0	974
성($x^2=4.2$)					
남자	1.3	91.3	7.4	100.0	3,729
여자	1.9	90.7	7.3	100.0	2,410
연령($x^2=20.7^*$)					
19~24세	1.6	89.7	8.7	100.0	1,882
25~29세	1.4	90.3	8.3	100.0	1,585
30~34세	1.3	92.9	5.9	100.0	1,264
35~39세	2.3	92.0	5.8	100.0	830
40~44세	0.9	92.6	6.5	100.0	418
45~49세	2.6	91.3	6.0	100.0	159
교육수준($x^2=4.4$)					
고졸이하	1.4	90.9	7.7	100.0	2,604
대졸	1.7	91.1	7.1	100.0	3,364
대학원졸	-	92.0	8.0	100.0	171
혼인상태($x^2=21.4^{***}$)					
미혼	1.6	90.3	8.1	100.0	4,952
기혼	1.3	94.4	4.3	100.0	1,187
취업여부($x^2=4.8$)					
취업	1.7	91.4	6.9	100.0	4,032
비취업	1.3	90.4	8.3	100.0	2,107
가구소득($x^2=52.1^{***1}$) ¹⁾					
60%미만	1.1	92.5	6.4	100.0	1,182
60~80%미만	1.8	91.6	6.6	100.0	781
80~100%미만	0.3	93.5	6.1	100.0	680
100~120%미만	3.7	90.4	5.9	100.0	742
120~140%미만	1.4	88.6	10.0	100.0	683
140~160%미만	1.7	91.4	6.9	100.0	582
160%이상	1.3	89.9	8.9	100.0	1,48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입양의 경우, 또 다른 가족 형성의 수단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2024년 조사에서 신규로 반영한 문항이다. 다만, 응답자의 입양 경험과 향후 입양 의향은 경험이 있거나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향후 입양 의향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94.7%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입양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도출되었다.

〈표 5-28〉 향후 입양 의향

(단위: %, 명)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모르겠음	계	명
전체	2.0	94.7	3.3	100.0	14,372
거주지($\chi^2=3.0$)					
동부	2.0	94.6	3.4	100.0	11,869
읍면부	1.7	95.4	2.9	100.0	2,503
성($\chi^2=3.7$)					
남자	1.8	94.7	3.5	100.0	7,445
여자	2.1	94.8	3.1	100.0	6,927
연령($\chi^2=162.0***$)					
19~24세	1.8	92.9	5.3	100.0	2,542
25~29세	2.4	91.9	5.7	100.0	2,257
30~34세	2.2	94.0	3.9	100.0	2,065
35~39세	2.4	95.0	2.6	100.0	2,357
40~44세	2.2	96.2	1.5	100.0	2,679
45~49세	0.8	98.0	1.2	100.0	2,472
교육수준($\chi^2=11.9*$)					
고졸이하	1.5	95.2	3.3	100.0	5,418
대졸	2.2	94.5	3.2	100.0	8,365
대학원졸	1.9	93.5	4.6	100.0	589
혼인상태($\chi^2=213.6***$)					
미혼	2.7	92.2	5.2	100.0	7,497
기혼	1.2	97.5	1.3	100.0	6,875
취업여부($\chi^2=2.0$)					
취업	1.9	94.9	3.3	100.0	9,881
비취업	2.2	94.4	3.4	100.0	4,491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모르겠음	계	명
가구소득($\chi^2=120.4^{***}$) ¹⁾					
60%미만	4.5	91.4	4.1	100.0	1,990
60~80%미만	2.4	94.0	3.5	100.0	1,571
80~100%미만	1.0	96.5	2.5	100.0	1,758
100~120%미만	1.3	96.5	2.2	100.0	1,963
120~140%미만	1.3	95.8	2.9	100.0	1,837
140~160%미만	1.6	95.9	2.5	100.0	1,509
160%이상	1.7	94.0	4.3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산전 · 산후 관리와 분만

본 절에서는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중 산전 관리, 분만, 출산 후의 산후 관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분석에는 3건의 미혼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1. 산전 관리

산전관리(임신 전 관리)란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위해서 임신 전에 기본적인 진찰과 검사를 시행하고 특정 기왕력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시행하는 것(대한산부인과학회)'이다(대한산부인과학회, 의학정보).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541명의 여성은 모두 산전 진찰을 수진하였다. 산전 관리 장소는 응답자의 87.7%가 병·의원(여성전문병원 포함)에서 산전 관리를 하였고, 이어 종합병원(10.4%), 보건(지)소, 보건의료원(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29〉 기혼여성(19~49세)의 산전관리 장소(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전체	
전체(2021)	9.6	89.8	0.61		100.0	811
전체(2024)	10.4	87.7	0.9	1.0	100.0	541
거주지						
동부	10.2	88.0	0.9	0.9	100.0	439
읍면부	11.3	86.4	0.5	1.7	100.0	102
출산 시 연령						
19~24세	-	98.2	-	1.8	100.0	18
25~29세	9.9	89.3	-	0.8	100.0	80
30~34세	9.6	88.9	0.6	0.9	100.0	213
35~39세	10.1	87.3	1.1	1.5	100.0	176
40~49세	19.1	78.4	2.5	-	100.0	53
교육수준						
고졸이하	10.0	87.5	2.2	0.3	100.0	129
대졸	9.5	88.6	0.5	1.4	100.0	382
대학원졸	23.2	76.8	-	-	100.0	30
취업여부						
취업	10.4	88.1	1.0	0.4	100.0	243
비취업	10.4	87.4	0.8	1.5	100.0	298
가구소득 ²⁾						
60%미만	-	92.7	7.3	-	100.0	8
60~80%미만	9.4	90.6	-	0.0	100.0	26
80~100%미만	10.2	85.9	-	3.9	100.0	80
100~120%미만	8.6	88.7	1.6	1.2	100.0	91
120~140%미만	9.5	90.5	-	-	100.0	76
140~160%미만	16.4	83.6	-	-	100.0	64
160%이상	10.3	87.7	1.3	0.7	100.0	198
출생아 수						
1명	10.1	87.0	1.1	1.8	100.0	258
2명 이상	10.7	88.3	0.7	0.3	100.0	283

주: 1) 2021년도에는 종합병원, 병의원, 기타로 구분하였음.

2)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6)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1)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201.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산전 관리는 임신 후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산전 관리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Adequacy of Prenatal Care Utilization (APNCU) Index(Kotelchuck index)의 산출에는 산전 초진 시기가 중요한 요소이다(Kotelchuck M., 1994).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541명을 대상으로 처음 산전 진찰(초진)을 받은 시기를 조사한 결과 초진 시기는 평균 임신 5.6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출산한 여성의 대부분(65.9%)이 임신 5~8주 사이에 초진을 받으며 29.8%가 임신 1~4주에 초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출산 시 연령에 있어서 초진 수진 시기가 가장 빠른 집단은 40~49세 여성 집단으로 평균 임신 5.2주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인 경우는 난임 시술에 의한 임신 등 계획 임신일 가능성이 높아 일찍부터 산전 관리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초진 시기가 가장 늦은 집단은 19~24세 여성 집단으로 평균 임신 10.6주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출산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기에 산전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표 5-30〉 기혼여성(19~49세)의 초진시기(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주)

구분	1~4주	5~8주	9~12주	13주 이후	계	명	평균
전체	29.8	65.9	3.1	1.1	100.0	541	5.64
거주지							
동부	29.6	65.9	3.2	1.3	100.0	439	5.68
읍면부	30.7	66.0	3.0	0.3	100.0	102	5.44
출산 시 연령							
19~24세	19.3	57.1	4.4	19.2	100.0	18	10.56
25~29세	26.4	69.6	2.5	1.6	100.0	80	5.76
30~34세	28.4	67.7	3.3	0.7	100.0	213	5.60
35~39세	32.3	64.7	3.0	-	100.0	176	5.24
40~49세	36.5	60.2	3.3	-	100.0	53	5.17
교육수준							
고졸이하	27.1	67.8	2.0	3.2	100.0	129	6.07
대졸	31.0	64.8	3.7	0.6	100.0	382	5.51
대학원졸	27.3	71.9	.8	-	100.0	30	5.42
취업여부							
취업	28.6	67.6	3.7	0.1	100.0	243	5.48
비취업	30.9	64.5	2.6	2.0	100.0	298	5.76
가구소득 ¹⁾							
60%미만	30.9	33.3	-	35.8	100.0	8	14.99
60~80%미만	37.0	56.9	5.2	0.9	100.0	26	5.57
80~100%미만	28.1	68.0	3.0	0.9	100.0	80	5.80
100~120%미만	30.3	67.8	1.9	-	100.0	91	5.24
120~140%미만	28.6	67.9	2.0	1.4	100.0	76	5.56
140~160%미만	32.6	64.2	3.2	-	100.0	64	5.28
160%이상	28.9	66.4	4.0	0.7	100.0	198	5.54
출생아 수							
1명	29.6	65.7	2.9	1.7	100.0	258	5.77
2명 이상	30.0	66.0	3.3	0.6	100.0	283	5.51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러한 산전 관리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Adequacy of Prenatal Care Utilization (APNCU) Index(Kotelchuck index)의 산출에는 산전 초진 시기뿐만 아니라 산전 수진 횟수도 중요한 요소이다(Kotelchuck M., 1994).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 541명의 평균 산전 관리 횟수는 13.2회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5회 이하의 산전 진찰 및 검진을 받은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출산 시의 연령에 있어서 19~24세 여성의 13.3%는 산전 수진 횟수가 5회 이하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 60% 미만 여성의 31.8%가 산전 수진 횟수가 5회 이하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유사하게 평균 산전 수진 횟수에 있어서 19~24세 여성(12.3회), 고졸 이하 여성(12.9회), 가구 소득 60% 미만 여성(10.8회)이 다른 여성 집단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산 건강과 태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산전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31〉 기혼여성(19~49세)의 산전진찰 횟수(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회)

구분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1	25.6	56.9	14.9	1.5	100.0	541	13.16
거주지								
동부	1.1	24.4	57.1	15.7	1.7	100.0	439	13.31
읍면부	1.3	30.4	56.4	11.3	0.6	100.0	102	12.50
출산 시 연령								
19~24세	13.3	25.1	43.4	18.3	-	100.0	18	12.26
25~29세	1.2	26.2	61.9	8.7	2.0	100.0	80	12.91
30~34세	1.1	28.8	53.9	15.6	0.6	100.0	213	12.91
35~39세	0.3	23.5	59.4	14.6	2.2	100.0	176	13.45
40~49세	-	18.6	57.9	21.2	2.2	100.0	53	13.86
교육수준								
고졸이하	2.6	27.5	55.9	12.0	2.0	100.0	129	12.87
대졸	0.7	25.1	57.5	15.4	1.3	100.0	382	13.22
대학원졸	-	23.9	53.8	21.0	1.2	100.0	30	13.67
취업여부								
취업	-	24.9	59.8	14.6	0.7	100.0	243	13.23
비취업	2.0	26.1	54.6	15.1	2.1	100.0	298	13.10
가구소득 ¹⁾								
60%미만	31.8	11.3	52.8	4.1	-	100.0	8	10.77
60~80%미만	-	19.9	63.0	15.1	2.0	100.0	26	13.89
80~100%미만	-	37.7	48.8	13.5	-	100.0	80	12.46
100~120%미만	-	19.2	60.8	16.9	3.0	100.0	91	13.71
120~140%미만	-	27.7	60.3	9.1	2.9	100.0	76	13.06
140~160%미만	0.6	29.6	53.3	16.0	0.5	100.0	64	12.94
160%이상	1.6	22.8	57.7	16.8	1.1	100.0	198	13.29
출생아 수								
1명	0.9	24.6	57.9	15.1	1.5	100.0	258	13.29
2명 이상	1.3	26.5	56.1	14.7	1.5	100.0	283	13.04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분만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한 여성 541명을 대상으로 분만 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4.3%는 병·의원(여성전문병원 포함)에서 분만하였고 15.1%는 종합병원에서 분만하였다. 이어 매우 소수의 여성이 조산원(0.3%), 보건의료원(0.2%), 자택(0.2%)에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2021년 조사에서는 분만 장소로 병·의원(여성전문병원 포함)(85.6%), 종합병원(13.5%), 보건의료원(0.6%), 조산원(0.2%), 자택(0.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40~49세 여성의 32.7%, 대학원 졸업 여성의 26.6%가 종합병원에서의 분만하여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고령 출산인 경우 고위험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 종합병원에서 분만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5-32〉 기혼여성(19~49세)의 분만장소(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자택	계	명
전체(2021)	13.5	85.6	0.2	0.6	0.0	100.0	811
전체(2024)	15.1	84.3	0.3	0.2	0.2	100.0	541
거주지							
동부	15.0	84.6	0.3	0.1	-	100.0	439
읍면부	15.5	83.1	-	0.6	0.8	100.0	102
출산 시 연령							
19~24세	6.3	91.9	-	1.8	-	100.0	18
25~29세	13.4	85.9	-	0.7	-	100.0	80
30~34세	12.4	87.6	-	-	-	100.0	213
35~39세	14.8	83.9	0.8	-	0.5	100.0	176
40~49세	32.7	67.3	-	-	-	100.0	53
교육수준							
고졸이하	14.1	85.2	-	0.7	-	100.0	129
대졸	14.6	84.8	0.4	-	0.2	100.0	382
대학원졸	26.6	73.4	-	-	-	100.0	30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자택	계	명
취업여부							
취업	14.1	85.3	0.6	-	-	100.0	243
비취업	15.9	83.5	-	0.3	0.3	100.0	298
가구소득 ¹⁾							
60%미만	0.0	100.0	-	-	-	100.0	8
60~80%미만	14.6	85.4	-	-	-	100.0	26
80~100%미만	16.5	82.4	-	1.2	-	100.0	80
100~120%미만	13.6	85.5	-	-	0.9	100.0	91
120~140%미만	12.3	87.7	-	-	-	100.0	76
140~160%미만	20.7	79.3	-	-	-	100.0	64
160%이상	15.2	84.0	0.7	-	-	100.0	198
출생아 수							
1명	15.3	84.6	-	0.1	-	100.0	258
2명 이상	15.0	84.0	0.5	0.2	0.3	100.0	28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1)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206.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분만한 여성 541명을 대상으로 분만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응급 제왕절개분만율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연 진통에 의한 분만(30.5%), 응급 제왕절개 분만(19.6%) 순이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출생아 수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출생아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자연 진통에 의한 분만이 전체의 35.4%로 1명인 경우 보다 10.2%p 높게 나타난 반면, 응급 제왕절개 분만은 15.6%로 8.5%p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5-33〉 기혼여성(19~49세)의 분만방법(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분	유도분만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	응급 제왕절개	비응급 제왕절개	계	명
전체	5.8	30.5	19.6	44.0	100.0	541
거주지($\chi^2=0.3$)						
동부	6.1	30.4	19.6	43.9	100.0	439
읍면부	4.9	30.8	19.6	44.6	100.0	102
출산 시 연령						
19~24세	6.5	28.3	24.1	41.1	100.0	18
25~29세	3.4	38.0	21.9	36.7	100.0	80
30~34세	6.6	29.1	21.2	43.1	100.0	213
35~39세	6.8	29.1	17.8	46.3	100.0	176
40~49세	3.1	30.3	14.5	52.1	100.0	53
교육수준($\chi^2=5.2$)						
고졸이하	3.8	28.1	18.2	49.9	100.0	129
대졸	6.4	30.4	20.5	42.8	100.0	382
대학원졸	8.1	42.7	15.2	34.1	100.0	30
취업여부($\chi^2=1.7$)						
취업	7.1	31.1	19.7	42.1	100.0	243
비취업	4.8	30.0	19.5	45.6	100.0	298
가구소득 ¹⁾						
60%미만	-	17.3	6.5	76.2	100.0	8
60~80%미만	4.4	27.9	20.0	47.7	100.0	26
80~100%미만	8.0	23.2	20.0	48.8	100.0	80
100~120%미만	2.6	32.5	18.0	46.9	100.0	91
120~140%미만	7.6	31.3	17.1	44.0	100.0	76
140~160%미만	4.6	35.5	20.8	39.0	100.0	64
160%이상	6.6	31.5	21.3	40.6	100.0	198
출생아 수($\chi^2=9.9^*$)						
1명	6.6	25.2	24.1	44.2	100.0	258
2명 이상	5.2	35.4	15.6	43.9	100.0	28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산후 관리

산후 관리(postnatal care 또는 postpartum care)는 출산 후 약 6주간인 산욕기 동안 임신과 분만으로 인해 변화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소영, 이상립, 조성호, 최인선, 2015). 세계보건기구(WHO)의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관리에 관한 권고(WHO Recommendations on Postnatal Care of the Mother and Newborn)」에서는 산후 관리의 목적을 모성의 유병률 및 사망률 감소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인지 발달의 촉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WHO, 2013).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 541명의 산후 진찰을 받은 비율(산후 수진율)은 96.9%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신 중 관리인 산전 진찰의 수진율이 100%인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출산 시 25~29세인 여성의 92.9%만이 산후 진찰을 받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산후 진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34〉 기혼여성(19~49세)의 산후 수진 경험(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96.9	3.1	100.0	541
거주지				
동부	97.8	2.2	100.0	439
읍면부	93.1	6.9	100.0	102
출산 시 연령				
19~24세	100.0	-	100.0	18
25~29세	92.9	7.1	100.0	80
30~34세	96.3	3.7	100.0	213
35~39세	98.9	1.1	100.0	176
40~49세	98.0	2.0	100.0	53
교육수준				
고졸이하	95.9	4.1	100.0	129
대졸	97.0	3.0	100.0	382
대학원졸	100.0	-	100.0	30
취업여부($x^2=1.7$)				
취업	98.0	2.0	100.0	243
비취업	96.1	3.9	100.0	298
가구소득 ¹⁾				
60%미만	100.0	-	100.0	8
60~80%미만	94.3	5.7	100.0	26
80~100%미만	95.6	4.4	100.0	80
100~120%미만	97.0	3.0	100.0	91
120~140%미만	97.3	2.7	100.0	76
140~160%미만	94.6	5.4	100.0	64
160%이상	98.3	1.7	100.0	198
출생아 수($x^2=0.1$)				
1명	97.1	2.9	100.0	258
2명 이상	96.8	3.2	100.0	28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출산 후 첫 주 이내에 산후 진찰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Wojcieszek A. M. et al., 2023).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 541명 중 산후진찰을 받은 524명이 출산 후 산후 진찰을 받은 시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6%는 출산 후 1~21일에 산후 진찰을 받았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출산 시 연령이 40~49세인 여성의 2.8%는 출산 후 42~60일에 산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산후 진찰을 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출산한 여성 541명은 평균적으로 출산 후 13.3일에 산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후 첫 주 이내에 산후 진찰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WHO의 권고안을 고려할 때 산후 진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35〉 기혼여성(19~49세)의 산후 수진 시기(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명)

구분	1~21일	22~42일	42~60일	계	명	평균
전체	81.6	17.6	0.8	100.0	524	13.30
거주지						
동부	81.3	17.8	0.9	100.0	429	13.40
읍면부	82.8	16.7	0.5	100.0	95	12.86
출산 시 연령						
19~24세	92.0	8.0	-	100.0	18	10.69
25~29세	74.8	24.8	0.4	100.0	74	13.98
30~34세	83.9	15.5	0.6	100.0	206	13.01
35~39세	82.1	17.2	0.7	100.0	174	13.07
40~49세	76.7	20.5	2.8	100.0	52	15.15
교육수준						
고졸이하	79.3	20.2	0.4	100.0	123	13.61
대졸	82.8	16.3	0.9	100.0	371	13.13
대학원졸	75.4	23.4	1.2	100.0	30	14.10
취업여부						
취업	82.2	16.8	1.1	100.0	238	13.35
비취업	81.1	18.3	0.6	100.0	286	13.26

구분	1~21일	22~42일	42~60일	계	명	평균
가구소득 ¹⁾						
60%미만	72.7	27.3	-	100.0	8	13.72
60~80%미만	79.5	20.5	-	100.0	24	13.11
80~100%미만	82.9	17.1	-	100.0	76	13.17
100~120%미만	82.6	16.1	1.4	100.0	88	12.76
120~140%미만	88.5	11.5	-	100.0	74	11.51
140~160%미만	78.9	21.1	-	100.0	60	13.54
160%이상	79.4	19.0	1.6	100.0	194	14.21
출생아 수						
1명	84.4	15.1	0.5	100.0	250	12.55
2명 이상	79.0	19.9	1.1	100.0	274	13.99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산후조리는 ‘여성이 아이를 낳은 후에 몸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몸을 보살펴서 임신 전의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 관리라는 개념에 문화적인 신념을 추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이소영 외, 2015, p.25, p.28).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 541명의 산후조리 장소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8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고, 이어 본인의 집(38.1%), 친정(응답자의 본가)(8.9%)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은 집단은 도시에 거주하는 산모, 출산 시 연령이 40~49세인 산모, 대학원을 졸업한 산모, 취업 중인 산모, 가구소득이 높은 산모, 출생아가 1명인 산모이다. 구체적으로, 동부에 거주하는 출산모의 87.9%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반면, 읍면부 거주자는 73.3%가 이용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산후조리원 인프라의 접근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 시 연령이 40~49세인 산모의 90.2%, 대학원을 졸업한 산모의 99.0%, 취업 중인 산모의 90.6%, 가구소

득이 160% 이상 산모의 91.8%, 출생아가 1명인 산모의 90.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6〉 기혼여성(19~49세)의 산후조리 장소(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중복응답)

(단위:%, 명, 일)

구분	본인 집 (응답자의 본가)	친정 집 (배우자의 본가)	시가 산후조리 원	병의원 (산부인과 조산원 등)	조산원	기타	명
전체	38.1	8.9	1.5	85.1	0.9	0.2	541
거주지							
동부	38.4	9.4	1.4	87.9	0.9	0.2	439
읍면부	37.1	6.6	1.7	73.3	0.9	0.0	102
출산 시 연령							
19~24세	39.4	17.6	-	56.7	-	-	18
25~29세	37.7	13.4	1.6	84.7	0.4	-	80
30~34세	36.7	10.1	0.7	87.6	1.9	0.5	213
35~39세	39.9	5.2	2.9	83.7	0.2	-	176
40~49세	38.4	6.5	-	90.2	-	-	53
교육수준							
고졸이하	43.1	9.1	3.3	63.9	1.2	0.5	129
대졸	36.7	8.8	0.8	91.2	0.8	0.1	382
대학원졸	34.7	9.4	2.7	99.0	-	-	30
취업여부							
취업	35.7	9.3	1.0	90.6	0.7	-	243
비취업	40.1	8.5	1.9	80.6	1.0	0.3	298
가구소득 ¹⁾							
60%미만	32.4	7.0	7.3	38.6	-	-	8
60~80%미만	28.3	4.5	0.7	80.3	-	-	26
80~100%미만	38.5	12.0	1.0	77.7	2.9	0.8	80
100~120%미만	38.8	8.5	3.0	82.2	0.9	-	91
120~140%미만	39.3	4.0	1.2	81.6	-	-	76
140~160%미만	42.7	11.5	0.8	89.3	2.1	-	64
160%이상	37.3	9.5	1.2	91.8	0.2	0.2	198
출생아 수							
1명	32.5	11.3	1.2	90.8	0.4	-	258
2명 이상	43.3	6.7	1.7	80.0	1.3	0.4	28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출산 후 발생하는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즉 산욕기 동안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없음 또는 죄책감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이다(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s)은 출산 후 50%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겪게되는 우울감으로 대부분은 일상적 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 2024).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 541명을 대상으로 분만 이후 1년 이내 산후우울감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산후우울감의 경험률은 28.4%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출산 시 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특히 출산 시 연령이 19~24세인 산모의 58.0%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산후우울 관련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37〉 기혼여성(19~49세)의 분만 이후 1년 내 산후우울감 경험 여부(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28.4	71.6	100.0	541
거주지($\chi^2=1.4$)				
동부	29.5	70.5	100.0	439
읍면부	23.8	76.2	100.0	102
출산 시 연령($\chi^2=8.6$)				
19~24세	58.0	42.0	100.0	18
25~29세	28.0	72.0	100.0	80
30~34세	26.2	73.8	100.0	213
35~39세	28.5	71.5	100.0	176
40~49세	27.4	72.6	100.0	53
교육수준($\chi^2=3.2$)				
고졸이하	34.5	65.5	100.0	129
대졸	26.6	73.4	100.0	382
대학원졸	24.7	75.3	100.0	30
취업여부($\chi^2=0.8$)				
취업	30.3	69.7	100.0	243
비취업	26.9	73.1	100.0	298
가구소득($\chi^2=6.7$) ¹⁾				
60%미만	55.8	44.2	100.0	8
60~80%미만	19.7	80.3	100.0	26
80~100%미만	31.0	69.0	100.0	80
100~120%미만	30.6	69.4	100.0	91
120~140%미만	22.6	77.4	100.0	76
140~160%미만	24.2	75.8	100.0	64
160%이상	30.0	70.0	100.0	198
출생아 수($\chi^2=1.4$)				
1명	30.8	69.2	100.0	258
2명 이상	26.2	73.8	100.0	28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 541명 중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154명 중 15.3%만이 산후우울감으로 산후우울 증 진단 검사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산모의 산후 정신건강은 산모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생아에 대한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산모의 산후 정신건강 상태는 산모의 건강과 모아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소영, 임지영, 2017) 이므로 적절한 검사와 상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38〉 기혼여성(19~49세)의 산후우울감 경험 후 진단 검사나 상담을 받아본 경험
(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15.3	84.7	100.0	154
거주지				
동부	14.5	85.5	100.0	129
읍면부	19.5	80.5	100.0	24
출산 시 연령				
19~24세	11.2	88.8	100.0	11
25~29세	10.9	89.1	100.0	22
30~34세	16.0	84.0	100.0	56
35~39세	17.8	82.2	100.0	50
40~49세	14.1	85.9	100.0	15
교육수준($\chi^2=3.5$)				
고졸이하	9.8	90.2	100.0	44
대졸	18.4	81.6	100.0	102
대학원졸	6.2	93.8	100.0	7
취업여부($\chi^2=1.2$)				
취업	18.9	81.1	100.0	74
비취업	12.0	88.0	100.0	80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가구소득 ¹⁾				
60%미만	24.7	75.3	100.0	4
60~80%미만	-	100.0	100.0	5
80~100%미만	15.1	84.9	100.0	25
100~120%미만	8.5	91.5	100.0	28
120~140%미만	17.6	82.4	100.0	17
140~160%미만	33.3	66.7	100.0	15
160%이상	13.9	86.1	100.0	59
출생아 수($\chi^2=0.3$)				
1명	13.8	86.2	100.0	79
2명 이상	17.0	83.0	100.0	74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조사 시점 기준 3년 이내에 출산한 여성 541명 중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154명 중 산후우울감으로 산후우울증 진단 검사나 상담을 받은 산모는 총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산후우울증에 대한 진단 또는 상담을 받은 주된 장소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체의 57.1%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심리상담소(14.5%), 보건(지)소 및 보건의료원(8.6%), 산후조리원(8.2%)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9〉 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을 받은 기혼여성(19~49세)의 진단 혹은 상담 장소
(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한의원, 한방병원	심리상담소	산후조리원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기타	계	명
전체	8.6	57.1	4.8	4.5	14.5	8.2	1.3	1.2	100.0	2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수유

본 절에서는 본 조사에 응답한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41명을 대상으로 출생아에 대한 수유 실태를 살펴본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는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해야 하고 생후 6개월까지 물을 포함한 대체제 없는 완전모유수유를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완전 모유수유율과 출생 후 1시간 이내의 모유수유율은 중요한 지표로서 산출 및 관리되고 있다(WHO, Breastfeeding).

조사 결과, 모유수유 경험에 대해 최근 3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 여성(541명)의 87.2%는 모유수유를 하였고, 12.8%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를 수유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다 적극적으로 모유수유를 홍보·교육하고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0〉 기혼여성(19~49세)의 모유수유 경험 여부(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87.2	12.8	100.0	541
거주지($x^2=0.2$)				
동부	86.9	13.1	100.0	439
읍면부	88.7	11.3	100.0	102
출산 시 연령($x^2=7.3$)				
19~24세	66.0	34.0	100.0	18
25~29세	85.8	14.2	100.0	80
30~34세	88.1	11.9	100.0	213
35~39세	88.2	11.8	100.0	176
40~49세	89.6	10.4	100.0	53
교육수준($x^2=6.3^*$)				
고졸이하	81.8	18.2	100.0	129
대졸	89.5	10.5	100.0	382
대학원졸	80.8	19.2	100.0	30
취업여부($x^2=2.5$)				
취업	89.8	10.2	100.0	243
비취업	85.1	14.9	100.0	298
가구소득 ¹⁾				
60%미만	55.5	44.5	100.0	8
60~80%미만	82.5	17.5	100.0	26
80~100%미만	87.0	13.0	100.0	80
100~120%미만	87.6	12.4	100.0	91
120~140%미만	82.8	17.2	100.0	76
140~160%미만	85.8	14.2	100.0	64
160%이상	91.1	8.9	100.0	198
출생아 수($x^2=1.6$)				
1명	89.1	10.9	100.0	258
2명 이상	85.5	14.5	100.0	28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x^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5-41〉 기혼여성(19~49세)의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 경험 여부(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4.4	95.6	100.0	472
거주지				
동부	4.3	95.7	100.0	381
읍면부	4.5	95.5	100.0	91
출산 시 연령				
19~24세	3.5	96.5	100.0	12
25~29세	7.2	92.8	100.0	68
30~34세	3.7	96.3	100.0	187
35~39세	4.6	95.4	100.0	155
40~49세	2.1	97.9	100.0	48
교육수준				
고졸이하	3.4	96.6	100.0	105
대졸	4.7	95.3	100.0	342
대학원졸	3.1	96.9	100.0	24
취업여부($\chi^2=0.6$)				
취업	3.5	96.5	100.0	219
비취업	5.1	94.9	100.0	253
가구소득 ¹⁾				
60%미만	-	100.0	100.0	4
60~80%미만	4.7	95.3	100.0	21
80~100%미만	4.0	96.0	100.0	69
100~120%미만	5.7	94.3	100.0	80
120~140%미만	2.2	97.8	100.0	63
140~160%미만	6.4	93.6	100.0	55
160%이상	4.1	95.9	100.0	180
출생아 수($\chi^2=2.1$)				
1명	2.9	97.1	100.0	230
2명 이상	5.7	94.3	100.0	24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의 영유아 대상 중점과제에서는 모유수유 실천율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 특히 출생 후 6개월 완전모유수유(exclusive breastfeeding) 실천율을 2030년까지 77.6%로 향상시키고, 출생 후 12개월 모유수유 실천율을 2030년까지 45.0%로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최근 3년 내 출산 경험이 있고 모유수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대상으로 모유수유 실천에 관해 조사하였다. 현재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최근 출산한 여성 39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를 조사하였고, 현재 모유수유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응답한 432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단 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여성은 평균 7.8개월까지 모유를 수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평균 모유수유 계획 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모유수유를 완전히 중단한 기간은 평균 3.4개월로 나타나 계획한 기간과 비교해서 평균 4.4개월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평균 모유수유 중단 시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42〉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의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및 실제 중단 시기

(단위: 개월, 명)

구 분	모유수유 중단 예정 시기	명	F(t)	모유수유 실제 중단 시기	명	F(t)
전체	7.80	39		3.42	432	
거주지						
동부	7.57	31	t=-0.5	3.35	350	t=-0.8
읍면부	8.66	8		3.71	82	
출산 시 연령						
19~24세	3.00	1		3.60	11	
25~29세	8.27	4	F=0.2	2.94	65	F=0.6
30~34세	7.74	13		3.70	174	
35~39세	7.83	16		3.31	139	
40~49세	8.28	4		3.33	43	
교육수준						
고졸이하	7.71	8	F=0.1	3.46	98	F=0.2
대졸	7.74	29		3.38	313	
대학원졸	8.86	2		3.89	22	
취업여부						
취업	7.13	16	t=-0.7	3.30	203	t=-0.6
비취업	8.24	24		3.52	230	
가구소득 ¹⁾						
60%미만	12.00	1		3.13	3	
60~80%미만	5.46	1		3.08	20	
80~100%미만	8.91	6	F=0.8	3.84	64	F=0.6
100~120%미만	9.17	10		3.84	70	
120~140%미만	11.31	2		3.57	61	
140~160%미만	6.34	6		2.89	49	
160%이상	6.30	13		3.23	167	
출생아 수						
1명	7.66	24	t=-0.2	3.15	206	t=-1.5
2명 이상	8.02	15		3.67	227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 541명을 대상으로 신생아에 대한 수유 양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1주 미만에 44.8%였다가 생후 1주(2주 미만)에는 51.7%로 최고점에 이르다가 생후 2주(3주 미만)에는 48.4%, 생후 3주(4주 미만)에는 44.4%, 생후 1개월에는 35.9%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6개월에는 4.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생후 7개월에는 1.5%, 생후 8개월 부터는 0.7% 미만으로 떨어지나 14개월까지 지속되었다. 모유와 인공유를 수유하는 비율은 생후 1주 미만에 41.5%였다가 생후 1주(2주 미만)에는 30.1%, 생후 2주(3주 미만) 및 생후 3주(4주 미만)에는 29.4%로 점차 감소하다가 생후 1개월에는 33.8%로 증가했다가 생후 2개월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생후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1.0% 미만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인공유(분유 및 우유) 수유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생후 1주 미만에 13.7%였다가 생후 1주(2주 미만)에는 18.2%, 생후 2주(3주 미만)에는 22.2%, 생후 3주(4주 미만)에는 26.1%로 점차 증가하면서 생후 4개월에는 71.1%로 최고조에 이르고 점차 감소하다가 보충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생후 6개월에는 20.2%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수유하는 경우와 인공유를 수유하는 경우를 합하면 인공유를 수유하는 비율은 생후 1주 미만에 55.2%에서 생후 1주(2주 미만)에 48.3%로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하여 생후 3개월에는 80.4%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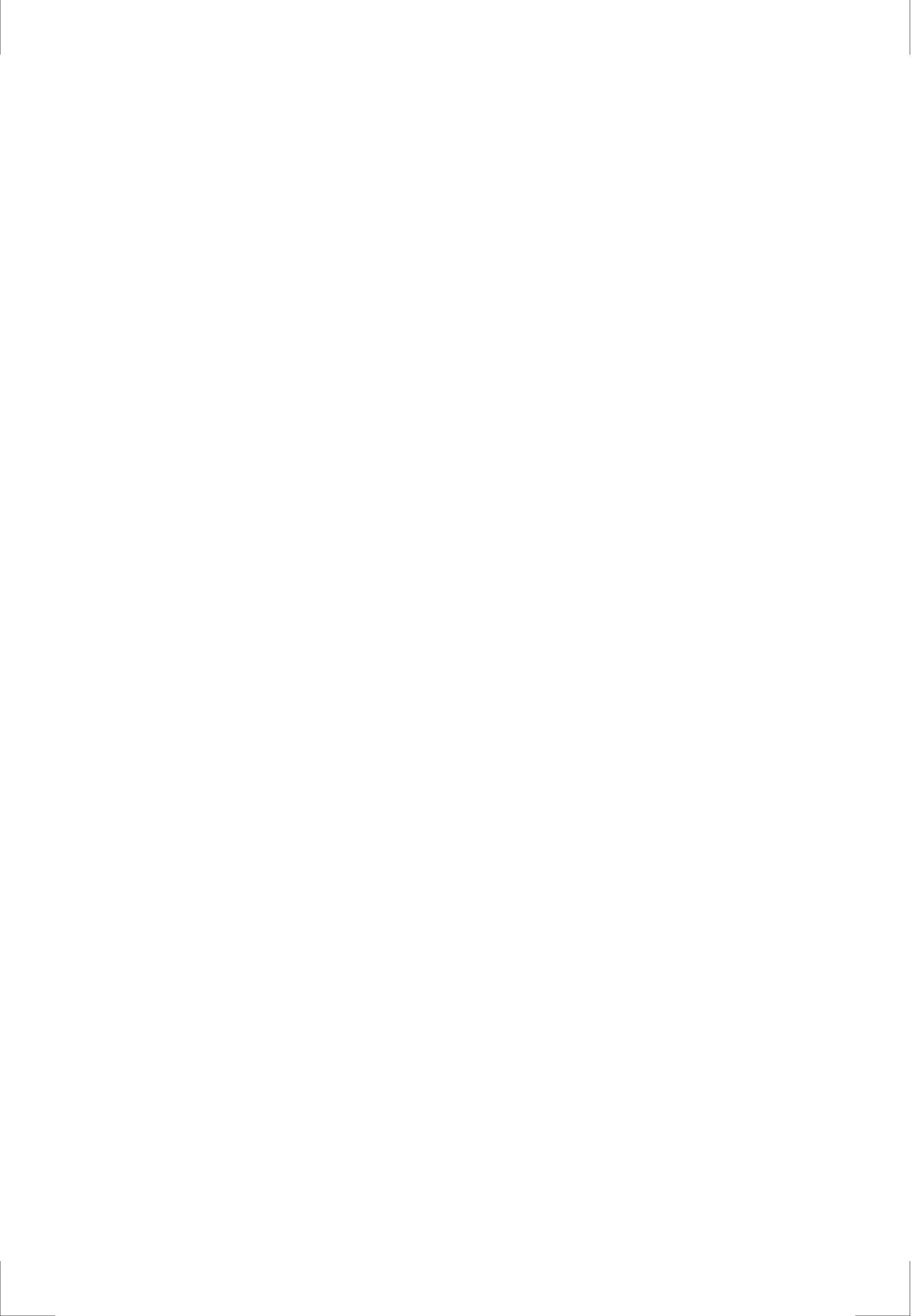
보충식은 생후 3개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후 6개월 부터는 인공유(우유)+보충식이 수유 양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인공유(우유)+보충식은 생후 24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후 18~24개월에는 93.0%에 달한다.

〈표 5-43〉 기혼여성(19~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2021.7.1. 이후 출생아 기준, 중복응답)

(단위: %, 명)

구 분	완전 모유	모유 + 인공유	인공유 (우유)	모유 + 보충식	인공유 (우유) + 보충식	보충식	모유+ 인공유 (우유)+ 보충식	모유 + 우유	계	명
생후1주 미만	44.8	41.5	13.7	-	-	-	-	-	100.0	541
생후2주 미만	51.7	30.1	18.2	-	-	-	-	-	100.0	538
생후3주 미만	48.4	29.4	22.2	-	-	-	-	-	100.0	533
생후4주 미만	44.4	29.4	26.1	-	-	-	-	-	100.0	531
1개월	35.9	33.8	30.3	-	-	-	-	-	100.0	530
2개월	28.8	24.1	47.0	-	-	-	-	-	100.0	518
3개월	19.3	22.8	57.6	0.1	0.2	-	-	-	100.0	508
4개월	15.9	9.2	71.1	0.2	3.4	-	0.2	-	100.0	500
5개월	12.8	8.3	60.6	0.7	16.4	-	1.2	-	100.0	487
6개월	4.6	4.6	20.2	4.6	59.7	0.1	6.2	-	100.0	477
7개월	1.5	0.6	6.0	5.9	81.2	-	4.9	-	100.0	470
8개월	0.7	0.2	3.6	5.8	85.0	0.1	4.6	-	100.0	456
9개월	0.7	0.1	2.8	5.5	86.9	0.2	3.8	-	100.0	441
10개월	0.7	0.1	2.4	5.6	88.3	0.2	2.7	-	100.0	428
11개월	0.7	0.1	2.1	5.2	87.7	1.7	2.5	-	100.0	413
12개월	0.6	0.2	1.5	3.2	86.7	3.6	4.1	-	100.0	398
13개월	0.1	-	0.9	1.0	89.7	5.7	2.6	-	100.0	388
14개월	0.1	-	0.8	0.5	91.5	5.6	1.6	-	100.0	374
15~17개월	-	-	0.3	0.3	93.1	5.3	1.0	-	100.0	358
18~23개월	-	-	0.4	0.4	93.0	5.9	0.3	-	100.0	30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6장

자녀 양육

제1절 자녀 돌봄과 양육 관련 감정

제2절 부부의 육아 부담

제3절 자녀 양육 비용과 정부 지원

제4절 부부의 가사 부담



제 6 장 자녀 양육

자녀 양육 영역에서는 먼저 자녀의 돌봄 현황과 자녀 양육 시 느낄 수 있는 효능감과 스트레스, 행복감 등과 같은 감정을 살펴본 후 부부의 육아분담 실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자녀 양육 관련 비용과 정부의 지원 정도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부부의 가사 분담에 대해 살펴본다.

자녀의 돌봄은 미취학 자녀 중 막내자녀와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자녀에 대해 질문하였으므로, 각각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가구의 대표응답자에게 질문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자녀 양육 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반면 부부의 육아분담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하였다. 미혼자녀의 양육 비용과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가구의 대표응답자에게 자녀별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하였다.

제1절 자녀 돌봄과 양육 관련 감정

1. 미취학 자녀 돌봄

가구의 대표응답자에게 미취학 자녀 중 막내자녀의 희망 돌봄과 실제 돌봄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막내 자녀의 주간(낮 시간) 돌봄 희망 1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35.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가정, 민간, 기타 어린이집 16.5%, 부모 15.2%, 국공립 유치원 12.6%, 사립유치원 9.9%, 조부모, 아이돌보미, 민간 돌보미 7.0%, 그 외 기타 응답 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취학 자녀의 희망 돌봄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와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희망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유치원은 3세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0세인 경우 부모(48.8%)나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15.5%) 개별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가 64.3%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35.7%)에 비해 많으나, 1세 이후로는 개별 돌봄보다 기관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것이 관찰되나, 어린이집에서 특히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 선호가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반면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선호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 미취학 막내자녀 연령별 희망 돌봄(1순위)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가정, 민간, 기타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부모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 ¹⁾	학원 및 기타 ²⁾	계	명
전체	35.0	16.5	12.6	9.9	15.2	7.0	3.8	100.0	1,195
자녀 연령 ($\chi^2=567.4^{***}$)									
0세	26.9	8.1	0.7	-	48.8	15.5	-	100.0	179
1세	45.8	23.4	0.7	0.9	20.2	7.4	1.5	100.0	202
2세	47.6	30.6	2.2	1.0	11.5	4.8	2.2	100.0	164
3세	47.6	19.0	10.6	8.2	5.3	5.3	4.0	100.0	181
4세	31.7	11.5	25.7	15.5	6.5	2.9	6.1	100.0	179
5세	19.3	12.4	25.2	22.8	5.3	7.1	7.8	100.0	184
6세 ³⁾	19.7	6.7	30.7	28.9	3.5	5.3	5.4	100.0	106
자녀연령구분 ($\chi^2=324.7^{***}$)									
0~2세	40.1	20.5	1.2	0.6	27.0	9.3	1.2	100.0	545
3~6세 ³⁾	30.6	13.0	22.2	17.7	5.3	5.2	5.9	100.0	651

주: 1)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에는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시부모님(부모님), 기타 친인척, 민간 돌보미(시터), 아이돌보미(정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기타친인척'은 응답 사례가 없었음.

2) 학원 및 기타에는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사설학원,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기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는 응답 사례가 없었음.

3) 7세 1명 포함.

4)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가구 특성별로 미취학 자녀 중 막내자녀의 1순위 희망 돌봄은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부모의 취업 유형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비맞벌이 가구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비해 부모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이나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별돌봄을,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나 가정, 민간, 기타어린이집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6-2〉 가구 특성별 미취학 막내자녀 희망 돌봄(1순위)

(단위: %, 명)

구 분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가정, 민간, 기타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부모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 ¹⁾	학원 및 기타 ²⁾	계	명
전체	35.0	16.5	12.6	9.9	15.2	7.0	3.8	100.0	1,195
거주지($\chi^2=8.4$)									
동부	34.3	17.2	12.4	10.5	14.3	7.2	4.1	100.0	964
읍면부	37.8	13.2	13.4	7.5	18.9	6.6	2.6	100.0	232
부모취업유형($\chi^2=12.6^*)^3$)									
맞벌이	36.5	15.6	13.0	10.4	11.8	8.3	4.4	100.0	562
비맞벌이	33.6	17.2	12.2	9.5	18.2	6.0	3.3	100.0	634
가구소득($\chi^2=29.7^*)^4$)									
80%미만	36.7	21.6	18.5	4.7	14.1	0.7	3.6	100.0	106
80~120%미만	33.8	16.2	14.5	9.6	16.3	5.7	3.8	100.0	391
120~160%미만	35.4	16.4	12.0	11.9	13.8	8.5	2.0	100.0	321
160%이상	35.2	15.3	9.5	10.1	15.6	9.0	5.3	100.0	377

주: 1)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에는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시부모님(부모님), 기타 친인척, 민간돌보미(시터), 아이돌보미(정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기타친인척'은 응답 사례가 없었음.
 2) 학원 및 기타에는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사설학원,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기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는 응답 사례가 없었음.
 3)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으며 한부모인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 맞벌이, 비취업인 경우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4)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반면, 미취학 자녀의 1순위 실제 돌봄은 가정, 민간, 기타 어린이집 37.5%, 부모 19.6%, 사립유치원 16.2%,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15.8%, 국공립유치원 7.1%, 조부모 및 아이돌보미, 민간돌보미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은 희망에 비해 실제 이용은 적었고 가정, 민간, 기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희망에 비해 실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수요에 비해 아직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돌봄에서 부모는 희망에 비해 실제 직접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았고 조부모 등 부모를 제외한 개별

돌봄은 희망에 비해 실재가 적었다.

이러한 미취학 자녀의 1순위 실제 돌봄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0~2세 자녀는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가정, 민간, 기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41.6%, 4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6세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 등 개별돌봄은 1.6%로 거의 없었고 가정, 민간, 기타어린이집 34.2%, 사립유치원 29.8% 등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6-3〉 미취학 막내자녀 연령별 실제 돌봄(1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가정, 민간, 기타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부모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 ¹⁾	학원 및 기타 ²⁾	계	명
전체	15.8	37.5	7.1	16.2	19.6	2.1	1.7	100.0	1,195
자녀 연령									
0세	1.2	5.9	-	-	85.9	6.9	-	100.0	179
1세	13.9	50.3	-	-	31.3	3.7	0.8	100.0	202
2세	22.5	69.6	-	-	5.8	1.8	0.4	100.0	164
3세	24.8	54.7	4.5	14.2	1.0	0.5	0.4	100.0	181
4세	25.4	31.7	11.3	26.4	1.4	0.5	3.3	100.0	179
5세	11.9	22.6	20.2	39.6	1.6	-	4.3	100.0	184
6세 ³⁾	8.7	23.4	18.0	45.4	1.1	-	3.3	100.0	106
자녀연령구분	$(\chi^2=523.2^{***})$								
0~2세	12.3	41.5	-	-	41.6	4.2	0.4	100.0	545
3~6세 ³⁾	18.7	34.2	13.0	29.8	1.3	0.3	2.8	100.0	651

주: 1)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에는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시부모님(부모님), 기타 친인척, 민간돌보미(시터), 아이돌보미(정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기타친인척'은 응답 사례가 없었음.

2) 학원 및 기타에는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사설학원,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혼자, 기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는 응답 사례가 없었음.

3) 7세 1명 포함.

4)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미취학 자녀의 실제 돌봄은 거주 지역과 부모의 취업 유형,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에 거주 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 지역 거주 시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취업 유형별로는 맞벌이인 경우 상대적으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이용이 많았고 조부모 등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도 많았다. 반면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정이나 민간, 기타 어린이집 이용도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가정, 민간, 기타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았고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거나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가정, 민간, 기타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립유치원이나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 개별돌봄,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학원 이용 비율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6-4〉 가구 특성별 미취학 막내자녀 실제 돌봄(1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가정, 민간, 기타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부모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 ¹⁾	학원 및 기타 ²⁾	계	명
전체	15.8	37.5	7.1	16.2	19.6	2.1	1.7	100.0	1,195
거주지	$(\chi^2=26.6^{***})$								
동부	14.1	37.9	6.2	17.7	19.9	2.2	2.1	100.0	964
읍면부	23.0	35.9	10.9	10.2	18.4	1.5	-	100.0	232
부모취업유형 ³⁾	$(\chi^2=50.4^{***})$								
맞벌이	18.3	35.6	7.2	18.7	13.8	4.0	2.4	100.0	562
비맞벌이	13.6	39.2	6.9	14.0	24.8	0.3	1.1	100.0	634
가구소득 ⁴⁾	$(\chi^2=74.7^{***})$								
80%미만	17.3	45.8	13.4	8.4	15.1	-	-	100.0	106
80~120%미만	15.4	39.8	7.5	14.7	21.8	-	0.9	100.0	391
120~160%미만	16.5	38.9	5.4	20.3	16.9	1.3	0.7	100.0	321
160%이상	15.2	31.6	6.3	16.6	20.9	5.4	3.9	100.0	377

주: 1)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에는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시부모님(부모님), 기타 친인척, 민간돌보미(시터), 아이돌보미(정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기타친인척'은 응답 사례가 없었음.

2) 학원 및 기타에는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사설학원,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혼자, 기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는 응답 사례가 없었음.

3)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으며 한부모인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 맞벌이, 비취업인 경우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4)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5)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돌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자녀의 학기 중 평일 기준 방과후 돌봄에 대해 희망 돌봄과 실제 돌봄을 질문하였다. 먼저 희망 돌봄 1순위는 사설 학원이 3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방과후학교가 24.6%, 초등돌봄교실이

이나 늘봄학교와 같은 학교 안 돌봄이 14.3% 학원 다음으로는 학교 안 돌봄이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부모가 11.6%,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등 학교 밖 공공 돌봄 및 프로그램이 8.7%였으며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부모 외의 개별 돌봄을 가장 희망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자녀의 방과후 희망 돌봄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사실 학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희망 비율이 높아져 고학년으로 갈수록 방과후 돌봄보다는 학습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초등돌봄교실이나 늘봄학교와 같은 학교 안 돌봄이나 방과후 학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희망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지역 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학교 밖 돌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학교 안 돌봄이 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학교 밖 돌봄은 고학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5) 초등학교 막내자녀 학년별 방과후 희망 돌봄(1순위)

(단위: %, 명)

구분	초등돌봄 교실,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 센터 등 ¹⁾	사설학원	부모	조부모, 아이돌보 미 등 ²⁾	기타 ³⁾	계	명
전체	14.3	24.6	8.7	37.4	11.6	2.5	1.0	100.0	1,505
자녀 학년	$(\chi^2=108.1^{***})$								
1학년	24.9	26.6	7.2	27.6	10.9	1.2	1.6	100.0	306
2학년	16.5	29.7	8.5	28.4	10.8	4.4	1.6	100.0	338
3학년	11.6	25.4	8.0	40.3	11.2	2.7	0.7	100.0	279
4학년	11.1	25.3	8.2	41.3	12.3	1.8	-	100.0	226
5학년	8.4	20.7	10.7	43.3	13.3	2.9	0.7	100.0	178
6학년	5.7	13.2	11.0	55.7	12.0	1.8	0.5	100.0	179
자녀학년구분	$(\chi^2=55.5^{***})$								
1~3학년	17.8	27.4	7.9	31.8	11.0	2.8	1.3	100.0	922
4~6학년	8.6	20.2	9.8	46.3	12.5	2.1	0.4	100.0	583

주: 1)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이 포함됨.

2)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에는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시부모님(부모님), 기타 친인척, 민간 돌보미(시터), 아이돌보미(정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기타 친인척'은 응답 사례가 없었음.

3) 기타에는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기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는 응답 사례가 없었음.

4)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가구특성별로는 거주 지역과 부모의 취업유형, 가구소득에 따라 초등학교 자녀 중 막내자녀의 방과후 희망 돌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방과후학교 희망 비율이 높았고 초등돌봄교실이나 늘봄학교 희망 비율도 동 지역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나 학교 안에서의 돌봄 희망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밖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고, 부모나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 개별 돌봄 희망 비율도 약간 높았다.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초등돌봄교실이나 늘봄학교와 같은 학교 안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돌봄이 아닌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를 희망하는 비율이나 부모 돌봄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경우 사설 학원 희망 비율이 높았고 학교 안, 학교 밖 돌봄이나 프로그램 희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학교 안이나 학교 밖 돌봄이나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설 학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표 6-6〉 가구 특성별 초등학생 막내자녀 방과후 희망 돌봄(1순위)

(단위: %, 명)

구분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¹⁾	사설 학원	부모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 ²⁾	기타 ³⁾	계	명
전체	14.3	24.6	8.7	37.4	11.6	2.5	1.0	100.0	1,505
거주지	$(x^2=22.3^{**})$								
동부	13.9	22.6	9.3	37.7	12.5	3.0	1.0	100.0	1,189
읍면부	15.7	32.1	6.2	36.2	8.3	0.6	0.8	100.0	316
부모취업유형 ⁴⁾	$(x^2=12.7^*)$								
맞벌이	15.9	22.8	8.8	38.5	9.8	3.1	1.0	100.0	791
비맞벌이	12.4	26.6	8.5	36.2	13.5	1.9	0.9	100.0	715
가구소득 ⁵⁾	$(x^2=39.8^{**})$								
80%미만	19.0	24.9	10.7	34.3	8.5	2.1	0.4	100.0	152
80-120%미만	13.7	29.2	8.7	33.1	13.3	1.2	0.8	100.0	501
120-160%미만	16.0	23.2	9.9	38.1	9.7	2.6	0.5	100.0	422
160%이상	11.6	20.5	6.7	42.8	12.5	4.2	1.8	100.0	431

주: 1)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이 포함됨.

2)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에는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시부모님(부모님), 기타 친인척, 민간 돌보미(시터), 아이돌보미(정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기타 친인척'은 응답 사례가 없었음.

3) 기타에는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기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는 응답 사례가 없었음.

4)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으며 한부모인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 맞벌이, 비취업인 경우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5)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6)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자녀의 방과후 실제 1순위 돌봄은 사설 학원이 56.1%로 가장 많았고, 방과후 학교 27.1%, 부모 6.6%,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5.5%,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밖 돌봄이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돌봄과 비교 시 초등돌봄교실이나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과 같은 학교 안과 학교 밖 공적 돌봄서비스는 희망에 비해 실제가 적었고, 사설 학원이나 방과후 학교와 같은 일반적인 돌봄이 아닌 학습이나 프로그램은 희망에 비해 실제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과후 실제 돌봄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저학년(1~3학년)인 경우 고학년(4~6학년)에 비해 학교 안 돌봄(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과 방과후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고학년은 사설 학원 이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6-7〉 초등학교 막내자녀 학년별 방과후 실제 돌봄(1순위)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¹⁾	사설학원	부모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 ²⁾	기타 ³⁾	계	명
전체	5.5	27.1	1.9	56.1	6.6	1.2	1.6	100.0	1,505
자녀 학년									
1학년	16.1	32.7	1.9	39.7	6.6	0.5	2.4	100.0	306
2학년	5.7	34.1	2.2	49.3	6.3	0.9	1.6	100.0	338
3학년	1.2	29.4	1.8	58.7	5.2	1.7	2.0	100.0	279
4학년	3.3	21.4	1.4	61.5	9.8	1.3	1.3	100.0	226
5학년	1.7	21.4	2.7	65.9	5.8	1.2	1.1	100.0	178
6학년	-	13.8	1.6	76.2	6.0	1.9	0.5	100.0	179
자녀학년구분	$(\chi^2=72.7^{***})$								
1~3학년	7.8	32.2	2.0	48.9	6.1	1.0	2.0	100.0	922
4~6학년	1.8	19.1	1.9	67.4	7.4	1.4	1.0	100.0	583

주: 1)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이 포함됨.

2)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에는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시부모님(부모님), 기타 친인척, 민간 돌보미(시터), 아이돌보미(정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민간돌보미(시터)'는 응답 사례가 없었음.

3) 기타에는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기타가 포함됨.

4)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초등학교 막내자녀의 방과후 실제 돌봄은 거주 지역, 부모의 취업 특성,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읍면 지역 거주 시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의 공적 돌봄이나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동 지역 거주 시 사설 학원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방과후 부모 돌봄이 적고 초등돌봄교실이나 늘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공적 돌봄이나 사설 학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부모 돌봄과 방과후 학교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설 학원 이용 비율이 높았고, 소득이 낮은 경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 학교 밖 공적 돌봄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6-8〉 가구 특성별 초등학교 학생 막내자녀 방과후 실제 돌봄(1순위)

(단위: %, 명)

구 분	초등돌봄 교실,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역아 동센터 등 ¹⁾	사설학 원	부모	조부모, 아이들 보미 등 ²⁾	기타 ³⁾	계	명
전체	5.5	27.1	1.9	56.1	6.6	1.2	1.6	100.0	1,505
거주지	$(x^2=30.5^{***})$								
동부	4.9	25.6	1.4	58.5	7.1	1.3	1.2	100.0	1,189
읍면부	7.6	32.9	3.8	47.2	4.6	0.6	3.3	100.0	316
부모취업유형 ⁴⁾	$(x^2=55.7^{***})$								
맞벌이	7.2	25.7	2.3	57.9	3.1	2.1	1.8	100.0	791
비맞벌이	3.6	28.7	1.6	54.1	10.5	0.2	1.4	100.0	715
가구소득 ⁵⁾	$(x^2=62.9^{***})$								
80%미만	5.6	28.9	6.3	48.7	7.8	0.7	2.1	100.0	152
80~120%미만	4.3	29.7	2.8	51.7	8.7	0.4	2.5	100.0	501
120~160%미만	6.8	26.3	0.8	58.3	5.8	0.7	1.4	100.0	422
160%이상	5.5	24.4	0.5	61.7	4.5	2.8	0.7	100.0	431

주: 1)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이 포함됨.

2)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에는 친정부모님(장인·장모님), 시부모님(부모님), 기타 친인척, 민간 돌보미(시터), 아이돌보미(정부)가 포함됨. 다만, 실제 응답에서 '민간돌보미(시터)'는 응답 사례가 없었음.

3) 기타에는 방문교육 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기타가 포함됨.

4)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으며 한부모인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 맞벌이, 비취업인 경우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5)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6)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자녀 양육 관련 감정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양육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복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문항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조사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고, 행복감은 연구진이 단일 문항으로 새로 만들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잘 대처한다’는 문항은 양육효능감 중 유능감에 관한 것으로, 각각 평균 3.82점, 3.81점으로 ‘보통이다’와 ‘약간 그렇다’ 사이로 나타났다. 양육 관련 스트레스 문항으로 ‘남들만큼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해 속상하다’, ‘아이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각각 2.62점, 2.60점으로 나타나 ‘별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사이로 나타났으며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는 문항에서는 평균 4.44점으로 자녀 양육 관련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 응답자가 읍면 지역에 비해 자녀 양육 관련 유능감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아이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 부족으로 심리적으로 더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잘 대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자녀 양육 관련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 양육 관련 행복감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자녀 문제에 더 잘 대처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지만 양육 관련 행복감도 높게 나타난 반면, 45~49세는 아이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 부족으로 힘든 점은 적었으나 양육 관련 행복감도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관련 유능감을 높게 느끼며, 남들만큼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해 속상하다는 응답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비취업인 경우 양육 관련 유능감을 높게 느끼는 반면, 남들만큼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해 속상하다는 응답 점수도 동시에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양육 유능감이 낮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며 양육 관련 행복감도 낮게 나타났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양육 관련 행복감도 높게 나타났다.

〈표 6-9〉 자녀 양육 관련 감정(척도의 평균 점수)

(단위: 점, 명)

구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잘 대처한다	남들만큼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해 속상하다	아이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 하여 심리적 으로 힘들다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명
전체	3.82	3.81	2.62	2.60	4.44	4,389
거주지						
동부	3.85	3.84	2.61	2.63	4.44	3,495
읍면부	3.71	3.71	2.64	2.48	4.40	894
성별						
남자	3.81	3.76	2.55	2.45	4.46	2,107
여자	3.83	3.86	2.67	2.74	4.42	2,282
연령						
19~29세	3.82	3.85	2.76	2.97	4.48	92
30~34세	3.85	3.80	2.51	2.75	4.43	528
35~39세	3.84	3.82	2.59	2.69	4.47	1,296
40~44세	3.83	3.83	2.61	2.53	4.44	1,700
45~49세	3.76	3.78	2.72	2.46	4.38	773
교육수준						
고졸이하	3.69	3.71	2.92	2.62	4.40	1,061
대졸	3.86	3.83	2.53	2.59	4.45	3,024
대학원졸	3.93	3.98	2.42	2.63	4.46	304
취업여부						
취업	3.80	3.79	2.58	2.59	4.45	3,258
비취업	3.87	3.88	2.71	2.64	4.41	1,132

구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잘 대처한다	남들만큼 많은 자원을 해주지 못해 속상하다	아이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심리적으로 힘들다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명
가구소득 ¹⁾						
60%미만	3.31	3.47	3.30	2.83	4.10	88
60~80%미만	3.64	3.74	3.03	2.67	4.45	271
80~100%미만	3.78	3.80	2.82	2.59	4.40	692
100~120%미만	3.82	3.78	2.75	2.60	4.45	762
120~140%미만	3.81	3.84	2.67	2.61	4.43	653
140~160%미만	3.78	3.74	2.58	2.58	4.46	567
160%이상	3.93	3.89	2.29	2.59	4.46	1,355
막내자녀 연령						
0~2세	3.87	3.80	2.48	2.79	4.49	1,134
3~6세	3.80	3.81	2.67	2.63	4.47	1,460
7~9세	3.81	3.83	2.68	2.52	4.40	1,100
10~13세	3.79	3.81	2.63	2.36	4.34	1,694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12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4)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부부의 육아 분담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며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부부의 육아분담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평일 육아 시간은 평균 203.5분과 204분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주말도 본인은 338.3분, 배우자는 330.3분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간으로 환산 시 평일은 약 3시간 24분, 주말은 약 5시간 30~40분 정도를 육아에 할애하고 있었다. 여성은 평일은 4시간 50분, 주말은 6시간 29분 정도를 육아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남성은 평일 1시간 56분, 주말 4

시간 47분 정도를 육아에 할애하고 있었다.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평일 육아시간은 평균 1시간 49분 정도였으며,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평일 육아시간은 평균 5시간 정도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 지역에 비해 평균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연령이 어릴수록 평균 육아시간이 많았는데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의 연령도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육아시간이 길게 나타나, 막내자녀가 0~2세인 경우 평일에 4시간 45분 정도를 육아에 할애하는 반면, 막내자녀가 10~13세인 경우에는 평일에 2시간 20분 정도를 육아에 할애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 모두 육아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평일 육아시간이 가장 많은 집단은 대졸이었고, 주말 육아시간이 가장 많은 집단은 대학원 졸업인 경우였다. 비취업자는 취업자에 비해 평일 육아시간이 두 배 가량 많았으며 주말 육아시간도 1시간 25분 가량 더 많았다. 평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육아시간을 모두 고려해볼 때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육아시간의 차이가 매우 커, 자녀가 어릴수록 육아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났다.

〈표 6-10〉 평일 및 주말 육아 시간

(단위: 분, 명)

구분	본인				배우자			
	평일(분)	주말(분)	평균(분)	명	평일(분)	주말(분)	평균(분)	명
전체	203.5	338.3	242.0	4,205	204.0	330.3	240.1	4,205
거주지								
동부	207.6	351.2	248.7	3,347	207.7	343.3	246.4	3,347
읍면부	187.6	287.9	216.2	858	189.7	279.6	215.4	858
성								
남자	116.2	287.4	165.1	2,092	300.1	383.9	324.0	2,092
여자	290.0	388.7	318.2	2,113	109.0	277.2	157.0	2,113
연령								
19~29세	320.0	370.1	334.3	81	220.4	343.2	255.5	81
30~34세	282.0	405.9	317.4	510	232.6	379.9	274.7	510
35~39세	229.0	382.3	272.8	1,258	220.9	359.1	260.4	1,258
40~44세	182.9	320.7	222.3	1,621	191.7	314.7	226.8	1,621
45~49세	138.2	251.4	170.6	735	180.8	279.4	208.9	735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8	303.9	223.9	977	197.9	298.3	226.6	977
대졸	208.1	348.0	248.0	2,933	204.6	337.0	242.5	2,933
대학원졸	197.1	356.1	242.5	295	218.3	369.3	261.4	295
취업여부								
취업	162.4	316.6	206.4	3,134	238.6	350.2	270.5	3,134
비취업	324.0	401.8	346.2	1,071	102.8	271.9	151.1	1,071
막내자녀 연령								
0~2세	284.8	418.8	323.1	1,112	300.7	423.0	335.6	1,112
3~6세	193.9	360.5	241.5	1,409	196.1	349.5	240.0	1,409
7~9세	169.3	293.0	204.7	1,038	160.6	280.5	194.9	1,038
10~13세	139.5	224.1	163.7	645	124.7	208.6	148.7	645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분)은 일주일 평균 하루 육아시간으로, (평일 육아시간×5+주말 육아시간×2)÷2로 산출하였음.

3)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8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응답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육아분담 비율은 본인이 51.1%, 배우자가 48.9%로 거의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별, 취업여부별, 막내자녀 연령별로 육아분담 비율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 여성인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비취업인 경우 본인의 육아분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본인과 배우자가 골고루 육아를 분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6-11〉 육아 분담 비율(개인의 범주별 분담 비율 평균)

구분	본인	배우자	(단위: %, 명)
전체	51.1	48.9	4,205
지역(t=0.33)			
동부	51.2	48.8	3,347
읍면부	50.9	49.1	858
성별(t=-70.83***)			
남자	34.6	65.4	2,092
여자	67.5	32.5	2,113
연령(F=15.1***)			
19~29세	58.7	41.3	81
30~34세	53.9	46.1	510
35~39세	52.9	47.1	1,258
40~44세	50.7	49.3	1,621
40~49세	46.4	53.6	735
교육(F=1.6)			
고졸이하	51.1	48.9	976
대졸	51.4	48.6	2,933
대학원졸	48.9	51.1	295
취업여부(t=-44.8***)			
취업	44.6	55.4	3,134
비취업	70.2	29.8	1,071
막내자녀 연령(F=0.37*)			
0~2세	50.0	50.0	1,112
3~6세	50.6	49.4	1,409
7~9세	51.9	48.1	1,038
10~13세	53.2	46.8	645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8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3) * p<0.05, ** p<0.01, *** p<0.001

4) t, F값은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값만 제시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육아분담 비율과 육아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 즉, 공평한 분담이거나 본인의 분담 비율이 낮더라도 배우자와의 육아분담 만족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의 육아분담 비율이 높더라도 육아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다. 이에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에 대한 평가인 만족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50.1%,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4.4%로 84.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읍면 지역 거주자, 여성인 경우, 연령이 어린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비취업인 경우 배우자와의 육아분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들 중 여성인 경우와 연령이 어린 경우, 비취업인 경우는 실제 배우자와의 육아분담 비율에서 본인의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 6-12〉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	명	평균
전체	1.9	13.5	50.1	34.4	100.0	4,205	3.17
거주지(t=3.7***)							
동부	1.9	13.0	49.1	36.0	100.0	3,347	3.19
읍면부	2.0	15.6	54.1	28.3	100.0	858	3.09
성(t=15.9***)							
남자	0.4	7.1	50.1	42.4	100.0	2,092	3.34
여자	3.5	19.9	50.1	26.5	100.0	2,113	3.00
연령(F=5.2*)							
19~29세	7.0	10.0	53.0	30.0	100.0	81	3.06
30~34세	1.4	16.4	52.1	30.0	100.0	510	3.11
35~39세	2.2	13.8	47.9	36.1	100.0	1,258	3.18
40~44세	1.7	12.7	49.5	36.1	100.0	1,621	3.20
45~49세	2.0	13.3	53.2	31.4	100.0	735	3.14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	명	평균
교육수준(F=3.8*)							
고졸이하	2.6	14.6	50.8	32.0	100.0	977	3.12
대졸	1.7	13.4	50.3	34.6	100.0	2,933	3.18
대학원졸	2.3	11.4	46.1	40.1	100.0	295	3.24
취업여부(t=10.2***)							
취업	1.4	11.2	49.6	37.8	100.0	3,134	3.24
비취업	3.6	20.4	51.5	24.5	100.0	1,071	2.97
막내자녀 연령(F=1.8)							
0-2세	1.8	12.8	48.9	36.6	100.0	1,112	3.20
3-6세	1.9	14.8	49.8	33.5	100.0	1,409	3.15
7-9세	2.1	13.4	50.4	34.0	100.0	1,038	3.16
10-13세	2.0	12.3	52.3	33.5	100.0	645	3.17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8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3) 평균 점수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점, '약간 만족한다' 3점, '매우 만족한다' 4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자녀 양육 비용과 정부 지원

본 절에서는 먼저 가구의 대표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후,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녀별로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 비용과 정부의 지원 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양육 비용과 정부의 지원 금액 분석에서는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양육 비용의 경우 전체 자녀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대 또는 학교급별로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등학생 자녀, 성인 자녀로 구분하여 양육 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

출생년도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교육통계에서는 연령별 학생 관련 통계 산출 시 이러한 출생년도에 따른 만연령 환산표를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적령학년을 보여주는 교육통계 만연령 환산표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취학 자녀는 출생년도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초등학생 자녀는 2012년생부터 2017년생까지, 중고등학생 자녀는 2006년생부터 2011년생까지, 대학 이상 또는 성인 자녀는 2005년생까지를 포함한다.

1. 자녀 양육 지원 시기

본인의 자녀 유무나 혼인상태와 관계 없이 대표응답자에게 자녀를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51%가 '대학 졸업때까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취업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7%,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12.1%, 혼인할 때까지 5.6%, 언제까지라도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 시 취업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한 반면 혼인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약간 감소한 것이다.

자녀 부양 책임 시기에 대한 응답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금 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연령이 어린 경우 취업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때까지나 언제까지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대학원 졸업인 경우에는 혼인까지나 언제까지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혼인 경우에는 취업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기혼에 비해 많았고, 기혼은 혼인때까지나 언제까지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미혼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취업때까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혼인할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13〉 자녀 부양 책임져야 하는 시기

(단위: %, 명)

구 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대학 졸업때까지	취업 때까지	혼인 때까지	언제까지 라도	계	명
전체(2021)	13.9	51.5	24.2	7.7	2.7	100.0	9,314
전체(2024)	12.1	51.0	28.7	5.6	2.5	100.0	9,639
거주지($\chi^2=3.4$)							
동부	12.1	50.8	28.7	5.7	2.6	100.0	8,003
읍면부	12.4	51.9	28.7	5.0	2.0	100.0	1,636
성($\chi^2=55.6^{***}$)							
남자	14.2	48.9	30.6	4.4	1.9	100.0	3,530
여자	10.9	52.3	27.6	6.3	2.9	100.0	6,109
연령($\chi^2=136.9^{***}$)							
19~24세	8.8	48.4	37.7	3.1	2.0	100.0	1,328
25~29세	11.8	48.7	31.5	5.8	2.2	100.0	1,824
30~34세	13.6	50.5	28.0	5.7	2.2	100.0	1,664
35~39세	13.5	54.1	24.3	6.3	1.8	100.0	1,554
40~44세	13.3	54.6	23.2	5.8	3.2	100.0	1,657
45~49세	11.4	49.7	28.9	6.4	3.6	100.0	1,611
교육수준($\chi^2=114.8^{***}$)							
고졸이하	16.3	47.3	28.9	4.8	2.7	100.0	3,446
대졸	9.8	53.1	29.0	5.7	2.3	100.0	5,815
대학원졸	10.0	52.2	24.1	10.5	3.1	100.0	379
혼인상태($\chi^2=88.5^{***}$)							
미혼	12.7	49.7	31.2	4.4	2.0	100.0	5,751
기혼	11.3	52.9	25.1	7.4	3.2	100.0	3,888
취업여부($\chi^2=6.9$)							
취업	12.4	51.5	28.1	5.6	2.3	100.0	6,204
비취업	11.6	50.1	30.0	5.5	2.8	100.0	3,435

구 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대학 졸업때까지	취업 때까지	혼인 때까지	언제까지 라도	계	명
가구소득($\chi^2=133.2^{***}$) ¹⁾							
60%미만	15.3	45.4	32.2	4.7	2.4	100.0	1,873
60~80%미만	13.7	53.7	26.5	4.0	2.0	100.0	1,315
80~100%미만	14.2	52.7	26.0	4.4	2.8	100.0	1,192
100~120%미만	13.2	52.2	26.8	4.6	3.3	100.0	1,239
120~140%미만	10.4	50.9	30.4	5.7	2.6	100.0	1,061
140~160%미만	9.6	53.3	27.6	6.8	2.7	100.0	839
160%이상	8.5	51.9	29.4	8.1	2.1	100.0	2,12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1) 박중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263.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자녀 양육 비용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사례수는 각 가구의 전체 자녀수 및 양육비 지원 자녀수의 합과 같다.

가. 전체 자녀 양육 비용

미혼자녀에 대한 양육 비용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녀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자녀 1인당 월 평균 76.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녀(전체 자녀 중 3% 정도)를 제외할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평균 78.9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표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 및 양육비 지원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 비용이 높았다.

〈표 6-14〉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전체 자녀 포함 시			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시		
	자녀1인당 월 지출 비용	표준편차	사례수	자녀1인당 월 지출 비용	표준편차	사례수
전체	76.5	54.3	9,436	78.9	53.4	9,155
거주지						
동부	78.9	54.1	7,463	81.2	53.2	7,251
읍면부	67.6	54.0	1,973	70.1	53.4	1,904
연령						
19~29세	50.5	29.2	184	50.5	29.2	184
30~34세	58.1	39.3	1,000	58.1	39.3	1,000
35~39세	66.9	43.3	1,951	66.9	43.3	1,951
40~44세	79.3	51.2	3,126	80.2	50.8	3,091
45~49세	87.0	64.5	3,175	94.3	61.9	2,929
교육수준						
고졸이하	62.4	45.0	3,167	67.3	43.1	2,937
대졸	82.0	53.8	5,848	82.7	53.5	5,799
대학원졸	106.9	88.0	421	107.4	87.9	419
취업여부						
취업	80.8	56.5	5,247	83.7	55.4	5,060
비취업	71.2	50.8	4,189	72.9	50.2	4,095
가구소득 ¹⁾						
60%미만	45.9	32.0	279	48.9	30.7	262
60~80%미만	53.2	35.4	616	55.0	34.5	595
80~100%미만	59.0	34.4	1,298	60.7	33.4	1,262
100~120%미만	66.3	39.3	1,607	67.9	38.5	1,571
120~140%미만	72.6	45.3	1,435	74.2	44.4	1,403
140~160%미만	77.3	44.6	1,229	79.7	43.2	1,193
160%이상	99.0	70.2	2,972	102.5	68.9	2,869
자녀수(전체양육비지원)						
1명	83.1	60.5	1,932	84.5	59.3	1,980
2명	79.3	53.6	5,308	81.4	52.6	5,150
3명	66.0	48.3	1,896	69.0	48.5	1,761
4명	53.5	44.7	260	55.4	36.7	224
5명	38.7	22.6	40	38.7	22.6	4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3)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는 대표응답자 기준임.

4)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19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양육비 지원 자녀에 대해서만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가 월 평균 약 30.1만 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기타 비용 11.8만 원, 용돈 및 교통통신비(용돈, 교통비, 핸드폰 비용 등) 9.7만 원, 의복비(의류, 가방, 신발 등) 7.9만 원, 초등학교 이상 공교육비 및 대학 학비(등록금, 방과후학교, 학교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자부담 비용) 5.9만 원, 여가문화생활비(도서, 박물관 등 체험활동, 영화/스포츠 관람, 키즈카페 등) 5.2만 원, 보건의료비(병원, 약국 등) 2.8만 원, 어린이 집유치원 자부담 비용(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2.1만 원, 돌봄 비용(조부모, 아이돌보미, 시터 등) 2만 원, 기저귀분유 비용 1.5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5〉 항목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 분	양육비	표준편차	사례수
1) 어린이집유치원비	2.1	7.3	9,155
2) 초등학교 이상 공교육비	5.9	20.4	9,155
3) 사교육비	30.1	38.0	9,155
4) 돌봄 비용	2.0	12.7	9,155
5) 보건의료비	2.8	7.9	9,155
6) 용돈 및 교통통신비	9.7	15.0	9,155
7) 여가문화생활비	5.2	6.3	9,155
8) 의복비	7.9	5.9	9,155
9) 기저귀분유 비용	1.5	5.1	9,155
10) 기타 비용	11.8	13.2	9,155
합계	78.9	53.4	9,155

주: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세부 항목 중에서는 동 지역인 경우 읍면 지역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부담 비용, 사교육비, 돌봄 비용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대표응답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비가 높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높게 나타났다. 돌봄 비용은 30대에서 약간 높게 나

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대표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표응답자가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원 자녀수가 적을수록 전체 양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 비용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대표응답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부담 비용이 비취업자에 비해 적었고 사교육비는 양육비 지원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표 6-16〉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례수
전체	2.1	5.9	30.1	2.0	38.8	78.9	9,155
거주지							
동부	2.4	5.8	31.9	2.3	38.8	81.2	7,251
읍면부	1.2	6.1	23.2	0.8	38.6	70.1	1,904
연령							
19~29세	3.9	0.2	5.0	1.9	39.6	50.5	184
30~34세	4.4	0.8	10.5	4.5	37.9	58.1	1,000
35~39세	4.2	1.7	23.3	3.1	34.6	66.9	1,951
40~44세	1.8	4.2	37.2	2.0	35.2	80.2	3,091
45~49세	0.3	12.5	35.6	0.4	45.5	94.3	2,929
교육수준							
고졸이하	1.4	6.2	21.5	0.5	37.7	67.3	2,937
대졸	2.5	5.4	33.3	2.3	39.2	82.7	5,799
대학원졸	2.7	9.4	47.1	7.6	40.6	107.4	419
취업여부							
취업	2.0	6.5	32.1	3.2	40.0	83.7	5,060
비취업	2.4	5.1	27.7	0.4	37.3	72.9	4,095
가구소득 ¹⁾							
60%미만	1.0	2.4	16.7	0.4	28.4	48.9	262
60~80%미만	1.3	3.6	18.0	0.3	31.8	55.0	595
80~100%미만	2.3	3.1	21.1	0.2	34.1	60.7	1,262
100~120%미만	1.9	4.4	25.1	0.5	36.0	67.9	1,571
120~140%미만	2.4	6.0	27.8	0.9	37.1	74.2	1,403
140~160%미만	2.1	5.3	32.0	1.3	38.9	79.7	1,193
160%이상	2.4	8.8	41.0	4.9	45.4	102.5	2,869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례수
양육비지원 자녀수							
1명	3.0	6.0	27.0	3.9	44.6	84.5	1,980
2명	2.2	5.9	33.1	1.7	38.5	81.4	5,150
3명	1.3	5.7	26.9	1.0	34.1	69.0	1,761
4명	1.1	4.3	17.8	0.5	31.8	55.4	224
5명	2.0	3.5	9.7	-	23.6	38.7	4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3)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는 대표응답자 기준임.

4)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19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5) 기타비용에는 보건의료비, 용돈 및 교통통신비, 여가문화생활비, 의복비, 기저귀분유 비용, 이 외 기타 비용이 포함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나. 미취학 자녀 양육 비용

미취학 자녀의 양육 비용은 월 평균 5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기타 비용이 13.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복비 8.2만 원, 사교육비 7.7만 원, 어린이집·유치원 자부담 비용 7.2만 원, 여가문화생활비 6.8만 원, 기저귀·분유 비용 5.3만 원, 돌봄 비용 5.1만 원, 보건의료비 3.4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7〉 미취학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 분	양육비	표준편차	사례수
1) 어린이집유치원비	7.2	12.3	2,530
2) 초등학교 이상 공교육비	0.0	0.2	2,530
3) 사교육비	7.7	20.1	2,530
4) 돌봄 비용	5.1	21.2	2,530
5) 보건의료비	3.4	8.0	2,530
6) 용돈 및 교통통신비	0.1	0.7	2,530
7) 여가문화생활비	6.8	7.0	2,530
8) 의복비	8.2	6.3	2,530
9) 기저귀분유 비용	5.3	8.7	2,530
10) 기타 비용	13.2	12.4	2,530
합계	57.0	41.8	2,530

주: 1)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2) 미취학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미취학 자녀의 양육 비용은 동 지역에 거주 시 총 양육비와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사교육비, 돌봄 비용이 읍면 지역에 비해 높았다. 대표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유치원비와 사교육비가 대체로 높아지는 반면 기저귀분유 비용은 적어졌다. 전체 미취학자녀의 양육비는 대표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와 돌봄 비용, 기타 비용과 총 양육비가 높았다. 대표응답자가 취업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비와 사교육비, 돌봄 비용, 기타 비용, 총 양육비가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이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가 높았다. 양육비 지원 자녀수가 적을수록 총 양육비와 사교육비, 기저귀분유 비용, 기타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8〉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미취학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저귀분유 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례수
전체	7.2	7.7	5.1	5.3	31.8	57.0	2,530
지역							
동부	7.9	8.3	5.8	5.3	31.9	59.2	2,034
읍면부	4.3	5.1	2.1	5.3	31.5	48.2	496
연령							
19~29세	4.2	2.7	2.1	8.2	32.3	49.5	166
30~34세	5.6	4.5	5.6	7.4	32.0	55.1	768
35~39세	7.9	10.0	5.1	4.8	32.6	60.3	962
40~44세	8.8	9.2	5.3	3.1	30.3	56.7	561
40~49세	10.4	10.5	3.0	1.1	28.5	53.5	73
교육							
고졸이하	6.2	4.1	1.4	4.8	29.6	46.2	603
대졸	7.5	8.7	5.3	5.4	32.4	59.3	1,792
대학원졸	7.9	10.5	17.7	6.3	33.3	75.6	135
취업여부							
취업	7.8	9.6	9.5	5.3	33.2	65.3	1,190
비취업	6.7	6.0	1.1	5.3	30.5	49.6	1,340
가구소득 ¹⁾							
60% 미만	5.5	3.0	-	3.6	28.9	40.9	44
60~80% 미만	5.1	4.2	0.6	4.5	26.6	41.0	142
80~100% 미만	6.8	5.1	0.3	4.6	28.5	45.3	386
100~120% 미만	6.3	5.3	1.3	5.1	29.7	47.8	426
120~140% 미만	7.9	6.3	2.5	4.4	30.5	51.6	385
140~160% 미만	7.6	6.7	2.7	5.4	31.6	54.1	307
160% 이상	7.8	11.8	12.2	6.3	36.0	74.2	840
양육비지원 자녀수							
1명	6.6	8.8	6.8	8.0	37.5	67.7	845
2명	8.0	7.9	4.5	4.1	30.7	55.1	1,286
3명	6.4	4.9	3.7	3.5	23.4	41.8	337
4명 이상	4.8	2.8	1.9	3.2	20.2	33.0	62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3)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는 대표응답자 기준임.

4)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19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5) 기타비용에는 공교육비, 보건의료비, 용돈 및 교통통신비, 여가문화생활비, 의복비, 이 외 기타 비용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 초등학교 자녀 양육 비용

초등학교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76.6만 원으로 영유아 자녀에 비해 19.6만 원의 양육 비용이 더 필요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교육비가 38.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비용 10.6만 원, 의복비 8.1만 원, 여가문화생활비 6만 원, 용돈 및 교통통신비 4.3만 원, 공교육비 4만 원, 보건의료비 2.8만 원, 돌봄 비용 1.6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9〉 초등학교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 분	양육비	표준편차	사례수
1) 어린이집유치원비	0.4	1.7	3,168
2) 초등학교 이상 공교육비	4.0	18.5	3,168
3) 사교육비	38.9	30.1	3,168
4) 돌봄 비용	1.6	9.5	3,168
5) 보건의료비	2.8	7.2	3,168
6) 용돈 및 교통통신비	4.3	3.9	3,168
7) 여가문화생활비	6.0	6.3	3,168
8) 의복비	8.1	5.3	3,168
9) 기저귀분유 비용	0.0	0.4	3,168
10) 기타 비용	10.6	10.0	3,168
합계	76.6	45.7	3,168

주: 1)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2) 초등학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초등학교 자녀의 월평균 양육 비용은 동 지역에 거주 시 사교육비와 돌봄 비용, 총 양육비가 높게 나타났다. 대표응답자의 연령이 40~44세인 경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총 양육비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표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돌봄 비용, 기타 비용과 총양육비 모두 높았으며 대표응답자가 취업한 경우 사교육비와 돌봄 비용, 총 양육비가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모든 항목의 양육비가 높았으며 양육비 지원 자녀수가 적을수록 사교육비, 돌봄 비용, 기타 비용과 총 양육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20〉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초등학교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례수
전체	4.0	38.9	1.6	32.1	76.6	3,168
지역						
동부	3.5	41.7	1.8	32.3	79.3	2,451
읍면부	5.4	29.3	0.7	31.7	67.1	717
연령						
25-34세	3.2	30.0	0.7	33.4	67.2	239
35-39세	3.3	36.3	1.3	31.8	72.8	839
40-44세	4.8	41.4	1.9	32.5	80.5	1,519
40-49세	3.0	40.0	1.3	31.3	75.5	571
교육						
고졸이하	3.3	28.0	0.6	29.6	61.4	876
대졸	3.6	41.6	1.7	32.8	79.7	2,123
대학원졸	11.9	61.7	4.7	36.9	115.2	169
취업여부						
취업	3.8	40.5	2.7	32.4	79.4	1,710
비취업	4.2	37.1	0.2	31.8	73.2	1,458
가구소득 ¹⁾						
60% 미만	1.6	20.5	0.6	23.5	46.1	93
60-80% 미만	2.5	24.6	0.3	26.4	53.8	217
80-100% 미만	2.7	28.0	0.1	29.9	60.6	508
100-120% 미만	3.0	33.1	0.3	31.2	67.7	574
120-140% 미만	4.4	36.9	0.5	31.5	73.4	502
140-160% 미만	2.5	40.1	1.7	30.4	74.8	393
160% 이상	6.3	55.1	4.1	37.5	103.0	881
양육비지원 자녀수						
1명	5.0	47.1	3.3	38.0	93.3	579
2명	3.8	40.6	1.4	32.2	77.9	1,852
3명	3.8	29.5	0.7	27.7	61.6	647
4명 이상	2.3	20.3	-	25.4	47.9	9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3)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는 대표응답자 기준임.

4) 대표응답자 연령 19~24세 중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25~29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18 사례) 25~34세로 통합하였음.

5) 기타비용에는 어린이집유치원비, 보건의료비, 용돈 및 교통통신비, 여가문화생활비, 의복비, 기저귀분유 비용, 이 외 기타 비용이 포함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라.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 비용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99.7만 원으로 100만 원에 육박하는 양육비가 소요되며, 이는 영유아 자녀에 비해 42.7만 원, 초·중학생 자녀에 비해 23.1만 원 높은 금액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교육비가 56.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돈 및 교통통신비 15.1만 원, 기타 비용 10.4만 원, 의복비 8.2만 원, 공교육비와 여가문화생활비가 각각 3.5만 원, 보건의료비 2.6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1〉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 분	양육비	표준편차	사례수
1) 어린이집유치원비	-	-	-
2) 초등학교 이상 공교육비	3.5	18.1	2,293
3) 사교육비	56.3	46.4	2,293
4) 돌봄 비용	0.2	3.0	2,293
5) 보건의료비	2.6	8.8	2,293
6) 용돈 및 교통통신비	15.1	9.9	2,293
7) 여가문화생활비	3.5	4.7	2,293
8) 의복비	8.2	5.6	2,293
9) 기저귀분유 비용	0.0	0.4	2,293
10) 기타 비용	10.4	11.4	2,293
합계	99.7	58.5	2,293

주: 1)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2)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중·고등학생 자녀의 월평균 양육 비용은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교육비와 총 양육비가 높았다. 대표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와 용돈 및 교통통신비, 총 양육비용이 높아졌으며, 대표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총 양육비가 높았다. 대표응답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용돈 및 교통통신비만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기타 비용과 총 양육비가 높게 나타났고, 용돈 및 교통통신비도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양육비 지원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공교육비와 용돈 및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과 총 양육비가 높았으며, 사교육비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22〉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공교육비	사교육비	용돈·교통통신비	기타비용	합계	사례수
전체	3.5	56.3	15.1	24.8	99.7	2,293
지역						
동부	2.8	60.0	15.0	24.9	102.7	1,824
읍면부	6.1	41.6	15.1	24.8	87.7	469
연령						
30-39세	2.8	36.6	13.4	22.3	75.2	155
40-44세	3.1	53.0	14.0	25.0	95.1	877
40-49세	3.9	60.9	16.0	25.1	105.9	1,261
교육						
고졸이하	2.4	40.9	15.1	23.8	82.1	856
대졸	3.6	64.1	15.0	25.4	108.2	1,346
대학원졸	12.5	84.5	14.9	26.4	138.3	91
취업여부						
취업	3.3	55.7	15.7	25.2	99.9	1,417
비취업	3.9	57.1	14.1	24.3	99.3	876
가구소득 ¹⁾						
60% 미만	1.8	22.8	11.7	17.5	53.8	97
60-80% 미만	2.1	30.5	14.7	19.7	67.1	155
80-100% 미만	2.5	38.5	13.0	23.7	77.7	266
100-120% 미만	2.4	44.8	14.5	22.2	83.9	395
120-140% 미만	4.8	53.9	15.7	23.5	97.8	332
140-160% 미만	3.0	57.9	15.2	25.9	102.1	332
160% 이상	4.7	79.6	16.3	28.9	129.6	716

구분	공교육비	사교육비	용돈·교통통신비	기타비용	합계	사례수
양육비지원 자녀수						
1명	6.4	59.6	16.9	27.0	110.0	301
2명	2.8	61.3	14.9	25.1	104.1	1,346
3명	3.8	45.9	14.6	23.1	87.5	569
4명 이상	2.6	30.6	14.3	24.4	71.9	77

-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3)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는 대표응답자 기준임.
 4) 대표응답자 연령 19~24세, 25~29세 중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30~3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11 사례) 30~39세로 통합하였음.
 5) 기타비용에는 돌봄 비용, 보건의료비, 여가문화생활비, 의복비, 기저귀분유 비용, 이 외 기타 비용이 포함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마. 성인 자녀 양육 비용

미혼 성인(대학생)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전체 성인자녀 중 80.6%였으며 이들에게 평균 91.7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 자녀에 비해서는 34.7만 원, 초등학생 자녀에 비해 15.1만 원 높은 금액이며, 중·고등학생 자녀에 비해서는 8만 원 적은 금액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용돈 및 교통통신비가 34.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교육비(대학 학비)가 28.4만 원, 기타 비용 14.7만 원, 의복비 6.3만 원, 사교육비 3.7만 원, 여가문화생활비 2.7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3〉 성인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 분	양육비	표준편차	사례수
1) 어린이집유치원비	-	-	-
2) 초등학교 이상 공교육비	28.4	33.1	1,164
3) 사교육비	3.7	21.1	1,164
4) 돌봄 비용	0.0	0.7	1,164
5) 보건의료비	1.6	7.2	1,164
6) 용돈 및 교통통신비	34.4	24.3	1,164
7) 여가문화생활비	2.7	5.8	1,164
8) 의복비	6.3	6.7	1,164
9) 기저귀분유 비용	-	-	-
10) 기타 비용	14.7	22.2	1,164
합계	91.7	64.3	1,164

주: 1)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2)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은 80.6%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동 지역 거주 시에는 성인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가 읍면 지역에 비해 높았고 읍면 지역 거주 시에는 기타 비용이 높았다. 대표응답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공교육비와 총 지원 금액이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모든 항목과 총 지원 금액이 높았다. 반면 대표응답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성인 자녀에 대한 총 지원 금액 및 항목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없었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용돈 및 교통통신비와 총 지원 금액이 적었으나, 양육비 지원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두 명인 경우에 지원 금액이 가장 많았다.

〈표 6-24〉 대표응답자 및 가구특성별 성인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양육비 지원 자녀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공교육비	용돈- 교통통신비	기타비용	합계	사례수
전체	28.4	34.4	28.9	91.7	1,164
지역					
동부	29.8	34.5	27.5	91.9	942
읍면부	22.1	34.2	34.7	91.1	222
연령					
35-44세	22.3	33.1	24.5	79.9	140
40-49세	29.2	34.6	29.5	93.3	1,024
교육					
고졸이하	22.3	29.3	24.2	75.9	602
대졸	34.9	39.6	33.9	108.4	538
대학원졸	32.1	47.2	34.8	114.0	24
취업여부					
취업	29.2	34.5	28.8	92.5	743
비취업	26.9	34.4	29.1	90.4	421
가구소득 ¹⁾					
60% 미만	11.0	22.8	19.3	53.1	28
60-80% 미만	15.5	26.3	18.0	59.8	81
80-100% 미만	18.8	32.2	24.3	75.3	102
100-120% 미만	24.3	30.3	26.5	81.1	176
120-140% 미만	25.3	34.2	21.7	81.2	184
140-160% 미만	26.7	34.6	32.9	94.2	161
160% 이상	37.7	39.0	35.2	111.9	432
양육비지원 자녀수					
1명	27.9	35.4	26.7	90.0	255
2명	29.6	35.9	30.5	96.0	666
3명	26.2	31.1	28.2	85.5	208
4명 이상	20.2	19.5	19.7	59.3	3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3)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는 대표응답자 기준임.

4) 대표응답자 연령 19~24세, 25~29세, 30~34세 중 성인(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35~39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6 사례) 35~44세로 통합하였음.

5) 기타비용에는 사교육비, 돌봄 비용, 보건의료비, 여가문화생활비, 의복비, 이 외 기타 비용이 포함됨.

6)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

자녀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에서는 자녀별로 월 평균 정부의 현금성 지원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정부로부터 해당 자녀에 대한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금액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월 평균 21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자녀 중 정부 지원을 받는 자녀의 비율은 56.7%였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금액을 산출한 결과는 1인당 월 평균 37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는 자녀의 비율은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대표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 및 자녀수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 미취학 자녀인 경우 거의 대부분인 99.9%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자녀는 45~46% 정도, 성인(대학생) 자녀는 21.7%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지원률이 낮아졌다.

정부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는 자녀만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자녀 1인당 정부의 월 평균 지원 금액은 대표응답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1인당 정부 지원 금액이 많았으며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월 평균 지원 금액이 61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취학 자녀 다음으로 정부 지원 금액이 많은 자녀는 성인 자녀였는데 이는 성인 자녀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적었지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체로 대학 등록금 지원 등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25〉 자녀 1인당 월평균 정부 지원 금액

(단위: 만원, %, 명)

구분	전체 자녀 포함 시				정부 지원 자녀만 포함 시			
	자녀1인당 월 정부 지원 금액	표준편차	사례수	정부 지원 아동 비율	자녀1인당 월 정부 지원 금액	표준편차	사례수	
전체	21.0	30.8	9,436	56.7	37.0	32.8	5,353	
거주지								
동부	21.1	30.4	7,463	56.5	37.4	32.1	4,215	
읍면부	20.6	32.1	1,973	57.7	35.7	35.3	1,138	
연령								
19~29세	70.1	36.1	184	98.9	70.9	35.5	182	
30~34세	55.9	39.2	1,000	92.0	60.8	37.1	920	
35~39세	32.6	32.5	1,951	77.3	42.2	31.0	1,508	
40~44세	14.4	22.6	3,126	54.7	26.3	25.0	1,709	
45~49세	6.5	15.7	3,175	32.6	20.1	22.0	1,034	
교육수준								
고졸이하	17.4	28.3	3,167	50.5	34.4	31.7	1,598	
대졸	22.7	31.6	5,848	60.0	37.9	33.0	3,510	
대학원졸	24.1	35.0	421	58.2	41.5	37.2	245	
취업여부								
취업	18.9	29.1	5,247	53.9	35.0	31.6	2,826	
비취업	23.7	32.6	4,189	60.3	39.2	34.0	2,527	
가구소득 ¹⁾								
60%미만	23.0	24.9	279	68.1	33.7	23.4	190	
60~80%미만	21.5	25.0	616	62.8	34.2	23.6	387	
80~100%미만	21.7	28.0	1,298	61.8	35.1	28.2	802	
100~120%미만	20.7	30.7	1,607	57.4	36.1	33.0	922	
120~140%미만	19.7	28.7	1,435	56.0	35.2	30.5	804	
140~160%미만	20.6	32.9	1,229	56.0	36.8	36.6	688	
160%이상	21.3	33.5	2,972	52.5	40.7	36.8	1,560	
자녀(전체 정부지원)								
1명	32.9	35.8	1,932	68.7	35.4	32.3	2,385	
2명	18.5	28.6	5,308	53.6	38.9	32.6	2,360	
3명	15.9	27.9	1,896	53.4	35.2	35.2	522	
4명	18.9	30.8	260	54.6	42.3	36.3	86	
5명	25.6	33.2	40	65.0				
자녀연령								
미취학	61.0	30.2	2,530	99.9	61.0	30.1	2,528	
초등학생	7.1	12.2	3,168	45.5	15.5	14.1	1,443	
중·고등학생	4.3	9.0	2,293	46.6	9.1	11.4	1,069	
성인	8.2	17.5	1,445	21.7	37.7	17.4	3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자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3)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는 대표응답자 기준임.

4)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19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5) 정부지원 자녀수가 5명인 경우는 10사례로 적어 정부지원 자녀수는 4명 이상으로 통합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부부의 가사 분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가사시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본인의 가사 시간은 평일은 평균 131.4분, 주말은 평균 172.2분으로 각각 2시간 10분, 2시간 52분 정도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평일과 주말 가사 시간은 본인 가사시간에 비해 약간 적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본인의 가사시간은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여성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에는 주말 가사시간에서만 차이를 보여 30대 미만인 경우 주말 가사시간이 가장 적었다.

동 지역에 거주 시, 자녀수가 많을수록 본인 가사시간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사시간도 높게 나타났다. 성별이나 취업상태별로는 본인 가사시간과 배우자의 가사시간이 반대로 나타나, 여성이며 비취업인 경우 본인의 가사시간은 많지만 배우자의 가사시간은 적게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본인의 가사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의 가사시간에는 차이가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가사시간이 길다고 응답하였다.

〈표 6-26〉 평일 및 주말 가사 시간

(단위: 분, 명)

구분	본인				배우자			
	평일(분)	주말(분)	평균(분)	명	평일(분)	주말(분)	평균(분)	명
전체	131.4	172.2	143.1	6,414	121.4	156.7	131.5	6,414
거주지								
동부	133.3	175.0	145.2	5,098	122.3	158.9	132.7	5,098
읍면부	123.9	161.6	134.7	1,316	117.8	148.4	126.6	1,316
성								
남자	63.2	116.7	78.4	3,014	193.9	215.7	200.1	3,014
여자	191.9	221.5	200.3	3,401	57.1	104.5	70.7	3,401
연령								
19~29세	131.5	155.8	138.5	245	109.4	143.9	119.3	245
30~34세	135.9	171.2	145.9	763	116.2	156.6	127.7	763
35~39세	135.1	175.9	146.7	1,539	126.7	163.1	137.1	1,539
40~44세	129.1	173.9	141.9	2,015	124.1	163.2	135.2	2,015
45~49세	129.1	169.9	140.7	1,853	117.7	146.3	125.9	1,853
교육수준								
고졸이하	133.4	170.8	144.1	1,770	116.4	147.4	125.3	1,770
대졸	131.4	173.4	143.4	4,249	122.6	159.6	133.1	4,249
대학원졸	122.3	165.6	134.6	396	130.5	167.9	141.2	396
취업여부								
취업	103.3	153.8	117.7	4,826	144.6	176.7	153.8	4,826
비취업	217.0	228.1	220.2	1,588	50.7	96.2	63.7	1,588
자녀수								
0명	109.6	139.1	118.0	972	108.7	135.5	116.4	972
1명	130.6	170.8	142.1	1,975	124.5	161.0	134.9	1,975
2명	136.0	180.5	148.7	2,733	121.0	158.6	131.7	2,733
3명	144.5	186.7	156.5	654	129.4	165.6	139.7	654
4명 이상	155.5	207.7	170.4	81	143.9	173.7	152.4	81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분)은 일주일 평균 하루 가사시간으로, (평일 가사시간×5+주말 가사시간×2)÷7로 산출하였음.

3)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28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응답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가사분담 비율은 본인 52.8%, 배우자가 47.2%로 본인이 약간 더 많이 분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인 경우 본인의 가사분담 비율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6-27〉 가사분담비율(개인의 범주별 분담비율 평균)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명
전체	52.8	47.2	6,414
지역(t=0.9)			
동부	52.9	47.1	5,098
읍면부	52.2	47.8	1,316
성별(t=-88.5***)			
남자	31.9	68.1	3,014
여자	71.2	28.8	3,401
연령(F=1.4)			
19-29세	54.2	45.8	245
30-34세	53.7	46.3	763
35-39세	51.7	48.3	1,539
40-44세	52.4	47.6	2,015
40-49세	53.4	46.6	1,853
교육(F=4.5*)			
고졸이하	53.9	46.1	1,770
대졸	52.6	47.4	4,249
대학원졸	49.7	50.3	396
취업여부(t=-51.9***)			
취업	45.6	54.4	4,826
비취업	74.5	25.5	1,588
자녀수(F=2.2)			
0명	50.9	49.1	972
1명	52.3	47.7	1,975
2명	53.5	46.5	2,733
3명	53.9	46.1	654
4명 이상	53.4	46.6	81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28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3) * p<0.05, ** p<0.01, *** p<0.001
 4) t, F값은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값만 제시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배우자와의 가사 분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만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47.7%,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2.5%로 80.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성인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6-28〉 배우자와의 가사 분담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	명	평균
전체	3.0	16.8	47.7	32.5	100.0	6,414	3.08
거주지(t=1.8)							
동부	2.9	17.0	46.9	33.2	100.0	5,098	3.10
읍면부	3.7	16.1	50.6	29.6	100.0	1,316	3.06
성(t=24.9***)							
남자	0.7	7.0	50.2	42.1	100.0	3,014	3.34
여자	5.1	25.5	45.4	23.9	100.0	3,401	2.88
연령(F=21.6***)							
19~29세	0.6	10.6	41.2	47.6	100.0	245	3.27
30~34세	1.6	13.1	48.6	36.7	100.0	763	3.15
35~39세	2.6	16.0	46.6	34.9	100.0	1,539	3.10
40~44세	3.1	17.1	47.0	32.7	100.0	2,015	3.06
45~49세	4.3	19.6	49.7	26.4	100.0	1,853	2.95
교육수준(F=18.8***)							
고졸이하	4.5	18.9	47.2	29.4	100.0	1,770	2.98
대졸	2.5	16.3	48.6	32.6	100.0	4,249	3.09
대학원졸	2.6	13.5	39.7	44.2	100.0	396	3.18
취업여부(t=15.8***)							
취업	2.2	13.3	48.1	36.4	100.0	4,826	3.19
비취업	5.5	27.5	46.5	20.5	100.0	1,588	2.82
자녀수(F=55.3***)							
0명	0.4	5.7	46.1	47.8	100.0	972	3.37
1명	2.3	17.3	47.6	32.7	100.0	1,975	3.07
2명	4.0	19.1	49.8	27.1	100.0	2,733	2.97
3명	4.4	22.2	41.7	31.7	100.0	654	2.94
4명 이상	6.9	19.2	43.1	30.7	100.0	81	2.78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19~24세의 표본 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작아(28 사례) 19~29세로 통합하였음.

3) 평균 점수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점, '약간 만족한다' 3점, '매우 만족한다' 4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함.

4)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7장

일과 일·생활 균형

제1절 응답자 경제활동 특성

제2절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제3절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 경험



제 7 장 일과 일·생활 균형

본 장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일과 일·생활 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19~49세 응답자 개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응답자의 경제활동 특성과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 일·가정양립 제도의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응답자 경제활동 특성

19~49세 응답자의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준일 이전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취업자로 정의하였으며, 주된 직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실업(구직중)은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1. 취업여부 및 주당근로시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는 14,372명으로 이 중 68.7%는 취업한 상태이며, 3.9%는 실업(구직중), 27.3%는 비경제활동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78.1%, 여성의 58.7%가 취업한 상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9~24세는 34.7%, 25~29세는 71.5%, 30~34세는 78.4%, 35~39세는 78.6%, 40~44세는 76.0%, 45~49세는 76.1%

가 취업자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의 비율이 높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62.9%, 기혼이 76.2%의 비중을 보였다.

〈표 7-1〉 응답자(19~49세)의 취업여부(전체)

(단위: %, 명)

구분	취업	실업(구직중)	비경제활동	계	명
전체	68.7	3.9	27.3	100.0	14,372
성별($\chi^2=697.2^{***}$)					
남자	78.1	4.0	17.9	100.0	7,445
여자	58.7	3.9	37.4	100.0	6,927
연령($\chi^2=2008.4^{***}$)					
19~24세	34.7	3.7	61.7	100.0	2,542
25~29세	71.5	7.7	20.8	100.0	2,257
30~34세	78.4	5.0	16.6	100.0	2,065
35~39세	78.6	2.6	18.9	100.0	2,357
40~44세	76.0	2.7	21.3	100.0	2,679
45~49세	76.1	2.5	21.5	100.0	2,472
교육($\chi^2=915.5^{***}$)					
고졸이하	55.4	3.0	41.6	100.0	5,418
대졸	76.3	4.7	19.0	100.0	8,365
대학원졸	84.0	1.7	14.3	100.0	589
혼인상태($\chi^2=341.1^{***}$)					
미혼	62.9	6.1	31.1	100.0	7,497
기혼	75.2	1.6	23.2	100.0	6,875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전체 응답자를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혼의 경우 남성은 63.9%, 여성은 61.4%가 취업하고 있는 반면 기혼의 경우 남성은 98.1%, 여성은 56.5%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19~24세는 34.5%, 25~29세는 71.3%, 30~34세는 82.1% 35~39세는 85.1%, 40~44세는 78.4%, 45~49세는 74.8%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은 19~24세는 50.5% 수준이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5세 이후부터는 약 75% 내외가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5~49세에 76.3%로 가장 취업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미혼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인 경우는 취업이 46.0%이었으나, 기혼은 71.4%로 분석되었다. 대학졸업자 이상은 미혼과 기혼 모두 비슷한 수준의 취업비율을 보였다.

〈표 7-2〉 응답자(19~49세)의 취업여부(미혼, 기혼)

(단위: %, 명)

구분	미혼				기혼			
	취업	실업 (구직중)	비경제 활동	계 명	취업	실업 (구직중)	비경제 활동	계 명
전체	62.9	6.1	31.1	100.0 7,497	75.2	1.6	23.2	100.0 6,875
성별	$(\chi^2=6.8^*)$				$(\chi^2=1600.5^{***})$			
남자	63.9	6.2	29.9	100.0 4,359	98.1	0.9	1.0	100.0 3,086
여자	61.4	5.9	32.7	100.0 3,138	56.5	2.2	41.3	100.0 3,789
연령	$(\chi^2=1742.4^{***})$							
19~24세	34.5	3.7	61.8	100.0 2,512	50.5	1.6	47.9	100.0 29
25~29세	71.3	8.4	20.4	100.0 2,033	73.3	2.1	24.7	100.0 223
30~34세	82.1	7.0	10.9	100.0 1,277	72.4	1.8	25.8	100.0 789
35~39세	85.1	4.5	10.4	100.0 767	75.4	1.6	23.0	100.0 1,590
40~44세	78.4	6.8	14.8	100.0 521	75.5	1.7	22.8	100.0 2,158
45~49세	74.8	8.4	16.8	100.0 386	76.3	1.3	22.4	100.0 2,086
교육	$(\chi^2=1129.0^{***})$				$(\chi^2=34.7^{***})$			
고졸이하	46.0	3.4	50.6	100.0 3,404	71.4	2.2	26.4	100.0 2,014
대졸	76.6	8.4	15.0	100.0 3,914	76.1	1.4	22.5	100.0 4,451
대학원졸	85.2	4.7	10.1	100.0 179	83.5	0.4	16.1	100.0 41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9,881명) 분석하였다. 먼저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56.9%는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4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은 27.6%,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15.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34.5%로 높았으며, 여성은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25.2%, 40시간 초과는 17.9%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9~24세인 경우는 40시간 미만의 근무 비중이 높은 반면, 25~39세의 연령에서는 40시간 근무하는 비중이 약 60% 수준을 보였으나 40대 이후부터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40시간을 초

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높고, 대학교 졸업이상은 40시간을 근무하는 비중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과 기혼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3〉 응답자(19~49세)의 주당근로시간

(단위: %, 명)

구분	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	계	명
전체	15.5	56.9	27.6	100.0	9,881
성별($\chi^2=659.4^{***}$)					
남자	8.7	56.9	34.5	100.0	5,814
여자	25.2	56.9	17.9	100.0	4,067
연령($\chi^2=701.3^{***}$)					
19~24세	44.7	39.2	16.1	100.0	881
25~29세	12.0	63.0	25.0	100.0	1,613
30~34세	9.6	64.0	26.4	100.0	1,618
35~39세	11.4	59.2	29.3	100.0	1,852
40~44세	14.4	54.7	30.9	100.0	2,037
45~49세	14.9	53.9	31.2	100.0	1,881
교육($\chi^2=345.8^{***}$)					
고졸이하	22.8	43.6	33.6	100.0	3,003
대졸	12.0	62.7	25.3	100.0	6,383
대학원졸	15.2	63.1	21.7	100.0	495
혼인상태($\chi^2=39.9^{***}$)					
미혼	17.0	58.1	24.9	100.0	4,713
기혼	14.1	55.7	30.2	100.0	5,168

주: 1)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직장 유형 및 종사상 지위

이번에는 취업한 응답자의 직장유형을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체(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45.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개인사업체(기타)가 27.4%,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27.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9~24세는 개인사업체(기타),

20대 후반에서 30대는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 40대 이후부터는 개인사업체(기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미혼은 50.1%, 기혼은 41.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과 개인사업체(기타)의 비중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7-4〉 응답자(19~49세)의 직장유형

(단위: %, 명)

구분	정부·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체 (기타)	계	명
전체	27.0	45.7	27.4	100.0	9,881
성별($\chi^2=13.9^{**}$)					
남자	28.2	45.5	26.3	100.0	5,814
여자	25.2	46.0	28.8	100.0	4,067
연령($\chi^2=177.8^{***}$)					
19~24세	16.8	47.9	35.3	100.0	881
25~29세	26.8	51.4	21.8	100.0	1,613
30~34세	31.6	46.0	22.4	100.0	1,618
35~39세	31.3	44.6	24.1	100.0	1,852
40~44세	27.6	42.8	29.7	100.0	2,037
45~49세	22.9	43.8	33.3	100.0	1,881
교육($\chi^2=551.2^{***}$)					
고졸이하	14.3	47.6	38.0	100.0	3,003
대졸	30.9	45.8	23.3	100.0	6,383
대학원졸	53.0	32.1	14.9	100.0	495
혼인상태($\chi^2=71.2^{***}$)					
미혼	24.6	50.1	25.3	100.0	4,713
기혼	29.1	41.7	29.3	100.0	5,16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취업한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이 63.5%, 임시·일용직이 18.3%,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14.0%,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2% 수준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상용직이 66.9%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일용직이 약 15% 내외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으나, 여성은 상용직이 58.7%로 가장 높고 임시·일용직이 23.7%,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가 11.9%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용직의 비율이 높아졌다가 40대 이후부터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상용직 다음으로 임시·일용직이 높고, 기혼은 상용직 다음으로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가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응답자(19~49세)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자영업· 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 일용직	특수형태	계	명
전체	14.0	63.5	18.3	4.2	100.0	9,881
성별($\chi^2=196.1^{***}$)						
남자	15.5	66.9	14.5	3.1	100.0	5,814
여자	11.9	58.7	23.7	5.7	100.0	4,067
연령($\chi^2=1370.7^{***}$)						
19~24세	2.7	37.5	57.1	2.6	100.0	881
25~29세	5.4	68.6	21.4	4.6	100.0	1,613
30~34세	10.7	74.8	11.1	3.5	100.0	1,618
35~39세	14.3	70.4	11.7	3.6	100.0	1,852
40~44세	20.3	62.5	13.1	4.1	100.0	2,037
45~49세	22.4	56.0	16.0	5.7	100.0	1,881
교육($\chi^2=783.0^{***}$)						
고졸이하	16.4	45.5	33.4	4.7	100.0	3,003
대졸	13.3	71.1	11.7	3.9	100.0	6,383
대학원졸	8.7	74.0	12.7	4.6	100.0	495
혼인상태($\chi^2=422.2^{***}$)						
미혼	8.0	63.2	24.6	4.2	100.0	4,713
기혼	19.5	63.8	12.6	4.1	100.0	5,168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한편,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임시·일용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의 76.6%는 정규직이었으며, 23.4%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81.3%가 정규직인 반면 여성은 정규직은 70.0%, 비정규직은 30.0%로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45~49세에는 다시 정규직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의 정규직 비율이 85.0%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57.0%만이 정규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기혼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6〉 응답자(19~49세)의 정규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명
전체	76.6	23.4	100.0	8,086
성별($\chi^2=139.8^{***}$)				
남자	81.3	18.7	100.0	4,734
여자	70.0	30.0	100.0	3,352
연령($\chi^2=808.8^{***}$)				
19-24세	38.8	61.2	100.0	833
25-29세	75.3	24.7	100.0	1,451
30-34세	85.5	14.5	100.0	1,389
35-39세	85.0	15.0	100.0	1,520
40-44세	81.5	18.5	100.0	1,541
45-49세	77.1	22.9	100.0	1,352
교육($\chi^2=720.3^{***}$)				
고졸이하	57.0	43.0	100.0	2,370
대졸	85.0	15.0	100.0	5,287
대학원졸	81.5	18.5	100.0	429
혼인상태($\chi^2=133.4^{***}$)				
미혼	71.3	28.7	100.0	4,138
기혼	82.2	17.8	100.0	3,948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본 절에서는 19~49세의 응답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1점)부터 매우어렵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숫자가 클수록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수준에서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는 평균 2.6점으로 '보통이다'보다 약간 낮아, 일·생활균형이 어려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는 2.5점, 여성은 2.8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생활 균형에서 약간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구간별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은 별로 어렵지 않다가 43.9%로 높고, 매우 어렵다는 2.5% 수준인 반면 여성은 별로 어렵지 않다가 34.8%, 약간 어렵다가 24.0%, 보통이다가 22.1%이고, 매우 어렵다는 8.2%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30대에서 40대 초반에 높아진다. 이후 40대 후반에 다시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9~24세에는 평균 2.2점, 25~29세에는 평균 2.3점을 보였으나, 30~34세에는 평균 2.5점, 35~39세는 평균 2.8점, 40~44세는 평균 2.9점으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가 45~49세에는 2.6점으로 다소 낮아졌다.

다음으로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졸업은 각각 평균 2.6점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원 졸업은 2.9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점수분포별로 살펴보아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졸은 별로 어렵지 않다가 각각 40.3%이고 보통이다가 약 23% 내외, 약간 어렵다가 약 18% 내외의 비율을 보였으나, 대학원 졸업은 별로 어렵지 않다가 36.7%, 보통

이다는 25.0%, 약간 어렵다는 26.2%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별로 보면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은 평균 2.2점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기혼은 3.0으로 응답자의 세부 특성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점수분포별로 보면 미혼은 별로 어렵지 않다가 47.7%, 전혀 어렵지 않다가 21.4% 수준이었으나, 기혼은 별로어렵지 않다가 33.2%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보통이다가 27.5%, 약간 어렵다가 26.4%로 일·생활균형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7〉 응답자(19~49세)의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계	명	평균
전체	12.9	40.1	23.6	18.5	4.9	100.0	9,881	2.6
성별($\chi^2=353.3^{***}$)								
남자	14.4	43.9	24.6	14.6	2.5	100.0	5,814	2.5
여자	10.9	34.8	22.1	24.0	8.2	100.0	4,067	2.8
연령($\chi^2=614.4^{***}$)								
19-24세	23.8	45.6	19.4	9.4	1.8	100.0	881	2.2
25-29세	20.7	47.2	20.2	9.9	2.0	100.0	1,613	2.3
30-34세	16.7	41.8	20.7	16.7	4.0	100.0	1,618	2.5
35-39세	9.4	36.0	24.9	23.3	6.3	100.0	1,852	2.8
40-44세	7.1	35.6	26.1	24.2	7.1	100.0	2,037	2.9
45-49세	7.7	39.1	26.9	20.7	5.5	100.0	1,881	2.8
교육($\chi^2=38.6^{***}$)								
고졸이하	14.0	40.3	22.7	18.0	5.0	100.0	3,003	2.6
대졸	12.9	40.3	23.9	18.1	4.7	100.0	6,383	2.6
대학원졸	6.6	36.7	25.0	26.2	5.5	100.0	495	2.9
혼인상태($\chi^2=1251.3^{***}$)								
미혼	21.4	47.7	19.3	9.8	1.8	100.0	4,713	2.2
기혼	5.2	33.2	27.5	26.4	7.7	100.0	5,168	3.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 경험

본 조사는 일·가정양립 제도 중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⁶⁾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과 출산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등 제도 미적용자를 제외하고 제도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람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출산 당시와 현재의 시간적인 불일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출산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제도 이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셋째 자녀의 경우는 표본 수가 100명 미만으로 작아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출산전후휴가 제도 이용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자녀를 출산할 당시 제도적으로 이용 가능한 취업자의 88.1%, 둘째 자녀는 89.4%가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 당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자영업자 등으로 비해당(첫째 자녀 출산 당시 비해당 74.3%, 둘째 자녀 출산 당시 비해당 81.5%)인 경우를 제외한 이용률이다.

어머니 특성별 출산전후휴가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 때는 30대의 이용률이 높았고, 둘째 자녀 때는 40대 초반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산년도별로는 최근에 출산할수록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조사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경험의 응답자가 6명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표 7-8〉 어머니(19~49세) 특성별 출산전후휴가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첫째 자녀						
	예	아니오	비해당	계	명	이용률 (비해당제외)	명
전체	22.6	3.1	74.3	100.0	3,292	88.1	847
연령교육($\chi^2=76.6^{***}$)							
19-29세	11.7	3.8	84.5	100.0	65	75.2	10
30-34세	28.4	1.7	69.9	100.0	333	94.3	100
35-39세	29.6	1.8	68.6	100.0	722	94.2	227
40-44세	24.9	3.2	72.0	100.0	1,074	88.7	301
45-49세	14.9	4.1	81.0	100.0	1,098	78.2	209
교육($\chi^2=231.7^{***}$)							
고졸이하	7.2	3.5	89.3	100.0	1,044	67.2	111
대졸	28.6	2.9	68.5	100.0	2,069	90.7	652
대학원졸	44.1	2.3	53.6	100.0	180	95.1	83
출산년도($\chi^2=162.2^{***}$)							
2005년 이전	7.6	5.1	87.2	100.0	543	59.8	69
2005~2009년	18.6	3.7	77.7	100.0	658	83.4	147
2010~2014년	22.7	3.2	74.2	100.0	801	87.7	207
2015~2019년	26.4	2.1	71.5	100.0	776	92.8	221
2020년~2024년	38.1	1.4	60.5	100.0	514	96.3	203
구분	둘째 자녀						
	예	아니오	비해당	계	명	이용률 (비해당제외)	명
전체	16.5	2.0	81.5	100.0	2,080	89.4	384
연령							
19-29세	12.8	3.2	84.0	100.0	20	79.9	3
30-34세	17.9	1.9	80.1	100.0	161	90.2	32
35-39세	20.7	1.6	77.7	100.0	421	92.7	94
40-44세	18.3	1.1	80.6	100.0	733	94.3	143
45-49세	12.1	2.9	84.9	100.0	745	80.5	112
교육($\chi^2=111.8^{***}$)							
고졸이하	5.9	1.9	92.1	100.0	695	75.3	55
대졸	20.4	1.9	77.7	100.0	1,283	91.3	287
대학원졸	39.6	2.2	58.2	100.0	103	94.7	43
출산년도($\chi^2=56.8^{***}$)							
2005년 이전	4.2	2.0	93.8	100.0	196	68.1	12
2005~2009년	11.8	2.8	85.4	100.0	380	80.8	55
2010~2014년	15.5	1.8	82.7	100.0	533	89.6	92
2015~2019년	18.5	1.9	79.6	100.0	620	90.7	126
2020년~2024년	26.5	1.4	72.1	100.0	352	94.9	98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육아휴직 제도 이용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다태아이거나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이용한 해당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으로 이용 가능한 취업자 중에서 첫째 자녀는 44.4%, 둘째 자녀는 35.5%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자영업자나 노무제공자 등으로 비해당인 경우(첫째 자녀 비해당 64.4%, 둘째 자녀 비해당 66.6%)를 제외한 이용률이다.

육아휴직의 총 이용기간은 유급 1년과 무급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최초 이용 기간과 총 이용기간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은 총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육아휴직 총 이용 기간을 출생 자녀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는 12.2개월, 둘째 자녀는 12.6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별 육아휴직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첫째 자녀는 30대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둘째 자녀는 35~39세와 40~44세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총 이용기간도 해당 연령에서 다소 길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았으며, 총 이용기간도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산년도별로는 최근에 출산할수록 육아휴직 이용률과 총 이용기간이 높게 나타났다.

〈표 7-9〉 어머니(19~49세) 특성별 육아휴직 이용 비율

(단위: %, 명, 개월)

구분	첫째 자녀							
	예	아니오	비해당	계	명	이용률 (비해당 제외)	명	총 이용기간
전체	15.8	19.8	64.4	100.0	3,292	44.4	1,174	12.2
연령($\chi^2=114.2^{***}$)								
19~29세	8.0	17.4	74.6	100.0	65	31.5	17	10.0
30~34세	24.2	17.6	58.2	100.0	333	57.9	139	12.9
35~39세	23.7	17.4	58.8	100.0	722	57.7	297	12.4
40~44세	16.8	20.9	62.3	100.0	1,074	44.6	405	12.0
45~49세	7.6	21.2	71.2	100.0	1,098	26.3	316	11.8
교육($\chi^2=218.6^{***}$)								
고졸이하	3.3	18.6	78.1	100.0	1,044	15.1	229	9.8
대졸	20.8	20.1	59.2	100.0	2,069	50.9	845	12.2
대학원졸	31.6	24.3	44.1	100.0	180	56.5	100	13.9
출산년도($\chi^2=230.3^{***}$)								
2005년 이전	2.3	21.4	76.3	100.0	543	9.7	129	11.9
2005~2009년	9.1	22.9	68.0	100.0	658	28.4	211	11.2
2010~2014년	15.1	21.2	63.7	100.0	801	41.6	291	11.4
2015~2019년	20.8	20.8	58.4	100.0	776	49.9	323	12.7
2020년~2024년	32.4	10.5	57.2	100.0	514	75.6	220	12.8
구분	둘째 자녀							
	예	아니오	비해당	계	명	이용률 (비해당 제외)	명	총 이용기간
전체	11.9	21.6	66.6	100.0	2,080	35.5	695	12.6
연령								
19~29세	8.6	14.5	76.9	100.0	20	37.2	5	16.0
30~34세	14.4	21.9	63.7	100.0	161	39.7	59	11.2
35~39세	17.4	21.2	61.4	100.0	421	45.1	162	13.2
40~44세	12.8	20.5	66.8	100.0	733	38.4	243	12.6
45~49세	7.4	23.0	69.7	100.0	745	24.3	226	12.2
교육								
고졸이하	3.6	20.7	75.7	100.0	695	14.7	169	10.7
대졸	15.2	21.6	63.3	100.0	1,283	41.3	471	12.8
대학원졸	26.5	26.6	46.9	100.0	103	49.8	55	12.7
출산년도								
2005년 이전	1.2	18.2	80.6	100.0	196	6.3	38	9.5
2005~2009년	6.5	23.1	70.4	100.0	380	21.9	113	12.0
2010~2014년	11.0	22.4	66.6	100.0	533	33.0	178	11.6
2015~2019년	13.5	24.1	62.4	100.0	620	36.0	233	13.6
2020년~2024년	21.8	16.0	62.2	100.0	352	57.6	133	12.6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연속 이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연속하여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비해당으로 응답하였고, 육아휴직은 자녀 각각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두 제도의 연속 이용 여부에 대해서 다태아의 둘째 이상 자녀는 비해당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당시에는 근로를 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이용한 경우도 비해당으로 처리하였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연속 이용률을 살펴보면, 비해당을 제외했을 때 첫째 자녀는 92.2%, 둘째 자녀는 89.1%로 나타났다. 어머니 특성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연속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연속하여 이용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자녀인 경우는 30대 초반과 후반 모두에서 연속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둘째 자녀인 경우는 30대 후반에서 연속 이용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가 연속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년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2024년에 출산한 경우 연속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10년~2014년에 출산한 경우로 나타났다.

〈표 7-10〉 어머니(19~49세) 특성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연속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첫째 자녀						
	예	아니오	비해당	계	명	이용률 (비해당제외)	명
전체	92.1	7.8	0.1	100.0	521	92.2	521
연령							
19~29세	77.4	22.6	-	100.0	5	77.4	5
30~34세	96.7	2.8	0.4	100.0	81	97.1	80
35~39세	95.6	4.4	-	100.0	171	95.6	171
40~44세	90.1	9.9	-	100.0	181	90.1	181
45~49세	85.6	14.4	-	100.0	83	85.6	83
교육							
고졸이하	93.3	6.7	-	100.0	34	93.3	34
대졸	93.1	6.8	0.1	100.0	430	93.2	429
대학원졸	83.8	16.2	-	100.0	57	83.8	57
출산년도							
2005년 이전	80.7	19.3	-	100.0	13	80.7	13
2005~2009년	84.5	15.5	-	100.0	60	84.5	60
2010~2014년	91.5	8.5	-	100.0	121	91.5	121
2015~2019년	91.2	8.6	0.2	100.0	161	91.4	161
2020년~2024년	97.0	3.0	-	100.0	166	97.0	166
구분	둘째 자녀						
	예	아니오	비해당	계	명	이용률 (비해당제외)	명
전체	85.9	10.5	3.5	100.0	247	89.1	238
연령							
19~29세	100.0	-	-	100.0	2	100.0	2
30~34세	81.2	10.4	8.4	100.0	23	88.7	21
35~39세	91.2	6.9	1.9	100.0	73	92.9	72
40~44세	87.0	11.3	1.7	100.0	94	88.5	92
45~49세	78.7	14.5	6.8	100.0	55	84.4	51
교육							
고졸이하	94.3	4.4	1.3	100.0	25	95.5	25
대졸	85.4	11.3	3.3	100.0	195	88.3	188
대학원졸	82.3	10.7	7.1	100.0	27	88.5	25
출산년도							
2005년 이전	100.0	-	-	100.0	2	100.0	2
2005~2009년	62.6	26.7	10.7	100.0	25	70.1	22
2010~2014년	89.3	9.3	1.4	100.0	59	90.5	58
2015~2019년	86.7	11.1	2.1	100.0	84	88.6	82
2020년~2024년	89.6	6.0	4.5	100.0	77	93.7	7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4.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이용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08년에 신설되었고, 3일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후 2012년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 10월부터는 10일로 추가 확대되었다.

여기서 분석은 2008년 이후 출산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출산년도 구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일수가 확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비해당을 제외했을 경우 첫째 자녀는 48.9%, 둘째 자녀는 46.9%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자녀 출산 당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비임금근로자였거나 하는 등의 경우는 비해당(첫째 자녀 출산 당시 비해당 14.8%, 둘째 자녀 출산 당시 비해당 20.7%)으로 처리하였다. 비해당을 포함할 경우 첫째 자녀는 41.7%, 둘째 자녀는 37.2%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총 이용기간은 비해당을 제외했을 때 첫째 자녀 5.5일, 둘째 자녀 5.4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해당을 제외했을 때 첫째 자녀는 30~34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총 이용기간도 길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25~29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비율과 총 이용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는 대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비율이 높고, 대학원 졸업에서 총 이용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출산년도별로 살펴보면 최근에 출산할수록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비율과 총 이용기간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7-11〉 어머니(19~49세) 특성별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비율 및 기간

(단위: %, 명, 일)

구분	첫째 자녀							
	예	아니오	비해당	계	명	이용률 (비해당제외)	명	총 이용기간
전체	41.7	43.5	14.8	100.0	2,360	48.9	2,011	5.5
연령($\chi^2=50.9^{***}$)								
19~29세	36.0	39.5	24.5	100.0	65	47.7	49	6.7
30~34세	52.8	31.0	16.2	100.0	332	63.0	279	7.3
35~39세	44.8	41.4	13.9	100.0	706	52.0	608	6.0
40~44세	39.8	45.9	14.3	100.0	900	46.4	771	4.7
45~49세	31.1	53.9	15.1	100.0	356	36.6	302	3.7
교육($\chi^2=63.4^{***}$)								
고졸이하	28.0	51.8	20.2	100.0	576	35.1	460	4.8
대졸	46.1	40.5	13.4	100.0	1,633	53.3	1,414	5.6
대학원졸	45.8	44.7	9.6	100.0	151	50.6	137	5.9
출산년도($\chi^2=106.1^{***}$)								
2008~2011년	29.8	56.5	13.6	100.0	550	34.5	475	3.0
2012~2018년	40.0	45.5	14.5	100.0	1,185	46.7	1,013	4.7
2019~2024년	55.5	28.2	16.4	100.0	625	66.3	523	7.9
구분	둘째 자녀							
	예	아니오	비해당	계	명	이용률 (비해당제외)	명	총 이용기간
전체	37.2	42.1	20.7	100.0	1,691	46.9	1,342	5.4
연령($\chi^2=24.2^{***}$)								
19~29세	38.9	28.2	32.9	100.0	20	58.0	14	8.1
30~34세	44.0	31.4	24.6	100.0	161	58.4	122	7.3
35~39세	40.7	38.9	20.5	100.0	420	51.2	334	6.4
40~44세	37.5	42.1	20.4	100.0	682	47.1	542	4.9
45~49세	30.6	50.3	19.1	100.0	408	37.8	330	3.8
교육($\chi^2=41.0^{***}$)								
고졸이하	25.5	50.2	24.3	100.0	471	33.7	357	5.1
대졸	42.1	38.3	19.6	100.0	1,123	52.3	903	5.4
대학원졸	38.2	46.2	15.6	100.0	97	45.3	82	6.2
출산년도($\chi^2=47.2^{***}$)								
2008~2011년	26.2	54.2	19.6	100.0	384	32.6	309	3.0
2012~2018년	37.7	42.2	20.1	100.0	846	47.2	675	4.6
2019~2024년	45.7	31.8	22.5	100.0	462	58.9	358	7.7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3)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8장

부모와의 관계

제1절 부모와의 친밀도

제2절 부모와 경제적 교환 관계



제 8 장 부모와의 관계

제1절 부모와의 친밀도

동거여부는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를 파악하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결혼한 성인자녀는 부모와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 것이 규범으로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기혼자의 부모동거여부는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관심이 커지는 주제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자녀의 부모동거여부이다. 결혼의 감소와 지연으로 인해 미혼기간이 늘어나고 경제적 자립능력의 이질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혼인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개연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기혼 응답자 중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2.3%로 나타난 반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93.1%를 차지했다. 4.6%는 부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미혼인 응답자는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비율 52.0%와 양친 중 한 사람과만 동거하는 6.9%를 합한 58.9%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39.3%이고 1.8%는 부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동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4세는 75.1%, 25~29세는 53.8%가 적어도 한명의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는 대부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구이므로, 미혼이면서 20대 이하일 때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의 응답자 특성과 부모동거비율 사이의 관계는 추가적인 심층분석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표 8-1〉 부모와의 동거여부

(단위: %, 명)

구분	동거	일부 동거	비동거	부모 안계심	계	명
전체	28.1	3.7	65.0	3.1	100.0	14,372
거주지($\chi^2=75.5^{***}$)						
동부	29.3	4.0	63.6	3.1	100.0	11,869
읍면부	22.4	2.2	71.9	3.5	100.0	2,503
성($\chi^2=50.4^{***}$)						
남자	30.3	3.7	63.4	2.6	100.0	7,445
여자	25.7	3.8	66.8	3.8	100.0	6,927
연령($\chi^2=4677.1^{***}$)						
19~24세	66.3	8.8	24.4	0.4	100.0	2,542
25~29세	47.5	6.3	45.7	0.4	100.0	2,257
30~34세	27.0	3.4	69.0	0.6	100.0	2,065
35~39세	13.1	2.2	82.8	2.0	100.0	2,357
40~44세	9.5	0.9	85.2	4.3	100.0	2,679
45~49세	6.3	0.9	82.4	10.4	100.0	2,472
교육수준($\chi^2=631.8^{***}$)						
고졸이하	37.3	5.3	52.7	4.7	100.0	5,418
대졸	23.2	2.9	71.6	2.3	100.0	8,365
대학원졸	13.1	0.9	85.0	1.0	100.0	589
혼인상태($\chi^2=5317.4^{***}$)						
미혼	52.0	6.9	39.3	1.8	100.0	7,497
기혼	2.0	0.3	93.1	4.6	100.0	6,875
취업여부($\chi^2=640.7^{***}$)						
취업	22.1	3.0	71.4	3.4	100.0	9,881
비취업	41.2	5.2	51.0	2.6	100.0	4,491
가구소득($\chi^2=1174.0^{***}$) ¹⁾						
60%미만	8.6	5.1	81.0	5.4	100.0	1,990
60~80%미만	14.0	4.4	78.7	2.9	100.0	1,571
80~100%미만	22.3	6.5	67.8	3.5	100.0	1,758
100~120%미만	27.1	5.8	63.2	3.9	100.0	1,963
120~140%미만	29.9	3.3	64.4	2.4	100.0	1,837
140~160%미만	35.9	2.5	59.3	2.2	100.0	1,509
160%이상	43.6	1.0	53.2	2.2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동거'는 생존해 있는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부 동거는 한분과 함께 살고 나머지 한분과 비동거하는 경우, 비동거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 부모 안계심은 부모 두 분 모두 안계신 경우를 의미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모와의 직접적인 동거는 세대간 연대의 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들의 세대간 연대 수준이나 친밀정도가 낮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인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빈도는 두 분 또는 한 분의 비동거 부모가 있는 응답자에게만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19.5%가 비동거 부모와 매일 연락을 하고, 25.5%는 일주일에 서너번 연락을 하며, 일주일에 한번 연락을 하는 응답자는 25.7%로 나타났다. 비동거 부모가 있는 응답자의 70.8%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부모와 연락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5.9%는 한 달에 두세번, 7.0%는 한 달에 한번, 2.8%는 일년에 서너번 연락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6%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즉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연락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조사대상 응답자의 13.4%로 집계된다. 비동거 부모와 빈번한 연락을 주고 받은 경우가 다수이고, 한달에 한 번 이하의 빈도로 드물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부모와의 연락빈도에 차이가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다. 남성은 62.7%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는 반면, 여성은 그보다 16.4%p가 높은 79.0%가 부모와 자주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취업한 사람보다 더 자주 부모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빈도 차이는 뚜렷하지 않지만, 19~24세 청년의 경우 비동거 부모와 매일 연락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으며 일년에 서너번 연락을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즉 19~24세 부모 비동거 청년은 부모와 빈번하게 연락하거나 거의 연락하지 않는 양극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다.

〈표 8-2〉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구분	매일	일주일 에 서너번	일주일 에 한 번	한 달에 두세번	한 달에 한 번	일년에 서너번	거의 안 함	계	명
전체	19.5	25.5	25.7	15.9	7.0	2.8	3.6	100.0	9,883
거주지($\chi^2=17.3^{**}$)									
동부	19.5	25.4	25.8	15.4	7.1	2.9	3.9	100.0	8,027
읍면부	19.6	25.9	25.5	17.7	6.5	2.2	2.5	100.0	1,856
성($\chi^2=638.1^{***}$)									
남자	12.1	22.0	28.6	21.0	9.5	3.3	3.6	100.0	4,994
여자	27.1	29.1	22.8	10.6	4.4	2.2	3.7	100.0	4,889
연령($\chi^2=574.3^{***}$)									
19~24세	23.4	26.0	16.5	7.6	6.9	5.4	14.2	100.0	846
25~29세	20.4	26.7	24.0	13.3	6.8	2.7	6.0	100.0	1,175
30~34세	22.1	28.2	24.2	13.6	6.7	2.2	3.0	100.0	1,494
35~39세	21.4	27.0	25.9	15.6	5.5	1.9	2.7	100.0	2,002
40~44세	19.2	23.9	28.3	17.3	7.7	2.1	1.4	100.0	2,307
45~49세	14.0	23.0	28.6	20.9	7.9	3.8	1.8	100.0	2,059
교육수준($\chi^2=226.3^{***}$)									
고졸이하	16.4	23.4	24.1	16.6	8.5	4.3	6.7	100.0	3,143
대졸	20.9	26.2	26.3	15.8	6.3	2.2	2.3	100.0	6,235
대학원졸	22.4	29.9	28.5	12.1	5.3	.8	1.0	100.0	506
혼인상태($\chi^2=392.2^{***}$)									
미혼	18.6	23.5	23.6	14.1	7.7	4.2	8.3	100.0	3,462
기혼	20.0	26.6	26.9	16.8	6.6	2.0	1.1	100.0	6,421
취업여부($\chi^2=173.1^{***}$)									
취업	18.0	24.4	26.9	17.4	7.6	2.9	2.8	100.0	7,359
비취업	23.8	28.9	22.3	11.4	5.3	2.3	6.0	100.0	2,524
가구소득($\chi^2=178.3^{***}$) ¹⁾									
60%미만	20.3	28.5	23.5	13.5	6.7	2.2	5.3	100.0	1,713
60~80%미만	20.6	22.2	24.4	17.4	8.2	2.9	4.3	100.0	1,306
80~100%미만	16.5	23.8	25.5	17.2	7.0	4.8	5.2	100.0	1,305
100~120%미만	18.1	24.7	24.8	17.4	7.3	2.9	4.8	100.0	1,353
120~140%미만	17.7	27.0	28.4	14.9	6.3	3.1	2.6	100.0	1,244
140~160%미만	18.2	23.6	27.9	17.8	7.1	3.2	2.1	100.0	933
160%이상	22.7	26.7	26.7	14.7	6.6	1.3	1.3	100.0	2,029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부모와 경제적 교환 관계

〈표 8-3〉~〈표 8-6〉은 지난 1년 동안 양가 부모와의 경제적 이전 경험을 조사한 결과이다. 대표응답자가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현금)을 제공한 경험과 양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금액을 조사하여 월평균 금액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의 다수는 주로 비정기적인 형태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현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기적인 현금지원 경험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지만, 비정기적인 지원 제공 및 수혜 경험 비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와 직접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 지원보다 비정기적인 지원이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을 통해,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경제적 이전의 성격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기적 현금지원을 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이해한다면, 정기적 지원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경제적 분리가 수반됨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비정기적인 지원은 일회성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생일이나 명절 등 주고 받는 선물의 의미를 띠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기적인 지원은 연락을 주고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보다는 세대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 실제로 부모에게 비정기적인 지원을 제공한 경우 월평균 지원 금액은 약 12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각각의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부모에게 정기

적인 현금지원을 한 경우는 19.7%, 하지 않은 비율은 80.3%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정기적 현금지원은 이처럼 드문 현상이지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월평균 42.7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정기적 현금지원 제공 비율이 높아져, 45~49세는 34.8%가 지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가장 연령이 낮은 19~24세와 25~29세는 각각 4.4%와 12.1%만이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드린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연령이 높아 소득별이 능력이 취약하여 자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기적 현금지원은 사적 생계지원의 성격을 띠다고 해석되며, 응답자의 약 20%가 이러한 성격의 부모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3〉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드리는지의 여부와 월평균 금액

(단위: %, 만 원, 명)

구분	드리지 않음	드림		계	명
		비율	월평균 금액		
전체	80.3	19.7	42.7	100.0	9,434
거주지($\chi^2=12.2^{***}$)					
동부	79.7	20.3	43.2	100.0	7,830
읍면부	83.5	16.5	39.8	100.0	1,603
성($\chi^2=0.1$)					
남자	80.3	19.7	50.3	100.0	3,448
여자	80.4	19.6	38.3	100.0	5,986
연령($\chi^2=578.1^{***}$)					
19~24세	95.6	4.4	38.7	100.0	1,318
25~29세	87.9	12.1	35.8	100.0	1,816
30~34세	84.8	15.2	45.2	100.0	1,655
35~39세	76.9	23.1	47.0	100.0	1,531
40~44세	72.1	27.9	44.2	100.0	1,621
45~49세	65.2	34.8	40.7	100.0	1,492
교육수준($\chi^2=21.8^{***}$)					
고졸이하	82.8	17.2	41.8	100.0	3,312
대졸	79.1	20.9	43.0	100.0	5,746
대학원졸	76.8	23.2	45.1	100.0	376

구분	드리지 않음	드림		계	명
		비율	월평균 금액		
혼인상태($\chi^2=42.9^{***}$)					
미혼	82.5	17.5	45.9	100.0	5,627
기혼	77.1	22.9	39.2	100.0	3,807
취업여부($\chi^2=246.3^{***}$)					
취업	75.5	24.5	44.4	100.0	6,061
비취업	88.9	11.1	36.0	100.0	3,372
가구소득($\chi^2=243.1^{***}$) ¹⁾					
60%미만	91.7	8.3	40.4	100.0	1,771
60~80%미만	82.7	17.3	35.5	100.0	1,278
80~100%미만	77.9	22.1	39.4	100.0	1,172
100~120%미만	79.3	20.7	38.6	100.0	1,215
120~140%미만	78.1	21.9	41.3	100.0	1,053
140~160%미만	80.3	19.7	37.5	100.0	836
160%이상	72.4	27.6	51.3	100.0	2,10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월평균 금액은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작성함.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비정기적인 현금(현물)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76.6%가 비정기적으로 현금(현물)을 지원했다고 응답했으며, 지원규모는 월평균 12.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에 대해 현금(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은 주로 비정기적인 소액 지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비정기적인 현금(현물)지원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한 자녀는 그렇지 않은 비취업 자녀에 비해 부모에게 비정기적인 지원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84.3%가 비동거 부모에게 비정기적인 지원을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정기적 지원 비율이 높아졌다.

〈표 8-4〉 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드리는지의 여부와 월평균 (환산)금액

(단위: %, 만 원, 명)

구분	드리지 않음	드림		계	명
		비율	월평균 금액		
전체	23.4	76.6	12.0	100.0	9,434
거주지($\chi^2=3.3$)					
동부	23.7	76.3	12.0	100.0	7,830
읍면부	21.6	78.4	11.7	100.0	1,603
성($\chi^2=428.31^{***}$)					
남자	35.3	64.7	10.5	100.0	3,448
여자	16.5	83.5	12.6	100.0	5,986
연령($\chi^2=1599.3^{***}$)					
19~24세	63.3	36.7	6.8	100.0	1,318
25~29세	30.1	69.9	9.0	100.0	1,816
30~34세	15.4	84.6	11.5	100.0	1,655
35~39세	13.0	87.0	13.4	100.0	1,531
40~44세	11.8	88.2	13.6	100.0	1,621
45~49세	12.0	88.0	14.0	100.0	1,492
교육수준($\chi^2=518.7^{***}$)					
고졸이하	36.8	63.2	10.2	100.0	3,312
대졸	16.4	83.6	12.5	100.0	5,746
대학원졸	11.2	88.8	16.5	100.0	376
혼인상태($\chi^2=973.5^{***}$)					
미혼	34.6	65.4	9.6	100.0	5,627
기혼	6.8	93.2	14.4	100.0	3,807
취업여부($\chi^2=558.2^{***}$)					
취업	15.7	84.3	12.0	100.0	6,061
비취업	37.2	62.8	11.9	100.0	3,372
가구소득($\chi^2=549.1^{***}$) ¹⁾					
60%미만	44.3	55.7	7.3	100.0	1,771
60~80%미만	19.9	80.1	9.8	100.0	1,278
80~100%미만	18.0	82.0	10.4	100.0	1,172
100~120%미만	22.0	78.0	12.4	100.0	1,215
120~140%미만	18.6	81.4	12.2	100.0	1,053
140~160%미만	15.8	84.2	13.2	100.0	836
160%이상	17.1	82.9	16.0	100.0	2,10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받았다면 월 평균 금액의 규모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받은 비율은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22.0%가 부모의 지원을 받는 데 비해, 여성은 그 절반 수준인 11.7%만이 부모의 정기적 현금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표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대표응답자 중 여성은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이 참여하고 있지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미혼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거주자일수록 부모지원 수혜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19~29세 청년인구가 도시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받은 비율은 낮지만 19~24세와 25~29세는 각각 61.9%와 20.7%가 부모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높은 연령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한 자리수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같은 맥락에서 미혼 집단은 기혼 집단에 비해 부모의 정기적 현금 지원 수혜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하지 않은 집단은 30.1%가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취업집단의 수혜비율 7.1%와 큰 차이가 있다.

부모의 정기적 현금 지원 규모는 월평균 57.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자녀에서 부모로의 현금 지원 규모로 확인된 42.7만 원보다 15.1만 원이 더 큰 금액이다. 지원 수혜율이 높은 19~24세의 경우 월평균 금액도 가장 높아서 65.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존성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앞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받는 것 역시 수혜자의 부족한 경제적 능력을 보충하는 사적인 생계지원 목적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표 8-5〉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월평균 금액

(단위: %, 만 원, 명)

구분	받지 않음	받음		계	명
		비율	월평균 금액		
전체	84.5	15.5	57.8	100.0	9,434
거주지($\chi^2=49.5^{***}$)					
동부	83.4	16.6	57.3	100.0	7,830
읍면부	90.3	9.7	61.7	100.0	1,603
성($\chi^2=175.1^{***}$)					
남자	78.0	22.0	58.1	100.0	3,448
여자	88.3	11.7	57.4	100.0	5,986
연령($\chi^2=2837.1^{***}$)					
19~24세	38.1	61.9	65.8	100.0	1,318
25~29세	79.3	20.7	51.5	100.0	1,816
30~34세	92.5	7.5	36.5	100.0	1,655
35~39세	96.5	3.5	39.7	100.0	1,531
40~44세	96.6	3.4	44.0	100.0	1,621
45~49세	97.7	2.3	62.8	100.0	1,492
교육수준($\chi^2=500.0^{***}$)					
고졸이하	73.2	26.8	65.1	100.0	3,312
대졸	90.6	9.4	46.3	100.0	5,746
대학원졸	91.3	8.7	46.7	100.0	376
혼인상태($\chi^2=797.3^{***}$)					
미혼	75.9	24.1	57.8	100.0	5,627
기혼	97.3	2.7	57.8	100.0	3,807
취업여부($\chi^2=918.0^{***}$)					
취업	92.9	7.1	39.8	100.0	6,061
비취업	69.4	30.6	65.2	100.0	3,372
가구소득($\chi^2=360.7^{***}$) ¹⁾					
60%미만	70.3	29.7	78.3	100.0	1,771
60~80%미만	90.3	9.7	49.9	100.0	1,278
80~100%미만	90.3	9.7	39.1	100.0	1,172
100~120%미만	88.4	11.6	40.6	100.0	1,215
120~140%미만	86.9	13.1	40.9	100.0	1,053
140~160%미만	86.7	13.3	43.2	100.0	836
160%이상	85.5	14.5	53.3	100.0	2,10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경제적 이전 관계는 정기적인 것보다는 비정기적인 것이 더 일반적이며 주고 받는 지원금액의 규모도 월 15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 비율도 정기적인 것보다는 비정기적인 것이 더 일반적이고 금액의 규모도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경우 비정기적인 지원 수혜 비율이 남성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정기적인 지원 수혜 비율에서 남성이 더 높았던 것과 대조된다.

〈표 8-6〉 부모로부터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월평균(환산)금액
(단위: %, 만 원, 명)

구분	받지않음	받음		계	명
		비율	월평균 금액		
전체	47.9	52.1	14.6	100.0	9,434
거주지($\chi^2=21.1^{***}$)					
동부	46.8	53.2	15.1	100.0	7,830
읍면부	53.1	46.9	11.9	100.0	1,603
성($\chi^2=277.3^{***}$)					
남자	59.2	40.8	17.0	100.0	3,448
여자	41.4	58.6	13.6	100.0	5,986
연령($\chi^2=175.3^{***}$)					
19~24세	34.0	66.0	27.8	100.0	1,318
25~29세	51.3	48.7	13.4	100.0	1,816
30~34세	51.6	48.4	11.4	100.0	1,655
35~39세	46.0	54.0	11.3	100.0	1,531
40~44세	45.1	54.9	11.0	100.0	1,621
45~49세	57.0	43.0	11.4	100.0	1,492
교육수준($\chi^2=12.1^{**}$)					
고졸이하	49.6	50.4	19.7	100.0	3,312
대졸	47.4	52.6	11.8	100.0	5,746
대학원졸	40.8	59.2	14.3	100.0	376
혼인상태($\chi^2=384.2^{***}$)					
미혼	56.2	43.8	16.5	100.0	5,627
기혼	35.6	64.4	12.6	100.0	3,807
취업여부($\chi^2=275.6^{***}$)					
취업	54.3	45.7	11.0	100.0	6,061
비취업	36.5	63.5	19.2	100.0	3,372

구분	받지않음	받음		계	명
		비율	월평균 금액		
가구소득($\chi^2=132.0^{***}$) ¹⁾					
60%미만	50.3	49.7	15.8	100.0	1,771
60~80%미만	57.0	43.0	10.4	100.0	1,278
80~100%미만	53.9	46.1	11.1	100.0	1,172
100~120%미만	47.8	52.2	14.4	100.0	1,215
120~140%미만	47.3	52.7	14.4	100.0	1,053
140~160%미만	42.3	57.7	15.1	100.0	836
160%이상	39.6	60.4	17.0	100.0	2,108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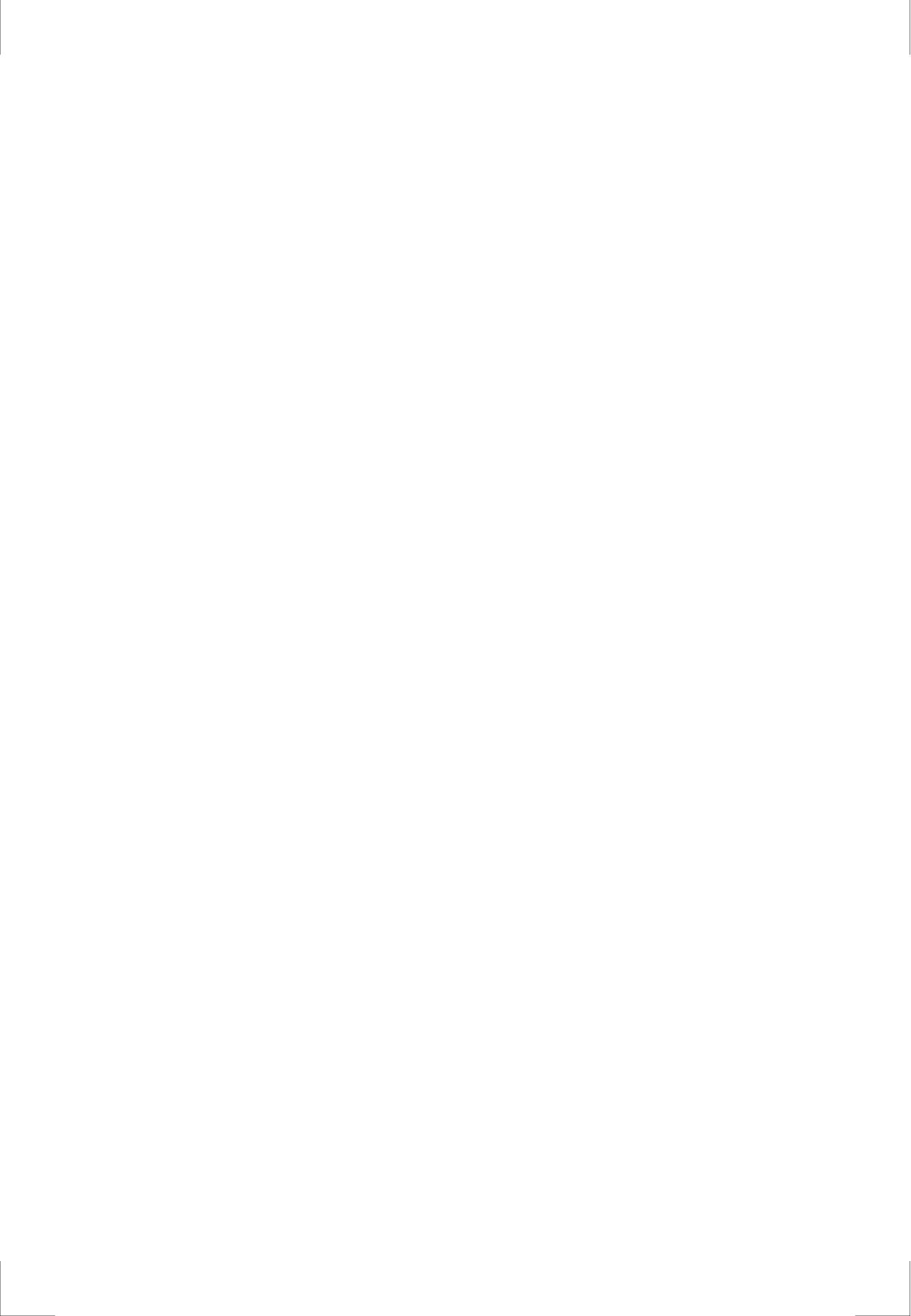


제9장

독립과 지역 이동

제1절 독립의 특성

제2절 지역 이동



제 9 장 독립과 지역 이동

제1절 독립의 특성

1. 독립 과정

본 장에서는 지역 이동과 독립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는 가족 형성과 자녀 출산 양육 시기 이전 청년기와 성장기 시절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주요 생애 사건 전후 지역 이동이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 이동과 독립은 특히 가족 형성, 자녀 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애 주기 사건과 요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청소년기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였다. 15세 무렵 부모와 동거 여부에서 양친과 동거한 경우가 93.9%이고, 한 부모와 동거한 경우는 5.2%였다. 대체로 다른 특성 변수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었고, 다만 고졸 이하 학력 집단과 가구소득 하위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동거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19-49세 모든 개인 응답자(부모나 보호자가 없었다고 응답한 사례 제외)를 대상으로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부모와의 분거 경험(이하 독립 경험)과 처음 분거한 연령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부모와의 분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73.7%이며, 해당 시기의 평균 연령은 24.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7) 해당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전 2명, 가중치 적용 후 1명임.

독립 경험은 여러 공변량별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동부 거주자에 비하여 읍면부 거주자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자에 비하여 기혼자가, 비취업자에 비하여 취업자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독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에 따른 독립 경험의 차이는 대학교, 대학원 등의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은 거주지와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불가피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한 이유에 대한 분포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학교와 직장이 멀기 때문에 독립한 비율이 각각 30.7%, 23.5%로 다른 범주에 비하여 높은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연령이 낮을수록 분거 연령도 낮게 나타난 점이다. 40대 후반 연령 집단의 평균 분거 연령이 25.89세로 나타난 반면, 20대 초반 연령 집단의 평균 분거 연령은 19.46세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집단 내 평균으로, 당연히 젊은 연령층의 평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고연령층 집단의 평균이 높은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남자의 평균 분거 연령은 24.65세로 나타났고, 여자의 평균 분거 연령은 24.01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추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상적으로 성별에 따른 분거 연령의 차이는 의미 있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1〉 만 15세 무렵 부모와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분	양친과 동거	한 부모와 동거	비동거	계	명
전체	93.9	5.2	0.9	100.0	14,372
거주지($x^2=3.2$)					
동부	93.9	5.3	0.8	100.0	11,869
읍면부	93.9	4.9	1.1	100.0	2,503
성($x^2=3.3$)					
남자	93.9	5.1	1.0	100.0	7,445
여자	93.9	5.4	0.7	100.0	6,927
연령($x^2=26.1^{**}$)					
19~24세	92.6	6.5	0.9	100.0	2,542
25~29세	92.9	6.3	0.7	100.0	2,257
30~34세	93.8	5.5	0.8	100.0	2,065
35~39세	94.6	4.5	0.9	100.0	2,357
40~44세	94.5	4.7	0.8	100.0	2,679
45~49세	94.8	4.1	1.1	100.0	2,472
교육수준($x^2=178.0^{***}$)					
고졸이하	90.5	8.1	1.4	100.0	5,418
대졸	95.9	3.6	0.5	100.0	8,365
대학원졸	97.1	2.3	0.6	100.0	589
혼인상태($x^2=44.3^{***}$)					
미혼	92.7	6.4	0.9	100.0	7,497
기혼	95.2	3.9	0.8	100.0	6,875
취업여부($x^2=3.4$)					
취업	94.1	5.0	0.9	100.0	9,881
비취업	93.5	5.7	0.8	100.0	4,491
가구소득($x^2=191.2^{***}$) ¹⁾					
60%미만	90.3	7.3	2.4	100.0	1,990
60~80%미만	90.5	8.5	1.1	100.0	1,571
80~100%미만	93.0	6.2	0.8	100.0	1,758
100~120%미만	93.1	6.5	0.4	100.0	1,963
120~140%미만	95.4	4.0	0.5	100.0	1,837
140~160%미만	95.0	4.5	0.5	100.0	1,509
160%이상	96.9	2.6	0.5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9-2〉 만 18세 이후 6개월 이상 부모와의 분거 경험과 처음 분거한 연령

(단위: %, 세,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비율	평균 연령			
전체	73.7	24.34	26.3	100.0	14,371
거주지($\chi^2=123.1^{***}$)					
동부	71.8	24.52	28.2	100.0	11,868
읍면부	82.6	23.57	17.4	100.0	2,503
성($\chi^2=23.1^{***}$)					
남자	72.0	24.65	28.0	100.0	7,445
여자	75.5	24.01	24.5	100.0	6,926
연령($\chi^2=4,580.7^{***}$)					
19~24세	28.2	19.46	71.8	100.0	2,541
25~29세	56.5	21.31	43.5	100.0	2,257
30~34세	77.5	23.39	22.5	100.0	2,065
35~39세	89.3	25.04	10.7	100.0	2,357
40~44세	94.0	25.81	6.0	100.0	2,679
45~49세	96.1	25.89	3.9	100.0	2,472
교육수준($\chi^2=800.5^{***}$)					
고졸이하	60.8	23.62	39.2	100.0	5,417
대졸	80.6	24.65	19.4	100.0	8,365
대학원졸	94.1	24.69	5.9	100.0	589
혼인상태($\chi^2=4226.4^{***}$)					
미혼	50.8	22.58	49.2	100.0	7,496
기혼	98.6	25.32	1.4	100.0	6,875
취업여부($\chi^2=675.3^{***}$)					
취업	80.1	24.49	19.9	100.0	9,880
비취업	59.5	23.87	40.5	100.0	4,491
가구소득($\chi^2=347.6^{***}$) ¹⁾					
60%미만	83.9	22.61	16.1	100.0	1,989
60~80%미만	83.6	24.41	16.4	100.0	1,571
80~100%미만	77.0	25.10	23.0	100.0	1,758
100~120%미만	71.7	25.14	28.3	100.0	1,963
120~140%미만	73.6	24.52	26.4	100.0	1,837
140~160%미만	69.3	24.91	30.7	100.0	1,509
160%이상	65.4	24.24	34.6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 연령은 응답자의 생년월 정보와 만 18세 이후 부모와의 분거 경험 연령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

4)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제외

5)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학교가 멀어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직장이 멀어서, 결혼을 해서, 떨어져 살고 싶어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기타로 구분하여 19-49세 응답자 중 독립 경험이 있는 이들의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학교, 결혼, 직장 사유가 응답자의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0.7%, 30.5%, 23.5%).

이러한 응답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생애 주된 사건 중 하나인 상급학교 진학, 입직, 결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상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세 범주와 관련하여, 학교가 멀어서 독립한 경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동부보다는 읍면부 거주자의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직장이 멀어서 독립한 경우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해당 범주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부 거주자보다는 읍면동 거주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해서 독립한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크게 높았고, 가구소득과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9-3〉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교가 멀어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직장이 멀어서	결혼을 해서	떨어져 살고 싶어서	집안 사정이 있어서	기타	계	명
전체	30.7	1.2	23.5	30.5	6.2	3.0	4.8	100.0	10,591
거주지($\chi^2=75.4^{***}$)									
동부	29.7	1.3	22.7	31.1	6.7	3.4	5.1	100.0	8,525
읍면부	35.0	1.0	26.8	27.8	4.4	1.7	3.4	100.0	2,066
성($\chi^2=349.0^{***}$)									
남자	32.9	1.5	27.4	22.9	7.5	3.5	4.2	100.0	5,360
여자	28.5	0.9	19.4	38.3	4.9	2.5	5.4	100.0	5,231
연령($\chi^2=1650.0^{***}$)									
19~24세	69.0	1.8	10.9	0.9	8.1	5.2	4.1	100.0	717
25~29세	47.9	1.2	28.1	5.6	9.6	4.0	3.6	100.0	1,274
30~34세	35.1	1.7	26.0	20.7	9.2	1.9	5.3	100.0	1,601
35~39세	28.2	1.5	24.2	34.2	4.8	2.3	4.9	100.0	2,106
40~44세	21.5	0.8	24.9	39.7	3.9	3.7	5.5	100.0	2,519
45~49세	19.1	1.0	21.0	46.4	5.6	2.5	4.4	100.0	2,375
교육수준($\chi^2=602.3^{***}$)									
고졸이하	17.2	1.4	30.9	29.5	8.7	5.4	6.8	100.0	3,292
대졸	36.0	1.1	20.5	31.1	5.3	2.0	3.9	100.0	6,745
대학원졸	46.0	1.7	16.2	28.7	3.1	1.0	3.3	100.0	554
혼인상태($\chi^2=3230.2^{***}$)									
미혼	45.8	1.8	30.9	-	13.8	5.9	1.8	100.0	3,810
기혼	22.2	0.9	19.3	47.6	2.0	1.4	6.5	100.0	6,780
취업여부($\chi^2=154.8^{***}$)									
취업	29.8	1.2	26.1	28.7	6.8	3.0	4.4	100.0	7,917
비취업	33.3	1.4	15.9	35.7	4.6	3.3	5.9	100.0	2,674
가구소득($\chi^2=1192.7^{***}$) ¹⁾									
60%미만	41.2	1.8	26.3	7.4	13.6	7.2	2.4	100.0	1,669
60~80%미만	29.8	0.9	31.6	18.5	10.6	5.0	3.5	100.0	1,313
80~100%미만	22.5	1.1	26.6	35.8	6.1	2.4	5.5	100.0	1,354
100~120%미만	24.6	1.2	21.9	38.8	4.4	2.6	6.4	100.0	1,407
120~140%미만	26.1	1.3	23.3	37.9	4.2	2.0	5.1	100.0	1,353
140~160%미만	27.4	1.2	20.7	41.5	2.7	1.0	5.6	100.0	1,046
160%이상	36.0	1.1	17.7	36.0	2.7	1.2	5.2	100.0	2,45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49세 전체 응답자의 부모로부터의 독립 정도를 네 단계의 리커트형 척도 변인으로 구분하여 그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완전히 독립했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54.8%로 가장 높고, 독립하지 않았다는 응답 27.0%, 상당히 독립했다는 응답 10.0%, 약간 독립했다는 응답 8.2%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전체 분포의 경향은 세부 공변량 범주에 따라 약간 상이한 데 가령,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고졸이하의 범주는 완전히 독립했다는 응답과 독립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43.5%, 42.6%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미혼자의 경우 독립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5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여부와 관련하여, 비취업자의 경우에도 완전히 독립했다는 응답 비율 38.0%에 비하여 독립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50.6%)이 더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생애 주된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향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이해되고 있다.

〈표 9-4〉 부모로부터 독립한 정도

(단위: %, 명)

구분	완전히 독립했음	상당히 독립했음	약간 독립했음	독립하지 않음	계	명
전체	54.8	10.0	8.2	27.0	100.0	14,372
거주지($\chi^2=74.8^{***}$)						
동부	53.4	9.9	8.3	28.4	100.0	11,869
읍면부	61.4	10.3	7.9	20.3	100.0	2,503
성($\chi^2=42.0^{***}$)						
남자	52.2	10.5	8.7	28.6	100.0	7,445
여자	57.6	9.4	7.7	25.3	100.0	6,927
연령($\chi^2=7699.1^{***}$)						
19~24세	4.8	4.0	8.2	83.0	100.0	2,542
25~29세	25.5	15.5	16.5	42.5	100.0	2,257
30~34세	51.9	17.3	11.2	19.6	100.0	2,065
35~39세	73.8	10.5	7.3	8.3	100.0	2,357
40~44세	81.5	9.2	4.3	5.0	100.0	2,679
45~49세	88.5	5.2	3.0	3.3	100.0	2,472
교육수준($\chi^2=1126.5^{***}$)						
고졸이하	43.5	6.9	7.0	42.6	100.0	5,418
대졸	60.7	12.0	9.1	18.2	100.0	8,365
대학원졸	74.9	9.5	6.6	9.0	100.0	589
혼인상태($\chi^2=6683.3^{***}$)						
미혼	23.6	12.3	13.0	51.1	100.0	7,497
기혼	88.9	7.5	3.0	0.7	100.0	6,875
취업여부($\chi^2=1850.5^{***}$)						
취업	62.5	12.0	9.3	16.3	100.0	9,881
비취업	38.0	5.5	5.8	50.6	100.0	4,491
가구소득($\chi^2=512.2^{***}$) ¹⁾						
60%미만	41.8	15.4	13.2	29.6	100.0	1,990
60~80%미만	59.1	16.2	8.5	16.2	100.0	1,571
80~100%미만	61.4	9.8	7.1	21.7	100.0	1,758
100~120%미만	59.6	8.6	6.5	25.3	100.0	1,963
120~140%미만	59.7	7.3	7.9	25.1	100.0	1,837
140~160%미만	56.2	8.7	6.2	28.9	100.0	1,509
160%이상	51.5	7.1	7.7	33.7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는 앞서 언급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생애 주된 사건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보로서 유용하다. 이에, 대학 시기, 취업 준비 시기, 직장을 다니는 시기, 결혼을 한 시기, 자녀를 출산한 시기,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약 절반 이상인 53.6%가 직장을 다니는 시기를 독립 시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한 시기를 독립으로 보는 응답이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직과 결혼이 독립과 가장 밀접한 생애 과정 내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응답 비율이 높은 두 범주를 중심으로 세부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장을 다니는 시기는 미혼자와 기혼자의 인식 정도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93.6%, 32.2%),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해당 시기를 독립 시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결혼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직장을 다니는 시기의 결과와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독립 시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하여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완전하게 일관된 경향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한 시기를 독립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9-5〉 부모로부터 독립한 시기

(단위: %, 명)

구분	대학 시기	취업 준비 시기	직장을 다니는 시기	결혼을 한 시기	자녀를 출산한 시기	기타	계	명
전체	1.9	0.6	53.6	41.4	0.8	1.7	100.0	10,491
거주지($\chi^2=12.3^*$)								
동부	1.9	0.7	53.7	41.1	0.8	1.9	100.0	8,497
읍면부	1.8	0.4	53.4	42.8	0.7	0.9	100.0	1,994
성($\chi^2=398.6^{***}$)								
남자	1.8	0.7	62.9	32.2	0.7	1.7	100.0	5,315
여자	1.9	0.6	44.1	50.9	0.9	1.7	100.0	5,176
연령($\chi^2=1715.2^{***}$)								
19~24세	15.9	1.8	74.3	4.7	0.8	2.3	100.0	433
25~29세	2.5	1.1	84.3	10.5	0.1	1.4	100.0	1,297
30~34세	1.4	1.0	65.4	30.1	0.6	1.6	100.0	1,662
35~39세	1.0	0.3	50.3	46.4	0.4	1.6	100.0	2,162
40~44세	1.3	0.3	43.2	52.2	1.3	1.6	100.0	2,546
45~49세	0.7	0.4	39.2	56.6	1.1	2.0	100.0	2,391
교육수준($\chi^2=66.7^{***}$)								
고졸이하	2.3	0.7	54.0	39.3	1.4	2.4	100.0	3,111
대졸	1.5	0.6	54.1	41.8	0.5	1.4	100.0	6,844
대학원졸	3.4	0.4	45.0	48.4	1.3	1.6	100.0	536
혼인상태($\chi^2=4126.3^{***}$)								
미혼	3.3	1.0	93.6	-	0.1	2.0	100.0	3,663
기혼	1.1	0.4	32.2	63.6	1.2	1.5	100.0	6,828
취업여부($\chi^2=332.3^{***}$)								
취업	1.6	0.5	58.2	37.5	0.7	1.5	100.0	8,271
비취업	2.8	1.2	36.7	55.8	1.2	2.3	100.0	2,220
가구소득($\chi^2=1041.7^{***}$) ¹⁾								
60%미만	5.1	1.3	78.4	11.2	0.7	3.4	100.0	1,402
60~80%미만	0.9	0.8	71.4	24.5	0.5	1.9	100.0	1,316
80~100%미만	1.6	0.4	48.7	45.7	1.6	1.9	100.0	1,376
100~120%미만	1.6	0.8	45.3	50.0	0.5	1.7	100.0	1,466
120~140%미만	1.6	0.2	46.6	49.1	0.5	2.0	100.0	1,375
140~160%미만	0.9	0.4	42.1	54.7	0.7	1.2	100.0	1,074
160%이상	1.4	0.5	46.7	49.9	0.9	0.6	100.0	2,484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2. 독립·결혼할 때 주거 비용과 생활비

본 조사는 독립 과정에서 주거 환경을 중요하게 파악하였다. 독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면서도 큰 비용이 소요되며, 따라서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18세 이후 처음으로 분거 할 당시에 마련한 주택의 총 비용 규모를 파악하였다. 무상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천 만원 미만 규모가 24.8%, 1천 만원에서 5천 만원 미만 규모가 17.3% 였다. 1억원 이상인 경우도 16.8%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4,412만원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숙사는 무상으로 분류하였고, 친인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에 대표적으로 무상으로 분류된다. 19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49세 응답자가 빠르게 18세에 독립하였다면 거의 30년 전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18세 이후 처음 분거할 때, 그 집이 신혼집인 경우와 신혼집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신혼집인 경우 주택 마련 비용은 1억원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신혼집이 아닌 경우는 무상이 43.2%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이 35.0%로 다음 순이었다. 따라서 신혼집이 아닌 분거시 주거 상황은 대체로 학교 기숙사이거나 월세 형태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9-6〉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 시 주거 비용

(단위: %, 명, 만 원)

구분	0원	1만원~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31.3	24.8	17.3	9.8	16.8	100.0	10,591	4,412
성($\chi^2=97.3^{***}$)								
남자	33.4	27.2	16.2	8.2	15.0	100.0	5,360	3,942
여자	29.1	22.4	18.5	11.4	18.6	100.0	5,231	4,894
분거연령($\chi^2=4447.4^{***}$)								
18세	54.5	34.2	9.8	0.9	0.6	100.0	2,785	414
19세	52.2	32.8	12.9	1.5	0.7	100.0	1,100	523
20~24세	30.1	32.8	22.5	8.4	6.2	100.0	2,219	2,099
25~29세	14.5	16.6	23.6	18.2	27.1	100.0	2,586	6,808
30세 이상	9.5	8.6	16.1	17.7	48.1	100.0	1,900	11,965
분거이유($\chi^2=5308.9^{***}$)								
학교가 멀어서	53.5	33.9	10.6	1.2	0.7	100.0	3,253	444
직장이 멀어서	37.0	37.2	20.0	3.2	2.7	100.0	2,488	1,093
결혼을 해서	8.3	4.2	20.7	23.9	43.0	100.0	3,229	10,573
떨어져 살고 싶어서	13.4	40.3	21.6	9.3	15.3	100.0	661	4,527
기타	31.0	20.9	18.7	9.0	20.5	100.0	961	5,660
신혼집 여부($\chi^2=4973.5^{***}$)								
신혼집	8.4	5.2	20.8	23.1	42.5	100.0	3,618	10,420
비신혼집	43.2	35.0	15.5	2.9	3.4	100.0	6,973	1,294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거 비용은 주택 구입 비용과 임차 시 보증금만 포함되며 월세는 포함하지 않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18세 이후 처음 분거 시 주거마련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였는지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마련한 비율은 35.8%였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부담한 비율은 54.2%, 금융기관 대출이 9.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족이 부담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거 시 연령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분거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의 부담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 된다.

신혼집 여부에 따른 차이도 의미 있게 나타났다. 신혼집일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50.6% 수준으로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가족이 부담한 비율은 31.8% 수준이며, 금융기관 대출 비율은 17.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혼집이 아닌 경우는 가족 부담 비율이 73% 까지 높아진다. 신혼집이 아니라는 것은 주로 결혼 전 청년기에 독립하는 형태로, 이 때의 주거비는 가족의 도움이 매우 큰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총 주거비용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총 규모가 작을 경우 가족 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1억원 이상의 큰 규모일 때는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분거 시기가 결혼전 청년기이면, 총 주거비가 많지 않은 월세 형태로 독립하는 것으로 짐작되며, 이 때의 주거비용의 상당부분을 가족이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첫 주거 독립이 신혼집이거나 1억원 이상의 큰 규모일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7〉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 시 주거비 부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	금융기관 대출	기타	명
전체	35.8	54.2	9.8	0.1	7,276
성					
남자	34.6	56.1	9.1	0.1	3,568
여자	36.9	52.4	10.5	0.1	3,708
분거연령					
18세	6.0	93.3	0.6	0.1	2,785
19세	8.6	90.4	0.8	0.3	1,100
20~24세	31.6	62.2	6.0	0.2	2,219
25~29세	44.9	41.3	13.6	0.2	2,586
30세 이상	58.3	23.8	17.9	0.0	1,900
분거이유					
학교가 멀어서	2.6	96.9	0.4	0.0	3,253
직장이 멀어서	29.9	66.0	3.8	0.2	2,488
결혼을 해서	50.7	32.0	17.3	0.1	3,229
떨어져 살고 싶어서	54.2	35.8	10.0	-	661
기타	43.1	44.2	12.0	0.7	961
신혼집 여부					
신혼집	50.6	31.8	17.5	0.1	3,618
비신혼집	23.4	73.0	3.4	0.1	6,973
주거 비용					
1천만원 미만	26.3	73.2	0.3	0.1	2,631
1천만원~5천만원 미만	40.1	55.9	3.9	0.1	1,833
5천만원~1억원 미만	48.7	37.8	13.2	0.3	1,035
1억원 이상	37.9	34.0	28.1	0.1	1,776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거비 부담 비율은 주거비용(주택 구입 비용과 임차 시 보증금만 포함되며 월세는 포함하지 않음)이 0원인 경우는 제외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18세 이후 처음 분거 시에 주거비 이외의 생활비를 주로 누가 부담하는지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족의 지원 비율이 34.1%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분거 시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의 지원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분거 연령이 18세인 경우 가족의 부담 비율은 81.9% 수준으로 높았고, 25세가 넘어가면 생활비에서 가족의 부담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결혼 이후거나 직장생활하는 경우 생활비의 가족 지원 비율은 5% 미만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전이나 학교 생활 중에는 가족 지원 비율이 70~90% 수준까지 높게 나타났다.

〈표 9-8〉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와 분거 시 생활비 부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	기타	명
전체	65.7	34.1	0.1	10,591
성				
남자	63.4	36.5	0.1	5,360
여자	68.2	31.7	0.2	5,231
분거연령				
18세	18.0	81.9	0.1	2,785
19세	27.9	72.0	0.1	1,100
20~24세	80.9	18.9	0.2	2,219
25~29세	96.1	3.8	0.1	2,586
30세 이상	98.5	1.4	0.1	1,900
분거이유				
학교가 멀어서	3.6	96.3	0.0	3,253
직장이 멀어서	97.3	2.6	0.1	2,488
결혼을 해서	98.8	1.2	0.0	3,229
떨어져 살고 싶어서	85.6	14.3	0.1	661
기타	69.7	29.4	0.9	961
신혼집 여부				
신혼집	98.4	1.6	0.0	3,618
비신혼집	48.8	51.0	0.2	6,973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생활비에는 월세가 포함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신혼집의 경우, 주택 마련 비용 평균액은 약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0여년 간 신혼집 마련에 소요된 평균 금액은 약 1억 원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결혼 연도와 연결하여 분석해보면 지난 30년간 신혼집 마련에 소요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 신혼집 마련 비용은 5천 만원 수준이었다면, 2021년 이후 신혼집 마련 비용은 평균 1억 7천 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신혼집 주거 비용

(단위: %, 명, 만 원)

구분	무상	1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8.4	26.3	22.0	24.6	18.7	100.0	6,780	10,846
성($\chi^2=23.6^{***}$)								
남자	7.6	24.5	21.4	26.3	20.2	100.0	3,030	11,501
여자	8.9	27.8	22.5	23.2	17.6	100.0	3,751	10,316
초혼연령($\chi^2=744.1^{***}$)								
25세 미만	15.9	49.7	19.2	10.8	4.4	100.0	923	4,605
25~27세	7.8	29.8	26.5	23.7	12.1	100.0	1,563	8,869
28~29세	7.6	21.1	24.0	29.1	18.2	100.0	1,311	11,192
30~32세	6.3	19.4	22.6	27.6	24.1	100.0	1,541	12,772
33~34세	6.3	15.6	17.2	29.1	31.7	100.0	641	15,265
35세 이상	7.5	22.7	15.8	25.6	28.4	100.0	796	14,143
초혼년도($\chi^2=1200.4^{***}$)								
1991~2005년	10.6	47.3	27.7	10.7	3.6	100.0	1,253	5,099
2006~2010년	7.3	29.5	31.0	25.2	7.0	100.0	1,340	7,708
2011~2015년	8.8	20.7	23.6	29.3	17.5	100.0	1,799	10,729
2016~2020년	7.7	16.7	13.7	30.7	31.2	100.0	1,584	14,894
2021~2024년	7.0	19.3	10.8	22.8	40.0	100.0	800	17,381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거 비용은 주택 구입 비용과 입차 시 보증금만 포함되며 월세는 포함하지 않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신혼집 마련을 위한 비용의 분담 상황을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한 비율은 51.3% 수준이었고, 가족의 지원 비율은 30.5%, 금융기관 대출 비율은 18.1%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점이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 지원 비율이 감소하고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0〉 신혼집 주거비 분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	금융기관 대출	기타	명
전체	51.3	30.5	18.1	0.1	6,214
성					
남자	49.3	31.0	19.6	0.1	2,798
여자	53.0	30.1	16.8	0.1	3,416
초혼연령					
25세 미만	51.3	38.3	10.3	0.1	776
25~27세	47.6	35.8	16.6	0.1	1,441
28~29세	48.3	31.6	19.9	0.3	1,211
30~32세	51.8	28.4	19.7	0.1	1,444
33~34세	51.9	24.7	23.4	-	601
35세 이상	62.2	19.0	18.8	-	737
초혼년도					
~2005년	53.4	37.4	9.1	0.1	1,120
2006~2010년	53.9	32.9	13.1	0.1	1,242
2011~2015년	52.3	30.4	17.2	0.1	1,640
2016~2020년	48.2	26.8	24.9	0.1	1,462
2021~2024년	47.8	23.6	28.5	0.2	745
신혼집 비용					
5천만원 미만	68.6	26.4	4.9	0.1	1,783
5천만원~1억원 미만	55.2	31.1	13.6	0.1	1,493
1억원~2억원 미만	41.9	32.2	25.9	0.1	1,668
2억원 이상	35.1	33.3	31.5	0.1	1,27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거비 분담 비율은 주거비용(주택 구입 비용과 임차 시 보증금만 포함되며 월세는 포함하지 않음)이 0원인 경우는 제외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지역 이동

본 절에서는 주요 생애주기의 지역 이동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다. 분석 대상은 19-49세 개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다. 생애주기 사건은 고등학교 입학 시기, 대학(교) 입학 시기, 졸업 후 첫 번째 취업 준비 시기, 첫 번째 취업(주된 일자리) 시기, 첫 번째 분거 시기, 첫 결혼 시기, 첫 출산 시기의 총 7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주요 생애주기 사건에 따라서 동일 시군구를 벗어난 비율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분거 시기가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첫 번째 분거시기가 다른 사건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동일 시군구를 벗어나는 지역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사건은 첫 결혼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 시군구를 벗어나는 이동 비율이 높은 사건은 대학(교) 입학 시기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동일 시군구를 벗어나는 지역 이동 사건은 대체로 결혼과 대학(교) 입학으로 볼 수 있다.

〈표 9-11〉 주요 생애주기 사건의 지역 이동

(단위: %, 명)

구 분	동일 시군구	동일 시군구 외	계	명
1) 고등학교 입학 시기	96.0	4.0	100.0	13,683
2) 대학(교) 입학 시기	68.8	31.2	100.0	11,109
3) 첫 번째 취업 준비 시기	84.3	15.7	100.0	2,088
4) 첫 번째 취업 시기	72.7	27.3	100.0	12,750
5) 첫 번째 분거 시기	23.9	76.1	100.0	10,591
6) 첫 결혼 시기	48.8	51.2	100.0	6,875
7) 첫 출산 시기	94.8	5.2	100.0	5,554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수는 주요 생애주기별로 해당 시기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첫 결혼 시기는 결혼한 사람)만 해당되며, 시기가 겹치는 경우(예를 들어, 대학 입학 시기가 첫 분거 시기와 동일한 경우)는 두 시기에 각각 포함되어 있음.

3) 해당 시기 직전과 직후의 거주 시군구 코드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시군구이며 시군구 코드가 다르거나 해외(직전과 직후 둘 중 하나 이상)인 경우 동일 시군구 외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주요 생애주기 사건 중에서 대학(교) 입학시기 전후의 거주지역이 동일 시도 내인 경우가 시도 간 이동에 비하여 크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교) 입학 전후의 거주지가 동일시도 내 동일 시군구인 경우가 68.8%였다. 여기에는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이동한 경우와 이동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동일 시도 내 다른 시군구 이동의 비율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 간 이동의 비율은 전체 해당 응답자의 22.5%이며, 이 중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5.8%로, 반대의 경우에 비하여 다소 높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 시도 이동 범주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대학(교) 입학시기의 타시도 이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낮은 소득계층의 타 시도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생애주기 사건 중 첫 번째 취업 시기의 지역 이동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는 앞서 살펴본 대학(교) 입학 시기의 지역 이동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타 시도 이동 중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범주의 비율이 다소 높고, 그 반대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범주 비율이 다소 낮은 차이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범주의 경우 현재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자에 비하여 취업자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9-12〉 대학(교) 입학 시기의 지역 이동

(단위: %, 명)

구분	동일 시도		타 시도				기타(해외)	계	명
	동일 시군구	다른 시군구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권→수도권	권→비수도권			
전체	68.8	7.6	3.3	4.2	5.8	9.2	1.1	100.0	11,109
거주지($\chi^2=226.4^{***}$)									
동부	70.9	6.6	3.3	4.2	5.9	7.9	1.2	100.0	9,327
읍면부	57.6	12.6	3.0	4.1	5.4	16.3	1.0	100.0	1,782
성($\chi^2=36.4^{***}$)									
남자	67.2	8.1	3.2	4.8	6.3	9.6	0.8	100.0	5,747
여자	70.5	7.1	3.4	3.6	5.2	8.8	1.5	100.0	5,363
연령($\chi^2=164.3^{***}$)									
19~24세	72.5	8.0	2.8	3.5	4.5	8.4	0.2	100.0	2,083
25~29세	64.7	8.2	4.3	6.3	4.3	11.3	0.9	100.0	1,826
30~34세	65.4	7.3	3.4	4.9	6.6	10.2	2.2	100.0	1,695
35~39세	67.9	7.6	2.3	3.2	8.2	8.9	1.9	100.0	1,948
40~44세	71.2	7.9	3.2	4.0	5.6	7.4	0.8	100.0	2,011
45~49세	70.2	6.2	3.9	3.5	5.8	9.6	0.9	100.0	1,545
교육수준($\chi^2=93.0^{***}$)									
고졸이하	71.9	8.0	2.7	3.5	4.5	9.1	0.4	100.0	2,155
대졸	68.7	7.4	3.5	4.3	5.7	9.3	1.2	100.0	8,365
대학원졸	58.2	9.0	2.9	5.8	11.8	9.4	2.9	100.0	589
혼인상태($\chi^2=34.6^{***}$)									
미혼	68.4	7.7	3.6	4.6	5.7	9.3	0.7	100.0	6,028
기혼	69.2	7.4	2.9	3.7	5.9	9.2	1.7	100.0	5,081
취업여부($\chi^2=27.9^{***}$)									
취업	67.4	7.7	3.5	4.6	6.2	9.6	1.1	100.0	7,591
비취업	71.7	7.4	2.9	3.4	4.9	8.4	1.2	100.0	3,518
가구소득($\chi^2=461.2^{***}$) ¹⁾									
60%미만	48.8	11.9	4.5	7.7	9.8	16.6	0.8	100.0	1,450
60~80%미만	62.6	9.6	3.4	4.5	5.9	11.9	2.1	100.0	1,124
80~100%미만	73.1	8.0	1.6	3.9	3.7	8.3	1.3	100.0	1,248
100~120%미만	73.9	7.3	2.4	3.4	3.8	8.2	1.0	100.0	1,424
120~140%미만	73.7	6.9	3.3	2.5	6.1	6.7	0.9	100.0	1,389
140~160%미만	76.0	4.9	3.0	3.3	3.7	8.4	0.8	100.0	1,235
160%이상	71.1	6.3	3.8	4.1	6.3	7.3	1.2	100.0	3,24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이며 기타(해외)는 국내→해외, 해외→국내, 해외→해외임.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표 9-13〉 첫 번째 취업(주된 일자리) 시기의 지역 이동

(단위: %, 명)

구분	동일 시도		타 시도				기타 (해외)	계	명
	동일 시군구	다른 시군구	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전체	72.7	2.8	5.5	1.8	7.4	8.5	1.2	100.0	12,750
거주지($\chi^2=183.0^{***}$)									
동부	74.3	2.7	5.9	1.5	7.3	7.2	1.1	100.0	10,497
읍면부	65.4	3.4	3.9	3.3	7.9	14.3	1.8	100.0	2,253
성($\chi^2=88.0^{***}$)									
남자	70.6	3.1	5.8	2.5	7.6	9.6	0.8	100.0	6,560
여자	74.9	2.4	5.2	1.2	7.2	7.3	1.7	100.0	6,189
연령($\chi^2=208.8^{***}$)									
19~24세	85.0	2.4	2.6	0.9	3.6	5.0	0.4	100.0	1,221
25~29세	72.6	3.9	4.9	2.4	6.7	8.9	0.6	100.0	2,066
30~34세	71.3	3.1	6.6	2.3	6.2	8.9	1.5	100.0	2,034
35~39세	69.1	3.2	6.3	2.4	8.5	8.2	2.3	100.0	2,340
40~44세	70.4	2.5	6.4	1.4	9.0	9.3	1.0	100.0	2,645
45~49세	73.7	1.8	4.9	1.4	8.2	8.9	1.1	100.0	2,443
교육수준($\chi^2=138.4^{***}$)									
고졸이하	75.7	0.9	4.9	1.1	6.7	9.2	1.5	100.0	4,085
대졸	71.5	3.6	5.7	2.1	7.7	8.2	1.1	100.0	8,085
대학원졸	67.8	5.4	7.2	3.1	7.9	6.6	2.1	100.0	579
혼인상태($\chi^2=90.0^{***}$)									
미혼	74.4	3.2	5.8	2.0	6.4	7.6	0.5	100.0	5,965
기혼	71.2	2.4	5.2	1.7	8.3	9.2	1.9	100.0	6,785
취업여부($\chi^2=51.5^{***}$)									
취업	71.6	3.0	5.8	2.0	7.5	9.0	1.1	100.0	9,881
비취업	76.6	2.3	4.5	1.3	6.9	6.6	1.8	100.0	2,869
가구소득($\chi^2=203.1^{***}$) ¹⁾									
60%미만	63.9	3.9	7.3	2.5	10.5	11.1	0.7	100.0	1,661
60~80%미만	67.7	3.4	6.1	2.3	8.7	9.9	1.8	100.0	1,470
80~100%미만	71.8	3.0	4.7	1.4	8.2	8.8	2.0	100.0	1,619
100~120%미만	75.2	2.0	3.5	1.6	7.6	8.6	1.5	100.0	1,748
120~140%미만	73.3	2.4	6.6	1.6	6.4	8.0	1.8	100.0	1,616
140~160%미만	77.6	1.6	5.3	1.1	6.4	7.1	0.9	100.0	1,323
160%이상	76.3	3.0	5.4	2.0	5.6	7.1	0.7	100.0	3,313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이며 기타(해외)는 국내→해외, 해외→국내, 해외→해외임.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생애주기 사건 중 첫 결혼 시기의 지역 이동을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동일 시도 내 이동의 비율은 54.8%였고, 타 시도 간 이동은 43.6%였다. 대체로 가구소득이나 취업 여부, 거주지 등의 범주에서는 두드러지는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첫 결혼 시기에 지역을 이동 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시도 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동일시도 내 이동 비율이 63.6%(비이동 포함), 타 시도 간 이동이 36.0%인 반면, 여자는 동일시도 내 이동 비율이 47.5%(비이동 포함), 타 시도 간 이동이 4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첫 결혼 시기의 지역 이동에서 연령 집단 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즉 낮은 연령 집단의 경우 동일 시도 내 이동(비이동 포함) 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연령 집단의 경우 동일 시도 내 이동(비이동 포함)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고연령 집단의 경우는 결혼 시기에 타시도로 이동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현재의 낮은 학력 집단은 첫 결혼 시기에 동일 시도 내의 동일 시군구인 경우(비이동 포함)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고졸이하 집단의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인 경우(비이동 포함) 비율이 53.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원 졸업 집단은 38.9%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대학원 졸업 집단은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비율(비이동 포함)이 가장 낮지만, 반면 타 시도 간 이동의 수도권 내 이동 비율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고학력 집단의 경우 첫 결혼으로 인한 이동에서, 동일 시도 또는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9-14〉 첫 결혼 시기의 지역 이동

(단위: %, 명)

구분	동일 시도		타 시도				기타 (해외)	계	명
	동일 시군구	다른 시군구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	비수도			
			→ 수도권	→ 비수도권	권→수 도권	권→비 수도권			
전체	48.8	6.0	21.6	3.1	3.4	15.5	1.6	100.0	6,875
거주지($\chi^2=222.7^{***}$)									
동부	47.4	6.4	24.6	2.5	3.7	14.3	1.2	100.0	5,472
읍면부	54.2	4.3	10.0	5.5	2.3	20.5	3.2	100.0	1,403
성($\chi^2=236.0^{***}$)									
남자	57.0	6.6	19.4	1.8	1.9	12.9	0.4	100.0	3,086
여자	42.1	5.4	23.3	4.1	4.6	17.7	2.6	100.0	3,789
연령									
19~24세	76.2	1.9	4.7	-	-	5.6	11.6	100.0	29
25~29세	53.3	5.5	16.0	4.7	1.3	14.7	4.4	100.0	223
30~34세	51.6	6.3	16.4	3.8	1.9	17.0	2.9	100.0	789
35~39세	47.5	7.7	23.9	2.6	2.5	13.5	2.3	100.0	1,590
40~44세	48.6	5.8	22.1	3.1	3.7	15.6	1.0	100.0	2,158
45~49세	48.1	4.8	22.0	3.0	4.5	16.8	0.9	100.0	2,086
교육수준($\chi^2=257.0^{***}$)									
고졸이하	53.8	0.7	19.4	3.2	3.3	15.7	3.8	100.0	2,014
대졸	47.5	7.8	22.0	3.0	3.2	15.7	0.7	100.0	4,451
대학원졸	38.9	11.1	27.6	2.8	5.3	13.1	1.1	100.0	410
취업여부($\chi^2=115.2^{***}$)									
취업	51.7	6.3	20.3	2.5	2.9	15.0	1.3	100.0	5,168
비취업	40.1	4.8	25.3	4.9	4.9	17.2	2.7	100.0	1,708
가구소득($\chi^2=159.4^{***1}$)									
60%미만	52.5	2.6	20.1	4.4	3.9	11.4	5.2	100.0	246
60~80%미만	47.0	3.0	18.5	3.5	4.4	20.0	3.6	100.0	484
80~100%미만	51.9	3.8	20.1	3.0	3.4	14.7	3.1	100.0	959
100~120%미만	49.5	4.7	19.4	3.4	2.9	18.4	1.7	100.0	1,145
120~140%미만	48.7	6.5	21.6	3.3	2.5	15.9	1.5	100.0	1,097
140~160%미만	49.6	5.7	23.3	2.4	4.2	14.3	0.5	100.0	918
160%이상	46.6	8.6	23.7	2.9	3.5	14.1	0.6	100.0	2,026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이며 기타(해외)는 국내→해외, 해외→국내, 해외→해외임.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사례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6)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0장

가치와 인식

제1절 행복

제2절 가족 가치

제3절 성 역할 가치

제4절 사회적 가치



제 10 장 가치와 인식

이 장에서는 가치와 인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가치와 인식 영역은 행복, 가족가치, 성역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치관 또는 인식의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장에서 다루는 가치와 인식의 각 문항은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행동의 선택과 상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문항에 포함하였고, 추후 관련되는 심층 분석을 통하여 이 연관관계는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여기서는 기술통계 중심으로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장의 전체 분석 대상은 19~49세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하였다.

제1절 행복

응답자 개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현재 행복도와 5년 후의 행복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부터 '매우 행복하다'의 4점 척도로 하였으며 여기서는 크게 '행복하다'와 '행복하지 않다'로 양분하여 분포를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5년 후에도 행복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 중에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집단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행복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도 점차 높게 나타나 가구 소득과 행복도의 밀접한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표 10-1〉 현재의 행복과 5년 후의 본인 행복도 인식

(단위: %, 명)

구분	현재의 행복		5년 후의 행복		계	명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전체	11.1	88.9	6.1	93.9	100.0	14,372
거주지	$(\chi^2=1.7)$		$(\chi^2=3.9^*)$			
동부	11.3	88.7	6.2	93.8	100.0	11,869
읍면부	10.4	89.6	5.2	94.8	100.0	2,503
성	$(\chi^2=9.6^{**})$		$(\chi^2=6.3^*)$			
남자	11.9	88.1	6.5	93.5	100.0	7,445
여자	10.3	89.7	5.5	94.5	100.0	6,927
연령	$(\chi^2=47.1^{***})$		$(\chi^2=28.7^{***})$			
19~24세	11.7	88.3	6.6	93.4	100.0	2,542
25~29세	14.7	85.3	7.3	92.7	100.0	2,257
30~34세	10.6	89.4	4.5	95.5	100.0	2,065
35~39세	9.5	90.5	4.6	95.4	100.0	2,357
40~44세	9.2	90.8	6.3	93.7	100.0	2,679
45~49세	11.1	88.9	6.9	93.1	100.0	2,472
교육수준	$(\chi^2=97.8^{***})$		$(\chi^2=74.6^{***})$			
고졸이하	14.3	85.7	8.2	91.8	100.0	5,418
대졸	9.4	90.6	4.8	95.2	100.0	8,365
대학원졸	5.9	94.1	3.6	96.4	100.0	589
혼인상태	$(\chi^2=403.9^{***})$		$(\chi^2=190.7^{***})$			
미혼	16.1	83.9	8.7	91.3	100.0	7,497
기혼	5.6	94.4	3.2	96.8	100.0	6,875
취업여부	$(\chi^2=60.3^{***})$		$(\chi^2=48.3^{***})$			
취업	9.7	90.3	5.1	94.9	100.0	9,881
비취업	14.1	85.9	8.1	91.9	100.0	4,491
가구소득 ¹⁾	$(\chi^2=367.1^{***})$		$(\chi^2=221.2^{***})$			
60%미만	21.8	78.2	12.5	87.5	100.0	1,990
60~80%미만	15.5	84.5	8.4	91.6	100.0	1,571
80~100%미만	10.3	89.7	5.6	94.4	100.0	1,758
100~120%미만	10.2	89.8	5.3	94.7	100.0	1,963
120~140%미만	9.4	90.6	4.9	95.1	100.0	1,837
140~160%미만	7.9	92.1	4.6	95.4	100.0	1,509
160%이상	6.5	93.5	3.4	96.6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가족 가치

가족 가치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결혼 필요성은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하는 문항으로 시계열적 추세를 중요하게 관찰하는 문항이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0.5%로 나타났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 태도가 41.2%였고,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정적 응답이 6.3%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긍정적 태도는 남자가 58.9%인 반면 여자가 41.4%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17.5%p나 낮았다.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에서 19~24세까지 가장 낮은 연령 집단의 긍정적 응답은 4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집단보다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이전 연령층에 비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이하 집단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46.8%인 반면, 대학원 졸업 집단의 경우 결혼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0.3%였다. 그리고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고, 비취업자보다 취업자가 결혼에 더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에서 소득 계층이 높은 집단이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가구 소득 60%미만 집단의 긍정적 답변 비율은 40.5%인 반면, 가구 소득 160%이상 집단의 긍정적 답변 비율은 55.6%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이 가장 높은 집단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2〉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 겠다	계	명
전체(2021)	8.4	37.6	46.4	5.5	2.0	100.0	14,149
전체(2024)	10.9	39.6	41.2	6.3	2.0	100.0	14,372
거주지 ($\chi^2=8.7$)							
동부	10.9	39.2	41.5	6.2	2.1	100.0	11,869
읍면부	11.0	41.4	39.7	6.4	1.5	100.0	2,503
성 ($\chi^2=521.4^{***}$)							
남자	14.3	44.6	34.4	4.5	2.2	100.0	7,445
여자	7.2	34.2	48.5	8.2	1.9	100.0	6,927
연령 ($\chi^2=291.0^{***}$)							
19~24세	6.8	36.6	45.1	6.5	5.0	100.0	2,542
25~29세	9.0	36.7	44.5	6.9	2.9	100.0	2,257
30~34세	10.2	41.9	39.9	6.6	1.4	100.0	2,065
35~39세	13.0	41.9	38.6	5.9	0.7	100.0	2,357
40~44세	13.1	40.2	39.3	6.3	1.1	100.0	2,679
45~49세	13.1	40.6	39.9	5.4	1.0	100.0	2,472
교육수준 ($\chi^2=121.4^{***}$)							
고졸이하	9.7	37.1	42.7	7.5	3.0	100.0	5,418
대졸	11.2	41.0	40.7	5.6	1.5	100.0	8,365
대학원졸	17.5	42.8	34.5	4.4	0.8	100.0	589
혼인상태 ($\chi^2=920.8^{***}$)							
미혼	6.2	33.6	48.3	8.3	3.5	100.0	7,497
기혼	16.0	46.1	33.5	4.0	0.4	100.0	6,875
취업여부 ($\chi^2=205.3^{***}$)							
취업	12.5	41.1	39.1	6.0	1.3	100.0	9,881
비취업	7.3	36.3	45.9	6.9	3.5	100.0	4,491
가구소득 ¹⁾ ($\chi^2=203.4^{***}$)							
60%미만	7.5	33.0	46.1	9.9	3.4	100.0	1,990
60~80%미만	9.9	36.2	44.0	7.6	2.3	100.0	1,571
80~100%미만	10.9	39.7	40.0	7.6	1.8	100.0	1,758
100~120%미만	11.0	40.3	41.7	5.3	1.7	100.0	1,963
120~140%미만	11.1	39.6	41.7	5.9	1.7	100.0	1,837
140~160%미만	12.3	41.7	40.0	4.4	1.6	100.0	1,509
160%이상	12.4	43.2	38.0	4.5	1.8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1) 박중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37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일곱 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까지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다음 표는 '약간 동의 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합한 비율만 제시하였다. 문항은 모두 일곱 개로, "①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②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 ③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 ④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 ⑤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⑥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⑦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로 제시하였다.

일곱 개의 질문 중에서 진보적 결혼관에 해당하는 ②(28.6%)와 ④(37.0%)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③(49.6%)은 진보적 결혼관을 나타내지만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중간을 나타냈고,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관에 해당하는 ①(53.1%), ⑤(58.7%), ⑥(49.0%), ⑦(86.1%)은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⑦의 경우 가족의 일반적 가치를 나타내는 잘 대표하는 문항으로 긍정적 태도를 표출하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관에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반면 여자는 진보적 결혼관 및 가족관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전통적 결혼관 및 가족관을 나타내는 ①, ⑤, ⑥, ⑦의 경우 소득 계층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계층이 낮은 경우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낮은 소득 계층보다 높은 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312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표 10-3〉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명
전체	53.1	28.6	49.6	37.0	58.7	49.0	86.2	14,372
거주지								
동부	52.1	29.1	49.9	37.8	57.6	48.7	85.4	11,869
읍면부	57.6	26.2	47.8	33.0	63.6	50.4	90.1	2,503
성								
남자	58.0	24.4	48.0	34.8	64.9	53.9	88.3	7,445
여자	47.8	33.1	51.3	39.3	52.0	43.6	84.1	6,927
연령								
19~24세	40.6	29.9	52.8	42.7	47.2	39.4	83.7	2,542
25~29세	45.5	30.2	55.4	43.1	51.3	41.4	81.5	2,257
30~34세	53.4	27.9	51.2	38.7	56.8	45.1	85.6	2,065
35~39세	57.1	28.7	49.0	35.1	61.6	48.3	88.2	2,357
40~44세	60.4	27.8	47.1	33.7	66.5	59.1	88.8	2,679
45~49세	60.7	27.2	42.8	29.5	67.4	58.5	89.3	2,472
교육수준								
고졸이하	49.5	29.8	51.5	36.5	57.7	48.0	85.6	5,418
대졸	54.9	28.0	48.8	37.2	59.2	49.3	86.6	8,365
대학원졸	60.4	25.9	41.8	38.1	59.8	53.3	87.0	589
혼인상태								
미혼	40.7	32.1	53.9	43.3	50.2	41.7	81.7	7,497
기혼	66.6	24.8	44.9	30.2	67.9	56.9	91.2	6,875
취업여부								
취업	55.0	27.5	48.7	35.6	60.5	50.1	86.7	9,881
비취업	48.8	31.0	51.5	40.0	54.6	46.4	85.3	4,491
가구소득 ²								
60%미만	41.3	32.0	54.5	42.2	50.3	39.1	77.7	1,990
60~80%미만	48.7	30.8	50.8	40.0	56.7	43.8	84.2	1,571
80~100%미만	53.0	30.8	50.7	35.4	59.2	49.4	87.2	1,758
100~120%미만	56.2	28.1	49.3	34.1	62.1	52.4	88.2	1,963
120~140%미만	55.8	28.6	47.8	33.7	61.8	51.3	87.5	1,837
140~160%미만	55.5	26.9	45.6	34.5	60.2	51.9	89.0	1,509
160%이상	57.3	25.8	48.5	37.9	59.7	52.0	88.4	3,745

주: 1) ①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②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 ③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 ④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 ⑤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⑥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⑦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2)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중요한 추세 관찰 문항으로, 응답 범주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전체 응답 태도를 살펴보면,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7.8%,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는 40.2%, ‘없어도 무관하다’는 28.8%, ‘모르겠다’는 3.2%로 나타났다.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23.8%인 반면, 여자는 34.1%로 남자에 비해 10.3%p 더 높게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자녀 필요성에 더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대학원 졸업자는 21.8%인 반면, 고졸 이하인 사람은 31.7%로 9.9%p 더 높게 나타났다.

역시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기혼자는 14.8%인 반면, 미혼자는 41.6%로 26.8%p 더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에 비해서 미혼자가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 계층이 높은 경우보다 소득 계층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 필요성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60%미만 집단의 경우 40.4%인 반면, 가구 소득 160%이상 집단의 경우 25.4%로 15%p 더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대체로 낮은 가구 소득 구간사람보다 자녀 필요성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가구소득 구간에 따른 태도의 변화는 대체로 일관된 추세를 나타낸다.

31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표 10-4〉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2021)	30.5	37.2	27.4	4.9	100.0	14,149
전체(2024)	27.8	40.2	28.8	3.2	100.0	14,372
거주지 ($\chi^2=35.2^{***}$)						
동부	26.9	40.4	29.4	3.3	100.0	11,869
읍면부	32.3	39.3	25.8	2.6	100.0	2,503
성 ($\chi^2=192.0^{***}$)						
남자	30.7	42.1	23.8	3.4	100.0	7,445
여자	24.7	38.2	34.1	3.0	100.0	6,927
연령 ($\chi^2=1045.0^{***}$)						
19~24세	12.0	42.3	40.0	5.7	100.0	2,542
25~29세	16.2	40.9	38.7	4.2	100.0	2,257
30~34세	24.7	42.9	28.5	4.0	100.0	2,065
35~39세	34.4	39.6	24.1	1.9	100.0	2,357
40~44세	38.7	37.9	21.8	1.7	100.0	2,679
45~49세	39.2	38.4	20.5	1.8	100.0	2,472
교육수준 ($\chi^2=104.9^{***}$)						
고졸이하	24.0	40.3	31.7	4.1	100.0	5,418
대졸	29.9	40.0	27.4	2.7	100.0	8,365
대학원졸	33.1	43.4	21.8	1.8	100.0	589
혼인상태 ($\chi^2=2417.4^{***}$)						
미혼	12.6	40.6	41.6	5.2	100.0	7,497
기혼	44.4	39.9	14.8	0.9	100.0	6,875
취업여부 ($\chi^2=140.5^{***}$)						
취업	30.5	39.9	26.9	2.7	100.0	9,881
비취업	21.9	41.1	32.9	4.1	100.0	4,491
가구소득 ¹⁾ ($\chi^2=380.0^{***}$)						
60%미만	15.3	39.3	40.4	4.9	100.0	1,990
60~80%미만	20.2	41.7	34.1	4.1	100.0	1,571
80~100%미만	29.5	39.6	28.4	2.5	100.0	1,758
100~120%미만	31.4	39.4	26.4	2.8	100.0	1,963
120~140%미만	30.6	40.7	25.1	3.6	100.0	1,837
140~160%미만	31.5	42.2	24.3	2.0	100.0	1,509
160%이상	32.1	39.9	25.4	2.6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1)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380.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출산을 결정할 때, 우리는 많은 요인을 고려한다. 이 고려 사항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파악하였다. 총 여덟 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응답토록 하였다. 보기는 “①가정의 경제적 여건, ②본인의 안정된 직업, ③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④주거 여건, ⑤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⑥배우자의 육아분담, ⑦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⑧본인의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이용 가능성, ⑨기타” 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거나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본인의 안정된 직업’ 16.2%,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10.6%, ‘주거 여건’ 7.1%,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6.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특징적인 것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본인의 안정된 직업’,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의 비율 차이이다. 그 외 보기의 비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에서 남자는 53.8%, 여자는 59.1%로 나타났고, ‘본인의 안정된 직업’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에서 남자는 24.5%인 반면, 여자는 7.2%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에서 남자는 1.6%, 여자는 11.6%로 나타났다. 남자보다 여자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본인의 안정된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보다 여자가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으로 인식되고 있다.

316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표 10-5〉 출산 결정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명
전체	56.4	16.2	6.4	7.1	10.6	1.5	1.0	0.7	0.2	100.0	14,372
거주지 ($\chi^2=17.0^*$)											
동부	56.6	15.7	6.6	7.2	10.5	1.6	1.0	0.7	0.2	100.0	11,869
읍면부	55.6	18.3	5.6	6.7	11.1	1.2	0.8	0.6	0.1	100.0	2,503
성 ($\chi^2=1324.4^{***}$)											
남자	53.8	24.5	1.6	7.1	10.9	1.0	0.7	0.3	0.2	100.0	7,445
여자	59.1	7.2	11.6	7.2	10.3	2.1	1.3	1.1	0.2	100.0	6,927
연령 ($\chi^2=226.5^{***}$)											
19~24세	55.7	21.6	4.5	6.0	8.8	1.8	0.8	0.8	0.0	100.0	2,542
25~29세	57.8	18.2	5.5	7.2	8.1	1.3	0.9	0.8	0.1	100.0	2,257
30~34세	54.3	16.8	5.8	8.2	10.8	2.2	0.9	0.8	0.3	100.0	2,065
35~39세	55.3	15.3	6.7	8.3	10.9	1.1	1.4	0.8	0.1	100.0	2,357
40~44세	56.0	12.9	7.8	7.1	12.9	1.6	1.0	0.5	0.2	100.0	2,679
45~49세	58.9	12.6	8.2	6.2	11.7	1.1	0.8	0.4	0.3	100.0	2,472
교육수준 ($\chi^2=135.6^{***}$)											
고졸이하	57.8	17.7	6.2	6.9	8.7	1.3	0.8	0.5	0.1	100.0	5,418
대졸	56.4	15.2	6.5	7.2	11.2	1.5	1.0	0.7	0.2	100.0	8,365
대학원졸	43.1	15.0	7.7	7.8	19.3	3.2	2.1	1.5	0.4	100.0	589
혼인상태 ($\chi^2=224.8^{***}$)											
미혼	56.4	19.3	4.5	6.9	9.3	1.6	1.1	0.8	0.1	100.0	7,497
기혼	56.4	12.7	8.5	7.4	11.9	1.4	0.8	0.6	0.3	100.0	6,875
취업여부 ($\chi^2=47.4^{***}$)											
취업	55.4	17.0	5.9	7.4	11.0	1.5	0.9	0.7	0.2	100.0	9,881
비취업	58.6	14.4	7.7	6.4	9.7	1.5	1.0	0.6	0.1	100.0	4,491
가구소득 ¹⁾ ($\chi^2=84.5^{***}$)											
60%미만	57.2	17.1	5.3	7.3	9.7	1.4	1.1	0.8	0.1	100.0	1,990
60~80%미만	56.9	18.3	5.4	6.1	10.4	1.0	1.0	0.7	0.2	100.0	1,571
80~100%미만	55.4	15.9	6.0	8.7	11.1	1.4	1.2	0.2	0.1	100.0	1,758
100~120%미만	55.7	16.1	6.4	8.2	10.8	1.3	0.9	0.4	0.1	100.0	1,963
120~140%미만	56.2	15.4	7.9	5.9	11.4	1.2	0.8	0.9	0.2	100.0	1,837
140~160%미만	57.5	16.6	6.3	7.1	9.9	1.4	0.7	0.2	0.2	100.0	1,509
160%이상	56.2	15.1	7.0	6.7	10.6	2.1	1.0	0.9	0.2	100.0	3,745

주: 1) ①가정의 경제적 여건, ②본인의 안정된 직업, ③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④주거 여건, ⑤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⑥배우자의 육아분담, ⑦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⑧본인의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이용 가능성, ⑨기타.

2)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이상자녀수에 대한 인식은 집계된 사회적 수준에서 출산율의 중요한 대체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상자녀수가 실제 실천될 지의 여부는 제반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상 자녀 수의 추세 변화는 중요한 지표로 관찰될 필요가 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상자녀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5%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할 경우 이상자녀수 평균은 1.83명으로 집계되었다.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는 거의 없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자녀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이상자녀수를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의 이상자녀수 평균은 1.95명, 미혼자의 이상자녀수 평균은 1.71명으로 0.24명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효과와 마찬가지로 아직 미혼인 젊은 층에서 이상자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고졸이하 집단의 이상자녀수 평균은 1.80명으로 나타나고, 대학원 졸업 집단의 이상자녀수 평균은 1.95명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집단보다 저학력 집단의 이상자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미혼의 젊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이상자녀수를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8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표 10-6〉 이상자녀수(19~49세)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모름제외	
									평균	명
전체(2021)	0.0	16.1	64.2	9.0	10.7		100.0	14,149	1.94	12,640
전체(2024)	0.2	20.5	59.2	5.2	0.6	14.3	100.0	14,372	1.83	12,312
거주지 ($\chi^2=18.7^{**}$)										
동부	0.2	20.5	58.8	5.1	0.6	14.8	100.0	11,869	1.83	10,109
읍면부	0.2	20.4	61.0	5.5	1.0	12.0	100.0	2,503	1.85	2,203
성 ($\chi^2=22.3^{***}$)										
남자	0.2	19.2	60.8	5.1	0.6	14.2	100.0	7,445	1.85	6,385
여자	0.2	21.9	57.5	5.3	0.7	14.4	100.0	6,927	1.82	5,927
연령 ($\chi^2=700.2^{***}$)										
19~24세	0.0	26.0	47.4	2.7	0.5	23.4	100.0	2,542	1.71	1,948
25~29세	0.4	24.7	52.3	2.9	0.3	19.4	100.0	2,257	1.73	1,819
30~34세	0.2	23.0	59.2	4.2	0.3	13.1	100.0	2,065	1.79	1,794
35~39세	0.1	20.0	62.8	6.2	0.5	10.5	100.0	2,357	1.85	2,110
40~44세	0.4	15.6	65.1	7.6	1.0	10.3	100.0	2,679	1.93	2,402
45~49세	0.1	14.6	67.9	6.9	1.2	9.4	100.0	2,472	1.94	2,239
교육수준 ($\chi^2=143.0^{***}$)										
고졸이하	0.1	22.9	54.2	4.8	0.8	17.1	100.0	5,418	1.80	4,490
대졸	0.3	19.3	61.9	5.2	0.5	12.8	100.0	8,365	1.85	7,292
대학원졸	0.1	14.6	66.8	7.1	1.5	9.9	100.0	589	1.95	530
혼인상태 ($\chi^2=1300.7^{***}$)										
미혼	0.2	25.9	49.3	2.7	0.3	21.7	100.0	7,497	1.71	5,869
기혼	0.2	14.6	70.0	7.9	1.0	6.3	100.0	6,875	1.95	6,444
취업여부 ($\chi^2=111.2^{***}$)										
취업	0.3	19.5	61.6	5.4	0.5	12.7	100.0	9,881	1.85	8,621
비취업	0.1	22.5	54.0	4.7	0.9	17.8	100.0	4,491	1.80	3,691
가구소득 ¹⁾ ($\chi^2=272.5^{***}$)										
60%미만	0.1	24.2	49.7	3.5	0.5	22.0	100.0	1,990	1.75	1,552
60~80%미만	0.2	24.3	52.4	3.9	0.5	18.7	100.0	1,571	1.76	1,277
80~100%미만	0.2	19.7	59.6	5.4	0.6	14.6	100.0	1,758	1.84	1,501
100~120%미만	0.1	19.2	62.4	5.7	0.9	11.8	100.0	1,963	1.87	1,730
120~140%미만	0.2	20.9	61.6	5.1	0.7	11.6	100.0	1,837	1.84	1,625
140~160%미만	0.4	19.6	62.3	5.9	0.6	11.2	100.0	1,509	1.85	1,341
160%이상	0.2	18.1	62.9	5.9	0.7	12.2	100.0	3,745	1.87	3,287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1)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p.383.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자녀 가치를 나타내는 몇 개의 의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총 여섯 개의 의견으로, “①자녀는 그 자체로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②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시킨다, ③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④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⑤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⑥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다음 표에 제시한 동의 정도는 ‘약간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합한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①(86.8%), ②(92.7%), ③(82.8%)의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④(75.4%)의 경우도 앞의 ①, ②, ③에 비해서 다소 낮지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반면, ⑤(36.0%), ⑥(24.0%)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⑤와 ⑥의 의견은 자녀에 대한 도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경향성은 성별과 연령 집단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 없이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 된다.

다만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는 의미 있게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①, ②, ③의 의견에 대해 미혼 집단은 전체 동의 수준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기혼 집단은 전체 동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혼자 집단이 자녀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 기혼자 집단보다 동의 하는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는 기혼자와 비교해 미혼자가 자녀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7〉 자녀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

(단위: %, 명)

구분 ¹⁾	①	②	③	④	⑤	⑥	명
전체	86.8	92.7	82.8	75.4	36.0	24.0	14,372
거주지							
동부	86.3	92.4	83.4	75.9	36.8	24.3	11,869
읍면부	89.3	93.9	79.8	72.9	32.3	22.5	2,503
성							
남자	87.9	92.8	83.2	72.8	35.1	23.5	7,445
여자	85.6	92.6	82.3	78.1	37.0	24.4	6,927
연령							
19~24세	80.7	90.9	78.9	79.5	37.3	33.4	2,542
25~29세	79.6	89.3	77.2	80.2	35.6	27.8	2,257
30~34세	85.9	92.5	80.6	74.7	32.0	20.3	2,065
35~39세	89.0	93.7	85.7	74.2	34.5	19.5	2,357
40~44세	92.8	94.4	87.5	70.6	36.9	19.9	2,679
45~49세	91.9	95.0	85.7	73.5	38.9	22.3	2,472
교육수준							
고졸이하	85.3	90.9	81.7	75.7	38.2	28.0	5,418
대졸	87.5	93.8	83.2	75.1	34.8	21.7	8,365
대학원졸	90.5	93.7	87.2	75.6	33.1	19.2	589
혼인상태							
미혼	78.6	88.7	76.9	78.7	34.6	27.3	7,497
기혼	95.8	97.1	89.1	71.8	37.5	20.3	6,875
취업여부							
취업	87.2	92.7	83.2	74.0	35.8	22.4	9,881
비취업	85.9	92.7	81.8	78.3	36.5	27.5	4,491
가구소득 ²⁾							
60%미만	79.9	87.9	77.5	77.1	33.9	29.8	1,990
60~80%미만	82.4	90.4	80.2	75.6	34.4	26.7	1,571
80~100%미만	86.5	93.1	82.2	76.0	37.1	24.1	1,758
100~120%미만	88.1	93.2	83.4	74.9	35.8	21.8	1,963
120~140%미만	89.5	94.0	83.1	75.4	36.7	23.9	1,837
140~160%미만	90.3	94.2	83.3	74.4	36.5	21.0	1,509
160%이상	89.1	94.5	86.1	74.6	36.9	22.1	3,745

주: 1) ①자녀는 그 자체로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②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시킨다, ③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④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⑤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⑥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2)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성 역할 가치

성 역할 인식은 총 여섯 개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 하는 정도로 조사하였다. “①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②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③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④남성이라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⑤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더 좋다, ⑥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돈을 버는 일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다음 표에 제시한 동의 정도는 ‘약간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합한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①(93.7%)과 ⑤(88.4%)의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④(47.5%) ⑥(55.9%)의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②(19.8%)와 ③(28.4%)의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인 성 역할 의견(②와 ③)에 동의하는 정도는 전체 수준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성 평등적 의견(①과 ⑤)에 동의하는 정도는 전체 수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면, 성 역할 인식이 과거보다 더 평등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집단에 따라서 ②와 ④의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른 특성 집단에 비해 차이가 두드러졌다. 즉 20대 초반 집단과 40대 후반 집단 간에 10%p 이상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그 이외의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10-8〉 성역할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

(단위: %, 명)

구분 ¹⁾	①	②	③	④	⑤	⑥	명
전체	93.7	19.8	28.4	47.5	88.4	55.9	14,372
거주지							
동부	93.9	19.8	29.1	47.4	88.5	55.7	11,869
읍면부	92.9	19.7	25.3	48.1	87.7	56.9	2,503
성							
남자	92.7	22.0	32.6	54.7	86.0	60.4	7,445
여자	94.7	17.4	23.9	39.8	90.9	51.1	6,927
연령							
19~24세	94.1	13.7	26.8	34.4	89.2	47.1	2,542
25~29세	94.8	14.0	25.6	39.4	91.2	50.9	2,257
30~34세	94.0	17.4	24.0	46.6	88.6	53.6	2,065
35~39세	93.7	21.2	28.9	51.2	87.2	57.4	2,357
40~44세	93.3	24.8	32.9	55.5	86.7	61.9	2,679
45~49세	92.4	26.6	31.1	57.3	87.6	63.4	2,472
교육수준							
고졸이하	92.7	21.3	31.5	48.5	87.6	56.6	5,418
대졸	94.3	19.0	26.9	47.2	88.7	55.5	8,365
대학원졸	94.7	16.9	22.2	44.0	89.9	55.1	589
혼인상태							
미혼	94.0	15.5	27.1	41.0	89.6	49.2	7,497
기혼	93.3	24.5	29.9	54.7	87.0	63.2	6,875
취업여부							
취업	93.6	19.8	28.9	49.1	88.1	55.9	9,881
비취업	93.9	19.9	27.5	44.2	89.0	55.9	4,491
가구소득 ²⁾							
60%미만	93.2	16.3	26.3	42.6	88.3	49.7	1,990
60~80%미만	94.1	21.0	31.2	46.7	87.3	54.9	1,571
80~100%미만	93.0	24.6	30.5	50.7	86.7	59.2	1,758
100~120%미만	94.0	21.4	29.2	51.3	87.0	58.5	1,963
120~140%미만	92.2	20.6	27.4	49.5	89.1	57.9	1,837
140~160%미만	93.1	20.4	28.5	48.9	89.1	56.3	1,509
160%이상	94.9	17.4	27.5	45.6	89.6	55.6	3,745

주: 1) ① 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③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④ 남성이라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⑤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더 좋다, ⑥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돈을 버는 일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

2)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성 역할 인식과 유사하게 부부의 역할 구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조사하였다. “①엄마와 아빠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②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 ③어린 자녀를 둔 남성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④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전업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의 네 개 의견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다음 표에 제시한 동의 정도는 ‘약간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합한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 수준에서 ①(90.1%)과 ③(81.5%)의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②(56.4%)의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중간 수준을 나타냈고, ④(64.2%)의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중간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성 평등적 의견(①과 ③)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동의 정도를 나타내고, 전통적 부부 역할(②) 의견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의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전통적 엄마의 역할과 다른 일하는 엄마의 역할(④)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수준의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는 ②의 의견에 대해서 다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②번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에서 20대 초반 연령 집단과 40대 후반 연령 집단 간에 10%p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문항에서는 연령 집단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이외의 거주지, 성, 교육 수준, 혼인상태, 가구 소득 등의 특성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10-9〉 부부 역할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

(단위: %, 명)

구분 ¹⁾	①	②	③	④	명
전체	90.1	56.4	81.5	64.2	14,372
거주지					
동부	89.8	55.9	80.8	64.1	11,869
읍면부	91.1	58.7	84.8	64.9	2,503
성					
남자	87.1	61.9	78.9	61.3	7,445
여자	93.3	50.6	84.3	67.4	6,927
연령					
19~24세	92.0	50.7	80.7	68.3	2,542
25~29세	90.7	50.8	82.6	65.9	2,257
30~34세	89.4	52.5	83.0	63.8	2,065
35~39세	90.1	57.9	81.5	62.1	2,357
40~44세	89.2	62.0	81.7	63.4	2,679
45~49세	88.8	63.2	79.9	61.7	2,472
교육수준					
고졸이하	89.4	58.8	79.1	64.1	5,418
대졸	90.5	55.1	82.8	64.2	8,365
대학원졸	89.4	53.4	85.6	65.7	589
혼인상태					
미혼	90.5	51.9	80.7	65.9	7,497
기혼	89.6	61.3	82.4	62.4	6,875
취업여부					
취업	89.8	57.1	81.1	63.5	9,881
비취업	90.6	54.9	82.5	65.7	4,491
가구소득 ²⁾					
60%미만	91.2	51.8	78.7	64.2	1,990
60~80%미만	87.9	56.8	79.1	62.3	1,571
80~100%미만	89.5	60.4	80.8	64.1	1,758
100~120%미만	88.1	57.1	81.9	63.8	1,963
120~140%미만	91.3	58.3	82.2	62.9	1,837
140~160%미만	92.0	56.1	83.3	64.0	1,509
160%이상	90.2	55.7	83.0	66.1	3,745

주: 1) ①엄마와 아빠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②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 ③어린 자녀를 둔 남성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④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전업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2)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시 한번 이상적인 부부 간의 역할에 대하여 독립적인 보기를 제시하면서 확인하였다. 부부의 이상적인 역할 분담에 대하여, ‘두 사람이 동일한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고 가사와 양육에도 공평하게 참여’, ‘두 사람 모두 일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근무 시간을 줄여 가사양육에 더 집중’, ‘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 ‘기타’ 네 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전체 수준에서 부부 모두 일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한 사람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가사와 양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36.7%, 부부가 일과 가사(및 양육)를 구분하여 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9.7%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성 역할 인식이나 부부 역할 인식 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성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의미 있게 나타났다. 20대 초반 집단과 40대 후반 집단 간에 10%p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체로 젊은 연령 집단이 고연령 집단보다 성 평등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연령 효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낮은 연령층이 낮은 가구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고연령 집단이 높은 가구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도 역시 연령 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10-10〉 이상적인 부부 간의 역할 분담

(단위: %, 명)

구분	일-가사와 양육 공평 분담	한사람 근무시간 줄이고 가사와 양육 집중	일과 가사-양육 을 한사람씩 분담	기타	계	명
전체	53.1	36.7	9.7	0.5	100.0	14,372
거주지 ($\chi^2=12.7^{**}$)						
동부	53.7	36.4	9.4	0.5	100.0	11,869
읍면부	50.7	38.3	10.8	0.2	100.0	2,503
성 ($\chi^2=130.7^{***}$)						
남자	48.6	40.1	10.7	0.6	100.0	7,445
여자	58.0	33.2	8.5	0.3	100.0	6,927
연령 ($\chi^2=338.81^{***}$)						
19~24세	64.3	28.6	6.6	0.4	100.0	2,542
25~29세	60.1	33.4	6.1	0.4	100.0	2,257
30~34세	54.4	37.0	8.3	0.4	100.0	2,065
35~39세	47.3	41.4	10.8	0.6	100.0	2,357
40~44세	45.6	40.4	13.5	0.5	100.0	2,679
45~49세	47.9	39.6	12.0	0.5	100.0	2,472
교육수준 ($\chi^2=17.4^{**}$)						
고졸이하	54.3	35.0	10.2	0.5	100.0	5,418
대졸	52.6	37.7	9.3	0.5	100.0	8,365
대학원졸	50.3	39.2	10.5	0.0	100.0	589
혼인상태 ($\chi^2=390.4^{***}$)						
미혼	60.4	32.5	6.6	0.5	100.0	7,497
기혼	45.2	41.4	13.0	0.4	100.0	6,875
취업여부 ($\chi^2=47.2^{***}$)						
취업	52.7	38.2	8.8	0.4	100.0	9,881
비취업	54.2	33.6	11.6	0.6	100.0	4,491
가구소득 ¹⁾ ($\chi^2=80.4^{***}$)						
60%미만	60.4	31.2	7.9	0.4	100.0	1,990
60~80%미만	54.6	35.9	8.6	0.9	100.0	1,571
80~100%미만	49.3	38.7	11.6	0.4	100.0	1,758
100~120%미만	49.6	38.7	11.3	0.4	100.0	1,963
120~140%미만	53.2	36.5	10.0	0.3	100.0	1,837
140~160%미만	51.6	38.7	9.3	0.4	100.0	1,509
160%이상	52.9	37.4	9.2	0.4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제4절 사회적 가치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행동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검토된 가치와 인식은 주로 가족 가치나 자녀 가치, 성 역할 가치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인식은 이보다 훨씬 다양할 수 있다. 2021년 조사부터 이런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 조사했고, 2024년 조사는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사회 신뢰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부터 ‘매우 신뢰할 수 있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부터 ‘매우 안전하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다음 표의 비율은 부정 응답과 긍정 응답 2개 범주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 수준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 정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2.7%, 우리 사회의 안전 정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4.1%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남자 42.0%에 비해 여자는 43.5%로 다소 높았지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남자 67.8%에 비해 여자는 60.2%로 낮게 나타났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 이하 집단보다 대학원 졸업 집단이 우리 사회를 더 신뢰하고 있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0-11〉 사회 신뢰와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신뢰		안전		계	명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전체	57.3	42.7	35.9	64.1	100.0	14,372
거주지	$(\chi^2=0.9)$		$(\chi^2=16.1^{***})$			
동부	57.4	42.6	36.6	63.4	100.0	11,869
읍면부	56.4	43.6	32.4	67.6	100.0	2,503
성	$(\chi^2=3.2)$		$(\chi^2=89.9^{***})$			
남자	58.0	42.0	32.2	67.8	100.0	7,445
여자	56.5	43.5	39.8	60.2	100.0	6,927
연령	$(\chi^2=32.5^{***})$		$(\chi^2=16.0^{**})$			
19~24세	57.6	42.4	36.1	63.9	100.0	2,542
25~29세	62.2	37.8	39.1	60.9	100.0	2,257
30~34세	56.6	43.4	35.2	64.8	100.0	2,065
35~39세	55.7	44.3	33.8	66.2	100.0	2,357
40~44세	54.8	45.2	36.1	63.9	100.0	2,679
45~49세	57.1	42.9	34.9	65.1	100.0	2,472
교육수준	$(\chi^2=44.0^{***})$		$(\chi^2=21.8^{***})$			
고졸이하	59.7	40.3	38.0	62.0	100.0	5,418
대졸	56.4	43.6	34.8	65.2	100.0	8,365
대학원졸	46.3	53.7	30.5	69.5	100.0	589
혼인상태	$(\chi^2=39.2^{***})$		$(\chi^2=0.0)$			
미혼	59.7	40.3	35.8	64.2	100.0	7,497
기혼	54.6	45.4	35.9	64.1	100.0	6,875
취업여부	$(\chi^2=0.5)$		$(\chi^2=3.0)$			
취업	57.4	42.6	35.4	64.6	100.0	9,881
비취업	56.8	43.2	36.9	63.1	100.0	4,491
가구소득 ¹⁾	$(\chi^2=24.4^{***})$		$(\chi^2=44.8^{***})$			
60%미만	59.3	40.7	38.3	61.7	100.0	1,990
60~80%미만	58.9	41.1	37.2	62.8	100.0	1,571
80~100%미만	59.2	40.8	39.5	60.5	100.0	1,758
100~120%미만	58.1	41.9	37.9	62.1	100.0	1,963
120~140%미만	58.1	41.9	35.6	64.4	100.0	1,837
140~160%미만	56.3	43.7	32.3	67.7	100.0	1,509
160%이상	54.1	45.9	32.7	67.3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국민들이 인식하는 우리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하였다. 현재의 우리 국민의 행복도와 5년 후 우리 국민의 행복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답은 ‘최저의 국민 행복’ 1점에서 ‘최고의 국민 행복’ 10점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 표에 제시한 점수는 평균값을 의미한다.

전체 수준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 행복 정도는 1~10점 중 4.52점으로 나타났고, 5년 후의 우리 국민의 행복 정도는 4.59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행복 정도가 중간(5.5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점 수준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많이 불행하지도 않고, 많이 행복하지도 않고, 대체로는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이 현재와 5년 후 모두 국민 행복도에 다소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고졸이하 집단보다는 대학원 졸업 집단이 다소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저소득 집단보다는 고소득 집단이 다소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현재의 행복 정도 보다는 5년 후 미래의 행복 정도를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행복 정도와 5년 후 미래의 행복 정도의 이런 차이는 성, 연령, 교육 수준, 혼인상태, 가구 소득 등에서 전반적으로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12〉 현재와 5년 후의 국민 행복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현재		5년 후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4.52	14,372	4.59	14,372
거주지	(t=-4.8***)		(t=-3.1**)	
동부	4.49	11,869	4.57	11,869
읍면부	4.65	2,503	4.67	2,503
성	(t=-1.4)		(t=-2.2*)	
남자	4.50	7,445	4.56	7,445
여자	4.53	6,927	4.62	6,927
연령	(F=12.9***)		(F=35.0***)	
19~24세	4.42	2,542	4.43	2,542
25~29세	4.36	2,257	4.31	2,257
30~34세	4.48	2,065	4.51	2,065
35~39세	4.62	2,357	4.68	2,357
40~44세	4.62	2,679	4.76	2,679
45~49세	4.57	2,472	4.78	2,472
교육수준	(F=30.1***)		(F=19.2***)	
고졸이하	4.41	5,418	4.50	5,418
대졸	4.56	8,365	4.62	8,365
대학원졸	4.82	589	4.90	589
혼인상태	(t=-11.9***)		(t=-14.8***)	
미혼	4.37	7,497	4.39	7,497
기혼	4.67	6,875	4.79	6,875
취업여부	(t=4.0***)		(t=2.2*)	
취업	4.55	9,881	4.61	9,881
비취업	4.44	4,491	4.54	4,491
가구소득 ¹⁾	(F=11.7***)		(F=4.0***)	
60%미만	4.33	1,990	4.46	1,990
60~80%미만	4.50	1,571	4.56	1,571
80~100%미만	4.46	1,758	4.58	1,758
100~120%미만	4.46	1,963	4.55	1,963
120~140%미만	4.51	1,837	4.58	1,837
140~160%미만	4.58	1,509	4.61	1,509
160%이상	4.65	3,745	4.67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성평등 인식은 일반적으로 인구학적 행동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번 조사에서 “①교육 수준, ②경제활동 참여, ③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 ④소득 수준, ⑤국회, 행정부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 ⑥아동, 노인, 환자 등 돌봄 책임 분담, ⑦건강 수준”으로, 총 일곱 개 분야와, “⑧사회 전반”으로 종합하여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은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여성에게 약간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약간 불평등’,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다음 표의 비율은 ‘남녀평등’으로 응답한 비율만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 수준에서 교육(90.0%)과 건강(82.6%) 분야는 대체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56.9%), 사회참여(60.2%) 분야는 중간 수준의 성평등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용(39.0%), 소득(44.8%), 돌봄 분담(37.7%) 분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성평등 정도로 인식되며, 이것은 대체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일곱 개 분야에서 남녀의 응답 비율 차이가 10%p 미만인 것은 교육(5.2%p)과 건강(4.7%p)뿐이었다. 나머지 다섯 개 분야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낮았다. 그 차이는 경제활동 24.0%p, 고용 27.0%p, 소득 24.2%p, 참여 16.3%p, 돌봄 분담 18.5%p였다.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22.8%p 적었다. 성평등 인식에서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들은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성평등 인식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표 10-13〉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 명)

구분	교육	경제 활동	고용	소득	참여	돌봄 부담	건강	사회 전반
전체	90.0	56.9	39.0	44.8	60.2	37.7	82.6	54.9
거주지								
동부	89.7	55.5	37.7	43.8	59.1	36.7	82.3	54.1
읍면부	91.6	63.8	45.2	49.7	65.7	42.7	84.4	58.8
성								
남자	92.5	68.5	52.0	56.5	68.1	46.6	84.9	65.9
여자	87.3	44.5	25.0	32.3	51.8	28.1	80.2	43.1
연령								
19~24세	91.6	64.2	45.9	55.0	63.0	45.0	86.4	60.4
25~29세	91.4	60.3	43.2	51.9	64.1	43.2	83.6	59.4
30~34세	90.4	57.9	41.8	45.5	62.5	40.7	83.2	57.2
35~39세	91.1	54.4	38.4	44.8	59.6	35.2	83.0	55.1
40~44세	89.5	53.7	33.9	37.9	58.4	31.5	81.7	50.9
45~49세	86.4	51.3	31.6	35.0	54.5	32.0	78.2	47.5
교육수준								
고졸이하	89.2	61.7	44.0	49.1	62.4	41.9	84.1	58.4
대졸	90.5	54.4	36.5	42.7	59.2	35.6	81.9	53.5
대학원졸	90.3	47.7	27.0	35.8	55.6	29.1	80.3	42.7
혼인상태								
미혼	90.3	61.0	44.0	50.0	62.2	41.9	83.8	58.7
기혼	89.7	52.4	33.5	39.2	58.1	33.1	81.4	50.7
취업여부								
취업	90.2	58.2	39.6	45.1	60.9	38.0	82.5	56.0
비취업	89.6	54.2	37.5	44.3	58.7	37.1	82.9	52.6
가구소득 ¹⁾								
60%미만	89.3	60.2	42.7	51.0	62.8	43.0	84.2	57.9
60~80%미만	90.1	57.4	40.2	44.1	61.7	41.8	82.8	58.3
80~100%미만	89.4	59.1	42.3	44.8	61.5	37.2	83.9	59.1
100~120%미만	90.5	55.0	37.1	42.7	57.1	37.7	81.1	52.7
120~140%미만	90.2	57.4	39.4	43.5	59.3	38.4	82.2	54.1
140~160%미만	90.0	58.4	40.0	46.6	61.4	39.3	84.3	53.8
160%이상	90.3	54.1	35.2	43.0	59.2	32.5	81.5	52.0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은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우리 사회(나라)에서 자신의 10년 후 미래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응답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음', '별로 예측할 수 없음', '약간 예측할 수 있음', '매우 예측할 수 있음'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적 수준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 별로 예측할 수 없다는 응답은 51.7%, 약간 예측할 수 있다는 응답은 33.5%, 매우 예측할 수 있다는 응답은 2.5%였다. 대체로 예측 가능성에 긍정적 태도('약간 예측할 수 있다'와 '매우 예측할 수 있다'는 응답의 합)로 응답한 비율은 36.0%였다.

미래의 예측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거주지, 성, 연령, 혼인 상태, 취업 여부 등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고졸 이하 집단의 긍정적 응답 비율은 33.1%로 가장 낮았고, 대졸 집단은 37.4%, 대학원 졸업 집단은 4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낮은 학력 집단일 경우 미래 예측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낮은 소득 집단(60%미만)의 경우 미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30.9% 수준인 반면, 고소득 집단(160%이상)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은 42.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른 미래 예측 가능성의 차이는 잘 드러나고 있다.

〈표 10-14〉 10년 후 자신의 미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예측 할 수 없음	별로 예측 할 수 없음	약간 예측 할 수 있음	매우 예측 할 수 있음	계	명
전체	12.3	51.7	33.5	2.5	100.0	14,372
거주지 ($\chi^2=12.1^{**}$)						
동부	12.0	51.6	34.0	2.4	100.0	11,869
읍면부	14.1	51.8	31.4	2.7	100.0	2,503
성 ($\chi^2=37.8^{***}$)						
남자	13.0	49.8	34.1	3.0	100.0	7,445
여자	11.6	53.6	32.9	1.8	100.0	6,927
연령 ($\chi^2=33.1^{**}$)						
19~24세	13.4	49.2	34.9	2.5	100.0	2,542
25~29세	13.8	52.1	31.0	3.0	100.0	2,257
30~34세	12.4	51.7	33.8	2.0	100.0	2,065
35~39세	12.5	52.1	33.6	1.8	100.0	2,357
40~44세	11.3	52.1	34.2	2.5	100.0	2,679
45~49세	10.9	52.9	33.3	2.9	100.0	2,472
교육수준 ($\chi^2=52.6^{***}$)						
고졸이하	14.0	52.9	30.6	2.5	100.0	5,418
대졸	11.6	51.0	35.0	2.4	100.0	8,365
대학원졸	8.4	49.1	39.6	2.9	100.0	589
혼인상태 ($\chi^2=21.9^{***}$)						
미혼	12.9	52.6	31.9	2.7	100.0	7,497
기혼	11.7	50.7	35.3	2.2	100.0	6,875
취업여부 ($\chi^2=7.1$)						
취업	12.2	51.2	34.1	2.6	100.0	9,881
비취업	12.7	52.8	32.2	2.2	100.0	4,491
가구소득 ¹⁾ ($\chi^2=140.1^{***}$)						
60%미만	13.3	55.8	28.3	2.6	100.0	1,990
60~80%미만	13.0	56.1	28.6	2.3	100.0	1,571
80~100%미만	12.5	54.9	30.6	2.0	100.0	1,758
100~120%미만	12.7	52.6	32.6	2.1	100.0	1,963
120~140%미만	13.9	51.2	33.3	1.6	100.0	1,837
140~160%미만	11.7	49.2	36.7	2.3	100.0	1,509
160%이상	10.8	46.8	39.1	3.3	100.0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총 6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갈등 해결)”,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이다(불평등 확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경제 성장)”,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여유로운 삶)”,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 것이다(환경 쾌적)”, “생활환경은 더 편리해질 것이다(생활 편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은 긍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로 측정하였다. 다음 표의 비율은 ‘그럴 것이다’와 ‘매우 그럴 것이다’의 합으로, 긍정 응답 비율만 제시한 것이다.

전체 수준에서 미래 우리 사회의 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은 ‘생활 편리’(77.7%)뿐이었다. 반면 ‘갈등 해결’(27.8%), ‘환경 쾌적’(21.5%), ‘불평등 확대’(80.2%)의 경우 미래 전망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불평등 확대’는 방향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높은 비율이 높은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경제 성장’(50.8%)과 ‘여유로운 삶’(40.1%)은 중간 수준의 동의를 나타냈다.

생활은 매우 편리해지고, 경제는 다소 성장하고 여유로운 삶이 전개되겠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불평등은 확대되고, 환경은 쾌적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336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표 10-15〉 우리 사회에 대한 미래 전망 인식 동의 비율

(단위: %, 명)

구분	갈등 해결	불평등 확대	경제 성장	여유로운 삶	환경 쾌적	생활 편리	명
전체	27.8	80.2	50.8	40.1	21.5	77.7	14,372
거주지							
동부	27.6	80.0	50.1	39.9	21.9	77.0	11,869
읍면부	29.0	81.0	54.1	40.9	19.4	81.1	2,503
성							
남자	26.5	80.4	49.3	39.0	23.2	77.7	7,445
여자	29.2	79.9	52.3	41.2	19.6	77.7	6,927
연령							
19~24세	28.9	80.0	53.9	40.3	21.1	78.5	2,542
25~29세	27.2	79.1	52.1	39.5	20.8	78.2	2,257
30~34세	28.4	80.9	51.8	40.1	20.9	77.4	2,065
35~39세	26.5	80.3	48.4	40.5	21.7	78.3	2,357
40~44세	28.3	80.8	49.9	38.7	23.0	76.6	2,679
45~49세	27.4	79.7	48.5	41.5	21.0	77.5	2,472
교육수준							
고졸이하	28.4	79.0	52.4	40.0	22.9	77.0	5,418
대졸	27.1	80.6	49.8	40.1	20.4	78.0	8,365
대학원졸	32.4	84.0	49.2	41.2	23.1	80.9	589
혼인상태							
미혼	26.3	79.5	50.4	38.0	21.0	76.6	7,497
기혼	29.5	80.9	51.1	42.4	21.9	79.0	6,875
취업여부							
취업	27.4	80.2	49.8	40.2	21.4	77.8	9,881
비취업	28.8	80.1	52.9	39.9	21.6	77.6	4,491
가구소득 ¹⁾							
60%미만	26.3	80.5	54.2	37.0	20.2	77.2	1,990
60~80%미만	26.3	79.6	50.7	36.3	22.7	75.1	1,571
80~100%미만	29.2	79.7	49.4	39.1	24.0	76.2	1,758
100~120%미만	26.7	79.4	50.4	39.8	19.6	78.0	1,963
120~140%미만	28.4	79.6	49.5	39.9	19.4	77.3	1,837
140~160%미만	27.3	81.1	49.3	42.5	21.8	80.8	1,509
160%이상	29.1	80.7	51.0	43.1	22.2	78.7	3,745

주: 1) 가구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약 496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1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 11 장 결론

제1절 요약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전국 700개 표본 조사구에서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10,500가구를 방문 조사하였다. 최종 조사 완료된 10,387가구에서 15~49세 응답자는 14,372명이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가구 일반사항, 동거와 결혼, 임신·출산·건강, 산전·산후 관리, 자녀 양육, 일, 부모와의 관계, 독립과 지역 이동, 가치와 인식의 아홉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형성 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각 영역별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결혼율이 감소하고 비혼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비해 결혼의향이 있는 비혼자의 비율은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의향이 최저점을 찍은 후 이전 상태로 복귀한 결과이거나 결혼의향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된 것인지 추후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배우자나 교제상대 만남의 계기가 '소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결혼한 사람이 결혼 당시 결혼에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동반자 관계의 형성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는 결혼의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비혼이나 대안적 결혼

등과 같은 플랜 B에 이끌리도록 만들 수 있다.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결혼연령도 평균 초혼연령이 계속 상승한 것을 반영하여 30대 초반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결혼의향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결혼시기가 30대에 묶여 있다면 실제 결혼율의 상승은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혼의 감소 경향이 지속되는 동안, 대안적인 유연한 결혼(또는 파트너십)의 확산과 사회적 허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 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임신, 출산, 자녀양육 실태 파악이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혼인상태 조사 방식을 탈피하고, 교제상태로부터 동거와 혼인신고 등의 질문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친밀성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과 비교하여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가 늘어난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사회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유연한 파트너십으로서 비혼 동거를 고려할 수 있는 허용성은 넓어졌지만, 실제로 그러한 파트너십을 실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임신과 출산 건강 영역은 피임과 난임 등을 포함한 생식 건강과 임신 및 출산 이력, 자녀 계획,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와 분만, 수유 실태를 다루고 있다. 생식 건강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생식계 증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법률혼 및 사실혼인 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16.8%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35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 난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40~44세 기혼 여성의 경우 약 19%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난임 예방을 위한 생식 건강 관리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임신·출산 이력과 자녀 계획과 관련하여, 19~49세 여성의 임신 결과는 2021년에 비하여 출생의 평균 횟수와 총임신 횟수 평균이 각각 0.03회(1.71회→1.68회), 0.14회(2.11회→1.97회) 감소한 반면, 평균 임신 유지율은 약 3.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9세 여성의 출생아 수는 출생아 수 0명 범주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동시에 1명, 2명, 3명 이상 범주의 비율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2021년의 1.03명에 비하여 평균 출생아 수가 0.1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임신 결과에서 살펴본 임신 결과 출생의 평균 횟수와 총임신 횟수 평균의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다.

19~49세 응답자의 향후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하여 출산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계획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 가구소득 수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 관리는 임신 후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산전 관리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Adequacy of Prenatal Care Utilization (APNCU) Index(Kotelchuck index)의 산출에는 산전 초진 시기와 산전 진찰 횟수가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초진 시기는 평균 임신 5.6주로, 대부분(95.7%)이 임신 8주 이전에 초진을 받았다. 평균 산전 관리 횟수는 13.2회이고, 98.9%의 출산모가 6회 이상 받아 대체로 산전 관리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산후 수진율은 96.9%로 높은 수준이나, 산전 진찰의 수진율이 100%인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출산 후 첫 주 이내에 산후 진찰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81.6%가 출산 후 1~21일에 산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출산 후 13.3일에 산후 진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산후 진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후우울감의 경험률은 28.4%로 높지 않았으나, 출산 시 연령이 19~24세인 산모의 58.0%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산후우울 관련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적절한 산전 산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인식 제고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저연령 산모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는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해야 하고 생후 6개월까지 물을 포함한 대체제 없는 완전모유수유를 권고하고 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의 영유아 대상 중점과제에서는 모유수유 실천율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출생 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실시한 비율은 4.4%로 매우 낮다는 점, 완전모유수유율은 생후 6개월에 4.6%로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더 적극적인 모유수유 향상을 위한 인식 제고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녀 양육 영역은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중 막내자녀의 돌봄과 부부의 육아분담, 자녀 양육비와 정부 지원금, 부부의 가사분담 등을 다루었다. 분석 결과 미취학 자녀의 돌봄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 선호가 높게 나타나며 정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방과후 돌봄으로 사설 학원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방과후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순수하게 돌봄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초등돌봄교실이나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공적 돌봄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실제 이용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 돌

봄의 공급에 대한 진단이나,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부양 책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라는 응답은 12.1%에 불과하며 대학 졸업이나 혼인 등 성인 이후까지 계속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과도한 부양책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79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미취학 자녀의 양육비가 가장 적었고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로 갈수록 양육비가 더 많이 지출되었으나 성인 자녀는 다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를 제외하고,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의 양육비 중 사교육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초등학생 자녀와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비의 50% 이상) 양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미취학 자녀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교육비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99.9%의 지원률을 보였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는 45~46% 정도, 성인 자녀는 21.7%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금액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 적정한 지원이나 자원의 배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매우 커 전체 자원 배분에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자녀 양육 가정의 입장에서 실제 양육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 영역에서는 경제활동 특성과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 일·가정양립 제도의 이용 경험을 다루었다. 취업자를 중심으로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6점으로 일·생활균형의 정도가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남성보다는 여성,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기혼 집단에서 일·생활균형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 이용 경험에서, 첫째 자녀 때 제도적으로 이용 가능한 취업자의 88.1%, 둘째 자녀 때는 89.4%가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아휴직 제도 이용 경험에서, 첫째 자녀 때 제도적으로 이용 가능한 취업자의 44.4%, 둘째 자녀는 35.5%가 이용하였다. 육아휴직 총 이용기간은 첫째 자녀 때 12.2개월, 둘째 자녀 때 12.6개월이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첫째 자녀 때 48.9%, 둘째 자녀 때 46.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이용기간은 첫째 자녀 5.5일, 둘째 자녀 5.4일이었다.

최근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출산년도가 최근일수록 일·가정양립 제도의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생활균형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집단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남아있다.

다섯째, 부모와의 관계 영역은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동거여부, 연락빈도, 경제적 교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혼한 응답자의 부모동거율은 극히 낮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의 부모동거율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미혼 범주 내에 연령의 다양성이 크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을 축적하여 부모로부터 주거를 분리할 개연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미혼인구 내에서 부모동거 여부는 점점 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혼시기와 결혼 여부가 개인의 선택 대상이 될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자녀는 결혼과 함께 자립하기 보다는 개별 가족의 경제적 자원, 독립 여건, 성인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립하

게 될 것이다. 다만, 성인자녀의 노동시장 진입 및 안착의 지연 등 노동시장 상황, 청년인구의 주택임대 및 주택구매 상의 불리함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특정한 주거형태가 강요되고 가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미혼 성인 자녀가 계속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성인 자녀의 규범적인 주거형태는 부모와의 비동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결혼한 성인자녀의 부모 비동거는 거의 보편적 현상이며, 자녀가 결혼한 이후의 부모 가구형태 변화(부부단독가구 또는 1인가구 증가)도 이미 일반적인 추세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부모와의 연락빈도가 세대간 정서적 교류 정도를 보여주고, 경제적 자원 교환 경험과 규모가 경제적 교류 정도를 보여준다면,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정서적 교류 정도와 경제적 교류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서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의 비율도 결코 미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교류 수준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더불어, 그 내부의 격차 또는 다양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독립과 지역 이동 영역은 가족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으로 독립과정에 특히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49세 개인 응답자는 18세 무렵 이후 대체로 부모로부터의 독립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독립은 대학 진학, 입직, 결혼과 같은 청년층이 경험하는 생애 주기 주된 사건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오랜 저출산 문제가 자녀 출산이라는 횡단면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요인과 생애 주기 사건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독립과정에 필요한 주택 비용은 대체로 젊은 청년일수록 주변 가족의 도움 정도가 크게 나타났고, 결혼과 함께 독립한 경우 주택 마련 비용의 금융기

관 대출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주택 마련 비용의 주변 가족 부담은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이동은 타 시도 간 이동에 비하여 동일 시도, 내지는 동일 시군구 내 이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 및 첫번째 입직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높은 특성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치와 인식 영역은 행복, 가족가치, 성역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치관 또는 인식의 특성을 다루었다. 여기서 다루는 가치와 인식의 주요 내용은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행동의 선택과 상호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배경에서 조사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으며, 5년 후에도 행복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족 가치에서 ‘결혼 필요성’은 이 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시계열 추세를 중요하게 관찰하는 문항이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0.5%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4.5%포인트 증가하였다. ‘자녀 필요성’ 문항 역시 이 조사에서 중요한 추세 관찰 문항으로, 응답 범주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7.8%,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는 40.2%로 전체 긍정적 응답 비율이 68.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조사보다 0.3%p 높은 수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서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거나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본인의 안정된 직업’ 16.2%,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10.6%, ‘주거 여건’ 7.1%,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6.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자녀수에 대한 인식은 집계된 사회적 수준에서 출산율의 중요한 대체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상자녀 수가 실제 실천으로 이행될지의 여부는 사회의 제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상 자녀 수의 추세 변화는 중요한 지표로 관찰되고 있다. 조사 결과 이상자녀수 평균은 1.83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021년 1.94명보다 0.11명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기혼자의 이상자녀수 평균은 1.95명, 미혼자의 이상자녀수 평균은 1.71명으로 0.24명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 가치를 분석 결과, 미혼자 집단이 자녀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 기혼자 집단보다 동의 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기혼자와 비교해 미혼자가 자녀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 가치 측면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전체 수준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성 평등적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전체 수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면, 성 역할 인식이 과거보다 더 평등하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평등 인식에서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22.8%포인트 적었다. 성평등 인식에서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들은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성평등 인식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예측 가능성에 긍정적 태도로 응답한 비율은 낮

은 수준(36.0%)이며,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른 미래 예측 가능성의 차이는 잘 드러나고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임신과 출산 지표는 2021년보다 악화하였다. 평균 임신 횟수, 임신 결과로써의 평균 출생 횟수, 실제 평균 출생아수, 가치의 측면인 이상자녀수 모두 2021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인식의 수준에서 결혼 필요성에 긍정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지만 자녀 필요성에 긍정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다. 성 역할 인식이 과거보다 더 평등하게 개선되었지만,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22.8%p나 적었다. 자녀의 부양 책임은 대학 졸업이나 혼인 등 성인 이후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부모들은 대부분으로 과도한 부양책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성인기 독립과정에서 필수 조건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혼 전에는 주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이며, 결혼과 함께 독립하는 때에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커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주변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식의 차원이나 현실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모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성인으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인구학적으로 출산 결정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어떤 정책이 출산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매우 먼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을 예외로 하면, 대부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결혼과 출

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지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출산 결정의 메커니즘을 너무 조급하게 앞당기고자 한다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출산 대응 정책은 주로 출산가구에 집중해왔다. 그 이유는 더 빠른 정책 성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출산한 또는 출산할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바로 후속 출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시계를 더 넓게 보고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 혼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이 성인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관계부처합동.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 대한민국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 대한산부인과학회. 의학정보 <https://ksog.org/public/index.php>에서 2024. 12. 5. 인출.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혜정,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617>에서 2024. 12. 5. 인출.
- 질병관리청. (2024). 국가건강정보포털 산후우울증,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327에서 2024. 12. 5. 인출.
- 우해봉, 이지혜. (2019).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오수영, 손인숙. (2021).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 지표에 대한 고찰.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1), pp.1-9.
- 이소영, 이상립, 조성호, 최인선. (2015). 산후조리원 적정 운영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임지영. (2017). 산후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2). 2022년 인구총조사 원자료 분석.
-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Ajzen, I. (1987). Attitudes, traits, and actions,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1-63.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ecker, G. S., & Lewis, H. 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S279-S288.
- Kotelchuck M. (1994). The Adequacy of Prenatal Care Utilization Index: its US distribution and association with low birthweight. *Am J Public Health*. 1994 Sep, 84(9), 1486-9.
- WHO (2023). Infertility Prevalence Estimates, 1990-2021.
- WHO. Breastfeeding, https://www.who.int/health-topics/breastfeeding#tab=tab_2 에서 2024. 12. 5. 인출.
- WHO (2013). Recommendations on Postnatal Care of the Mother and Newborn.
- Wojcieszek, A. M., Bonet, M., Portela, A., Althabe, F., Bahl, R., Chowdhary, N., ... & Oladapo, O. T. (2023). WHO recommendations on maternal and newborn care for a positive postnatal experience: strengthening the maternal and newborn care continuum. *BMJ Global Health*, 8(Suppl 2), e010992. doi: 10.1136/bmjgh-2022-01092.



[부록 1]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조사표

승인번호
제 331001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기일: 2024년 7월 1일 오전 0시 현재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족과 출산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 국민의 가족 구성, 임신·출산의 경험과 건강, 자녀 양육, 가족생활의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국가지정통계' 조사로 만 19~49세 성인 남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 가구는 전체 약 1만 가구이며,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지역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귀댁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표본 가구로서 전국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조사 내용 문의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중서 연구기획조정실장 공동연구자: 이지혜 부연구위원, 정희선 전문연구원 (044-287-8264, 044-287-8273)	조사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데이터조사관리팀: 정유림 전문원, 윤열매 전문원 (044-287-8123, 044-287-8156)
----	---	------	---

조사표 NO.	지역 코드	조사구 번호	조사구 특성	거처 번호	가구 번호
			-		

주소 (도로명 기준)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	--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방문 횟수	방문 일시	방문 결과		
1	__월 __일 __시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대상 제외	③ 미완(<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조사 중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2	__월 __일 __시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대상 제외	③ 미완(<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조사 중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3	__월 __일 __시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대상 제외	③ 미완(<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조사 중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6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2-1-2. 귀하는 앞으로 그분과 혼인신고를 하실 것입니까?

- ① 전혀 할 계획이 없다 ②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아마 할 것이다 ④ 확실히 할 것이다
- ⑤ 모르겠다

2-1-3. 귀하는 그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약간 있었다	지주 있었다
1)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주거정책, 건강보험, 세금제도 등)	①	②	③	④
2) 서로 법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 제약(병원, 행정 등)	①	②	③	④
3) 금융·일상생활 서비스 혜택 등에서 제한(대출, 가족 간 마일리지 통합, 요금제 결합 등)	①	②	③	④
4) 가족 및 친족과의 관계에서 위축	①	②	③	④
5) 지역, 직장, 사교 모임 등에서 부정적 시선	①	②	③	④
6) 자녀를 갖기 위한 의학적 시술이나 지원 등에서 차별	①	②	③	④

☛ 응답 후 문항 3으로

▶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법률혼)과 사실혼인 경우(별거 제외) ◀

3.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 ① 결혼식을 하였다 (_____년 _____월)
- ②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년 월

4.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언제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십니까?

- ① _____년 _____월부터 같이 살았다
- ② 같이 산 적이 없다

년 월

5.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
- ② 결혼식을 한 시점
- ③ 혼인신고를 한 시점
- ④ 기타(예. 약혼일, 임신일, 가족에게 소개한 날 등) _____ : _____년 _____월

년 월

6. 귀하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할 때, 다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하였다	조금 고려하였다	보통이다	많이 고려하였다	매우 많이 고려하였다
1) 사랑(연애)의 실현 또는 완성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	①	②	③	④	⑤
3) 인생의 동반자관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4) 가족·사회의 기대 충족, 지위의 인정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1) 과 매우 만족(10) 사이에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결혼생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응답 후 문항 21로

▶ **결혼하지 않고 사귀는 사람(애인, 파트너)과 함께 사는 경우** ◀

8. 귀하는 현재 사귀는 사람(애인, 파트너)과 언제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년 월
9. 귀하는 현재 사귀는 사람(애인, 파트너)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 친구 ② 직장 동료 ③ 부모님
 ④ 형제자매 ⑤ 기타 () ⑥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10. 귀하가 현재 사귀는 사람(애인, 파트너)과 동거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연애 중 자연스럽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② 주거비, 생활비 등을 아끼기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
 ③ 안전한 주거 공간이 필요하여
 ④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여
 ⑤ 기타 ()

11. 귀하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애인, 파트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1-1. 연령(영력 기준)	11-2. 성	11-3. 교육 수준	11-4. 경제활동 상태
만연령	① 남 ② 여	① 고졸 이하 ② 대학(교) 재학 중(휴학 포함)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① 취업 ② 실업(구직 중) ③ 비경제활동
만 <input type="text"/> 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구원 및 가족 사항에서 응답한 경우는 응답하지 않고 '가구원 및 가족 번호'를 기입합니다. 가구원 및 가족 번호:

☞ 응답 후 문항 12로

▶ **결혼하지 않고 사귀는 사람(애인, 파트너)이 있는 경우** ◀

12. 귀하는 현재 사귀는 사람(애인, 파트너)과 결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예 ☞ 문항 13
 ② 아니요 ☞ 문항 14
 ③ 모르겠다 ☞ 문항 14
13. 귀하는 현재 사귀는 사람(애인, 파트너)과 앞으로 3년 이내에 결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예 ☞ 문항 14
 ② 아니요 ☞ 문항 13-1
 ③ 모르겠다 ☞ 문항 13-1

13-1. 그분과 3년 이내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이 때문에
- ② 결혼을 좀 더 늦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 ③ (나 또는 상대방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 ④ (나 또는 상대방의) 현재 일자리가 좋지 못해서(고용불안정, 소득 불안정 등)
- ⑤ (나 또는 상대방이) 결혼하는 데 필요한 돈을 아직 모으지 못해서(결혼비용, 주택관련 비용 등)
- ⑥ (나 또는 상대방이)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해서
- ⑦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어려워서
- ⑧ (나 또는 상대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 없어서
- ⑨ 기타 ()

☞ 응답 후 문항 14로

▶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 ◀

14. 귀하는 결혼하지 않고 사귀는 사람(애인, 파트너)과 동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 문항 15 |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
| ③ 약간 그렇다 | ☞ 문항 14-1 |
| ④ 매우 그렇다 | |
| ⑤ 동거 중이다 | |

14-1. 귀하가 생각하는 동거는 결혼과 관련하여 다음 보기 중 어떤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① 일단 동거하며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결혼하기로 결정한 후에 동거한다
- ③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동거만 한다

15. 귀하는 앞으로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결혼(재혼)할 생각이 있다 | ☞ 문항 16 |
| ② 과거(이혼, 사별, 별거 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 ☞ 문항 18 |
| ③ 과거(이혼, 사별, 별거 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 |
| ④ (이혼, 사별, 별거 후) 생각에 본 적이 없다 | ☞ 문항 20 |
| 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 |

▶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문항 15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

16. 귀하는 결혼(재혼)한다면 몇 세에 결혼하심 생각입니까?
 ① 만 _____ 세
 ② 모르겠다

만 세

17. 귀하가 결혼하고자 할 때, 다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할 것 같습니다?

구분	매우 조금 고려할 것이다	조금 고려할 것이다	보통이다	많이 고려할 것이다	매우 많이 고려할 것이다
1) 사람(연예)의 실현 또는 완성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	①	②	③	④	⑤
3) 인생의 동반자관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4) 가족·사회의 기대 충족, 지위의 인정	①	②	③	④	⑤

☞ 응답 후 문항 20으로

▶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문항 15에서 ②, ③에 응답한 경우) ◀

18.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혼자 사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② 결혼(가족) 제도가 남자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서
 ③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④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해서
 ⑤ 돈이 없어서
 ⑥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⑦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⑧ 기타 ()

19. 결혼하지 않는다면, 중년기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복수 응답)
 ① 혼자 ② 본인의 부모 ③ 형제자매
 ④ 비혈연/비상업적 타인(친구 등) ⑤ 자녀
 ⑥ 애인 또는 파트너 ⑦ 기타 (누구:)

☞ 응답 후 문항 20으로

20. 귀하는 현재 결혼(또는 재혼)하지 않아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분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약간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주거정책, 건강보험, 세금제도 등)	①	②	③	④
2) 금융·일상생활 서비스 혜택 등에서 제한(대출, 가족 간 마일리지 통합, 요금제 결합 등)	①	②	③	④
3) 가족 및 친족과의 관계에서 위축	①	②	③	④
4) 지역, 직장, 사교 모임 등에서 부정적 시선	①	②	③	④
5) 자녀를 갖기 위한 의학적 시술이나 지원 등에서 차별	①	②	③	④

영역 2. 임신·출산 건강

1. 건강과 피임에 관한 사항

응답자: 모든 개인

1. 귀하는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생식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하십니까?

※ 여성: 생리불순, 생리통, 질 분비물 이상 등 생식계 증상
 ※ 남성: 성기능장애, 요도염,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 등

① 예 **문항 2** ② 아니요 **문항 3**

2. 귀하는 해당 증상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병의원(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보건(지)소 방문 ② 한의원·한방병원 방문
 ③ (비치방) 약국 방문 ④ 민간요법 등 이용
 ⑤ 기타 ⑥ 아무 대처하지 않음

※ **병의원·보건(지)소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①번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문항 2-1로**

※ **병의원·보건(지)소를 선택한 경우**(①번 항목을 선택한 경우) **문항 3으로**

2-1. 해당 증상으로 병의원(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보건(지)소에 가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병의원이 없어서 ② 진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③ 시간이 부족해서 ④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⑤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알고 싶지 않아서 ⑥ 급방 회복될 것 같아서
 ⑦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⑧ 기타 ()

3. 귀하는 피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문항 3-1**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문항 3-1** ③ 모른다 **문항 4**

3-1. 귀하는 피임에 대한 지식을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 ① 병의원(산부인과) 등 의료시설 ② 보건(지)소,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③ 잡지, 책 ④ 인터넷(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유튜브 등)
 ⑤ 학교(교육) ⑥ 배우자·애인 등 상대방
 ⑦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친척 ⑧ 친구, 선후배 등 지인
 ⑨ 기타 ()

4. 귀하는 성관계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항 5** ② 없다 **문항 12**

5. 귀하는 현재 배우자·애인 등 성관계 상대와 피임을 하십니까?

(※ 피임은 콘돔, 피임약, 피임장치, 정관절재수술, 난관절재수술, 질외임, 월경주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한다 **문항 5-1** ② 하지 않는다 **문항 5-2**
 ③ 임신 중이다 **문항 6** ④ 상대가 없다 **문항 6**

5-1. 귀하와 배우자·애인 등 성관계 상대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피임을 하십니까?

5-1-1. 다음 중 이용하시는 피임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5-1-2. 선택하신 피임 방법 중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피임 방법]	
<input type="checkbox"/> ① 콘돔(남성용)	<input type="checkbox"/> ② 페미돔(여성)
<input type="checkbox"/> ③ 질 내 삽입기구(베서리, 스펀지)	<input type="checkbox"/> ④ 살정제(질좌제 형태의 약제)
<input type="checkbox"/> ⑤ 경구 피임약	<input type="checkbox"/> ⑥ 주사 피임제(사아나 등)
<input type="checkbox"/> ⑦ 피하이식 호르몬제(임플란트는 등)	
<input type="checkbox"/> ⑧ 자궁 내 피임장치(IUD) [구리 루프, 호르몬 루프(미레나, 제이디스)]	
<input type="checkbox"/> ⑨ 응급 피임약(사후)	<input type="checkbox"/> ⑩ 여성 반영구 피임술(난관절제수술 또는 난관결찰수술)
<input type="checkbox"/> ⑪ 남성 반영구 피임술(정관절제수술 또는 정관결찰수술)	
<input type="checkbox"/> ⑫ 월경주기 이용	<input type="checkbox"/> ⑬ 질외사정
<input type="checkbox"/> ⑭ 기타 방법 ()	

5-1.2.

--	--

☛ 응답 후 문항 6으로

5-2. 귀하가 피임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임신하기를 원해서
- ② 건강에 좋지 않아서
- ③ 피임할 필요가 없어서(난임, 환경(배경) 등의 상태이므로)
- ④ 피임 도구(콘돔 등) 사용이 불편해서
- ⑤ 피임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 ⑥ 피임 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 ⑦ 성관계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 ⑧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 ⑨ 상대방이 피임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 ⑩ 기타 ()

--	--

6. 피임과 관련된 결정(피임 여부, 피임 방법 등)은 누가 하십니까?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주로 내가 한다
- ② 나와 상대방이 함께 한다
- ③ 주로 상대방이 한다

--

7. 귀하는 산후우울증으로 산후우울증 진단 검사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항 7-1** ② 없다 **☞ 소영역 III**

7-1. 산후우울증 진단 검사 또는 상담은 주로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① 보건(자)소 또는 보건의료원 ② 산부인과 ③ 정신건강의학과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⑤ 한의원·한방병원 ⑥ 심리상담소
 ⑦ 산후조리원 ⑧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⑨ 기타()

III. 수유

8. 귀하는 출산 전에 수유 방법을 계획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어떠한 수유 방법을 계획하셨습니까?

① 완전 모유 수유 ② 모유 수유 + 인공 수유 ③ 인공 수유
 ④ 계획하지 않았다

9. 귀하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문항 11**

9-1. 아이에게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모유를 먹이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0. 귀하는 현재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계십니까?

① 예 → 10-1. 언제까지 모유 수유를 하실 계획입니까? 생후 _____개월 _____주
 ② 아니요 → 10-2. 언제 모유 수유를 완전히 중단하셨습니까? 생후 _____개월 _____주

11. 귀하는 아이에게 어떤 형태로 수유를 하셨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수유 형태(모유, 조제분유, 보충식 등)에 대하여 아기 월령별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조사원 확인 사항
 ※조사 전: 0) 임신 회차: _____
 1) 조사 대상 아이의 현 월령: 생후 _____일(생후 몇 개월 몇 주 며칠) (CAPI 연계)
 ※조사 후: 문항 9 및 문항 10과 아래 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구분	신생아기: 주수별 구분 (주 단위 - 1개월 미만)				월령별 구분 (출생일 기준으로 월 단위 - 1개월~23개월)																	
	1주 미만	2주 미만	3주 미만	4주 미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17개월	18-23개월		
1. 모유																						
수2. 인공유(분유)																						
유합액																						
태4. 우유(생우유, 멸균우유)																						
5. 유아식																						

※ 생후 28일부터 1개월로 계산하고, 그 이후는 출생일 기준으로 월령으로 기록합니다. 출생일이 25일이면, 다음 달 24일까지 1개월로 계산합니다.

영역 4. 자녀 양육

I.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돌봄

응답자: 0세~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표 응답자

※ 비동거 자녀도 모두 포함합니다. 영유아 자녀가 없으면 <소영역 II. 초등학교 재학 자녀 돌봄>으로 이동합니다.

1. 귀하는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중 막내 자녀를 주간에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미취학 자녀 중 막내 자녀 가구원 및 가족 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1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영유아 자녀 중 막내 자녀는 현재 만으로 몇 살입니까? <input type="text"/>																					
1-2. 영유아 자녀 중 막내 자에게 대한 돌봄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사람)는 무엇(누구)입니까? (주원 순서대로 보기에서 2순위까지 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 한 가지 돌봄 서비스(사람)만 희망한다면 2순위는 '없음'으로 응답합니다.																					
1-3. 영유아 자녀 중 막내 자녀의 돌봄을 위해 어떤 서비스(사람)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으십니까? (주원 순서대로 보기에서 2순위까지 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 한 가지 돌봄 서비스(사람)만 이용하고 있다면 2순위는 '없음'으로 응답합니다.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① 국공립 어린이집</td> <td style="border: none;">② 직장 어린이집</td> <td style="border: none;">③ 가정·민간 어린이집</td> <td style="border: none;">④ 기타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등)</td> </tr> <tr> <td style="border: none;">⑤ 국공립 유치원</td> <td style="border: none;">⑥ 사립 유치원</td> <td style="border: none;">⑦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육단 등)</td> <td style="border: none;">⑧ 기타 사설학원(사설 공부방 등)</td> </tr> <tr> <td style="border: none;">⑨ 본인</td> <td style="border: none;">⑩ 배우자</td> <td style="border: none;">⑪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td> <td style="border: none;">⑫ 시부모님(부모님)</td> </tr> <tr> <td style="border: none;">⑬ 기타 친인척</td> <td style="border: none;">⑭ 민간 돌보미(시터)</td> <td style="border: none;">⑮ 아이돌보미(경부)</td> <td style="border: none;">⑯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td> </tr> <tr> <td style="border: none;">⑰ 아이의 형제자매</td> <td style="border: none;">⑱ 아이 혼자</td> <td style="border: none;">⑲ 기타 ()</td> <td style="border: none;">⑳ 없음</td> </tr> </table>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② 직장 어린이집	③ 가정·민간 어린이집	④ 기타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등)	⑤ 국공립 유치원	⑥ 사립 유치원	⑦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육단 등)	⑧ 기타 사설학원(사설 공부방 등)	⑨ 본인	⑩ 배우자	⑪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	⑫ 시부모님(부모님)	⑬ 기타 친인척	⑭ 민간 돌보미(시터)	⑮ 아이돌보미(경부)	⑯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	⑰ 아이의 형제자매	⑱ 아이 혼자	⑲ 기타 ()	⑳ 없음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② 직장 어린이집	③ 가정·민간 어린이집	④ 기타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등)																		
⑤ 국공립 유치원	⑥ 사립 유치원	⑦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육단 등)	⑧ 기타 사설학원(사설 공부방 등)																		
⑨ 본인	⑩ 배우자	⑪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	⑫ 시부모님(부모님)																		
⑬ 기타 친인척	⑭ 민간 돌보미(시터)	⑮ 아이돌보미(경부)	⑯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																		
⑰ 아이의 형제자매	⑱ 아이 혼자	⑲ 기타 ()	⑳ 없음																		

II.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돌봄

응답자: 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표 응답자

※ 비동거 자녀도 모두 포함합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없으면 <소영역 III. 부부의 육아 부담>으로 이동합니다.

2. 귀하는 초등학교 자녀 중 막내 자녀를 방과 후에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 방학이 아닌 학기 중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자녀 중 막내 자녀 가구원 및 가족 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1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초등학교 자녀 중 막내 자녀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input type="text"/>																					
2-2. 초등학교 자녀 중 막내 자녀를 방과후에 맡기기를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사람)는 무엇(누구)입니까? (주원 순서대로 보기에서 2순위까지 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 한 가지 돌봄 서비스(사람)만 희망한다면 2순위는 '없음'으로 응답합니다.																					
2-3. 초등학교 자녀 중 막내 자녀를 방과후에 실제로 어디에(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주원 순서대로 보기에서 2순위까지 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 한 가지 돌봄 서비스(사람)만 이용하고 있다면 2순위는 '없음'으로 응답합니다.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① 초등돌봄교실</td> <td style="border: none;">② 방과후 학교</td> <td style="border: none;">③ 놀봄학교</td> <td style="border: none;">④ 지역아동센터</td> </tr> <tr> <td style="border: none;">⑤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케어센터)</td> <td style="border: none;">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td> <td style="border: none;">⑦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시설</td> <td style="border: none;">⑧ 본인</td> </tr> <tr> <td style="border: none;">⑨ 배우자</td> <td style="border: none;">⑩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td> <td style="border: none;">⑪ 민간 돌보미(시터)</td> <td style="border: none;">⑫ 아이돌보미(경부)</td> </tr> <tr> <td style="border: none;">⑬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td> <td style="border: none;">⑭ 아이의 형제자매</td> <td style="border: none;">⑮ 아이 혼자</td> <td style="border: none;">⑯ 기타 ()</td> </tr> <tr> <td style="border: none;">⑰ 없음</td> <td style="border: none;">⑱ 없음</td> <td style="border: none;">⑲ 없음</td> <td style="border: none;">⑳ 없음</td> </tr> </table>	① 초등돌봄교실	② 방과후 학교	③ 놀봄학교	④ 지역아동센터	⑤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케어센터)	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⑦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시설	⑧ 본인	⑨ 배우자	⑩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	⑪ 민간 돌보미(시터)	⑫ 아이돌보미(경부)	⑬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	⑭ 아이의 형제자매	⑮ 아이 혼자	⑯ 기타 ()	⑰ 없음	⑱ 없음	⑲ 없음	⑳ 없음	
① 초등돌봄교실	② 방과후 학교	③ 놀봄학교	④ 지역아동센터																		
⑤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케어센터)	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⑦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시설	⑧ 본인																		
⑨ 배우자	⑩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	⑪ 민간 돌보미(시터)	⑫ 아이돌보미(경부)																		
⑬ 방문교육(미술, 한글 등) 교사	⑭ 아이의 형제자매	⑮ 아이 혼자	⑯ 기타 ()																		
⑰ 없음	⑱ 없음	⑲ 없음	⑳ 없음																		

Ⅲ. 부부의 육아 부담

※ 0세~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단순 동거 제외) 두 사람 모두 본인과 상대에 대해서 각각 응답합니다.
 ※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주말부부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육아는 0세~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의미하며,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0세~초등 재학 자녀가 있는 부부 각각 (법륜혼·사실혼인 남녀 각각, 함께 사는 경우)

3. 귀하와 배우자는 육아를 하루에 몇 시간쯤 하십니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 대답해 주십시오.
 (※ 학습지도도 육아 시간에 포함합니다.)

구분	평일(1일 평균)	주말(1일 평균)
1) 응답자	□□ 시간 □□ 분	□□ 시간 □□ 분
2) 배우자	□□ 시간 □□ 분	□□ 시간 □□ 분

배우자 가구원 및 가족 번호 □□

3-1. 귀하와 배우자의 육아 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응답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2. 귀하는 평소 배우자와 육아를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약간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 0세~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개인 모두 ◀

4. 다음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키우면서 귀하는 다음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잘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들만큼 많이 지원해주지 못해 속상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심리적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70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IV. 자녀 양육비 및 생활 지원

응답자: 대표 응답자

5. 귀하는 자녀를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6. 귀하는 (올해 1월~6월에) 자녀를 위해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자녀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첫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둘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셋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넷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다섯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나이 (가구원 사항 CAPI 연계)	만 [][]세				
1) 어린이집/유치원 재부담 비용 (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 만 원				
2) 초등학교 이상 공교육 재부담 비용, 대학(원) 학비 (등록금, 방과후학교, 학교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 만 원				
3) 사교육비 (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 만 원				
4) 돌봄비용 (조부모, 아이돌보미, 시터 등)	[][][] 만 원				
5) 보건의료비 (병원, 약국 등)	[][][] 만 원				
6) 용돈 및 교통통신비 (용돈, 교통비, 핸드폰 비용 등)	[][][] 만 원				
7) 여가문화생활비 (도서, 박물관 등 체험활동, 영화/스포츠 관람, 키즈카페 등)	[][][] 만 원				
8) 의복비 (의류, 교복비, 신발, 가방 등)	[][][] 만 원				
9) 기타귀분류 비용	[][][] 만 원				
10) 기타 (육아용품, 장난감, 떨어져 사는 자녀의 월세 등)	[][][] 만 원				
11) 총액(CAPI 자동 계산)	[][][] 만 원				

7. 귀하는 (올해 1월~6월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현금(현금대신 쓸 수 있는 현물 포함) 지원을 월평균 얼마 받으셨습니까? 자녀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첫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둘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셋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넷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다섯째 조사 대상 자녀 가원 및 가족 번호 [][]
나이 (가구원 사항 CAPI 연계)	만 [][]세				
총액	[][][] 만 원				

※ 자녀 양육과 관련한 현금 지원에는 첫만보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아 학비(유치원), 아동수당,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지자체의 양육수당(육아수당),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학생 장학금,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V. 부부의 가사 분담

응답자: 부부 각각(법률훈·사실혼인 남녀 각각, 함께 사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본인과 상대에 대해서 각각 응답합니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주말부부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문항 8>에서 '가사'는 육아를 제외한 집안일을 의미합니다.

8. 귀하와 배우자는 가사를 하루에 몇 시간쯤 하십니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 대답해 주십시오.

구분	평일(1일 평균)	주말(1일 평균)
1) 응답자	□□시간 □□분	□□시간 □□분
2) 배우자	□□시간 □□분	□□시간 □□분

배우자 거주원 및 가족 번호 □□□□

8-1. 귀하와 배우자의 가사 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응답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배우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2. 귀하는 평소 배우자와 가사를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③ 약간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영역 5. 일

응답자: 모든 개인

1. 귀하와 배우자의 현재 경제활동 상황은 어떠합니까? 주 직업을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응답자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가구원 및 가족 사항)의 경제활동 상태와 동일하게 아래 (문항 1-1)에 기입합니다. (CAPI 연계)
- 응답자와 배우자가 각각 응답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응답자가 '배우자의 현 취업 상황'을 응답합니다.

구분	응답자의 현 취업 상황		배우자의 현 취업 상황	
	가구원 및 가족 번호 <input type="text"/>		가구원 및 가족 번호 <input type="text"/>	
1-1. 경제활동 여부 ※ 가구원 사항의 경제활동 상태 응답값 확인(CAPI 연계)	① 취업 <input type="checkbox"/> ② 실업(구직 중) ※ 문항 4 <input type="checkbox"/> ③ 비경제활동 ※ 문항 3 <input type="checkbox"/>		① 취업 <input type="checkbox"/> ② 실업(구직 중) <input type="checkbox"/> ③ 비경제활동 <input type="checkbox"/>	
1-2. 평소애 실제로 일하는 주당 근로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주당 <input type="text"/> 시간	
1-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세전 월평균 금액	월평균 <input type="text"/> 만 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만 원	
1-4. 직종 ※ 응답자가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후 조사연도 응답 내용을 토대로 직업분류표에 따라 번호 입력	①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② 원장 및 관련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③ 사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④ 서비스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⑤ 판매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⑥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⑧ 장차기제조작 및 조립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⑨ 단순노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⑩ 군인 <input type="checkbox"/>		①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② 원장 및 관련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③ 사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④ 서비스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⑤ 판매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⑥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⑧ 장차기제조작 및 조립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⑨ 단순노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⑩ 군인 <input type="checkbox"/>	
1-5. 업종 ※ 응답자가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후 조사연도 응답 내용을 토대로 산업분류표에 따라 번호 입력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input type="checkbox"/> ② 광업 <input type="checkbox"/> ③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input type="checkbox"/>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input type="checkbox"/> ⑥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⑦ 도매 및 소매업 <input type="checkbox"/> ⑧ 운수 및 창고업 <input type="checkbox"/> ⑨ 숙박 및 음식점업 <input type="checkbox"/> ⑩ 정보통신업 <input type="checkbox"/> ⑪ 금융 및 보험업 <input type="checkbox"/> ⑫ 부동산업 <input type="checkbox"/>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⑮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input type="checkbox"/> ⑯ 교육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input type="checkbox"/> ㉑ 국제 및 외국기관 <input type="checkbox"/>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input type="checkbox"/> ② 광업 <input type="checkbox"/> ③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input type="checkbox"/>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input type="checkbox"/> ⑥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⑦ 도매 및 소매업 <input type="checkbox"/> ⑧ 운수 및 창고업 <input type="checkbox"/> ⑨ 숙박 및 음식점업 <input type="checkbox"/> ⑩ 정보통신업 <input type="checkbox"/> ⑪ 금융 및 보험업 <input type="checkbox"/> ⑫ 부동산업 <input type="checkbox"/>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⑮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input type="checkbox"/> ⑯ 교육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input type="checkbox"/> ㉑ 국제 및 외국기관 <input type="checkbox"/>	
1-6. 직장 유형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input type="checkbox"/>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부처·출자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input type="checkbox"/>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input type="checkbox"/> ⑤ 민간 소기업(5~49인) <input type="checkbox"/>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① 정부기관(공무원 및 군인, 국공립 교사 등) <input type="checkbox"/>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부처·출자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input type="checkbox"/>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input type="checkbox"/> ⑤ 민간 소기업(5~49인) <input type="checkbox"/>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input type="checkbox"/>	
1-7. 종사상 지위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문항 1-9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문항 1-9 <input type="checkbox"/> ③ 무급가족종사자 ※ 문항 1-9 <input type="checkbox"/> ④ 상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⑤ 임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⑥ 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문항 1-9 <input type="checkbox"/>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문항 1-9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문항 1-9 <input type="checkbox"/> ③ 무급가족종사자 ※ 문항 1-9 <input type="checkbox"/> ④ 상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⑤ 임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⑥ 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문항 1-9 <input type="checkbox"/>	

374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5. 귀하는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6회 이상일 경우 같은 양식으로 계속 이어서 응답합니다. (첫 일자리가 현재 일자리로 지속될 경우, 동일한 항목은 CAPI로 연계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경우, 직업 질문에서 5-2 일자리 종료 시기 문항은 "9999년 99월", 5-6 퇴사 시 임금 문항은 "99999만 원"으로 입력합니다.)

구분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	네 번째 일자리	다섯 번째 일자리	여섯 번째 일자리
	① 재직중 <input type="checkbox"/> ② 퇴사 <input type="checkbox"/>					
5-1. 최종학교 졸업 시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졸업한 시점을 기입. 중퇴 또는 수료한 경우 학업이 중단된 시점을 기입)					
5-2. 일자리 시작 및 종료 시기 일자리 시작: _____년 _____월 일자리 종료: _____년 _____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5-3. 총사상 자립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문항 5-5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문항 5-5 ③ 무급가족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문항 5-5 ④ 상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⑤ 임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⑥ 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문항 5-5	<input type="checkbox"/>					
5-4. 정규직 여부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비정규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5. 직종 유형 ① 정부/지방공무원 및 군인, 국립 교사 등 ②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 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보조투자기관, 자회사, 계열사) 등 ③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④ 민간 중기업(50~299인) ⑤ 민간 소기업(5~49인) ⑥ 개인사업체(5인 미만) ⑦ 기타 ()	<input type="checkbox"/>					
5-6. 월 임금(수입)	임사 시 임금(수입) ※ 세전 금액	<input type="text"/> 만 <input type="text"/> 원				
	퇴사 시 임금(수입) ※ 세전 금액	<input type="text"/> 만 <input type="text"/> 원				

▶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

6. 귀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도 안내] 아래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설명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한 안내입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취업한 여성이 출산한 경우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일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일간 인원이 지급되며, 30일(병동)이 이상은 45일(은 상한 21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은 만 8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8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또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부모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400만 원)를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간 사용할 수 있고, 유급 휴가입니다. 18개월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2024년 7월부터)에 대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써 단축 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첫째 조사 대상 자녀	둘째 조사 대상 자녀	셋째 조사 대상 자녀	넷째 조사 대상 자녀	다섯째 조사 대상 자녀
	임신 회차 <input type="checkbox"/>				
6-1.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 기간 ① 예 ()년 ()월 - ()년 ()월 ② 아니오 ③ 비확정(비취업, 비임금근로 대체)의 둘째 이상 등	<input type="checkbox"/>				
6-2. 육아휴직 이용 여부 ① 예 <input type="checkbox"/> 문항 6-3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문항 6-6 ③ 비확정(비취업, 비임금근로 등) <input type="checkbox"/> 문항 6-6	<input type="checkbox"/>				
6-3. 워킹맘/워킹대디 사용 여부 ① 예 ()회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4. 워킹맘/워킹대디 사용 기간 6-4-1. 최초 사용 기간 ()년 ()월 - ()년 ()월 6-4-2. 종사용 기간 ()개월	<input type="checkbox"/>				
6-5. 출산전후휴가 및 워킹맘을 안락하여 사용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확정(출산전후휴가 미사용, 비취업 비임금근로 대체)의 둘째 이상 등	<input type="checkbox"/>				
6-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이용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확정(비취업, 비임금근로 등)	<input type="checkbox"/>				
6-7.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여부 기간 ① 예 ()년 ()월 ② 아니오 ③ 비확정(배우자 없음, 배우자의 비취업, 배우자의 비임금근로, 대체)의 둘째 이상 등	<input type="checkbox"/>				
6-8. 배우자 육아휴직 이용 여부 기간 ① 예 ()년 ()월 - ()년 ()월 <input type="checkbox"/> 문항 7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문항 6 ③ 비확정(배우자 없음, 배우자의 비취업, 배우자의 비임금근로 등) <input type="checkbox"/> 문항 6	<input type="checkbox"/>				

7. 귀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전후로 다음의 사항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1)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의 가사노동 시간	①	②	③	④	⑤
3) 본인의 자녀 돌봄 부담	①	②	③	④	⑤
4) 본인의 가사 부담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돌봄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영역 6. 부모와의 관계

응답자: 모든 개인

※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부모나 양부모에 상관없이 귀하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응답자의 어머니와 아버지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생존해 계신 부모 한 분 또는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다 **문항 2**
- ② 한 분은 함께 살고 다른 한 분은 함께 살지 않는다 **문항 1-1**
- ③ 두 분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다 **문항 1-1**
- ④ 부모님이 안 계신다 **문항 2**

1-1. 귀하는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문자메시지, SNS, 카톡, 이메일) 하십니까?

- ① 매일
- ②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 ③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④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 ⑤ 한 달에 한 번 정도
- ⑥ 일 년에 서너 번 정도
- ⑦ 거의 또는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2. 귀하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십니까? 몇 남, 몇 녀 중 몇 때 이십니까? (돌아가신(사망한) 형제·자매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남, () 녀, () 제

 남 녀 제

▶ 대표 응답자가 본인의 부모에 대해 응답 ◀

3.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 직업에 대하여 아래 보기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구원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CAPI 연계)

※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생존 여부를 모름 경우, 문항 3-2, 3-5, 3-6은 조사하지 않고 문항 4로 이동합니다.

구분	아버지	어머니
3-1. 생존 여부	① 생존해 계신다 <input type="checkbox"/> ② 돌아가셨다 <input type="checkbox"/> ③ 모른다	① 생존해 계신다 <input type="checkbox"/> ② 돌아가셨다 <input type="checkbox"/> ③ 모른다
3-2. 동거 여부	① 동거 <input type="checkbox"/> ② 비동거 <input type="checkbox"/>	① 동거 <input type="checkbox"/> ② 비동거 <input type="checkbox"/>
3-3. 출생 연월	① 양력 (음력은 양력으로 환산함)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② 모름	① 양력 (음력은 양력으로 환산함)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② 모름
3-4-1. 교육 정도	① 무학 문항 3-5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2~3년제, 전문대 포함)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⑨ 모름	① 무학 문항 3-5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2~3년제, 전문대 포함)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⑨ 모름
3-4-2. 교육 상태	① 졸업 <input type="checkbox"/> ② 수료 <input type="checkbox"/> ③ 중퇴 ④ 재학 <input type="checkbox"/> ⑤ 휴학	① 졸업 <input type="checkbox"/> ② 수료 <input type="checkbox"/> ③ 중퇴 ④ 재학 <input type="checkbox"/> ⑤ 휴학

구분	아버지	어머니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까?	
3-5. 현재 취업 상태	① 취업 문항 3-6 <input type="checkbox"/> ② 비취업 문항 4 ③ 모름 문항 4	① 취업 문항 3-6 <input type="checkbox"/> ② 비취업 문항 4 ③ 모름 문항 4
3-6. 현재 직업	귀하의 부모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직업 보기 참조)	
	[직업 보기]	
	① 관리자 ③ 사무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모름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⑧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군인

[Cap] 귀하는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으십니까?
 ① 예 **문항 4**
 ② 아니요 **문항 5**

▶ 대표 응답자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응답 ◀

※ 다음은 배우자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친부모나 양부모에 상관없이 귀하가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배우자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4. 배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 직업에 대하여 아래 보기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구원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CAP1 연계)

※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생존 여부를 모름 경우, 문항 4-2, 4-5, 4-6은 조사하지 않고 문항 5로 이동합니다.

구분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4-1. 생존 여부	① 생존해 계신다 <input type="checkbox"/> ② 돌아가셨다 ③ 모른다	① 생존해 계신다 <input type="checkbox"/> ② 돌아가셨다 ③ 모른다
4-2. 동거 여부	① 동거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및 가족 번호 <input type="text"/> ② 비동거	① 동거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및 가족 번호 <input type="text"/> ② 비동거
4-3. 출생 연월	① 양력 (음력은 양력으로 환산함)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③ 모름	① 양력 (음력은 양력으로 환산함)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③ 모름
4-4-1. 교육 정도	① 무학 문항 4-5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2-3년제, 전문대 포함)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⑨ 모름	① 무학 문항 4-5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2-3년제, 전문대 포함)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⑨ 모름
4-4-2. 교육 상태	① 졸업 <input type="checkbox"/> ② 수료 ③ 중퇴 ④ 재학 ⑤ 휴학	① 졸업 <input type="checkbox"/> ② 수료 ③ 중퇴 ④ 재학 ⑤ 휴학

380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4-3.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나 보호자와 떨어져 산 시기의 주거비 금액과 분담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주거비 금액	주거비 분담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보호자, 가족(조부모, 형제자매 등)	금융기관 대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	기타 () (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빌린돈, 사채 등)
□□□□□□ 만 원	□□□□□□ 만 원	□□□□□□ 만 원	□□□□□□ 만 원	□□□□□□ 만 원

(※ 주거비는 주택 구입 비용과 임차 시 보증금만 포함하며, 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사, 친인척집 등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0원으로 기입합니다.)

4-4. 이 주택이 결혼 후 첫 주택(신혼집)이었습니까?

- ① 예 문항 4-5 ② 아니요 문항 4-4-1 ③ 비배당(미혼) 문항 4-5

4-4-1. 결혼 후 첫 주택(신혼집)의 주거비 금액과 분담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주거비 금액	주거비 분담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보호자, 가족(조부모, 형제자매 등)	금융기관 대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	기타 () (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빌린돈, 사채 등)
□□□□□□ 만 원	□□□□□□ 만 원	□□□□□□ 만 원	□□□□□□ 만 원	□□□□□□ 만 원

(※ 주거비는 주택 구입 비용과 임차 시 보증금만 포함하며, 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사, 친인척집 등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0원으로 기입합니다.)

4-5. 귀하가 만 18세 이후 처음으로 부모나 보호자와 떨어져 산 시기의 일상적 생활비용(월세 포함)의 분담 비율을 응답해 주십시오.

생활비용 분담 비율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보호자, 가족(조부모, 형제자매 등)	기타 ()
□□□□ %	□□□□ %	□□□□ %

4-6. 처음 떨어져 산 이후에 다시 본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1년 이상 함께 산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문항 4-6-1 ② 아니요 문항 5

4-6-1. 다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살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 종료, 직장 이동 등 부모의 집과 다시 가까워져서
 ② 혼자 사는 데 드는 비용(생활비, 주거비 등)이 부담스러워서
 ③ 떨어져 사는 것이 힘들어서(안전, 외로움 등)
 ④ 가사, 자녀돌봄 등과 관련해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⑤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돌보기 위해
 ⑥ 기타()

5. 귀하는 현재 부모에게서 어느 정도 독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완전히 독립했다 문항 5-1
 ② 상당히 독립했다
 ③ 약간 독립했다 문항 6
 ④ 독립하지 않았다

영역 8. 가치와 인식

응답자: 모든 개인

I. 종교와 행복

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없음 ② 개신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
2.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약간 행복하다 ④ 매우 행복하다
- 2-1. 모든 것을 고려할 때, 5년 후에 귀하는 어느 정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③ 약간 행복할 것 같다 ④ 매우 행복할 것 같다

II. 가족 가치

3.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⑤ 모르겠다
4. 귀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음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 구분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약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 |
|-------------------------------------|-------------------|-------------------|------------|------------|
| 1)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 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만 하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4)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5)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6)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7)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5. 귀하는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③ 없어도 무관하다 ④ 모르겠다

6. 귀하가 출산을 결정할 때(결정하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생각하였던) 것 2개를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가정의 경제적 여건 ② 본인의 안정된 직업 ③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 ④ 주거 여건 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⑥ 배우자의 육아 분담
 - ⑦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⑧ 본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용 가능성
 - ⑨ 기타 ()

1순위 2순위

7.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상자녀 수: 총 _____ 명
- ② 잘 모르겠다

총 명

8. 다음은 자녀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입니다. 귀하는 다음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①	②	③	④
3)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4)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①	②	③	④
5)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III. 성 역할

9. 다음은 가족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귀하는 다음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3)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4) 남성이려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더 좋다	①	②	③	④
6)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돈을 버는 일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15.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여성에게 약간 불평등	남녀평등	남성에게 약간 불평등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1) 교육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경제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⑤
3)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	①	②	③	④	⑤
4) 소득 수준	①	②	③	④	⑤
5) 국회, 행정부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6) 아동, 노인, 환자 등 돌봄 책임 분담	①	②	③	④	⑤
7) 건강 수준	①	②	③	④	⑤
8) 사회 전반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우리 사회(나라)에서 자신의 10년 후 미래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예측할 수 없다 ② 별로 예측할 수 없다
 ③ 약간 예측할 수 있다 ④ 매우 예측할 수 있다

17. 귀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약간 그럴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
1)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계속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6) 생활환경은 더 편리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부록 2]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조사원 명단

1. 조사 관리

성명	담당 업무	소속
김은주 팀장	조사 관리 총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데이터조사관리팀
정혜란 전문원	조사 관리 실무책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데이터조사관리팀
윤열매 전문원	조사 관리 실무책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데이터조사관리팀
송지은 전문원	데이터 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데이터조사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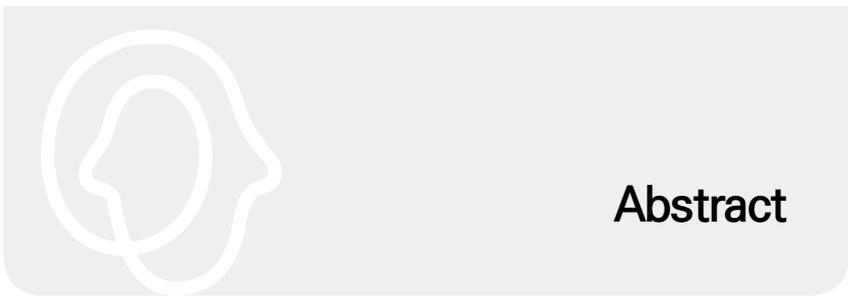
2. 조사원

구분	성명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참여 경력
전문조사지도원	김인숙	-	44년
전문조사지도원	김예숙	-	27년
1팀	김미녀	조사지도원	26년
	오춘길	조사원	4년
	송수진	조사원	2년
	이은지	조사원	1년
	정아영	조사원	1년
2팀	장순복	조사지도원	18년
	곽민성	조사원	11년
	문희정	조사원	7년
	정미옥	조사원	11년
	황혜미	조사원	1년
3팀	김예숙	전문조사지도원	27년
	조영미	조사원	3년
	양민희	조사원	1년
	이진영	조사원	1년
	손영남	조사원	1년
4팀	황금주	조사지도원	17년
	변정민	조사원	2년
	김숙	조사원	1년
	신은진	조사원	1년
	강해인	조사원	1년
5팀	조정애A	조사지도원	21년
	이문희	조사원	4년
	최영희	조사원	3년
	김선경	조사원	9년
	신종숙	조사원	1년

구분	성명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참여 경력
6팀	신소정	조사지도원	23년
	탁은옥	조사원	11년
	양미옥	조사원	14년
	차은주A	조사원	11년
7팀	최승희	조사지도원	21년
	김숙영	조사원	21년
	채명숙	조사원	21년
	황길남	조사원	7년
	신자현	조사원	1년
8팀	최영래	조사지도원	21년
	최시현	조사원	22년
	양정아	조사원	20년
	홍성애	조사원	1년
9팀	김성희	조사지도원	17년
	이순인	조사원	18년
	조혜숙	조사원	2년
	신채연	조사원	11년
	배은미	조사원	1년
10팀	김진금	조사지도원	18년
	김진란	조사원	12년
	김유희	조사원	20년
	최향일	조사원	21년
	김은정	조사원	1년
11팀	김인숙	전문조사지도원	44년
	김윤아	조사원	5년
	현혜진	조사원	8년
	정현주	조사원	8년
	정경희	조사원	11년
12팀	최순덕	조사지도원	24년
	정용래	조사원	5년
	양인숙	조사원	8년
	김소영	조사원	3년
	박요나	조사원	3년
13팀	방기숙	조사지도원	24년
	금경아	조사원	12년
	김운선	조사원	12년
	김매향	조사원	2년
	김미숙	조사원	2년
14팀	이인화	조사지도원	32년
	이청희	조사원	9년
	이접숙	조사원	3년
	문영주	조사원	4년
	이정열	조사원	1년

390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분	성명	역할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조사 참여 경력
15팀	김신형	조사지도원	21년
	김혜숙	조사원	17년
	하혜영	조사원	2년
	김경미	조사원	5년
	안영희	조사원	3년
16팀	유미의	조사지도원	24년
	우명숙	조사원	23년
	손귀자	조사원	17년
	허혜영	조사원	5년
	조정애B	조사원	12년
17팀	김숙경	조사지도원	28년
	강현숙	조사원	7년
	이세진	조사원	16년
	이란주	조사원	13년
	조지애	조사원	13년
18팀	이정화	조사지도원	26년
	명금임	조사원	11년
	차수영	조사원	11년
	이은경	조사원	8년
	차은주B	조사원	1년
전문조사원	이갑순	-	19년
	이혜란	-	14년
	고래희	-	36년
	이현순	-	13년



Abstract

The 2024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Project Head: Park, Jongseo

The 2024 Family and Fertility Survey visited 10,500 households in 700 sample survey areas across the country to collect data from adults aged 19-49 and their spouses. A total of 10,387 households were surveyed, and 14,372 individuals aged 15-49 respond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data that captures changes in individuals' life courses and family formation paths, focusing on demographic behaviors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o analyze these patterns in dep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percentage of unmarried people willing to get married increased by more than 10% compared to 2021. However, those with positive expectations about their future marriage tend to prioritize companionship and economic stability over romantic love, unlike those who are already married. The ideal age for marriage for those wishing to marry is still in the early 30s. Despite increased willingness to marry, if the age at which people get married remains in the 30s, it may be difficult to expect a tangible increase in the marriage rate.

Co-Researchers: Yi, Jihye · Jung, Heesun · Lee, Soyoung · Chang, Insu · Choi, Sunyoung · Lee, Hyejung,

There was little evidence of an increase in common-law marriages or unmarried cohabitation compared to 2021. While societal and individual acceptance of unmarried cohabitation as a flexible partnership has grown, this shift does not seem to translate into practice.

In the area of pregnancy and childbirth, 16.8% of married women reported experiencing infertility—slightly lower than in 2021. Among women aged 19-49, the average number of child-births decreased by 0.03, and the average total pregnancies by 0.14, while the pregnancy maintenance rate increased by 3.2 percentage points. The average number of live births for this age group decreased by 0.18 from 1.03 in 2021.

In terms of prenatal care, the average gestational age at the first visit was 5.6 weeks, with 95.7% of mothers receiving first-visit care before the eighth week. The average number of prenatal care visits was 13.2, and 98.9% of mothers made six or more visits, indicating an overall adequate level of prenatal care. The postpartum examination rate was high at 96.9%, only slightly lower than the pre-natal examination rate of 100%.

As for child-rearing, there was a strong preference for public kindergartens and preschools for preschool-aged children, suggesting that demand continues to outstrip supply.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however, private academies were the most preferred means of after-school care, reflecting both educational and care considerations. Only 12.1% of the re-

spondents believed that parents are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ir children only until high school graduation; the majority thought support should continue into adulthood.

Regarding economic activity, women, individuals in their late 30s to early 40s, and married people were more likely to feel difficulties in balancing work and life. The maternity leave use rate for their first child was 88.1%, while the parental leave use rate was 44.4%.

As for relationships with parents, the rate of married respondents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was extremely low, but the cohabitation rate among unmarried respondents was high even for adults. Despite many unmarried adult children continuing to live with their parents, the normative housing pattern is shifting toward -independent living.

In the area of independence and regional mobility, individuals aged 19 to 49 generally experienced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around age 18, often linked to major life events such as attending university, starting work, or getting married. Young adults tended to rely heavily on family support for housing costs, while those who moved out after marriage relied more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indicators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have declined overall. The average number of pregnancies, the average number of births resulting from pregnancy, the actual average number of children born, and the

value-based desired number of children all declined compared to 2021. Although the percentage of people agreeing with the necessity of marriage at the level of awarenes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percentage agreeing with the necessity of children only increased slightly. Although the perception of gender roles has become more balanced than in the past,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believe that men and women are equal in society was significantly lower for women than for men.

Most young people in Korea find it very challenging to become independent without the help of their familie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seems very difficult for young Koreans to become independent as adults due to negative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lack of awareness.

The government's policies to address the low birth rate have focused on families with children, as the government expected faster results. Now, it is necessary to view policies addressing the low birth rate from a broader perspective and focus on supporting young people during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develop policies to strengthen the economic foundation of young people so that they can become independent adults in society.

Key words: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Marriage, Pregnancy and Child birth, Low Fertility, Family Formation